

연구보고서

2005 한국인의 자원봉사·기부현황 조사연구

(1999년~2005년 자원봉사·기부현황비교)

책임연구원 : 이 강 현 (볼런티어21 사무총장)

공동연구원 : 김 성 경 (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윤 애 (볼런티어21 자원봉사리더십센터 소장)

이 성 록 (국립재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조사연구는 행정자치부 용역 및
자원봉사 애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05년은 한국 자원봉사계의 큰 경사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자원봉사 기본법이 통과되어 전국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운영의 설립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을 기대 하기 앞서 국가가 자원봉사자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정한 최초의 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블런티어21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인구의 자원봉사활동이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999년과 2002년의 14%, 16.3%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 참여율은 완만하지만 지금 성장가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에는 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하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노력과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의 성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까지 제정되었으니,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는 우리 생활에 더 넓게 파고 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긍지가 생깁니다.

얼마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로 미국 뉴올리언즈 도시 하나가 폐허가 되고 대규모 이재민이 생기는 재앙이 있었을 때도, 정부의 움직임과 대처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활동과 모금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대단한 힘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청년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한국에 대해서 잘못 소개되어있는 외국 사이트에 시정을 요청하는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의 활동을 펼쳐 세계 유명 사이트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고치게 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가를 바라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큰일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와 참여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 선진국이 되는 날에는 갈등과 소외, 부정부패, 환경파괴, 교육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불어 잘 사는 성숙한 사회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다가가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2005년 한국인의 자원봉사의식 및 활동현황 조사연구를 통해서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6년간의 자원봉사 변화의 추이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의 동기와 활동양상의 변화, 주요 활동층의 변화 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행정자치부와 (사)자원봉사에원의 지원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두 기관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이 조사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설문지 작성에서부터 보고서에 대한 의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문으로 이 보고서의 방향을 잡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태규 교수님,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김운호 교수님,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이선미 연구교수님, 자원봉사 애원의 곽신숙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아 집필과 연구방향을 잡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볼런티어21 이강현 사무총장님, 공동연구원으로서 집필 및 연구의 진행에 많은 역할을 한 볼런티어21 자원봉사리더십센터 박윤애 소장과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경 교수님,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이성록 교수님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담당해주신 한국갤럽과 보고서를 보기 좋게 편집하느라 애쓰신 김환용 선생님, 볼런티어 21의 이선영 간사님과 외국자료를 찾아주신 볼런티어21 박영숙 연구개발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0월

이 명 현
볼런티어 21 이사장
서울대 철학과
교수

축 사



‘2005 자원봉사의식조사’ 연구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이 조사 연구서가 나오기 까지 함께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도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간 문화예술을 통한 소외이웃들의 인격복지에 앞장서 왔던 애원으로서 과거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됐던 자원봉사 활동이 환경, 인권, 정치, 교육 등 모든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결과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봉사는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개인 너머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특히 애원은 봉사가 인간의 정서를 보듬으며 인격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은 서로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대안이며 더 이상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부와 시장이 채우지 못하는 사회의 틈새를 메우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봉사의 의미가 깊어감에도 그간 우리 사회에서 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인의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발전적 운동방향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가자가 증가하고 그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선진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연구에 애써주신 불런티어 21에 심심한 격려를 보내며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자료로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이경준 (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 이사장)

연 구 요 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의 기반이자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연계망 형성, 인간안보의 상호 부조 및 상호 신뢰와 같은 공동규범의 발전과 사회 조정 기능,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귀중한 사회자본을 축적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참가하는 개인에게도 유의한 경험 습득과 자아실현의 계기 내지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요한 근원이 되기도 한다.

기부활동 역시 개인을 돕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공익활동으로, 특히 교육과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어 정부와 시장이 채우지 못하는 사회의 필요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기부문화의 정착은 최근 사회적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영리민간조직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이다.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는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이다.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참가자가 증가하고 그 활동이 효과적, 효율적이 되어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과 필요에 대한 충족이 되도록 하려면 자원봉사자 및 기부자들의 참여 동기와 계기 및 과거경험, 그리고 활동을 지속 가능케 하는 여건 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단법인 볼런티어21의 전국 자원봉사활동 현황 조사를 1999년, 2002년도에 지원하였고(UNDP의 지원으로 기부현황 조사도 같이 수행), 2005년도에는 용역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원봉사 애원의 지원으로 이번 2005년도 조사는 2002년에 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문항 등을 늘려서 센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기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도 가능하였고, 또한 3년 전(2002년도) 및 6년 전(1999년도)에 비하여 자원봉사 현황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2005년도 조사연구는 1999년도 및 2002년 조사에 이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를 위한 전략과 자원봉사자 및 기부자 육성방안을 위해 많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며 자원 봉사 및 기부관련 지식의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탐색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 첫째,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하는가?
- 둘째,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이고 그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 셋째,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지속적인 활동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넷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성인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가?
- 다섯째, 각종 단체의 소속여부와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여섯째, 이웃 또는 따로 사는 가족과의 접촉과 사회적 사교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일곱째, 일반인들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이 신뢰도와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여덟째, 우리나라 기부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기부하며, 어떤 경로를 통하여 기부하는가?
- 아홉째, 기부자의 기부 회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 열 번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기부자의 기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향후 기부 참여 의향은 있는가?
- 열한 번째,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기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1) 조사대상자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중 인구비례확률추출법(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에 따라 추출된 1,611명을 그 대상으로

로 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다음 <표 I-3-1>과 같다.

<표 I-3-1> 조사대상자

구 분	2005			2002			1999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대	180	176	356	190	150	340	164	184	348
30대	200	205	405	190	294	484	226	280	506
40대	188	178	366	198	168	366	177	155	332
50대*	104	108	212	179	143	322	195	152	347
60세 이상	122	150	272						
계	794	817	1,611	757	755	1,512	762	771	1,533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2005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5일간 실시되었고,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한 1 : 1 개별면접조사로 평균 면접시간은 30분이었다.

2) 표본추출방법

이 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은 인구비례확률추출법(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의 원리에 따른 다단계 층화 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첫째, 지역별 층화로 전국을 광역행정단위별로 15개 층, 즉 7대 도시(특별시,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도로 나누고, 도는 다시 행정단위별로 시·읍·면으로 구분하였다.

- 둘째, 표본추출을 하기 전에 지역별, 지역크기별 모집단의 구성비에 따라 표본지점수를 계산하고, 모집단 비율은 [2004년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통계청, 1999)를 준거로 하며, 표본지점수는 시지역의 경우 지점당 6~8가구, 읍·면 지역은 지점당 10~12가구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산하여, 인구수 비례 할당을 하였다.

- 셋째, 최종 표본지점에 해당하는 실제 조사지점(반/리 단위)을 다단계로 추출하였다. 1 단계로는 광역시·도 중 추출된 시에서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점의 수만큼 동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해당 도에서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점의 수만큼 읍/면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2단계 추출로, 시·도에서 추출된 동의 통·반 리스트를 정리한 후 무작위로 통을 뽑고, 도에서 추출된 읍과 면에서 동/리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리에서 무작위로 반 또는 자연부락을 뽑아 최종조사지점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표본오차가 있으며, 표본오차의 크기는 1차적으로 표준오차로 나타내는데, 이 표본오차는 $\pm 2.5\%$ 포인트(95%신뢰수준)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자료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자료입력단계를 거쳐 오류를 점검하였으며, SPSS /WIN PC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요약

구 분	내 용
조사지역	전국(제주도 제외)
조사대상	만 20세 이상의 남녀
표본추출방법	3단 층화 무작위 추출
표본크기	1,611명
표본오차	$\pm 2.5\%$ 포인트(95% 신뢰수준)
조사방법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05년 3월 16일-30일(14일간)

II. 한국의 자원봉사자 특성 및 현황

1. 자원봉사 참여 실태

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 2005년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1,611명 중 331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자는 2002년도의 16.3%보다 4.2%, 1999년도 14%보다 6.5% 늘어난 20.5%를 차지하여, 총 728만 7천 388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면 3조 1천 7백 1십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2004년도 GDP(국내총생산, 778.444조원)의 0.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 실태

- ▷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2003년도 영국은 51%, 호주는 2004년도에 46%, 미국은 2001년도에 44%(2004년 정부 통계는 28%), 홍콩은 2001년도에 22%, 한국은 2005년도에 20.5%, 싱가포르는 2004년도에 15%로 나타났다.

다.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 참여 실태

- ▷ 전체 응답자 중 10.7%,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 중 52.3%에 해당하는 173명이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고 나타나, 자원봉사자들의 반수 이상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 지난 1개월간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정기적인 자원봉사자로 간주한다).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자원봉사자의 57.1%가 1개월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이다.

2. 자원봉사자의 특성

가.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 ▷ 지난 1년간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331명, 전체의 20.5%)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이 191명(57.7%)을 차지하고, 남성은 140명(42.3%)을 차지하여 여성참여율이 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9.8%, 2002년도에는 5.2%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남녀 응답자 가운데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남자 17.6%, 여자 23.4%로서 1999년도(12.7%, 15.3%) 및 2002년도(남자 15.5%, 여자 17.2%)에 비해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분포는 50대 이상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7.8%, 30대 21.8%, 20대 21.5%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를 다시 50대와 60대로 나누면 각각 15.4%, 13.6%로 전체적으로는 40대, 30대, 20대, 50대, 60대 순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60대를 포함한 50대 이상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응답자 중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비율을 보면 40대(25.1%)가 가장 높고, 50대(24.1%), 20대(20.0%), 30대(17.8%), 60대 이상(16.5%) 순으로 나타났다
- ▷ 혼인상태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74.9%가 기혼이며, 미혼이라고 한 경우는 22.4%, 이혼/사별한 경우도 약간이지만 2.7%가 있었다.
- ▷ 학력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8.2%가 고졸이상이었으며, 전체 자원봉사자 중 대재 이상이라고 한 경우도 41.4%로 높게 나타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비

해 지속적으로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거주지역으로는 서울이 91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0명(21.1%)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이 50%가까이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별 전체 응답자 중 자원봉사자 비율은 울산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호남(25.9%), 서울(24.7%), 충청(22.6%), 인천(21.4%), 경기(21.3%) 순이었으며, 부산과 강원은 각각 10.2%와 9.6%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의 49.8%, 중소도시 39.0%로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자원봉사자들의 90% 가까이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자원봉사자의 직업을 보면, 99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가 28.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나, 예년에 비해 사무/기술직이 20.8%로 두 번째, 자영업 14.5%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무/기술직의 참여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은 최근 기업 사회공헌이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가족전체의 수입을 포함한 자원봉사자의 한달 총 수입정도는 300만원 이상이 40.2%로 가장 많아 중상류층의 자원봉사 참여가 99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 2002년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0만원~249만원 16.0%, 150만원~199만원이 12.7%, 250만원~299만원 12.4%, 100만원~149만원이 10.6% 순으로 나타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갔고 자원봉사자의 80% 이상이 150만원 이상의 중류층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 자원봉사자의 65%가 비(非)가장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 5% 가량 증가했으며, 비교적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의 비율도 35%가 되어, 적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경제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 자원봉사자들의 주거형태로는 자가 80% 가까이 되어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인 것을 알 수 있다.
- ▷ 주 소득원은 월급이 58.3%로 2002년도에 비해 3% 가량 늘어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사업소득도 35.6%의 적지 않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나.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 ▷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자가 104명(60.1%)으로 남자 69명(39.9%)보다 20.2%가 더 많아 2002년도의 12% 차이, 1999년도의 9.0% 차이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6%로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3.7%, 50대 17.3%, 60대 이상 15.6%, 20대 12.7%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50대 이상을 50대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을 했는데, 이를 다시 50대 이상으로 묶으면 2002년도 19.9% 및 1999년도 26.0%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32.9%로 나타나 50대 이상 노년층의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 성별에 따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40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0.3%), 50대(18.8%), 60대 이상(17.40%), 20대(10.1%)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역시 4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6.0%), 50대(16.3%), 60대 이상과 20대가 같은 14.4% 순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학력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6.7%가 고졸이상이었으며, 자원봉사자 중에서 대재 이상이라고 한 경우도 36.4%로 높게 나타나 2002년도 및 1999년도에 비해 더 높아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 거주지역으로는 서울이 53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4명(19.7%), 호남이 18명(10.4%), 경상이 17명(9.8%), 충청이 12명(6.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적지만 비슷한 비율을 보여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 1개월간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가정주부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기술직 20.2%, 자영업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무/기술직의 참여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은 최근 기업 사회공헌이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지난 1개월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상이 39.9%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249만원 15.0%, 150만원~199만원 13.3%, 100만원~149만원 12.1%, 250만원~299만원 10.4% 순으로 나타나,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갔고 1개월 자원봉사자의 80% 가량이 150만원 이상의 중류층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 지난 1년 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단체소속 실태

1) 종교단체 소속실태

- ▷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비교해서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원봉사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8.5%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가운데 개신교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20.2%, 가톨릭이 15.7%를 차지하였다. 2002년도에 비해 개신교가 5.7% 증가한 데 비해, 불교는 10% 가량 줄었으며, 가톨릭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종교 없음이 31.4%나 되는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내어 종교와 상관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 종교별 전체 응답자 중 자원봉사자의 비율을 보면 가톨릭교도 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30.4%, 개신교 29.1%, 불교 16.7% 순으로 나타나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가톨릭교도들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신교도 2002년도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때 그 동안 개신교의 조직적인 노력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 ▷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331명이 중복응답으로 모두 936개의 응답을 하여 자원봉사자가 평균 2.8개 단체(2002년도 3.1개, 1999년도-2.8개)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의 순서들도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자원봉사자 중에서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는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계모임(67.7%), 동창회(58.0%), 종교적 가입단체(36.3%), 스포츠/취미단체(28.7%)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부터 발견되는 추이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보다는 친목소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참가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43.2%(2002년도 4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가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풀뿌리조직과 같은 지역시민단체에 소속한 사람들 중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72.3%), 국민운동단체(69.6%), 봉사단체(66.1%), 전국시민단체(58.6%), 정치조직/정당(44.4%), 종교적 가입단체(39.5%), 학교모임/학부모회

(39.4%) 순으로 자원봉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자 분포 중에서 지역시민단체, 전국시민단체, 정치조직/정당에 소속한 비율은 낮으나, 일단 이러한 단체에 소속하는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모임(22.0%)과 동창회(24.6%)는 가장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여주어 사람들이 친목모임에 많이 소속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원봉사 참여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단체소속 실태

1) 종교단체 소속실태

- ▷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 중 65.3%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개신교가 29.5%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18.5%, 가톨릭이 16.2%를 차지하였다. 2002년도에 비해 개신교가 3.3% 증가한 데 비해, 불교는 12% 가량 줄었으며, 가톨릭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종교 없음이 34.7%나 되는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내어 종교와 상관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 반면, 종교별 전체 응답자 중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비율을 보면 가톨릭교도 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16.4%, 개신교 14.0%, 불교 8.0% 순으로 나타나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에서도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가톨릭교도들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2)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 ▷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173명이 중복응답으로 모두 534개의 응답을 하여 자원봉사자가 평균 3.1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1개월 참여 자원봉사자 중에서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는 계모임(74.0%), 동창회(58.0%), 종교적 가입단체(36.4%), 직장관련 단체(28.9%), 스포츠/취미단체(27.7%)의 순으로 나타나,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보다는 친목소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여부에 따른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가 비율을 살펴보면, 1년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풀뿌리조직(48.9%)과 같은 지역시민단체(47.8%)에 소속한 사람들 중의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년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분포 중에서 지역시민단체, 전국시민단체, 정치조직/정당에 소속한 비율은 낮으나, 일단 이러한 단체에 소속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년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친목모임에 많이 소속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원봉사 참여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자원봉사 활동영역과 내용

가.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 ▷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경험에 대해서는 331명이 모두 421개의 응답을 하여, 자원봉사자 1인 평균 1.3개의 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비슷한 참여 기관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2002년 1.3개, 1999년 1.4개).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 31.4%, 종교단체가 19.2%, 교육기관 13.5%, 관공서 10.9%, 공익민간단체 6.4%, 보건의료기관 5.0%, 환경단체 2.9%, 성인취미단체 및 노동조합이 동일하게 2.8%, 예술문화단체 2.1%, 국제기구 1.9%, 정치조직/정당과 청소년단체가 동일하게 1.0%, 기업운영민간재단이 0.7%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기관 수에서는 대다수인 79.8%의 자원봉사자들이 1곳의 활동기관에서 활동한 반면, 20.2%의 자원봉사자만이 2개 이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나.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및 활동시간

- ▷ 지난 1개월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있어서는 총 대상자 중 173명이 모두 203개의 응답을 하여, 자원봉사자 1인 평균 1.2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별로 지난 1개월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기관을 중복응답 사례 수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두 14종류의 단체로, 사회복지기관 23.2%, 관공서 19.8%, 종교단체가 19.2%, 공익민간단체 9.6%, 교육기관 6.8%, 예술문화단체 4.5%, 환경단체가 3.9% 순으로 지난 1년간 활동경험이 사회복지 기관과 종교단체에 몰린 것과는 달리 비교적 고른 분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 지난 1개월간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1~5시간이 62.5%로 가장 많고, 6~10시간이 22.3%, 21시간 이상이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 1인 평균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기관이 15.8시간, 기업민간재단 12.5시간, 사회복지기관이 9.3시간, 국제기구가 9.0시간, 관공서가 7.4시간, 성인취미단체가 6.3시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활동처에서의 활동시간은 활동의 지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활동처의 자원봉사프로그램 관리의 효과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 월간 평균 자원봉사 활동시간

- ▶ 인구특성별로 2005년도 자원봉사자의 월간 자원봉사 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이 8.9시간, 여성이 8.2시간으로 남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4.6시간, 50대가 10.5시간, 40대 6.8시간, 30대 6.9시간, 20대 5.5시간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시간이 많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9.8시간, 고졸 8.2시간, 대재이상 8.0시간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광주 13.8시간, 부산 13.2시간, 경기 12.9시간, 울산 11.9시간, 서울 7.9시간, 충청 7.8시간, 경상 7.0시간, 인천 6.3시간, 강원 5.7시간, 대전 5.0시간, 호남 3.3시간, 대구 2.8시간으로 나타나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비율의 순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 직업별 월간 자원봉사 시간은 경영·관리직이 40시간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1명의 사례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해야 하며, 기능·숙련공 16시간, 무직 15시간, 판매·서비스직 10시간, 전업주부 9.7시간, 학생 6.9시간, 사무·기술직 6.4시간, 자영업 6시간, 농/임/어업, 일반 작업직, 전문·자유직이 동일하게 3.5시간 순으로 나타나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무직, 전업주부들의 활동시간이 많았다. 주 소득원별로는 재산소득이 18.1시간, 연금, 자녀 용돈 등 기타 13시간, 월급 8.6시간, 사업소득 6.2시간 순으로 나타나 소득을 위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재산소득을 통한 수입원을 갖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종교특성별로는 불교 10.3시간, 무교 9.4시간, 개신교 7.6시간, 가톨릭 6.2시간 순으로 나타나 불교가 참여율에서는 낮지만 평균 활동시간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99만원이하가 14.3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었으며, 400-499만원 12.1시간, 300-399만원 8.5시간, 100-199만원 7.0시간, 200-299만원 6.7시간, 500만원이상 6.2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4.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 ▶ 본 조사결과 20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이 20.5%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 인구수를 추정해보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 경험자는 728만 7천 38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월간 자원봉사 시간수는 총 1,469시간으로 집계되어,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들은 주평균 1.95시간, 월평균 8.47시간동안 자원봉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원봉사 시간수를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주 평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1.02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연간 총 자원봉사 시간 수는 1.02시간에 7,287,388명(연간

자원봉사자 추정치)을 곱하고 이를 다시 52.14주로 곱하면 약 3억 8천 7백 5십 6만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해보면, 연간 총 자원봉사 시간 수에 우리나라 전 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임금(8,182원)을 곱한 결과, 연간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가 3조 1천 7백 1십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2년도에 비해 5천억 가량 줄어든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자원봉사자 1인의 주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85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현저히 줄어든 데서 찾을 수 있다.
- ▷ 이 금전적 가치는 한국은행 통계인 2004년도 GDP(국내총생산, 778.444조원)의 0.41%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1년도 GDP(545.013조원)의 0.66%, 1999년도의 GDP(420.99조원)의 0.64%보다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다. 이 수치는 살라몬 교수의 연구 결과인 전 세계 22개 국가의 평균 GDP에 미친 효과 1.1%(1999년도 조사)에 비하여 절반이 안 되는 수치이다 (참고; 1999년도 미국 2%, 호주 1.4%, 일본 0.5%). 따라서 민간은 물론 정부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혜택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I.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동기 및 영향요인

1.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가. 자원봉사 참여활동의 개인적 동기

- ▷ 2005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동기는 '친구 또는 동료의 요청'과 '의미있는 여가로'가 동일하게 39.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문제해결의 도움'(33.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친척의 권유'가 58.0%, '자기개발에 도움'(54.4%), '고용주의 장려'(53.5%), '자기 위로'(46.5%) 순으로 나타났다.
- ▷ 2005년 및 1999년, 2002년의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주요동기를 비교하면,

1) 공식으로는, $\frac{1\text{개월 자원봉사자 } 1\text{인당 주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 \times 1\text{개월 자원봉사자 비율}}{1\text{년 자원봉사자 비율}}$

을 사용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자원봉사 시간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공식을 사용한 것임.

1999년에는 이타적인 동기와 시민 의무로서의 동기가 주요 동기였던 반면, 2002년에는 이기적인 동기와 주변의 권유로 인한 동기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를 여가활동의 하나로 여겨지는 '볼런테인먼트'(Voluntainment)²⁾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개념은 기존의 자원봉사 개념에 재미와 즐거움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가 서로 어울려 즐기는 활동'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아직 이 운동과 개념이 확산되지 않았으나, 시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쉽고 재미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과거의 경험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 ▷ 자원봉사자들은 개인 경험에서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일을 했었다)(100.0%),' '극빈자를 본 경험(극도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74.3%),' '사회변화 원했음(69.2%)' 순으로 응답하였다.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 및 '친구/친척의 아픔과 죽음'의 경험에서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과거에 유사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했고, 가족이 타인을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나, 개인적으로 가족의 이웃돕기 경험 및 친구 및 친척의 병과 죽음의 경험이 있었다.
- ▷ 2005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과거 경험을 비교해 보면,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에서 자원봉사자들(100.0%)은 비자원봉사자들(26.0%)에 비해 4배 정도의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며,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과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에서 각각 1.5배 정도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과거의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자 역할모델을 본 경험이 자원봉사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 2005년 조사결과, 2002년 조사결과와 199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자의 경우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 '극빈자를 본 경험',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 등에서 모두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 자원봉사자들의 과거 경험에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 ▷ 사회적 사교활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님 및 친척과 교제(자원봉사자 97.6%, 비자원봉사

2) Voluntainment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여가(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볼런티어21]에서 개념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다(볼런티어21, 2004. 「볼런테인먼트의 철학과 방향」 1차 세미나 자료집.)

자 96.4%), 친구들과의 교제(88.5%, 85.7%) 등의 사교활동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두 집단 모두 비슷하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집단은 '이웃과 저녁(85.8%, 78.9%),' '봉사/서비스기관의 친구들과 교제(65.3%, 8.6%),' '종교기관의 친구들과 교제(55.6%, 3.2%),' 그리고 '운동·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교제(65.6%, 45.4%)'에서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업 외 사회활동에서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경로

-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경로를 보면, '참가하고 있는 단체(종교 단체 포함)나 조직 또는 직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경우가 54.4%로 가장 높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단체 및 조직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로 32.3%이며,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18.1%로 나타났다. 그 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가 10.0%,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를 보았다'는 경우는 0.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으로 도움 받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서'는 단지 1.8%로 드러났다.
- ▷ 따라서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 모두에서 단체의 권유 또는 누군가로부터의 권유는 매우 중요한 참여경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 모집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즉,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한 대중모집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반면, 인적자원에 의한 '요청(asking)'하는 개별모집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자원봉사활동의 이유 및 중단 이유

가. 자원봉사활동의 이유

- ▷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 93.7%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으로 90.9%, '동정심을 갖고 있어서'가 82.5%, '새로운 사람 만남' 69.5%, '존경하는 인물의 자원봉사'는 66.2%, '개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52.3%로 지적하였다.
- ▷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원봉사자집단과 비자원봉사자집단이 인식하는 지속의 이유는 그 경향성을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다. 실제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와 경험이 없는 비자원봉사자들 간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지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또한 새로

운 시각을 갖게 되는 등 자기개발을 인식하는 한편, 비자원봉사자들은 동정심을 더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자원봉사활동의 중단 또는 더 많이 하지 않는 이유

- ▷ 2005년도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일년간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더 많이 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바빠서'가 가장 많아 51.7%이며, 2순위는 '건강상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4.8%, '가족을 돌봐야 되어서'는 3.9%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3개 연도 모두 '개인적으로 바빠서'가 가장 큰 중단의 이유이며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바쁜 사람도 있겠으나 "바쁘다"는 이유는 생활 가운데 편의상 이유인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는 직장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 바쁘지만 자원봉사를 선택하는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자원봉사의 불참 이유

- ▷ 2005년도 조사에서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바빠서'가 1순위로 64.4%이며, '건강상/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6.8%, '어떻게 참가하는지 몰라서' 6.7%, '흥미가 없어서' 5.7%, '가족을 돌봐야 되어서' 5.0% 순으로 나타났다.
- ▷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비자원봉사자 집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경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것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중단한 이유와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매년 동일하게 나타난 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홍보, 권유 및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기구가 여전히 더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공감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는 1.5%로 아주 미미해 우리나라 성인 비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현재 비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3년 전과 비교한 자원봉사 시간

- ▷ 2005년 조사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시간은 '그대로다'가 40.8%, '늘어났다'가

25.4%, '줄어들었다'가 24.5% 순으로 나타났다.

- ▷ 2005년 조사결과를 2002년과 199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시간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습관적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줄어든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장기봉사자를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기업자원봉사단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처에 소속되기 보다는 자사 또는 자기 센터에 소속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봉사자들이 자연히 단기성 봉사에 치중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기업자원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자원봉사단 운영을 과감히 버리고 모든 봉사자가 활동처에 소속하며 그 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4. 가족의 영향과 자원봉사활동

- ▷ 현재 가족 중 다른 성원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원봉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9%, 없음이 73.2%로 나타났다.
- ▷ 조사대상자들에게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을 조사한 결과, 비자원봉사자집단에서 부모의 경험률이 17.8%이며, 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31.7%가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을 보고하여, 비자원봉사자 집단보다는 자원봉사자 집단에서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률이 월등히 높았으며,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자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 2005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 매우 만족이 33.5%, '약간 만족'이 51.4%, '조금 불만족'이 14.8%, '매우 불만족'이 0.3%로 대부분인 84.9%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 ▷ 2005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50명에게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어보았다. 불만족 이유로는 '생각했던 것과는 상이해서'(52.0%),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24.0%), '활동기관과의 기본적인 의견의 차이로'(18.0%) 순으로 나타났다.
- ▷ 2005년, 2002년 조사 모두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유는 모두 자원봉사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것으로 이는 자원봉사관리자의 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배치의 부적절함 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어, 학교 및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6.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가. 일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

- ▷ 2005년 조사결과, '모르겠다'가 40.2%, '1년 이내에 할 생각이다'가 22.2%, '전혀 없다'가 20.6%, '1개월 이내에 할 생각이다'가 13.5%, '3개월 이내에 할 생각이다'가 3.5%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아직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지만, 할 의향이 있는 경우(1년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도 56.3%로 나타나 반수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 공명선거 자원봉사 참여 의사

- ▷ 2005년 조사에서 공명선거 자원봉사 참여의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8.4%(자원봉사자 중 12.4%, 비자원봉사자 중 7.4%)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비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참여 의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들은 선거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어야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연락처 인지 여부

- ▷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와 봉사처를 중계(연계)해주는 곳임을 알고 있었는지

를 질문한 결과 37.4%(자원봉사자 56.2%, 비자원봉사자 32.6%)만이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데 비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는 법은 전체의 6.5%(자원봉사자의 16.3%, 비자원봉사자의 3.9%)만이 알고 있었다. 더욱이 비자원봉사자는 3.9%만이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손쉽게 연락하는 방법(국번없이 1365)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접근시스템이 있지만,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 경력에 반영하거나 봉사시간 수 적립을 위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하였는데, 자원봉사자의 31.7%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여, 확인서 발급이 인정의 한 방안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수(68.3%)의 필요치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일률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비용 효과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IV. 한국인의 기부 현황 및 영향요인

1. 기부 참여 실태

- ▷ 2005년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1,611명 중 50.6% 815명이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 지난 1년간 적어도 한 번 이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64.3%가 자선적 기부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아름다운재단”의 2004년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볼런티어21”의 2002년 조사결과 52.4%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나빠진 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부자의 특성

- ▷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 미혼보다는 기혼의 기부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연령은 40대가, 학력은 고졸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실시한 2004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 ▷ 기부참여 경험자의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48.6%, 여성 52.5%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3.9%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부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도의 경우 남자가

50.6%인데 비하여 2005년에는 47.4%로 다소 감소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편 여자의 경우, 2002년도의 49.4%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52.6%로 나타나 다소 증가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된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기부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26.3%(21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25.5%(208명), 20대 19.4%(158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200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맥락을 보여 주고 있으나 다만 30대의 경우 31.7%에서 26.3%로 감소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60대 이상의 경우는 2002년도 6.3%에서 2005년도 14.6%로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연령별 응답자 대비 기부참여의 비율을 보면 40대(56.8%), 50대(54.7%), 30대(5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기부경험자의 혼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상태가 가장 76.6%로 미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 4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대졸이상인 4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 ▷ 기부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도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다른 조사결과들과도 대체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이 인구가 밀집 수준이 높다는 점, 지역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 기부의 요구가 더 많았거나 기부문화가 더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지역별 응답자 대비 기부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대구가 82명 중 56명(68.3%), 대전 47명 중 30명(63.8%), 충청 115명 중 71명(61.7%)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 ▷ 기부경험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사무/기술직 22.2%, 자영업 1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02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27.9%에서 24.9%로 감소되었고, 사무/기술직의 경우는 15.3%에서 22.2%로 증가되었으며, 자영업의 경우는 21.7%에서 15.1%로 감소된 결과를 보여 준다.
- ▷ 주 소득원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급의 경우가 6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업소득은 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02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월급의 경우 52.8%에서 63.1%로 10%이상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의 경우 43.4%에서 30.4%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특히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기부행위 경험자 중 비가장인 경우가 58.4%로 가장인 경우 41.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 비가장인 경우 56.9%, 가장인 경우 43.1%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 한편 주거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인 경우는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기부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보면 200~299만원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199만원이 23.3%, 300~399만원이 2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16.1%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 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다가 300만원대부터 다시 낮아지는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기부자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기타 및 무교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신교 26.5%, 불교 24.0%, 가톨릭 12.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부에 있어서 개신교인들의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부 영역과 내용

가. 기부처

- ▷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기부처는 신문 방송 등 언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부를 했다는 응답이 2002년도의 37.3%보다 약간 증가한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금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등이 생기고 ARS를 통한 간편한 기부 방식이 도입된 영향으로 추측된다. 그 다음 직접적 기부처로서는 종교단체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 자체를 위한 주일헌금 등등은 제외한 기부를 말하며 상당 부분은 이웃돕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단체 다음으로 기부처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곳은 사회복지기관으로 18.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다른 기부처들은 매우 낮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 공익민간단체, 예술문화단체 등의 경우 모두 3%미만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처는 언론기관이나 종교단체이지만 직접적 및 비종교적 목적의 기부는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기부회수

- ▷ 우리나라 기부경험자들이 지난 1년간 기부한 회수는 지난 1년 동안 2~3번 기부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2년도에는 전체 기부자의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도에도 또한 약간의 감소는 있었지만 33.2%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 또한 4~5

번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73명(21.2%)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번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8명(10.8%)으로 나타났다. 한편 71회 이상 기부한 사람도 0.1% 있음을 살펴 볼 수가 있다.

다. 지난 1년간 기부규모

- ▷ 기부경험자가 지난 1년간 기부한 규모를 살펴보면 1-5만원이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만원 미만이 15.5%로 5만원 미만의 소액기부자가 53.7%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2년도의 5만원 미만의 기부자 69.6%보다는 낮아진 수치이나 아직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연간 5만원 미만의 소액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10만원 14.7%, 11~20만원 10.8%로 2005년도 기부자의 80%는 20만원 미만의 기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만원 이상의 기부자의 경우 2005년도에 11.4%로 나타나 2002년도 6.5%에 비하여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라. 평균 기부금액

- ▷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을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4.5만원, 여성이 14.6만원을 하였고, 연령별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층인 50대가 27.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으며, 40대가 26.4만원, 30대가 17.5만원, 60세 이상이 16.2만원, 20대가 8.9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사별이 576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사례수(22명)가 기혼(624명)이나 미혼(169명)에 비하여 월등히 작은 것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학력별로는 대재이상이 258.6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고, 고졸이 18.9만원, 중졸이 9.6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호남이 29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이 23.9만원, 강원이 23만원, 서울이 20.8만원, 대전이 18.9만원, 광주가 18.3만원, 경상 18만원, 경기 17.8만원, 충청 17.5만원, 대구 13.9만원, 울산 9.6만원 순으로 나타나 기부참여 비율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이 49.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관리직 38.1만원, 자영업 26.2만원, 사무·기술직이 25.5만원, 무직 22만원, 농/임/어업 20.2만원, 판매·서비스직 18.4만원, 기능·숙련공 16.2만원, 전업주부 13.4만원, 일반작업직 89.2만원 학생 62.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로는 재산소득이 2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 21.5만원, 월급17.9만원, 연금 등 기타소득이 14.2만원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기부액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교특성별로는 개신교가 23.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교가 20.1만원, 가톨릭 17.8만원, 무

교 16.6만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 ▷ 소득수준별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는 500만원이상이 38.3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하였고, 400-499만원이 26.1만원, 300-399만원이 21.7만원, 200-299만원이 16.7만원, 99만원 이하가 15.2만원, 100-199만원이 13.9만원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기부금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기부처별 평균 기부금액을 보면 청소 단단체 43만 4천원, 환경단체 35만 9천원, 보건의료기관 34만 9천원의 순서로 많이 기부했고, 신문방송사, ARS등을 통해서는 가장 적은 액수인 13만 8천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부의 정기성 수준

- ▷ 한국인의 기부행위는 대단히 비정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은 2002년 조사에서는 기부자의 24.1%,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은 75.9%로 나타났으며 한편 2005년에는 기부자의 21.6%가 정기적으로, 78.4%가 비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기적 기부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은 사회복지단체 등이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정기적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 기부 참여 요인

가. 기부 참여의 개인적 동기

- ▷ 기부참여자들의 중요한 동기는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해결” 28.3%, “많이 가진 자의 의무” 26.7%, “사회 환원의 차원” 26.1%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한편 기부 비참여자들은 중요한 동기로 “많이 가진 자의 의무” 29.8%,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해결” 25.4%, “사회 환원의 차원” 21.5%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요보호자의 욕구충족 등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성의 발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

- ▷ 과거의 경험을 크게 개인차원의 직접적 경험, 친척이나 친구관계에서의 간접적 경험, 단체차원의 집단적 경험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개인차원의 직접적 경

험에서는 각 항목별로 참여유무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만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기부참여자의 경우 53.6%, 기부 비참여자의 경우 28.5%로서 자원봉사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과거에 직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과, 가족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타인을 돕는 것을 본 간접적 경험, 그리고 단체차원에서의 집단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 참여

- ▷ 부모나 친척,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교활동에 있어서는 기부자와 비기부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장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나 서비스기관,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같이 비교적 확대된 사교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부자의 사교활동이 비기부자보다 비교적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기부 참여

- ▷ 대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부자의 경우 29.1%, 비기부자의 경우 21.4%가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기부자가 비기부자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타인 돕기 활동 경험과 기부 참여

- ▷ 기부자는 부모나 친척, 친구, 노숙자, 이웃, 그 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대상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타인을 돕는데 있어서 비기부자에 비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5. 기부 이유

가. 기부 참여 경로

- ▷ 기부 참여 경로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의 광고’가 37.6%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광고 효과가 기부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지난 1년간의 기부처에서 방송사 등 언론매체 비중

이 가장 높았던 것과 연관시켜 볼 때 TV 등 대중매체에서 방송을 통해 이끌어내는 기부가 상당함을 추측할 수 있다.

- ▷ 그 다음으로는 '참가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 또는 직장'라는 응답이 23.4%로 높게 나타났는데,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직장 및 단체가 기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찾았다'라는 응답도 20.2%로 높게 나타났는데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부할 곳이나 방법을 찾아서 기부하는 능동적인 기부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부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에 의한 참여는 10.8%에 불과하여 아직은 기부를 요청하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2005년에는 2002년보다 기부 참여 경로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나.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 ▷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가 21.0%, '앞으로의 소득에 확신이 없어서' 18.7% 등으로 나타나 최근의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전망도 좋지 않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단체가 없어서'와 '기부의 올바른 쓰임에 확신이 없어서'도 각각 17.3%와 15.6%로 나타나,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다. 기부를 하지 않은 비경제적인 주요 이유인 '기부의 올바른 쓰임에 확신이 없어서'라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여러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6. 향후 기부

- ▷ '기부의사가 있다'는 47.1%(많이 있다 3.1%, 조금 있다 44.0%)임에 비하여 '기부의사 없다'는 36.4%(전혀 없다 11.4%, 별로 없다 25%)이며,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6.5%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도에는 '기부 의사가 많이 있다'와 '어느 정도 있다'가 각각 4.7%, 57.9%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고, '기부의사가 전혀 없다' 및 '어느 정도 있다'는 각각 6.1%, 21.8%로 낮게 나타났다. 2005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3년 전에 비하여 "기부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가 350명(44.0%)로 2002년에 비하여 감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특히 "모르겠다"가 3년 전에 비하여 131명(16.5%)로 응답률이 증가됨은 사람들에게 기부 참여에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7.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

- ▶ 2005년도 조사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한 경우는 72.5%, 자원봉사만 참여한 경우는 27.5%, 기부만 참여한 경우는 45%였으며 55%는 자원봉사 및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의 결과는 자원봉사자의 72.5%가 기부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2002년도 70%에 비하여 자원봉사자의 기부 참여 비율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V. 공공 및 비자선기관과 민간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비교

- ▶ 한국인들은 자원봉사나 기부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자원봉사자 기부자 모두 동일하게 평균 2.73)을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자원봉사자 평균 2.16, 기부자 평균 2.13)보다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와는 역전된 숫자이지만 1999년도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 ▶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과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양상을 비교해보면,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고르게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 ▶ 자원봉사나 기부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서는 제도교육기관을 가장 신뢰하고 정당과 국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참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교단체, 구호기관, 공익민간단체 순으로 높이 신뢰하고, 비자원봉사자들도 비슷하지만 보건의료기관, 구호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공익민간단체 순으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봉사나 기부 참여에 상관없이 국민운동단체는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 론

- ▷ 2005년 우리나라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5%로 조사대상자 1,611명 중 331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의 16.3%보다 4.2%, 1999년도 14%보다 6.5% 늘어났다. 그런데, 현재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바빠서', '건강상/신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참가하는지 몰라서' 순으로 2002년,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비자원봉사자 집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경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중단한 이유와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홍보, 권유 및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기구가 여전히 더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공감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는 1.5%로 아주 미미해 우리나라 성인 비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현재 비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05년도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비슷하게 기혼이며 중류층으로 종교를 갖고 있으며, 직업은 자영업과 가정주부, 사무·기술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령과 성별에 있어서는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비교해볼 때 자원봉사자 중에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소득수준도 높아졌다. 또한 사무/기술직의 참여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기업 사회공헌이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학생들의 참여가 2002년도 보다 직업 비율에서 약간 줄었지만 빈도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봉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민간단체의 소속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평균 2.8개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의 3.1개, 99년도의 2.8개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계나 동창회 등 친목단체 소속(각각 67.7%, 58%)과 종교적 가입단체(36.3%), 스포츠/취미단체(28.7%)의 소속이 높은 반면, 그 외 단체의 소속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특기할 것은 소모임 및 민간단체에 소속한 사람들 가운데 지역시민단체(72.3%), 국민운동단체(69.6%), 봉사단체(66.1%), 전국시민단체(58.6%) 등은 자원봉사참여율이 높은 반면, 계

모임(22.7%), 동창회(24.6%), 직장관련단체(27.1%)등은 낮은 것으로 보아 풀뿌리 조직과 같은 지역시민 단체육성이 자원봉사활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자원봉사 활동영역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1인 평균 1.3개의 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기관 31.4%, 종교단체가 19.2%, 관공서 10.9%, 공익민간단체 6.4% 순으로 나타나, 1999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수요처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 월 평균 자원봉사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았으며, 지역별 평균시간과 종교별 평균시간은 각각의 참여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 ▷ 본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 인구수를 추정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경험자는 728만 7천 388명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시간은 계산해보면, 자원봉사자들은 주 평균 1.02시간 (2002년도 1.9시간, 1999년도 2.1시간) 활동하였으며, 연간 총 자원봉사 시간 수는 약 3억 8천 7백 5십 6만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2002년도의 5억3천2백3십7만 시간의 72.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 비해 시간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 ▷ 자원봉사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3조 1천 7백 1십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2년도에 비해 5천억 가량 줄어든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자원봉사자 1인의 주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85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현저히 줄어든 데서 찾을 수 있다.
- ▷ 이 금전적 가치는 한국은행 통계인 2004년도 GDP(국내총생산, 778,444조원)의 0.41%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1년도 GDP(545,013조원)의 0.66%, 1999년도의 GDP(420.99조원)의 0.64%보다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다. 이 수치는 살라몬 교수의 연구 결과인 전세계 22개 국가의 평균 GDP에 미친 효과 1.1%(1999년도 조사)에 비하여 절반이 안 되는 수치이다. (참고; 1999년도 미국 2%, 호주 1.4%, 일본 0.5%). 따라서 민간은 물론 정부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혜택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 자원봉사자들의 3년 전과 비교한 활동시간의 변화에서는 '그대로다'가 40.8%, '늘어났다'가 25.4%, '줄어들었다'가 24.5%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1인당 주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도 1.02시간으로 1999년 및 2002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올라갔으나, 개인별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시간이 대폭 감소한 이유로는 전통적으로 장시간,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던 계층의 감소로 가정해볼 수 있으나, 보다 상세한 이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서 대부분인 84.9%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2005년, 2002년 조사 모두에서 모두 자원봉사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자원봉사관리자의 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 배치의 부적절함 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어, 학교 및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 ▷ 자원봉사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줄어든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장기봉사자를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기업자원봉사단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처에 소속되기 보다는 자사 또는 자기 센터에 소속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봉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단기성 봉사에 치중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기업자원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자원봉사단 운영을 과감히 버리고 모든 봉사자가 활동처에 소속하며 그 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 2005년 조사에서 공명선거 자원봉사 참여의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8.4%(자원봉사자 중 12.4%, 비자원봉사자 중 7.4%)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들은 선거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어야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와 봉사처를 중계(연계)해주는 곳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37.4%(자원봉사자 56.2%, 비자원봉사자 32.6%)만이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는 법은 전체의 6.5%(자원봉사자의 16.3%)만이 알고 있었다. 더욱이 비자원봉사자는 3.9%만이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손쉽게 연락하는 방법 (전화 국번없이 1365)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접근시스템이 있지만,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 많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경력에 반영하거나 봉사시간 수 적립을 위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에 자원봉사자의 31.7%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확인서 발급이 인정의 한 방안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수(68.3%)의 필요치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일률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비용효과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2005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기부현황에서는 50.6%가 지난 1년간 기부경험이 있고, 기부횟

수는 2~5회가 36.9%, 4~5회가 21.2%로 과반수 이상이 5회 이하의 기부를 하였다. 기부 금액은 2002년도의 5만원 미만의 기부자 69.6%보다는 내려간 수치이나 아직도 절반이 넘는 53.7%의 사람들이 5만원 미만의 소액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부경험은 과반수 이상에 이르나 기부횟수나 금액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 ▷ 평균 기부액수는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직업으로는 전문자유직, 경영관리직, 자영업순으로,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기부처별 평균기부금액은 청소년단체, 환경단체, 공익민간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순으로 높았으나 기부총액은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신문방송사, 교육기관의 순으로 많으며, 정기적 기부보다는 비정기적 기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직장인들의 정기적 기부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와의 관계를 보면, 2005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는 지난 1년간 평균 8.43회, 연평균 32만원을 기부 하였고, 비자원봉사자는 평균 6.51회, 연평균 14만원을 기부하여 회수 및 규모 모두에서 자원봉사 참여자가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자의 기부 회수와 규모는 3년 전에 비하여 증가추세이나 비자원봉사참여자의 기부 회수 및 규모는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 한편 기부경로를 보면 신문방송 등 언론사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다양한 기부경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 기부자와 비기부자 간의 기부에 대한 동기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기부를 촉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 마련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기부자의 78.4%가 비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외부 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들의 구조를 감안할 때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 기부자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VII. 정 책 제 언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성인 참여율이 2002년 16.3%에서 2005년 20.5%로 증가하였으나 활동시간은 주 평균 1.85시간에서 1.04 시간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선진국 수준(참여율 30%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활동시간을 선진

국 수준(주당 평균 3시간)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약속(Commitment)을 점점 더 기피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상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한다.

1. 자원봉사 가치 수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가장 좋은(열성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Dwight W. Mihalicz, Swee C. Goh,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Motivations and Behavior in Non-profit Organizations", J. Vol. Admin. XV(1), 19-27, 1996)

자원봉사의 가치를 믿어야 활동에 나서기도 쉽고 오래할 수도 있다. 이 가치가 지켜지고 실천되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려면 먼저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너무 바빠서' 자원봉사를 못한다는 사람(전체 조사자의 51.1%)의 가치관에서 자원봉사가 우선순위에서 상위가 될 때 이들은 자원봉사대열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자원봉사 가치를 수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실천 기회의 홍보 및 접근 용이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과 평생교육, 가정교육, 직장교육, 종교교육 등 모든 교육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 정신이 가르쳐지고 활동기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TV 공익광고와 인터넷에 자원봉사 정신과 활동들이 보도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자원봉사 전문가와 TV 및 인터넷 프로그램 전문가가 함께 제작한 것이어야 효과적일 수 있겠다.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가족, 부모 이외에도 존경인물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사회지도층의 참여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알리는 정책도 중요하다.

2. 자원봉사 단체 및 센터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강원, 부산, 경상 지역처럼 참여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높아야 한다. 현재처럼 일률적인 지원이나 오히려 잘하고 있는 구 센터에 더 많은 지원금(포상금)에 제공되는 경우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활동중단 이유 가운데 '가족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 상당수 있는 바, 돌보아야 할 가족이 어린이라면 선진국처럼 탁아서비스가 자원봉사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모임 활동이 지역의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보다는 주로 친목단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은 바로 이 분야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소모임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가운데 지역시민단체가 자원봉사참여(72.3%)가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풀뿌리단체 인큐베이팅과 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3.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와 중도탈락 방지(지속 활동 유지), 활동시간 증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본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 요인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어 보이며(예: 활동중단 이유와 지속성, 활동을 안 하는 이유, 불만족 이유 등), 모두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유능한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이 핵심 관건이며, 양성기관의 설립 운영 정책이 마련되고, 그러한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자원봉사자는 23.1%, 1개월 및 3개월 이내에 하겠다는 사람은 4%에 달하며 이들은 주로 20대 연령 계층이 많다. 그러므로 연령계층을 차별화 하여,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한 기회제공이 참여율 확대 전략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 있는 여가’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부각된 만큼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의미는 물론 재미도 가미된 ‘신나는 자원봉사(Voluntainment)’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이 좀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교활동과 스포츠, 취미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바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이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활동 지속의 중요한 이유가 ‘자신의 필요성 느낌’과 ‘새로운 시각’인 만큼 자원봉사활동이 의미 있고 자원봉사자가 도전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도록 단체와 센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빠서’임을 고려하여 바쁜 사람들이 짬을 내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확대되고 있는 직장인과 같은 바쁜 사람들이 짬을 내어 활동하도록 돕는 ‘Hands on Network’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도시부터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활동(Virtual Volunteering)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늘어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년 전과 대비하여 50대와 60대의 참여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점점 좋아지는 노

인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더 많은 노인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사회복지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확인서(인증서)의 필요성은 봉사자 가운데도 30%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확인서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불필요하다. 특히 자원봉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현행 '자원봉사 인증 시스템'은 자원봉사의 원칙인 무상성에도 어긋나고 개별 단체에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시행의 높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원봉사 인프라 강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의 역할과 접근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역할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37.4%)이나 어떻게 접근 또는 연락할 수 있는지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자원봉사 참여경로에서 센터를 통한 참여는 불과 1.2%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센터에 접근 가능한 전화번호인 1365(1년 365일을 상징함)만 돌리면, 그 지역의 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아는 사람(자원봉사자 16.3%, 비자원봉사자 3.9%)이 적어서 소기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공익광고와 모든 관보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한편, 본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역 센터 설치가 오래된 곳은 이미 10년이 되었고 대부분의 센터가 5년 이상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보인다. 이는 아직 자원봉사 표준관리체계와 표준서비스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점과 이러한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센터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표준 관리 및 표준서비스 체계의 확립과 보급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센터의 직원 특히 소장과 간부직원의 선임은 퇴직 공무원 또는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노후 보장처로서 또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유공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검증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가 확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센터가 아무리 자원봉사 인프라의 핵심 조직일지라도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차원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하여 센터를 설립했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설립하고 보니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센터의 능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센터의 사명에 충실한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부의 평

가가 정기적으로 있어야한다.

끝으로 중앙으로 집중되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 및 호주와 같은 자원봉사 선진국에서처럼 센터를 통하여 활동의 매개가 자유롭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활동처에서 자원봉사관리(시간관리 포함)가 쉽게 될 수 있는 보다 나은 전산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되려면 선진국에서 하였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자원봉사관리 전문가, 현장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5. 기부문화의 확산

최근 기부규모의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금 액수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비록 세계공동모금회 차원의 기부수준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기아아동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아동기금(UNICEF) 기여도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기업기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결과 국민 1인당 기부액에서도 37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개인기부가 20%(세계 평균 69.5%)에도 못미칠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기업들의 기부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개인 참여를 확산시켜 기업의 지나친 의존성을 낮추어야 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 운동의 방향도 악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는 소극적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애용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6. 제도적 장치 구축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이 기꺼이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기업, 개인 월급 생활자 등 후원의 주체가 되는 각 계층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득공제 혜택 등은 기부를 생활화하는데 촉매가 될 것이다. 동시에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 강화하는 반면 “가짜 영수증” 남발로 기부자들의 선의를 무색하게 하는 부도덕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처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7. 다양한 기부 참여방안 모색

모금단체들은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문화에 대한 기부자들의 높아진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모금실적은 미미하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나다. 인터넷 기부의 경우 기부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기부한 프로젝트의 경과나 사후 보고를 Web페이지나 전자메일로 알려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결제수단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다면 인터넷 기부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목 차



발 간 사	v
축 사	vii
연구요약	ix
목 차	xliii
표 목 차	xlvii
그림목차	li
부표목차	liv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7
2. 연구문제	59
3. 연구방법	59
가. 조사방법	60
나. 자료 분석방법	61

II. 한국의 자원봉사자 특성 및 현황

1. 자원봉사 참여 실태	62
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62
나.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63
다.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 참여 실태	63

2. 자원봉사자의 특성	64
가.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64
나.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단체소속 실태	72
다.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79
라.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단체소속 실태	86
3. 자원봉사 활동영역과 내용	93
가.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 활동기관	93
나.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 활동기관 및 시간	96
다. 월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	98
4.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105

Ⅲ. 한국인의 자원봉사 동기 및 영향요인

1. 자원봉사 참여 동기	108
가.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108
나. 과거의 경험과 자원봉사 참여	113
다. 사회적 사교활동과 자원봉사 참여	117
라.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자원봉사 참여	119
마. 지난 1년간 이웃돕기활동	121
바. 1주일동안 부모, 친척, 친구돕기 활동시간	122
2.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경로	124
가. 자원봉사 참여경로	124
나. 자원봉사활동 권유자	125
다. 자원봉사활동 권유단체	127
3. 자원봉사활동의 지속 이유 및 중단 이유	128
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 이유	128
나. 자원봉사활동의 중단 또는 더 많이 하지 않는 이유	131

다. 자원봉사 비참여 이유	132
라. 3년 전과 비교한 자원봉사 시간	133
4. 가족의 영향과 자원봉사 활동	134
가. 가족과 함께 한 자원봉사 경험	134
나.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135
5.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137
가. 자원봉사 만족도	137
나.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137
6.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138
가. 일반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사	138
나. 공명선거 자원봉사	139
7. 자원봉사센터 역할 및 연락처 인지 여부, 봉사활동 확인서 필요성 여부	141

IV. 한국인의 기부 특성 및 현황

1. 기부 참여 실태	144
2. 기부자의 특성	145
3. 기부 영역과 내용	156
가. 지난 1년간 기부처	156
나. 지난 1년간 총 기부횟수	158
다. 지난 1년간 기부 규모	160
라.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	161
마. 기부의 정기성 수준	169
4. 기부 참여 요인	170
가. 기부 참여의 개인적 동기	170
나.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	172
다.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 참여	177
라.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기부 참여	179

마. 타인 돕기 활동 경험과 기부 참여	180
5. 기부 참여 경로	181
가. 기부 참여 경로	181
나.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183
6. 향후 기부 참여 의사	185
7. 자원봉사와 기부	186
가.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 참여	186
나.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의 횟수 및 규모	187

V. 한국인의 공공 및 민간기관에 대한 인식

1.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인식	188
가. 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188
나. 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193
2.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인식	196
가. 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196
나. 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200
3.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과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비교	203

VI. 결 론

205

VII. 정책제언

209

참고문헌	214
------------	-----

부 표	217
-----------	-----

면 접 지	231
-------------	-----

표 목 차



<표 I-3-1> 조사대상자	60
<표 II-1-1>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율	62
<표 II-1-1>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	63
<표 II-1-1> 지난 1년간 및 1개월간 자원봉사 참여율	64
<표 II-2-1>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65
<표 II-2-2>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비율	67
<표 II-2-3>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69
<표 II-2-4>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성·연령별 특성	70
<표 II-2-5>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71
<표 II-2-6>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300만원 이상 세분화)(2005년)	72
<표 II-2-7>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소속 실태 및 출석 정도	73
<표 II-2-8>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종교 유무	75
<표 II-2-9>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76
<표 II-2-10>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가 비율	78
<표 II-2-11>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1
<표 II-2-12>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비율	82
<표 II-2-13>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성·연령별 특성	83
<표 II-2-14>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직업	84
<표 II-2-15>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85
<표 II-2-16> 지난 1개월간 및 1년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비교	86
<표 II-2-17> 지난 1개월 간 자원봉사자의 종교소속 실태 및 출석 정도	87
<표 II-2-18> 1년간 자원봉사자 대비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종교 소속 비율	88
<표 II-2-19>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90
<표 II-2-20>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 여부에 따른 자원 봉사 참가 비율(2005년도)	92
<표 II-3-1>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2005년)	94
<표 II-3-2>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2002년)	95
<표 II-3-3>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1999년)	96
<표 II-3-4>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수	96
<표 II-3-5>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과 활동시간	97

<표 II-3-6> 인구특성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 시간1	99
<표 II-3-7> 인구특성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 시간2	102
<표 II-3-8> 종교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 시간	104
<표 II-3-9> 소득수준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 시간	105
<표 II-4-1> 자원봉사자 추정치	106
<표 II-4-2> 연간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107
<표 III-1-1>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2005년)	108
<표 III-1-2>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2002년)	110
<표 III-1-3>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1999년)	111
<표 III-1-4>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과거의 경험	114
<표 III-1-5> 자원봉사자 및 비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사교활동	118
<표 III-1-6>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119
<표 III-1-7>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이웃돕기활동 경험률	121
<표 III-1-8> 1주일동안 부모, 친척, 친구돕기 활동시간	123
<표 III-1-9> 1주일동안 부모, 친척, 친구돕기 평균시간	123
<표 III-2-1>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경로	124
<표 III-2-2> 자원봉사활동 권유자	126
<표 III-2-3> 자원봉사활동 권유단체	128
<표 III-3-1> 자원봉사활동 지속의 중요한 이유	129
<표 III-3-2> 자원봉사의 중단 또는 더 많이 하지 못한 이유	131
<표 III-3-3>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	132
<표 III-3-4> 3년 전과 비교한 자원봉사 시간	133
<표 III-4-1>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134
<표 III-5-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137
<표 III-5-2>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이유(2005년)	138
<표 III-6-1> 자원봉사 참여 의사(2005년)	139
<표 III-6-2> 자원봉사 참여 의사(2002년)	139
<표 III-6-3>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사	140
<표 III-6-4>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 참여 내용	141
<표 III-7-1> 자원봉사센터 역할 인지 여부	141
<표 III-7-2> 자원봉사센터의 연락처 인지 여부	142
<표 III-7-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 여부	143

<표 IV-1-1> 지난 1년간 기부 참여율	144
<표 IV-2-1>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146
<표 IV-2-2>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의 비율1	147
<표 IV-2-3>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150
<표 IV-2-4>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의 비율2	151
<표 IV-2-5> 소득수준 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154
<표 IV-2-6> 소득수준 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의 월평균 소득수준(300만원 이상 세 분화) (2005)	154
<표 IV-2-7> 기부자의 종교 현황	155
<표 IV-3-1> 지난 1년간 기부처	157
<표 IV-3-2> 지난 1년간 총 기부횟수	159
<표 IV-3-3> 기부의 규모	160
<표 IV-3-4> 인구특성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1	161
<표 IV-3-5> 인구특성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2	164
<표 IV-3-6> 종교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	166
<표 IV-3-7> 소득수준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	167
<표 IV-3-8> 기부처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1	168
<표 IV-3-9> 기부의 정기성 여부	169
<표 IV-4-1> 기부 참여의 개인적 동기(2005년)	171
<표 IV-4-2> 기부 참여의 개인적 동기(2002년)	172
<표 IV-4-3>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2005년)	173
<표 IV-4-4>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2002년)	176
<표 IV-4-5>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참여	177
<표 IV-4-6> 기부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179
<표 IV-4-7> 기부자의 지난 1년간 타인돕기활동 경험률	180
<표 IV-5-1> 기부참여 경로	182
<표 IV-5-2>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184
<표 IV-6-1> 향후 기부참여 의사	185
<표 IV-7-1>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2005년)	186
<표 IV-7-2>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2002년)	186
<표 IV-7-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평균 기부회수와 기부규모 비교	187
<표 V-1-1> 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188
<표 V-1-2> 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5년)	189
<표 V-1-3> 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2년)	191
<표 V-1-4> 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1999년)	192
<표 V-1-5> 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193

<표 V-1-6> 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5년)	195
<표 V-1-7> 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2년)	196
<표 V-2-1> 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197
<표 V-2-2> 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5년)	198
<표 V-2-3> 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2년)	199
<표 V-2-4> 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1999년)	200
<표 V-2-5> 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201
<표 V-2-6> 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5년)	201
<표 V-2-7> 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2년)	203

그림 목 차



<그림 II-1-1> 1년간 자원봉사 참여율	62
<그림 II-1-2>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	63
<그림 II-1-3> 1년간 및 1개월간 자원봉사 참여율	64
<그림 II-2-1>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	66
<그림 II-2-2> 거주지역별 전체 응답자 중 자원봉사자 비율	66
<그림 II-2-3>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직업	70
<그림 II-2-4>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71
<그림 II-2-5>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소속 실태	74
<그림 II-2-6>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출석정도	74
<그림 II-2-7>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소속 실태 (2005년)	75
<그림 II-2-8>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76
<그림 II-2-9>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가 비율(2005년) ..	79
<그림 II-2-10>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직업	84
<그림 II-2-11>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85
<그림 II-2-12>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소속실태	87
<그림 II-2-13>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출석정도	88
<그림 II-2-14>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91
<그림 II-2-15>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 여부에 따른 자원봉 사 참가 비율(2005년)	92
<그림 II-3-1>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95
<그림 II-3-2>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별 평균 활동시간	97
<그림 II-3-3> 연령별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00
<그림 II-3-4> 혼인상태별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00
<그림 II-3-5> 학력별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01
<그림 II-3-6> 거주지역별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01
<그림 II-3-7> 직업별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03
<그림 II-3-8> 주 소득원별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03
<그림 II-3-9> 종교별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04

<그림 II-3-10> 소득수준별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05
<그림 III-1-1>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2005년)	109
<그림 III-1-2>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2002년)	110
<그림 III-1-3>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1999년)	112
<그림 III-1-4>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2005, 2002, 1999년 비교)	113
<그림 III-1-5>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과거의 경험	115
<그림 III-1-6> 자원봉사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120
<그림 III-1-7> 비자원봉사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120
<그림 III-2-1>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경로	125
<그림 III-2-2> 자원봉사활동 권유자	126
<그림 III-2-3> 자원봉사활동 권유단체	128
<그림 III-4-1>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	134
<그림 III-4-2>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1	135
<그림 III-4-3>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2(2005년)	135
<그림 III-4-4>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2(2002년)	136
<그림 III-4-5>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2(1999년)	136
<그림 III-7-1> 자원봉사센터 역할인지 여부	142
<그림 III-7-2> 자원봉사센터 연락처 인지 여부	143
<그림 III-7-3> 봉사활동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	143
<그림 IV-1-1> 지난 1년간 기부 참여율	145
<그림 IV-2-1> 성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 비율	148
<그림 IV-2-2> 연령별 기부자 분포	149
<그림 IV-2-3> 지역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 비율	149
<그림 IV-2-4> 직업별 기부자 비율	152
<그림 IV-2-5> 주 소득원별 기부자 비율	152
<그림 IV-2-6> 가장여부별 기부자 비율	153
<그림 IV-2-7> 주거형태별 기부자 비율	153
<그림 IV-2-8> 소득수준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155
<그림 IV-2-9> 기부자의 종교 현황	156
<그림 IV-3-1> 지난 1년간 기부처	158
<그림 IV-3-2> 지난 1년간 총 기부횟수	159
<그림 IV-3-3> 기부의 규모	160
<그림 IV-3-4> 지난 1년간 성별 평균 기부금액	163
<그림 IV-3-5> 지난 1년간 연령별 평균 기부금액	163
<그림 IV-3-6> 지난 1년간 학력별 평균 기부금액	163
<그림 IV-3-7> 지난 1년간 거주지역별 평균 기부금액	164

<그림 IV-3-8> 지난 1년간 직업별 평균 기부금액	165
<그림 IV-3-9> 지난 1년간 주 소득원별 평균 기부금액	165
<그림 IV-3-10> 지난 1년간 종교별 평균 기부금액	166
<그림 IV-3-11> 지난 1년간 소득수준별 평균 기부금액	167
<그림 IV-3-12> 지난 1년간 기부처별 평균 기부금액	169
<그림 IV-3-13> 기부의 정기성 여부	170
<그림 IV-4-1> 기부 참여의 주요 동기	171
<그림 IV-4-2>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2005년)	174
<그림 IV-4-3>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2002년)	175
<그림 IV-4-4>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참여(2005년)	178
<그림 IV-4-5>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참여(2002년)	178
<그림 IV-4-6> 타인에 대한 신뢰도 비교(2005년)	179
<그림 IV-4-7> 타인에 대한 신뢰도 비교(2002년)	180
<그림 IV-4-8> 지난 1년간 타인돕기활동 경험률(2005년)	181
<그림 IV-4-9> 지난 1년간 타인돕기활동 경험률(2002년)	182
<그림 IV-5-1> 기부 참여 경로	183
<그림 IV-5-2>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184
<그림 IV-6-1> 향후 기부 참여 의사	185
<그림 IV-7-1>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활동 참여	187
<그림 V-1-1>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	190
<그림 V-1-2>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2005년)	194
<그림 V-2-1>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년)	197
<그림 V-2-2>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2

부 표 목 차



<부표 I-1> 조사지역	219
<부표 II-1> 조사대상자,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9
<부표 II-2>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직업	220
<부표 II-3>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220
<부표 II-4>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소속실태	221
<부표 II-5>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221
<부표 II-6>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참가 정도	222
<부표 II-7>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참가정도	222
<부표 II-8>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과거 경험별 월간 평균 자원 봉사시간	223
<부표 II-9>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 활동 영역	224
<부표 III-1> 자원봉사 참여동기(전체)	225
<부표 III-2> 자원봉사의 참여동기(자원봉사자)	225
<부표 III-3> 자원봉사의 참여동기(비자원봉사자)	226
<부표 III-4> 사회적 사교활동	226
<부표 IV-1> 조사대상자, 기부자, 비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27
<부표 IV-2>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의 직업	228
<부표 IV-3>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의 월평균 소득	229
<부표 IV-4>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의 종교단체 소속실태	229
<부표 IV-5>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경험별 기부금액	23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타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무보수,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는 공통 요소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의 기반이자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Margariet-Marie Govaart 외 엮음, 불런티어21 옮김(책임번역 이강현), 2001년 아르케).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연계망 형성, 인간안보의 상호 부조 및 상호 신뢰와 같은 공동규범의 발전과 사회 조정 기능,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귀중한 사회자본을 축적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참가하는 개인에게도 유익한 경험 습득과 자아실현의 계기 내지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요한 근원이 되기도 한다(Time, Jan 17, 2005 Special Edition, "The Science of Happiness").

기부활동 역시 개인을 돕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공익활동으로, 특히 교육과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어 정부와 시장이 채우지 못하는 사회의 필요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기부문화의 정착은 최근 사회적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영리민간조직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이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UN은 2001년을 [세계 자원봉사의 해]로 선포하고, 제 56차 총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환경과 형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정책을 수립,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17사항으로 된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그 중 제 2항은 바로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언론, 학교를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권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민간자원, 즉 기부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즉 외국의 경우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신뢰할만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행위에 대한 참여 수준과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전국적 조사는 2000년 “아름다운재단”, 2002년 “불런티어21”이 수행한 조사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이제 출발단계에 있다.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는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이다.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참가자가 증가하고 그 활동이 효과적, 효율적이 되어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과 필요에 대한 충족이 되도록 하려면 자원봉사자 및 기부자들의 참여 동기와 계기 및 과거경험, 그리고 활동을 지속 가능케 하는 여건 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단법인 볼런티어21의 전국 자원봉사활동 현황 조사를 1999년, 2002년도에 지원하였고(UNDP의 지원으로 기부현황 조사도 같이 수행), 2005년도에는 용역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원봉사 애원의 지원으로 이번 2005년도 조사는 2002년에 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문항 등을 늘려서 센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기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도 가능하였고, 또한 3년 전(2002년도) 및 6년 전(1999년도)에 비하여 자원봉사 현황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난 3년 간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자원봉사 등 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 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재벌기업 및 대기업(공기업 포함)들이 앞 다투어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도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연계”라는 행정 기능 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 정부프로그램의 자원봉사활동 유급화 현상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을 훼손하여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정부 정책입안 및 집행자, 전문가, 실무자를 비롯하여 언론 및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본 연구의 지난 1년 동안의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참여율, 참여 동기, 참여 경로,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3년 전과 비교한 인구사회학적 연구, 자원봉사활동 인구와 활동시간,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기부참여 인구와 기부금액에 대한 파악은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특성과 활동현황, 기부행위의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배경적 요인, 자원봉사 및 기부에 관한 의식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도와주며, 보다 효과적인 자원봉사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 관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1999년도 및 2002년 조사에 이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자원봉사자 및 기부자 육성방안을 위해 많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며 자원봉사 및 기부관련 지식의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탐색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하는가?

둘째,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이고 그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지속적인 활동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넷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성인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가?

다섯째, 각종 단체의 소속여부와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섯째, 이웃 또는 따로 사는 가족과의 접촉과 사회적 사교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곱째, 일반인들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이 신뢰도와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덟째, 우리나라 기부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왜 기부하며, 어떤 경로를 통하여 기부하는가?

아홉째, 기부자의 기부 회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열 번째,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기부자의 기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향후 기부 참여 의향은 있는가?

열한 번째,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기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연구방법

가. 조사방법

1) 조사대상자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중 인구비례확률추출법(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에 따라 추출된 1,611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다음 <표 I-1>과 같다.

<표 I-3-1> 조사대상자

구 분	2005			2002			1999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대	180	176	356	190	150	340	164	184	348
30대	200	205	405	190	294	484	226	280	506
40대	188	178	366	198	168	366	177	155	332
50대*	104	108	212	179	143	322	195	152	347
60세 이상	122	150	272						
계	794	817	1,611	757	755	1,512	762	771	1,533

* 1999년, 2002년도는 50대 이상임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2005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6일간 실시되었고,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한 1:1 개별면접조사로 평균 면접시간은 30분이었다.

2) 표본추출방법

본 조사의 표본추출 방법은 인구비례 확률추출법(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의 원리에 따른 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별 층화로 전국을 광역행정단위별로 15개 층, 즉 7대 도시(특별시,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도로 나누고, 도는 다시 행정단위별로 시·읍·면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표본추출을 하기 전에 지역별, 지역크기별 모집단의 구성비에 따라 표본지점수를 계산하고, 모집단 비율은 2004년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통계청, 1999)를 준거로 하며, 표본지점수는 시지역의 경우 지점당 6~8가구, 읍·면 지역은 지점당 10~12가구씩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산하여, 인구수 비례 할당을 하였다.

셋째, 최종 표본지점에 해당하는 실제 조사지점(반/리 단위)을 다단계로 추출하였다. 1단계로는 광역시·도 중 추출된 시에서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점의 수만큼 동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해당 도에서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점의 수만큼 읍/면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2단계 추출로, 시·도에서 추출된 동의 통·반 리스트를 정리한 후 무작위로 통을 뽑고, 도에서 추출된 읍과 면에서 동/리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리에서 무작위로 반 또는 자연부락을 뽑아 최종조사지점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표본오차가 있으며, 표본오차의 크기는 1차적으로 표준오차로 나타내는데, 이 표본오차는 $\pm 2.5\%P(95\% \text{신뢰수준})$ 으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자료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자료입력단계를 거쳐 오류를 점검하였으며, SPSS/WIN PC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II. 한국의 자원봉사자 특성 및 현황

1. 자원봉사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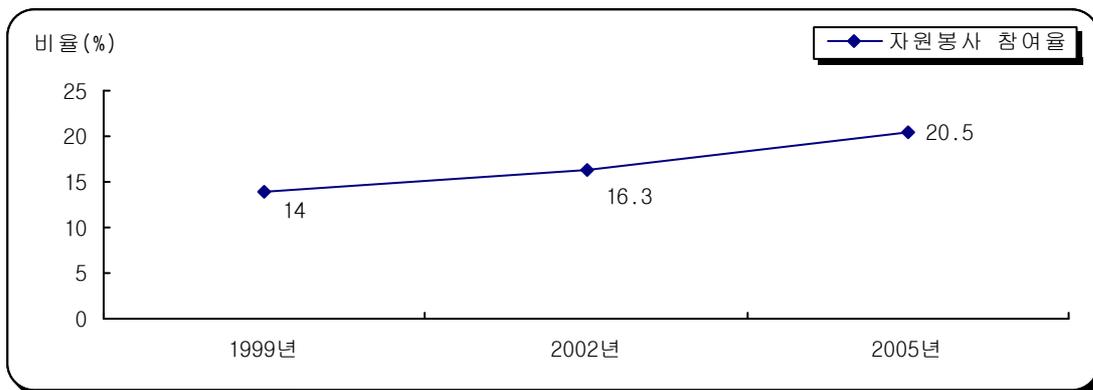
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태

2005년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1,611명 중 331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자³⁾는 1999년도 14%, 2002년도 16.3%보다 늘어난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II-1-1> <그림 II-1-1>.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이란 그룹 또는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는 것과 같은 공익활동을 의미한다.

<표 II-1-1>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율

구 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1999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원봉사자	331	20.5	247	16.3	215	14.02
비자원봉사자	1,280	79.5	1,265	83.7	1,318	85.98
합 계	1,611	100.0	1,512	100.0	1,533	100.0

<그림 II-1-1> 1년간 자원봉사 참여율



3) 이 연구에서 자원봉사자는 지난 1년간 활동에 참여한 자로 본다.

나.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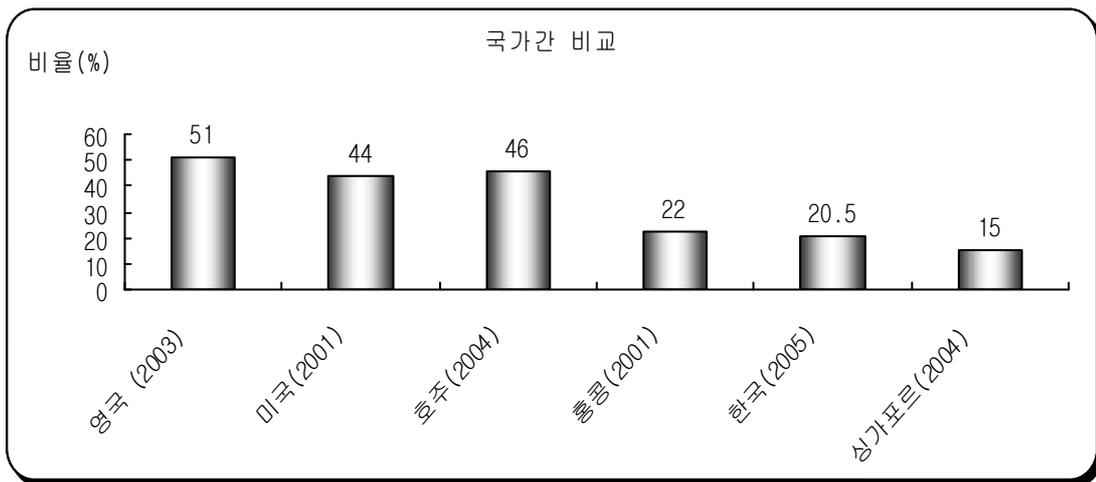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2003년도 영국은 51%, 호주는 2004년도에 46%, 미국은 2001년도에 44%, 홍콩은 2001년도에 22%, 한국은 2005년도에 20.5%, 싱가포르는 2004년도에 15%로 나타났다<표 II-1-2><그림 II-1-2>.

<표 II-1-2>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

국가 (조사 연도)	영국* (2003)	미국** (2001)	호주*** (2004)	홍콩**** (2001)	한국***** (2005)	싱가포르***** (2004)
참여율	51%	44%	46%	22%	20.5%	15%

- * 영국: 공식, 비공식 자원봉사활동, 시민참여(서명운동, 공공 시위에 참여 등 포함)
- ** 미국: 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활동(2001년도 Independent Sector Survey) 2004년도 28.8%(Bureau of Labor Statistics of the US Dept. of Labor)
- *** 호주: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
- **** 홍콩: 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 ***** 한국: 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 ***** 싱가포르: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

<그림 II-1-2>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



다.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4) 참여 실태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개월간과 지난 1주일간 자원봉사참여를 질문한 결과,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는 모두 173명으로 전체응답자 중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4) 여기서 지난 1개월간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정기적인 자원봉사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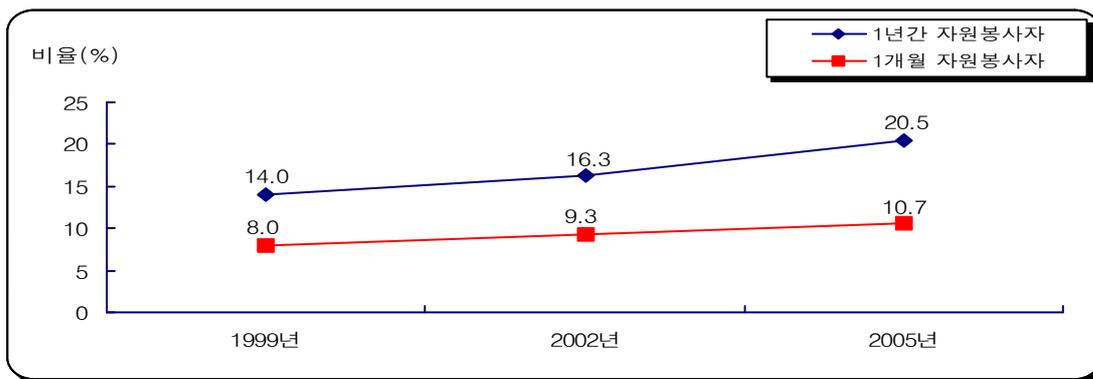
나타났다 <표 II-1-3><그림 II-1-3>.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를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참여자와 비교하면,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 중 52.3%가 지난 1개월 간 자원봉사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반수 이상은 비교적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자원봉사자의 57.1%가 1개월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이다.

<표 II-1-3> 지난 1년간 및 1개월간 자원봉사 참여율

구 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1999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개월간 자원봉사자	173	10.7	141	9.3	123	8.0
1년간 자원봉사자	331	20.5	247	16.3	215	14.02
1개월/1년간 자원봉사자	173/331	52.3	141/247	57.1	123/215	57.1

<그림 II-1-3> 1년간 및 1개월간 자원봉사 참여율



2. 자원봉사자의 특성

가.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1)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 조사된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표 II-2-1>, <표 II-2-3>과 같으며, 전체 응답자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표 II-2-2>와 같다. 지난 1년간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331명, 전체의 20.5%)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이 191명(57.7%)을 차지하고, 남성은 140명(42.3%)을 차지하여 여성참여율이 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9.8%, 2002년도에는 5.2%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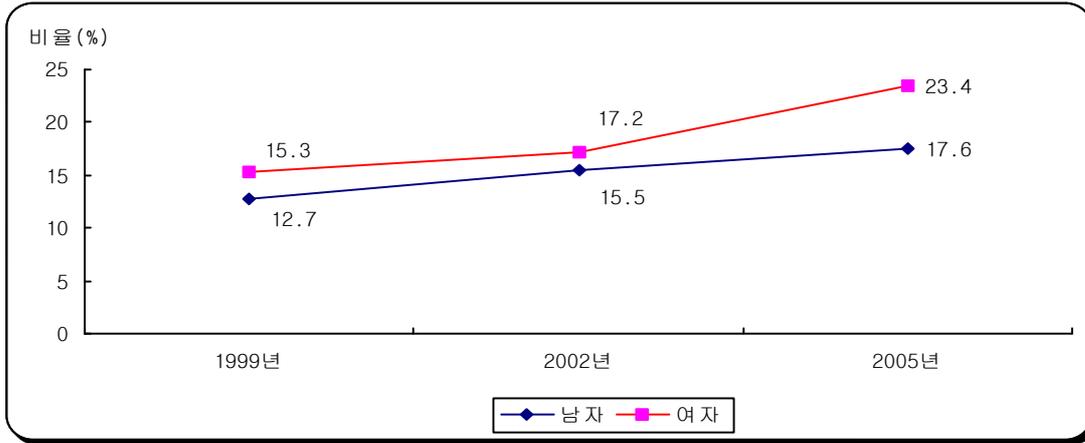
<표 II-2-1>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성별			
남자	140 (42.3)	117 (47.4)	97 (45.1)
여자	191 (57.7)	130 (52.6)	118 (54.9)
연령			
20대	71 (21.5)	59 (23.9)	43 (20.0)
30대	72 (21.8)	52 (21.1)	63 (29.3)
40대	92 (27.8)	84 (34.0)	60 (27.9)
50대	51 (15.4)	52 (21.1)	49 (22.8)
60세 이상	45 (13.6)	-	-
혼인상태			
미혼	74 (22.4)	54 (21.9)	41 (19.1)
기혼	248 (74.9)	186 (75.2)	174 (80.9)
이혼/사별	9 (2.7)	7 (2.8)	-
학력			
초졸이하	-	11 (4.5)	17 (7.9)
중졸	39 (11.8)	29 (11.7)	20 (9.3)
고졸	155 (46.8)	104 (42.1)	105 (48.8)
대재이상	137 (41.4)	103 (41.7)	73 (34.0)
거주지역			
서울	91 (27.5)	57 (23.1)	42 (19.5)
부산	13 (3.9)	15 (6.1)	21 (9.8)
대구	17 (5.1)	15 (6.1)	12 (5.6)
인천	18 (5.4)	12 (4.9)	21 (9.8)
광주	8 (2.4)	11 (4.5)	4 (1.9)
대전	8 (2.4)	3 (1.2)	13 (6.0)
울산	10 (3.0)	6 (2.4)	6 (2.8)
경기	70 (21.1)	38 (15.4)	32 (14.9)
강원	5 (1.5)	7 (2.8)	10 (4.7)
충청	26 (7.9)	21 (8.5)	16 (7.5)
호남	35 (10.6)	19 (7.7)	15 (7.0)
경상	30 (9.1)	43 (17.4)	23 (10.7)
합 계	331 (100.0)	247 (100.0)	2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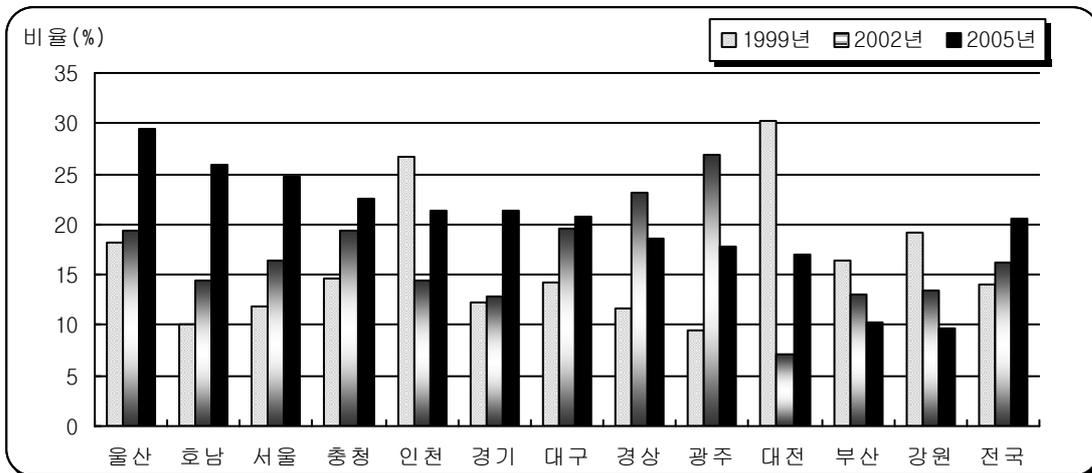
전체 남녀 응답자 가운데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남자 17.6%, 여자 23.4%로서 5.8% 가량 차이가 났다 <표 II-2-2><그림 II-2-1>.

<그림 II-2-1>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분포는 50대 이상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8%, 30대 21.8%, 20대 21.5%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를 다시 50대와 60대로 나누면 각각 15.4%, 13.6%로 전체적으로는 40대, 30대, 20대, 50대, 60대 순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비해 60대를 포함한 50대 이상의 참여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II-2-1>. 전체응답자 중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비율을 보면 40대 (25.1%)가 가장 높고, 50대 (24.1%), 20대(20.0%), 30대(17.8%), 60대 이상(16.5%) 순으로 나타났다<표 II-2-2>.

<그림 II-2-2> 거주 지역별 전체 응답자 중 자원봉사자 비율



<표 II-2-2>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비율

단위 : 명 (%)

구 분	전 체(2005) 빈도(비율)	자원봉사자 (2005) 빈도(비율)	전체응답자중 비율		
			2005	2002	1999
성별					
남자	794(49.3)	140(42.3)	17.6	15.5	12.7
여자	817(50.7)	191(57.7)	23.4	17.2	15.3
연령					
20대	356(22.1)	71(21.5)	19.9	17.4	12.4
30대	405(25.1)	72(21.8)	17.8	10.7	12.5
40대	366(22.7)	92(27.8)	25.1	23	18.1
50대	212(13.2)	51(15.4)	24.1	16.1	14.1
60세 이상	272(16.9)	45(13.6)	16.5	-	-
혼인상태					
미혼	377(23.4)	74(22.4)	19.6	16.3	14.6
기혼	1178(73.1)	248(74.9)	21.1	16.3	13.9
이혼/사별	56(3.5)	9(2.7)	16.1	16.7	-
학력					
초졸이하	-	-	-	8.2	7.7
중졸이하	281(17.4)	39(11.8)	13.9	20.6	11.7
고졸	711(44.1)	155(46.8)	21.8	15.0	15.2
대재이상	619(38.4)	137(41.4)	22.1	18.9	16.3
거주지역					
서울	368(22.8)	91(27.5)	24.7	16.4	11.9
부산	127(7.9)	13(3.9)	10.2	13.0	16.5
대구	82(5.1)	17(5.1)	20.7	19.5	14.3
인천	84(5.2)	18(5.4)	21.4	14.5	26.6
광주	45(2.8)	8(2.4)	17.8	26.8	9.5
대전	47(2.9)	8(2.4)	17.0	7.1	30.2
울산	34(2.1)	10(3.0)	29.4	19.4	18.2
경기	328(20.4)	70(21.1)	21.3	12.8	12.2
강원	52(3.2)	5(1.5)	9.6	13.5	19.2
충청	115(7.1)	26(7.9)	22.6	19.3	14.7
호남	135(8.4)	35(10.6)	25.9	14.5	10.0
경상	194(12.0)	36(9.1)	15.5	23.1	11.6
합 계	1611(100.0)		331(100.0)	247(100.0)	215(100.0)

혼인상태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74.9%가 기혼이며, 미혼이라고 한 경우는 22.4%, 이혼/사별한 경우도 2.7%가 있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88.2%가 고졸이상이었으며, 그 중에서 대재 이상이라고 한 경우도 41.4%로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자의 학력이 1999년 및 2002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이 91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0명(21.1%)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이 50%가까이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별 응답자 중 자원봉사자 비율은 울산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호남(25.9%), 서울(24.7%), 충청(22.6%), 인천(21.4%), 경기(21.3%) 순이었으며, 부산과 강원은 각각 10.2%와 9.6%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II-2-2> <그림 II-2-2>.

자원봉사자 중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전체의 49.8%, 중소도시 39.0%로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자원봉사자들의 90% 가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3>.

자원봉사자의 65%가 비(非)가장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 5%가량 증가했으며, 비교적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의 비율도 35%가 되어, 적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경제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원봉사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주거형태로는 자가 80% 가까이 되어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인 것을 알 수 있다. 주 소득원은 월급이 58.3%로 2002년도에 비해 3% 가량 늘어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사업소득도 35.6%의 적지 않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표 II-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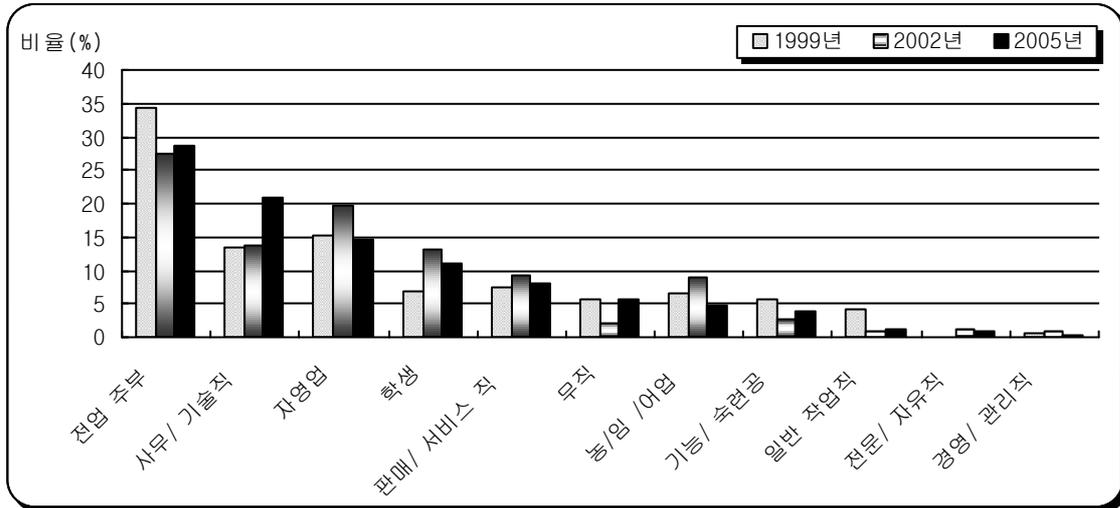
<표 II-2-3>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구 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1999년
지역크기			
대도시	165 (49.8)	117 (47.4)	-
중소도시	129 (39.0)	95 (38.5)	-
읍/면	37 (11.2)	35 (14.2)	-
직업종류			
농/임/어업	16 (4.8)	22 (8.9)	14 (6.5)
자영업	48 (14.5)	49 (19.8)	33 (15.3)
판매·서비스직	27 (8.2)	23 (9.3)	16 (7.4)
기능·숙련공	13 (3.9)	7 (2.8)	12 (5.6)
일반·작업직	4 (1.2)	2 (0.8)	9 (4.2)
사무·기술직	69 (20.8)	34 (13.8)	29 (13.5)
경영·관리직	1 (0.3)	2 (0.8)	1 (0.5)
전문·자유직	3 (0.9)	3 (1.2)	-
전업주부	95 (28.7)	68 (27.5)	74 (34.4)
학생	36 (10.9)	32 (13.0)	15 (7.0)
무직	19 (5.7)	5 (2.0)	12 (5.6)
가장여부			
가장	116 (35.0)	98 (39.7)	-
비가장	215 (65.0)	149 (60.3)	-
주소득원			
월급	193 (58.3)	136 (55.3)	-
사업소득	118 (35.6)	100 (40.7)	-
재산소득	15 (4.5)	10 (4.1)	-
모름/무응답	5 (1.5)	1 (0.4)	-
주거형태			
자가	256 (77.3)	191 (77.3)	-
전세	61 (18.4)	44 (17.8)	-
월세	12 (3.6)	7 (2.8)	-
기타	2 (0.6)	5 (0.9)	-
합 계	331 (100.0)	247 (100.0)	215 (100.0)

자원봉사자의 직업을 보면, 전업주부가 28.7%를 차지하여 1999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으나, 예년에 비해 사무·기술직이 20.8%로 두 번째, 자영업 14.5%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무·기술직의 참여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1999년도 13.5%, 2002년도 13.8%에서 2005년도 20.8%)은 최근 기업

사회공헌이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10.9%를 차지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생들의 사회봉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II-2-3>.

<그림 II-2-3>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직업



성별에 따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40대가 26.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23.6%, 30대가 17.9%, 50대가 17.1%, 60대 이상이 15.0%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역시 40대가 28.8%로 가장 많았으나 30대(24.6%), 20대(19.9%), 50대 14.1%, 60세 이상(12.6%) 순이었다<표 II-2-4>.

<표 II-2-4>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성·연령별 특성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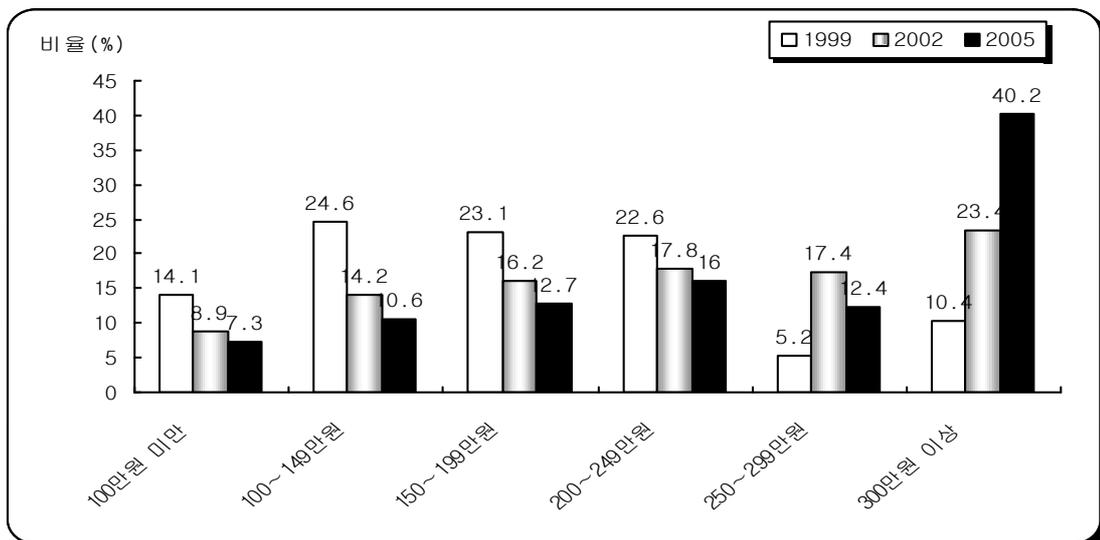
구 분	단위 : 명 (%)		
	남 자	여 자	전 체
20대	33 (23.6)	38 (19.9)	71 (21.5)
30대	25 (17.9)	47 (24.6)	72 (21.8)
40대	37 (26.4)	55 (28.8)	92 (27.8)
50대	24 (17.1)	27 (14.1)	51 (15.4)
60세 이상	21 (15.0)	24 (12.6)	45 (13.6)
계	140 (100.0)	191 (100.0)	331 (100.0)

가족전체의 수입을 포함한 자원봉사자의 한 달 총 수입정도는 300만 원 이상이 40.2%로 가장 많아 중상류층의 자원봉사 참여가 99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 2002년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0만원~249만원 16.0%, 150만원~199만원이 12.7%, 250만원~299만원 12.4%, 100만원~149만원이 10.6% 순으로 나타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갔고 자원봉사자의 80% 이상이 150만 원 이상의 중류층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IMF로 인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었던 1999년도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200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나아진 것을 반영함과 동시에 소득이 안정된 계층들이 점차 자원봉사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표 II-2-5>, <그림 II-2-4>.

<표 II-2-5>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99만원 이하	24	7.3	22	8.9	30	14.1
100-149만원	35	10.6	35	14.2	52	24.6
150-199만원	42	12.7	40	16.2	49	23.1
200-249만원	53	16.0	44	17.8	48	22.6
250-299만원	41	12.4	43	17.4	11	5.2
300만원 이상	133	40.2	58	23.4	22	10.4
모름 / 무응답	3	0.9	5	2.0	3	-
합 계	331	100.0	247	100.0	215	100.0

<그림 II-2-4>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표 II-2-6>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세분화) (2005)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99만원 이하	24	7.3
100-199만원	77	23.3
200-299만원	94	28.4
300-399만원	83	25.1
400-499만원	30	9.0
500만원 이상	20	6.0
모름 / 무응답	3	0.9
합 계	331	100.0

2005년도 자원봉사자들의 소득수준을 300만원 이상을 세분화하고, 100만원 단위로 나눠서 보면, 200~299만원이 28.4%로 가장 많고, 300~399만원 25.1%, 100~199만원 23.3%, 400~499만원 9.0%, 99만원 이하 7.3%, 500만원 이상이 6.0% 순으로 나타났다<표 II-2-6>.

나. 지난 1년 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단체소속 실태

1) 종교단체 소속실태

1999년도와 비교해서 큰 폭(15%)으로, 2002년도와 비교해서는 5% 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원봉사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8.5%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7>, <그림 II-2-5>, <그림 II-2-7>). 자원봉사자 가운데 개신교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20.2%, 가톨릭이 15.7%를 차지하였다. 2002년도에 비해 개신교가 5.7% 증가한 데 비해, 불교는 10% 가량 줄었으며, 가톨릭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종교 없음이 31.4%나 되는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내어 종교와 상관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종교별 전체 응답자 중 자원봉사자의 비율을 보면 가톨릭교도 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30.4%, 개신교 29.1%, 불교 16.7% 순으로 나타나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가톨릭교도들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신교도 2002년도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때 그 동안 개신교의 조직적인 노력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II-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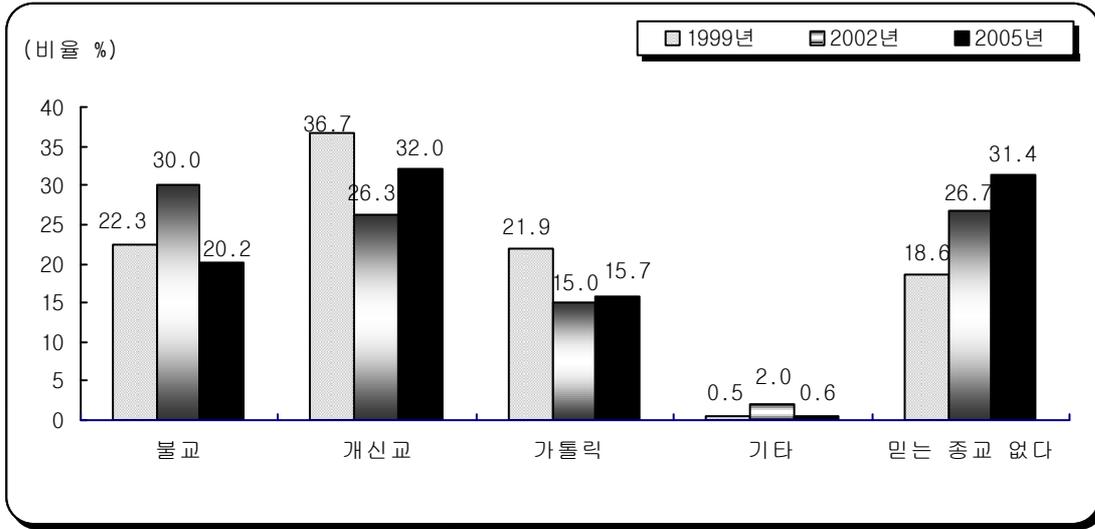
종교단체의 출석정도에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단체에는 2002년도와 거의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매주 간다'가 38.7%로 가장 많았고, '1년에 몇 번만 간다' 12.1%,

‘한 달에 한두 번’ 15.4%의 순으로 나타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절반 인 50.8%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단체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2-6>. 전체 응답자 중에서 종교단체의 출석 정도를 보면, 거의 매주 나간다는 사람들 중 38.6%,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사람들 중 17.9%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종교단체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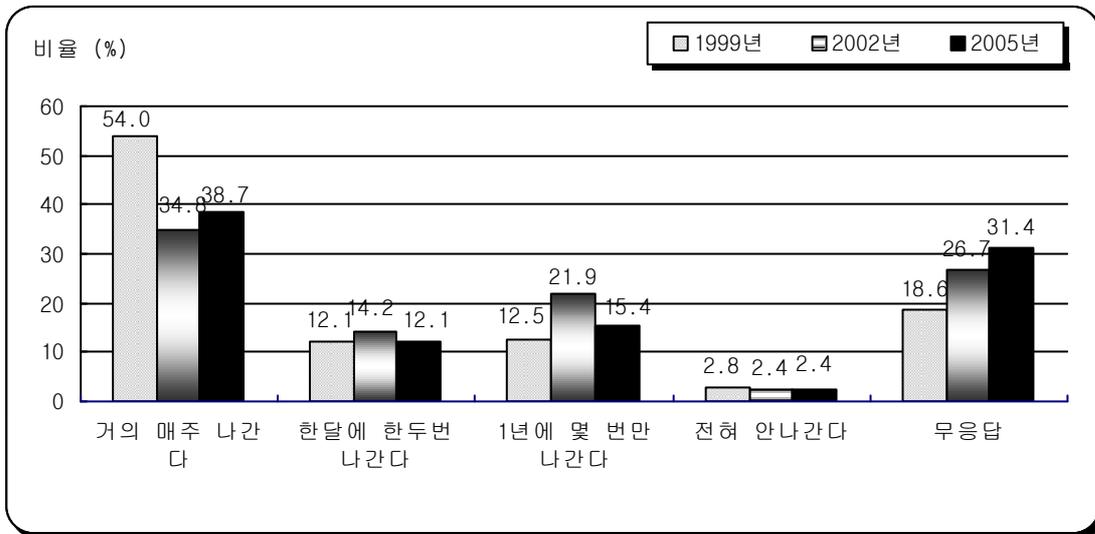
<표 II-2-7>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소속 실태 및 출석 정도

구 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1999년
	자원봉사자 중 비율	종교별전체 응답자 중 비율	자원봉사자 중 비율	종교별전체 응답자 중 비율	
종 교					
불 교	67(20.2)	67/402(16.7)	74(30.0)	74/389(19.0)	48(22.3)
개신교	106(32.0)	106/364(29.1)	65(26.3)	65/312 (20.8)	79(36.7)
가톨릭	52(15.7)	52/171(30.4)	37(15.0)	37/132(28.0)	47(21.9)
기 타	2 (0.6)	2/12 (16.7)	5 (2.0)	5/16 (31.3)	1 (0.5)
믿는 종교 없다	104(31.4)	104/662(15.7)	66(26.7)	66/663 (9.95)	40(18.6)
합 계	331(100)	(100.0)	247(100.0)	215(100.0)	
출석정도					
거의 매주 나간다		128(38.7)		86(34.8)	116(54.0)
한달에 한두 번 나간다		40(12.1)		35(14.2)	26(12.1)
1년에 몇 번만 나간다		51(15.4)		54(21.9)	27(12.5)
전혀 안 간다		8 (2.4)		6 (2.4)	6 (2.8)
무응답		104(31.4)		66(26.7)	40(18.6)
합 계		331(100)		247(100.0)	215(100.0)

<그림 II-2-5> 지난 1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소속실태



<그림 II-2-6>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출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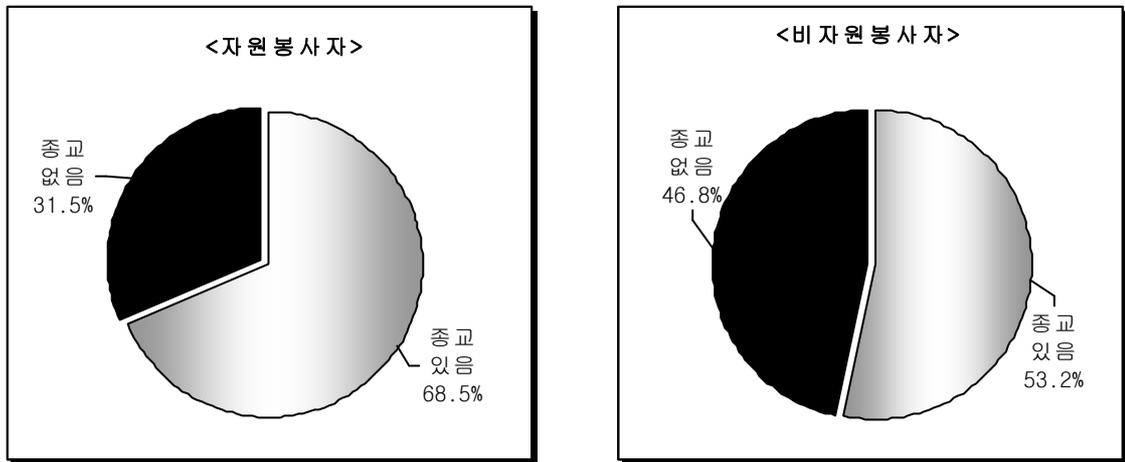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종교의 유무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68.5%(2002년도 73.3%, 1999년도 84.4%)가 종교를 갖고 있으며, 비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반수 정도인 53.2%(2002년도 52.8%, 1999년도 53.7%)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훨씬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종교적인 교리의 영향 때문에 종교단체가 자원봉사의 수요처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표 II-2-8>.

<표 II-2-8> 지난 1년 간 자원봉사자의 종교 유무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종교 있음	자원봉사자	227	68.5	181	73.3	175	84.4
	비자원봉사자	681	53.2	668	52.8	708	53.7
종교 없음	자원봉사자	104	32.0	66	26.7	40	18.6
	비자원봉사자	599	48.8	597	47.2	610	46.3

<그림 II-2-7>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소속 실태 (2005)



2)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를 살펴보면, <표 II-2-9>, <그림 II-2-8>과 같다. 소속여부에서는 응답자 331명이 중복응답으로 모두 936개의 응답을 하여 자원봉사자가 평균 2.8개 단체(2002년도 3.1개, 1999년도 2.8개)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의 순서들도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9>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단위 : 명 (%)			
단체 유형	2005년/명(%**)	2002년/명(%***)	1999년/명(%****)
봉사단체	37 (11.2)	102 (41.3)	76 (35.3)
계모임	224 (67.7)	160 (64.8)	110 (51.2)
동창회	192 (58.0)	142 (57.5)	102 (47.4)
지역 시민단체	34 (10.3)	50 (20.2)	37 (17.2)
학교모임·학부모회	67 (20.2)	54 (21.9)	34 (15.8)
직장관련단체	83 (25.1)	60 (24.3)	49 (22.8)
전국 시민단체	17 (5.1)	21 (8.5)	12 (5.6)
종교적 가입단체	120 (36.3)	95 (38.5)	88 (40.9)
정치조직·정당	8 (2.4)	10 (4.0)	7 (3.3)
재향군인회	17 (5.4)	11 (4.5)	8 (3.7)
노동조합	10 (3.0)	6 (2.4)	7 (3.3)
스포츠·취미단체	95 (28.7)	66 (26.7)	48 (22.3)
국민운동단체	32 (9.7)	-	-
계	936*	777*	578*
자원봉사 평균 소속 단체	2.8개	3.1개	2.7개
* 중복응답임		*** 자원봉사자 247명 중의 비율임	
** 자원봉사자 331명중의 비율임		**** 자원봉사자 215명 중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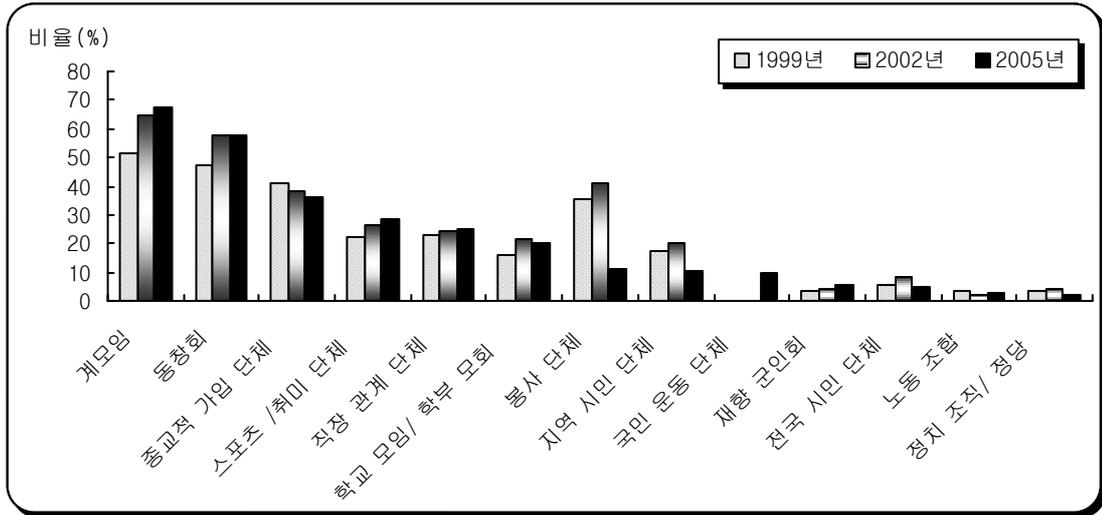
자원봉사자 중에서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는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계모임(67.7%), 동창회(58.0%), 종교적 가입단체(36.3%), 스포츠·취미단체(28.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1999년도부터 발견되는 추이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보다는 친목소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참가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43.2%(2002년도 48.8%)로 가장 높아, 종교단체에서 거의 매주 활동하는 자원봉사자(48.5%)가 많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부표 II-6>.

자원봉사자들의 단체 참가정도에 있어서는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봉사단체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몇 번'이 24.3%, 거의 매 주가 21.6%의 순으로 나타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70%(2002년도 75.5%)는 정기적으로 봉사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모임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한다'가 68.8%, '일 년에 몇 번'이 2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창회모임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자의 과반수이상인 63.5%가 일 년에 몇 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봉사단체와는 다르게 친목소모임이 그다지 자주 있지 않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II-2-8>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중복응답임

공동육아, 협동조합, 지역 환경관련 모임, 자치위원회 등과 같은 지역시민단체(풀뿌리조직) 및 환경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전국적 시민단체에의 소속여부에서는 각각 10.3%, 5.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의 시민단체에의 참여율은 친목모임과 종교적 가입단체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및 1999년도에 비해 봉사단체 참여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지역시민단체의 참여율도 줄어들었는데 비해 2005년도에 새로이 분류한 적십자사, 새마을 등 “국민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봉사단체와 지역시민단체와 거의 비슷한 9.7%로 나타나 과거 봉사단체와 지역시민단체 소속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국민운동단체 소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참가정도(<부표 II-6>)는 지역시민단체 소속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55.9%(19명)로 가장 많았고, ‘일 년에 몇 번’이 32.4%(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민단체 소속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58.8%(10명), ‘일 년에 몇 번’이 23.5% 순으로 나타나 2002년도와 달리 절반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비교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및 지역 시민단체의 소속정도가 낮게 나타나 자원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직장관련단체에의 소속은 25.1%(83명)로 스포츠·취미단체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소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속된 자원봉사자 중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참가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62.7%(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 관련된 학교모임이나 학부모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20.2%(67명)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는 59.7%(40명), '일 년에 몇 번' 참석하는 경우는 34.3%(23명)로 나타났다.

종교적인 가입단체에 참가정도에 있어서는 '거의 매주 참석한다'가 45.8%(5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달에 한두 번'이 40.0%(4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다른 단체보다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 더 자주 참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정치조직·정당, 재향군인회 그리고 노동조합 소속비율은 2005년도 및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높은 참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스포츠·취미단체에 있어서 참가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참가한다.'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주 참석한다.'도 34.8%로 규칙적인 참가를 보여주고 있다<표 II-2-9>.

<표 II-2-10>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가 비율(2005년도)
단위 : 명 (%)

단체 유형	소속한 사람*	자원봉사자**
봉사단체	56	37(66.1)
계모임	1017	224(22.0)
동창회	780	192(24.6)
재향군인회	61	18(29.5)
학교모임·학부모회	170	67(39.4)
직장관련단체	306	83(27.1)
국민운동단체	46	32(69.6)
전국시민단체	29	17(58.6)
종교적 가입단체	304	120(39.5)
정치조직/정당	18	8(44.4)
노동조합	29	10(34.5)
스포츠·취미단체	332	95(28.6)
지역시민단체	47	34(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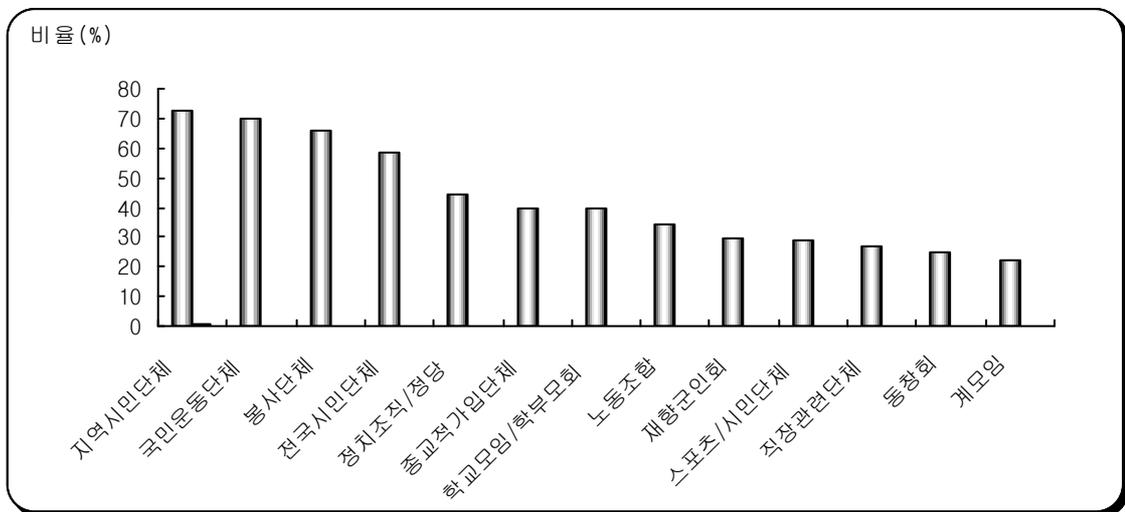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1,611명 중에 각 단체에 소속한 사람의 수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 331명 중에 각 단체에 소속한 사람의 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가 비율을 살펴보면(<표 II-2-10>, <그림 II-2-9>), 전반적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원

봉사 참여를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풀뿌리조직과 같은 지역시
민단체에 소속한 사람들 중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72.3%), 국민운동단체
(69.6%), 봉사단체(66.1%), 전국시민단체(58.6%), 정치조직/정당(44.4%), 종교적 가입단체
(39.5%), 학교모임/학부모회(39.4%) 순으로 자원봉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원봉사자 분포
중에서 지역시민단체, 전국시민단체, 정치조직/정당에 소속한 비율은 낮으나, 일단 이러한 단
체에 소속하는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모임(22.0%)
과 동창회(24.6%)는 가장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여주어 사람들이 친목모임에 많이 소속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원봉사 참여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2-9>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가 비율 (2005년도)



다.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1)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 조사된 2005년도 및 2002년도, 1999년도의 지난 1개월 간 참여한 자원봉사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 <표 II-2-11>과 같다.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자가 104명(60.1%)으로 남자 69명
(39.9%)보다 20.2%가 더 많아 2002년도의 12% 차이, 1999년도의 9.0% 차이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여성들이 보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
대가 30.6%로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3.7%, 50대 17.3%,
60대 이상 15.6%, 20대 12.7%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50대 이상을 50대와 60대 이상

으로 나누어 분석을 했는데, 이를 다시 50대 이상으로 묶으면 1999년도 26.0% 및 2002년도 19.9%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32.9%로 나타나 50대 이상 노년층의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다른 층에 비해 비교적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의 참여는 12.7%로서 2002년도의 17.0%, 99년도의 14.6%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

혼인상태를 보면, 1개월 참여 자원봉사자의 82.7%가 기혼이며, 미혼이라고 한 경우는 14.5%, 이혼/사별의 경우는 2.7%에 불과하여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86.7%가 고졸이상이었으며, 대재 이상이라고 한 경우도 36.4%로 높게 나타나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비해 더 높아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이 53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4명(19.7%), 호남이 18명(10.4%), 경상이 17명(9.8%), 충청이 12명(6.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적지만 비슷한 비율을 보여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 지역 별 전체 응답자 중 1개월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울산 20.6%, 인천 17.1%, 서울 14.4%, 광주와 호남이 동일하게 13.3%의 순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별 1년 자원봉사자 비율의 순서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표 II-2-1>.

<표 II-2-11>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성별	남자	69 (39.9)	62 (44.0)	56 (45.5)
	여자	104 (60.1)	79 (56.0)	67 (54.5)
연령	20대	22 (12.7)	24 (17.0)	18 (14.6)
	30대	41 (23.7)	32 (22.7)	33 (26.8)
	40대	53 (30.6)	57 (40.4)	40 (32.5)
	50대	30 (17.3)	29 (19.9)	32 (26.0)
	60세 이상	27 (15.6)	-	-
혼인상태	미혼	25 (14.5)	21 (14.9)	18 (14.6)
	기혼	143 (82.7)	116 (82.3)	105 (85.4)
	이혼/사별	5 (2.7)	4 (2.8)	-
학력	초졸이하	-	8 (5.7)	9 (7.3)
	중졸	23 (13.3)	16 (11.3)	12 (9.8)
	고졸	87 (50.3)	69 (48.9)	64 (52.0)
	대재이상	63 (36.4)	48 (34.1)	38 (30.9)
거주지역	서울	53 (30.6)	32 (22.7)	28 (22.8)
	부산	5 (2.9)	7 (5.0)	15 (12.2)
	대구	4 (2.3)	10 (7.1)	6 (4.9)
	인천	9 (5.2)	6 (4.3)	13 (10.6)
	광주	6 (3.5)	6 (4.3)	2 (1.6)
	대전	5 (2.9)	2 (1.4)	6 (4.9)
	울산	7 (4.0)	4 (2.8)	-
	경기	34 (19.7)	21 (14.9)	20 (16.3)
	강원	3 (1.7)	5 (3.5)	6 (4.9)
	충청	12 (6.9)	14 (9.9)	8 (6.5)
	호남	18 (10.4)	14 (9.9)	10 (8.2)
	경상	17 (9.8)	20 (14.2)	9 (7.3)
	합 계		173 (100.0)	141 (100.0)

<표 II-2-12>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비율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1개월간 자원봉사자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 중 비율
성별			
남자	794(49.3)	69 (39.9)	8.7
여자	817(50.7)	104 (60.1)	12.7
연령			
20대	356(22.1)	22 (12.7)	6.2
30대	405(25.1)	41 (23.7)	10.1
40대	366(22.7)	53 (30.6)	14.5
50대	212(13.2)	30 (17.3)	14.2
60세 이상	272(16.9)	27 (15.6)	9.9
혼인상태			
미혼	377(23.4)	25 (14.5)	6.6
기혼	1178(73.1)	143 (82.7)	12.1
이혼/사별	56(3.5)	5 (2.7)	8.9
학력			
중졸이하	281(17.4)	23 (13.3)	8.2
고졸	711(44.1)	87 (50.3)	12.2
대재이상	619(38.4)	63 (36.4)	10.2
거주지역			
서울	368(22.8)	53 (30.6)	14.4
부산	127(7.9)	5 (2.9)	3.9
대구	82(5.1)	4 (2.3)	4.9
인천	84(5.2)	9 (5.2)	10.7
광주	45(2.8)	6 (3.5)	13.3
대전	47(2.9)	5 (2.9)	10.6
울산	34(2.1)	7 (4.0)	20.6
경기	328(20.4)	34 (19.7)	10.4
강원	52(3.2)	3 (1.7)	5.8
충청	115(7.1)	12 (6.9)	10.4
호남	135(8.4)	18 (10.4)	13.3
경상	194(12.0)	17 (9.8)	8.8
합 계	1611(100.0)		

성별에 따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40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0.3%), 50대(18.8%), 60대 이상(17.40%), 20대(10.1%)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역시 4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6.0%), 50대(16.3%), 60대 이상과 20대가 같은 14.4% 순으로 나타

나 남녀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3>.

<표 II-2-13> 지난 1개월 간 자원봉사자의 성·연령별 특성

구 분	단위 : 명(%)		
	남 자	여 자	전 체
20대	7 (4.0)	15 (8.7)	22 (12.7)
30대	14 (8.1)	27 (15.6)	41 (23.7)
40대	23 (13.3)	30 (17.3)	53 (30.6)
50대	13 (7.5)	17 (9.8)	30 (17.3)
60세 이상*	12 (6.9)	15 (8.7)	27 (15.6)
계	69 (100.0)	104 (100.0)	173 (100.0)

* 60세 이상은 60~75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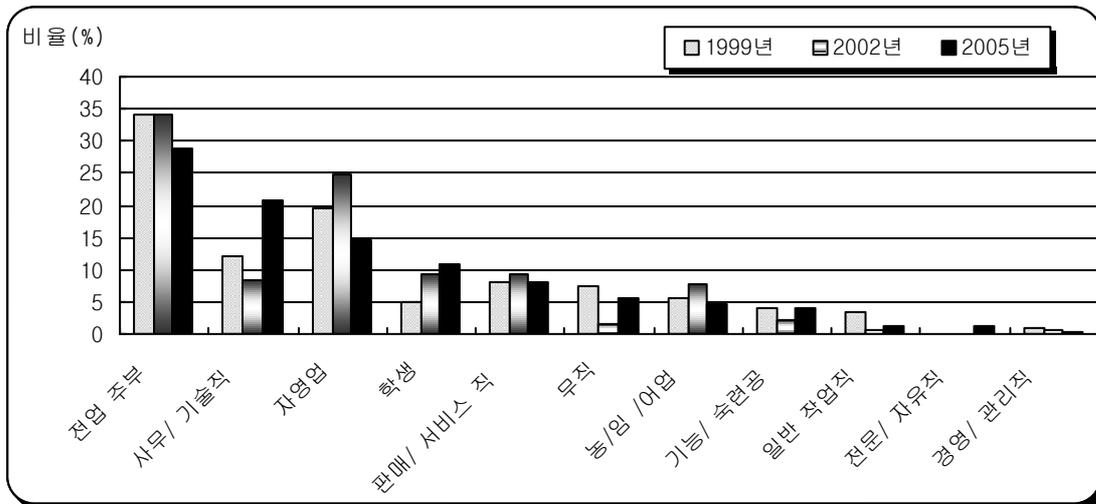
1개월간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가정주부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기술직 20.2%, 자영업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사무·기술직의 참여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은 최근 기업 사회공헌이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개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판매·서비스직이 네 번째로 8.7%를 차지해, 사무·기술직과 아울러 많은 직장인들이 바쁘지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경우 2002년도의 9.2%보다 줄어든 5.8%로 나타났으며, 무직은 2002년도보다 늘어난 5.8%로 나타나 전반적인 실업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II-2-14>, <그림 II-2-10>.

<표 II-2-14>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직업

구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1999년
농업/임업/어업	10 (5.8)	11 (7.8)	7 (5.7)
자영업	27 (15.6)	35 (24.8)	24 (19.5)
판매·서비스직	15 (8.7)	13 (9.2)	10 (8.1)
기능·숙련공	5 (2.9)	3 (2.1)	5 (4.1)
일반직업직	2 (1.2)	1 (0.7)	4 (3.3)
사무·기술직	35 (20.2)	12 (8.5)	15 (12.2)
경영·관리직	1 (0.6)	1 (0.7)	1 (0.8)
전문·자유직	2 (1.2)	-	-
전업주부	56 (32.4)	48 (34.0)	42 (34.1)
학생	10 (5.8)	13 (9.2)	6 (4.9)
무직	10 (5.8)	2 (1.4)	9 (7.3)
계	173 (100.0)	79 (100.0)	141 (100.0)

<그림 II-2-10>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직업



지난 1개월 자원봉사자 중 무응답 2인을 제외한 자원봉사자 가정의 한 달 총 소득을 살펴보면, <표 II-2-15>와 같다. 월평균 소득은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상이 39.9%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249만원 15.0%, 150만원~199만원 13.3%, 100만원~149만원 12.1%, 250만원~299만원 10.4% 순으로 나타나,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갔고 1개월 자원봉사자의 80% 가량이 150만원 이상의 중류층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예년에 비해 소득이 안정된 계층들

이 점차 자원봉사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표 II-2-15>, <그림 II-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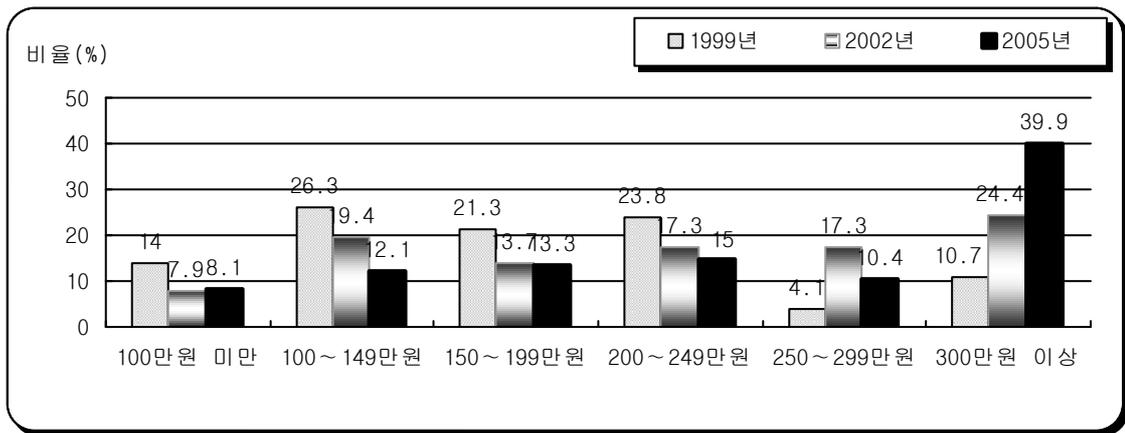
1개월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소득수준을 300만원 이상을 세분화하고, 100만원 단위로 나눠서 보면, 200~299만원과 100~199만원이 똑 같이 25.4%로 가장 많고, 300~399만원 24.3%, 400~499만원 9.8%, 99만원 이하 8.1%, 500만원 이상이 5.8% 순으로 나타나 1년 간 참여 자원봉사자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표 II-2-16>.

<표 II-2-15>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99만원 이하	14	8.1	11	7.9	17	14.0
100~149만원	21	12.1	27	19.4	32	26.3
150~199만원	23	13.3	19	13.7	26	21.3
200~249만원	26	15.0	24	17.3	29	23.8
250~299만원	18	10.4	24	17.3	5	4.1
300만원 이상	69	39.9	34	24.4	13	10.7
무응답	2	1.2	-	-	-	-
합 계	173	100.0	139	100.0	122	100.0

<그림 II-2-11>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와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보면 <표 II-2-16>와 같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6> 지난 1개월간 및 1년간 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비교

단위 : 원 (%)

구 분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99만원 이하	14	8.1	24	7.3
100-199만원	44	25.4	77	23.3
200-299만원	44	25.4	94	28.4
300-399만원	42	24.3	83	25.1
400-499만원	17	9.8	30	9.0
500만원 이상	10	5.8	20	6.0
모름 / 무응답	2	1.2	3	0.9
합 계	173	100.0	331	100.0

라.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단체소속 실태

가) 종교단체 소속실태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비교해서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4.2%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7>, <그림 II-2-12>. 자원봉사자 가운데 개신교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18.5%, 가톨릭이 16.2%를 차지하였다. 2002년도에 비해 개신교가 3.3% 증가한 데 비해, 불교는 12% 가량 줄었으며, 가톨릭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종교 없음이 34.7%나 되는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내어 종교와 상관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종교별 전체 응답자 중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비율을 보면 가톨릭교도 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16.4%, 개신교 14.0%, 불교 8.0% 순으로 나타나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에서도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가톨릭교도들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표 II-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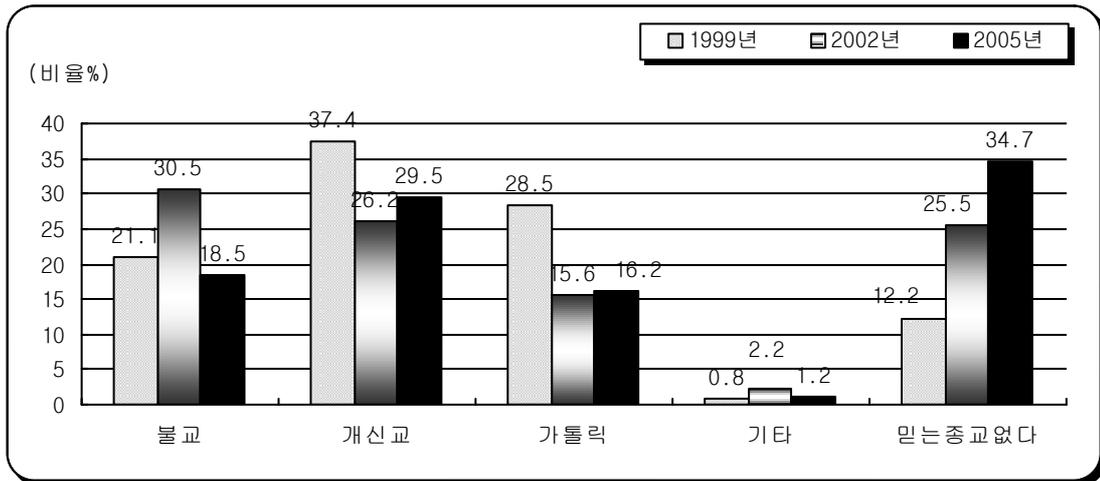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에도 비교적 자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단체에 대한 출석정도도 거의 매주 나간다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달에 한두 번도 9.8%로 나타나 종교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교단체 출석 정도는 1999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17> 지난 1개월 간 자원봉사자의 종교소속 실태 및 출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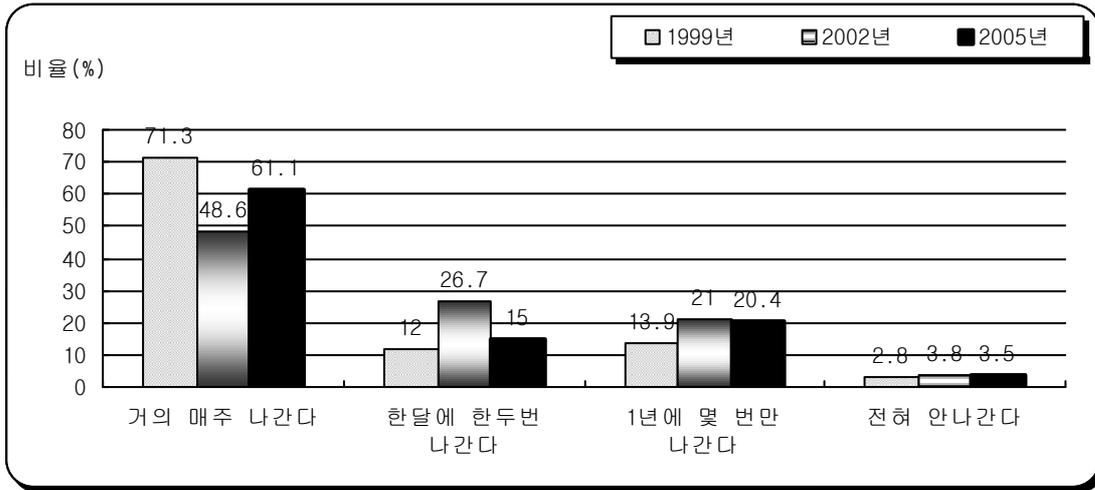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2년		1999년
	자원봉사자 중 비율	전체 응답자 중 비율	자원봉사자 중 비율	전체 응답자 중 비율	
종교					
불교	32 (18.5)	32/402 (8.0)	43 (30.5)	43/389(11.1)	26(21.1)
개신교	51 (29.5)	51/364(14.0)	37 (26.2)	37/312(11.9)	46(37.4)
가톨릭	28 (16.2)	28/171(16.4)	22 (15.6)	22/132(16.7)	35(28.5)
기타	2 (1.2)	2/12 (1.7)	3 (2.2)	3/16(18.8)	1 (0.8)
믿는 종교 없다	60(34.7)	60/662 (9.1)	36 (25.5)	36/663(5.4)	15(12.2)
합계	173(100)		141(100)		123(100)
출석정도					
거의 매주		106 (61.1)		51 (48.6)	77 (71.3)
한달에 한두 번		26 (15.0)		28 (26.7)	13 (12.0)
1년에 몇 번만		35 (20.4)		22 (21.0)	15 (13.9)
전혀		6 (3.5)		4 (3.8)	3 (2.8)
합계		173(100)		105(100)	108(100)

<그림 II-2-12> 지난 1개월 간 자원봉사자의 종교소속 실태



<그림 II-2-13> 지난 1개월 간 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출석정도



지난 1년간 참여한 불교인, 개신교인, 가톨릭교인 자원봉사자들 중 지난 1개월간 참여한 사람은 각각 47.7%, 48.1%, 53.8%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가톨릭교도들이 타종교보다 좀 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종교인 중 지난 1개월간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비율도 57.7%로 나타나 1999년도의 37.5%와 비교하여 볼 때, 2002년도(54.5%) 및 2005년도에는 비종교인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I-2-18>.

<표 II-2-18> 1년간 자원봉사자 대비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종교 소속 비율

구 분	2005		2002	1999
	1개월 참여 자원봉사자 / 1년간 참여 자원봉사자	비율	비율	비율
종 교				
불 교	32 / 67	47.7	58.1	54.2
개신교	51 / 106	48.1	56.9	58.2
가톨릭	28 / 52	53.8	59.5	74.5
기 타	2 / 2	100.0	60	100.0
무 교	60/104	57.7	54.5	37.5
합 계	173 / 331	57.2	57.1	57.1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의 경우, 68.5%가 종교를 갖고 있으며,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는

65.3%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비자원봉사자가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44.1%인데 비하면(<부표 II-4> 참고),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를 살펴보면, <표 II-2-19>, <그림 II-2-14>와 같다. 소속여부에서는 응답자 173명이 중복응답으로 모두 534개의 응답을 하여 자원봉사자가 평균 3.1개 단체(2002년도 3.5개, 1999년도 3.0개)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의 순서들도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참여 자원봉사자 중에서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는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계모임(74.0%), 동창회(58.0%), 종교적 가입단체(36.4%), 직장관련 단체(28.9%), 스포츠/취미단체(27.7%)의 순으로 나타나며, 소속 단체의 고른 분포를 보여준다. 2005년도에는 국민운동 단체를 따로 구분하여 질문을 한 결과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봉사단체의 소속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도부터 발견되는 추이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보다는 친목소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참가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 9.8% (2002년도 52.3%, 1999년도 47%)로 가장 높아, 종교단체에서 거의 매주 활동하는 자원봉사자(2005년도 50.8%, 2002년도 44.3%, 1999년도 73.3%)가 많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부표 II-7>.

1개월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단체 참가정도에 있어서는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봉사단체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 주가 30.8%, 1년에 몇 번이 7.7%'의 순으로 나타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84.6%(2002년도 75.5%)는 정기적으로 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자원봉사자의 70%에 비해 보다 빈번히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모임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한다'가 65.6%, '일 년에 몇 번'이 20.3%의 순으로 나타나 계모임에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창회모임의 경우에는 1개월 자원봉사자의 과반수이상인 57.3%가 일 년에 몇 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봉사단체와는 다르게 친목소모임이 그다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지역 환경관련 모임, 자치위원회 등과 같은 지역시민단체(풀뿌리조직) 및 환경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전국적 시민단체에의 소속여부에서는 각각 13.3%, 6.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1년간 자원봉사자(각각 10.3%, 5.1%)에 비해 1개월 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단체에 다소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의 시민단체에의 참여율은 친목모임과 종교적 가입단체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도 및 2002년도에 비해 봉사단체 참여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지역시민단체와 전국 시민단체의 참여율도 다소 줄어들었는데 비해, 2005년도에 새로이 분류한 적십자사, 새마을 등 “국민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봉사단체와 지역시민단체와 거의 비슷한 12.7%로 나타나 1년 자원봉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봉사단체와 지역시민단체 소속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국민운동단체 소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참가정도는 지역시민단체 소속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60.9%(14명)로 가장 많았고, ‘일 년에 몇 번’이 21.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민단체 소속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이 66.7%(8명), ‘일 년에 몇 번’이 25.0%(13명) 순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1개월 자원봉사자들이 비교적 정기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19>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단체 유형	단위 : 명 (%)		
	2005년/빈도(% ^{**})	2002년/빈도(% ^{***})	1999년/빈도(% ^{****})
봉사단체	26 (15.0)	75 (53.2)	63 (51.2)
계모임	128 (74.0)	96 (68.1)	63 (51.2)
동창회	100 (58.0)	78 (55.3)	57 (46.3)
지역 시민단체	23 (13.3)	38 (27.0)	27 (22.0)
학교모임/학부모회	43 (24.9)	34 (24.1)	21 (17.1)
직장관련단체	50 (28.9)	35 (24.8)	27 (22.0)
전국 시민단체	12 (6.9)	19 (13.5)	9 (7.3)
종교적 가입단체	63 (36.4)	57 (40.4)	61 (49.6)
정치조직/정당	8 (4.6)	6 (4.3)	6 (4.9)
재향군인회	8 (4.6)	8 (5.7)	6 (4.9)
노동조합	3 (1.7)	3 (2.1)	4 (3.3)
스포츠/취미단체	48 (27.7)	44 (31.2)	26 (21.1)
국민운동단체	22 (12.7)	-	-
계	534*	493*	370*
1개월 자원봉사자의 소속 단체 개수	3.1개	3.5개	3.0개

* 중복응답임.

** 1개월 자원봉사자 173명중의 비율임

*** 1개월 자원봉사자 141명 중의 비율임

**** 1개월 자원봉사자 123명 중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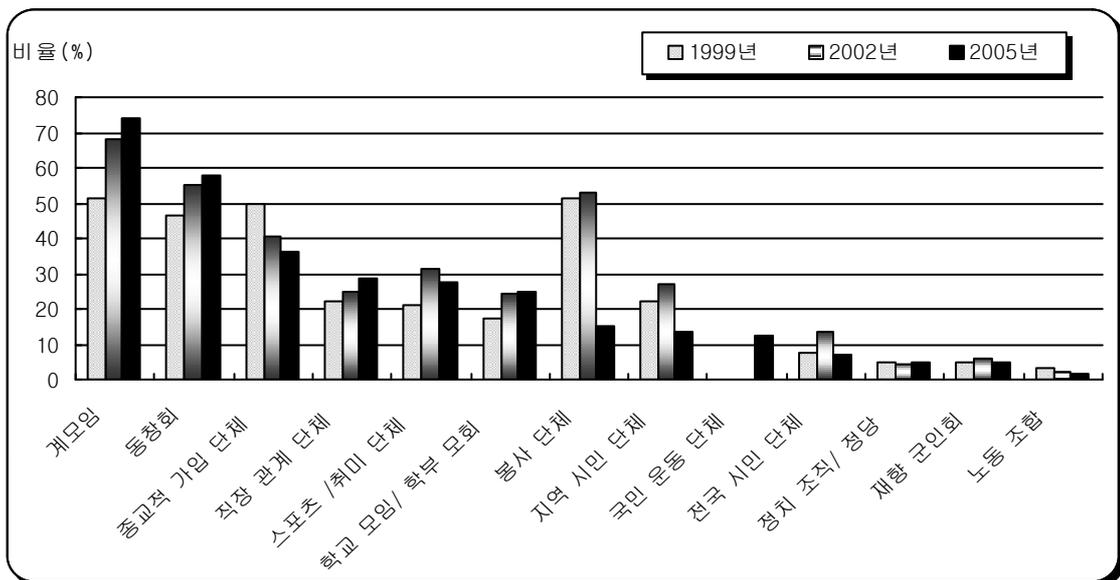
1개월 자원봉사자의 직장관련단체에의 소속은 28.9%(50명)로 스포츠/취미단체보다 약간 높은 소속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속된 자원봉사자 중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참가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72.0%(3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높은 참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스포츠/취미단체에 있어서 참가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참가한다'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주 참석한다'도 35.4%로 규칙적인 참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와 관련된 학교모임이나 학부모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24.9%(43명)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는 60.5%(26명), '일 년에 몇 번' 참석하는 경우는 34.9%(15명)로 나타났다.

종교적인 가입단체에 참가정도에 있어서는 '거의 매주 참석한다'가 50.8%(3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달에 한두 번'이 36.5%(2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자원봉사자가 다른 단체보다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 더 자주 참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표 II-7>.

2002년도에 새로이 넣은 국민운동단체의 참여비율은 12.7%(22명)이며, 참가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 63.6%(14명)로 가장 높았고, '거의 매 주'와 '일년에 몇 번'이 각각 똑같이 18.2%(4명)로 나타나 여기에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정치조직/정당, 재향군인회 그리고 노동조합 소속비율(각각 동일하게 4.6%)은 1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4>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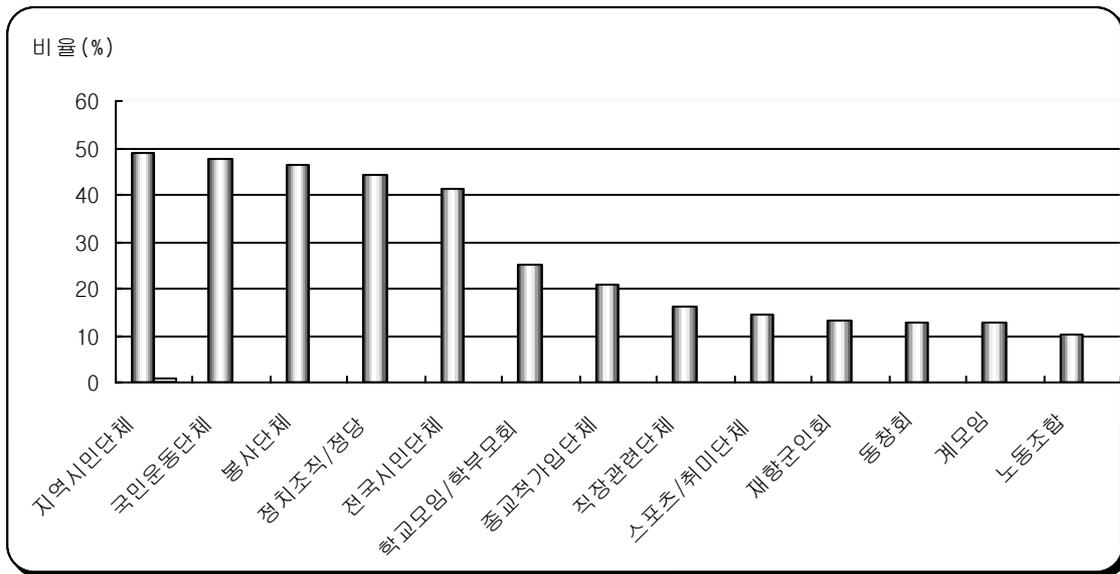
<표 II-2-20>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가 비율(2005년도)

단체 유형	단위 : 명 (%)	
	소속한 사람*	자원봉사자** (%)
봉사단체	56	26(46.4)
계모임	1017	128(12.6)
동창회	780	100(12.8)
재향군인회	61	8(13.1)
학교모임·학부모회	170	43(25.3)
직장관련단체	306	50(16.3)
국민운동단체	46	22(47.8)
전국시민단체	29	12(41.4)
종교적 가입단체	304	63(20.7)
정치조직/정당	18	8(44.4)
노동조합	29	3(10.3)
스포츠·취미단체	332	48(14.5)
지역시민단체	47	23(48.9)

* 전체 응답자 1,611명 중에 각 단체에 소속한 사람의 수

**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 331명 중에 각 단체에 소속한 사람의 수

<그림 II-2-15>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가 비율 (2005년도)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여부에 따른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가 비율을 살펴 보면(<표 II-2-20>,<그림 II-2-15>), 1년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풀뿌리조직과 같은 지역시민단체에 소속한 사람들 중의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8.9%), 국민운동단체(47.8%), 봉사단체(46.4%), 정치조직/정당(44.4%), 전국시민단체(41.4%), 학교모임/학부모회(25.3%), 종교적 가입단체(20.7%), 순으로 자원봉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1년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분포 중에서 지역시민단체, 전국시민단체, 정치조직/정당에 소속한 비율은 낮으나, 일단 이러한 단체에 소속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모임(22.0%)과 동창회(24.6%)는 낮은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여주어 1년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친목모임에 많이 소속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원봉사 참여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10.3%)이 가장 낮은 정기적인 자원봉사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원봉사 활동영역과 내용

가.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기관(수요처)의 유형⁵⁾에 대해 질문을 해 보았다.

<표 II-3-1>는 자원봉사 활동기관별 자원봉사자 수 및 영역별 활동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경험에 대해서는 331명이 모두 421개의 응답을 하여, 자원봉사자 1인 평균 1.3개의 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비슷한 참여 기관의 수(<표 II-3-4>)를 나타내고 있다(2002년 1.3개, 1999년 1.4개). 활동기관 수에서는 대다수인 79.8%의 자원봉사자들이 1곳의 활동기관에서 활동한 반면, 20.2%의 자원봉사자만이 2개 이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체별로 지난 1년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기관을 복수응답 사례 수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관 31.4%, 종교단체가 19.2%, 교육기관 13.5%, 관공서 10.9%, 공익민간단체 6.4%, 보건의료기관 5.0%, 환경단체 2.9%, 성인취미단체 및 노동조합이 동일하게 2.8%, 예술문화단체 2.1%, 국제기구 1.9%, 정치조직/정당과 청소년단체가 동일하게 1.0%, 기업운영민간재단이 0.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3-1>. 1999년도(<표 II-3-3>)에 비해 2002년도(<표 II-3-2>)와

5) 각 자원봉사 활동영역에 대한 설명은 <부표 II-8>를 참조할 것.

2005년도 모두 종교기관에서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2002년도에는 '관공서'라는 기관종류를 설문에 넣음으로써 종교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활동한 곳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늘어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도에는 종교기관을 통해서 연결된 다른 곳에서의 봉사활동들까지 응답자들이 그냥 종교기관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 보건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변화이며, 2002년도에 단 한 명에 불과했던 노동조합에서의 자원봉사자가 10명으로 늘어난 것은 노동운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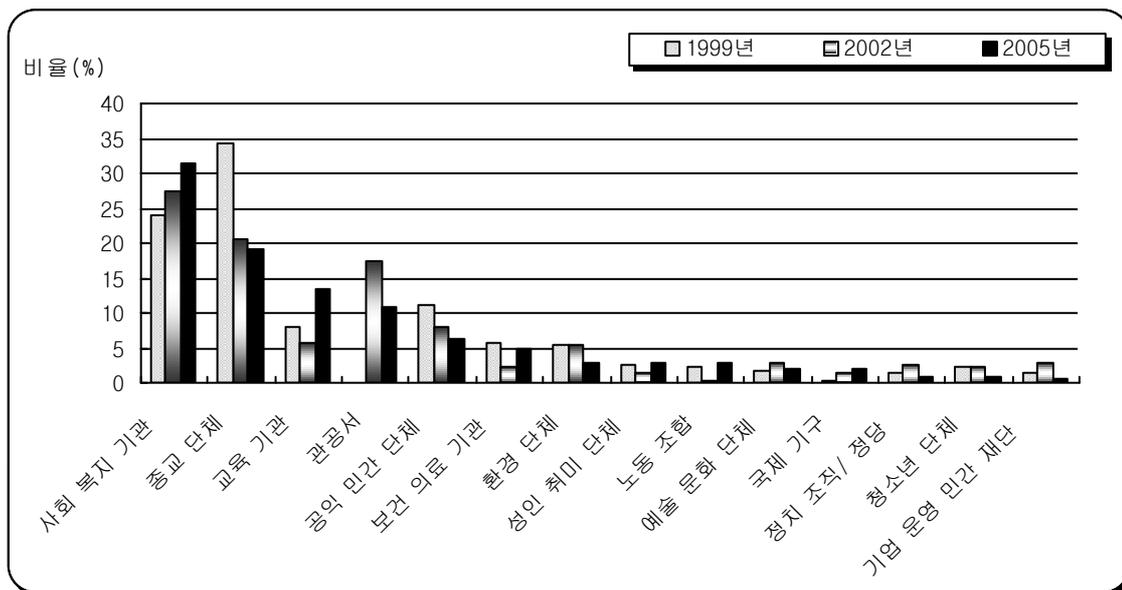
<표 II-3-1>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2005년)

단위 : 명 (%)

2005년	활동경험*		기 관 수				
			1곳		2곳 이상		1곳과 2곳 비율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건의료기관	21	6.3	18	85.7	3	14.3	100.0
교육기관	57	17.2	52	91.2	5	8.8	100.0
종교단체	81	24.5	63	77.8	18	22.2	100.0
사회복지기관	132	39.9	104	78.8	28	21.2	100.0
환경단체	12	3.6	11	91.7	1	8.3	100.0
공익민간단체	27	8.2	22	81.5	5	18.5	100.0
성인취미단체	10	3.0	8	80.0	2	20.0	100.0
예술문화단체	9	2.7	7	77.8	2	22.2	100.0
노동조합	10	3.0	7	70.0	3	30.8	100.0
정치조직·정당	4	1.2	3	75.0	1	25.0	100.0
관공서	46	13.9	33	71.7	13	28.3	100.0
청소년단체	4	1.2	3	75.0	1	25.0	100.0
기업운영민간재단	3	0.9	2	66.7	1	33.3	100.0
국제기구	5	1.5	3	60.0	2	40.0	100.0
합 계	421	100.0	336	79.8	85	20.2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성인취미단체, 청소년 단체, 기업운영 민간재단, 국제기구, 정치조직이나 정당 등에서의 활동경험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자원봉사 영역이 계속해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3-1>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2005년)



<표 II-3-2>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2002년)

단위 : 명 (%)

2002년	활동경험*		기 관 수				1곳과 2곳 비율합계
			1곳		2곳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건의료기관	7	2.2	5	71.4	2	28.6	100.0
교육기관	18	5.6	18	100.0	-	-	100.0
종교단체	66	20.6	52	78.8	14	21.2	100.0
사회복지기관	88	27.5	66	75.0	22	25.0	100.0
환경단체	17	5.3	13	76.5	4	23.5	100.0
공익민간단체	26	8.1	22	84.6	4	15.4	100.0
성인취미단체	4	1.3	3	75.0	1	25.0	100.0
예술문화단체	9	2.8	8	88.9	1	11.1	100.0
노동조합	1	0.3	1	100.0	-	-	100.0
정치조직/정당	8	2.5	8	100.0	-	-	100.0
관공서	56	17.5	47	83.9	9	16.1	100.0
청소년단체	7	2.2	7	100.0	-	-	100.0
기업운영민간재단	9	2.8	6	66.7	3	33.3	100.0
국제기구	4	1.3	3	75.0	1	25.0	100.0
합 계	320		259	80.9	61	19.1	

<표 II-3-3>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1999년)

단위 : 명(%)

1999년	활동경험*		기 관 수				
			1곳		2곳 이상		1곳과 2곳 비율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건의료기관	17	5.6	14	82.4	3	17.6	100.0
교육기관	24	7.9	19	79.2	5	20.8	100.0
종교단체	105	34.4	92	87.6	13	12.4	100.0
사회복지기관	73	23.9	61	83.6	12	16.4	100.0
환경단체	16	5.3	14	87.5	2	12.5	100.0
시민단체	34	11.2	30	88.2	4	11.8	100.0
성인취미단체	8	2.6	5	75.0	2	25.0	100.0
예술문화단체	5	1.6	4	80.0	1	20.0	100.0
노동조합	7	2.3	6	85.7	1	14.3	100.0
정치조직정당	4	1.3	4	100.0	-	-	100.0
청소년단체	7	2.3	4	57.1	3	42.9	100.0
기업운영민간재단	4	1.3	3	75.0	1	25.0	100.0
국제기구	1	0.3	-	-	1	100.0	100.0
합 계	305	100.0	257	84.3	48.0	15.7	

<표 II-3-4>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수

	2005년	2002년	1999년
지난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 기관 수	1.3개	1.3개	1.4개

나.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및 활동시간

지난 1개월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있어서는 총 대상자 중 173명이 모두 203개의 응답을 하여, 자원봉사자 1인 평균 1.2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3-5>.

지난 1년간 자원봉사경험과 달리,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활동시간도 함께 질문하였는데,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활동기관의 참여순위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1~5시간이 62.5%로 가장 많고, 6~10시간이 22.3%, 21시간 이상이 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 1인 평균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기관이 15.8시간, 기업민간재단 12.5시간, 사회복지기관이 9.3시간, 국제기구가 9.0시간, 관공서가 7.4시간,

성인취미단체가 6.3시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3-5>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과 활동시간

단위: 명,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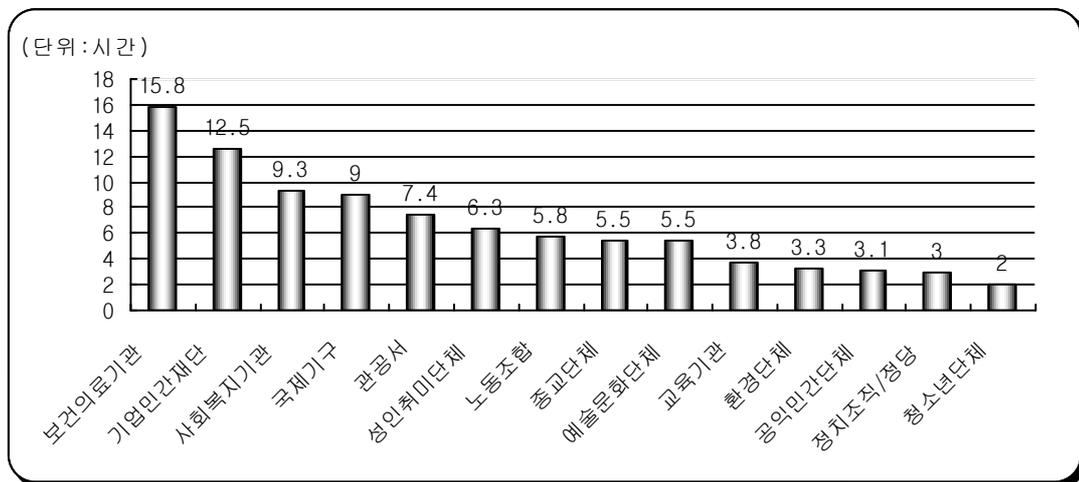
2005	활동경험*		활동시간								평균** 활동시간 (표준 편차)	총*** 활동 시간
			1~5시간		6~10시간		11~20시간		21시간 이상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보건의료기관	13	7.5	8	61.5	1	7.7	1	7.7	3	23.1	15.8(25.2)	205
교육기관	21	16.2	17	81.0	3	14.3	1	4.8	-	-	3.8 (4.2)	79
종교단체	47	27.7	34	72.3	10	21.3	1	2.1	2	4.3	5.5 (6.9)	257
사회복지기관	55	39.3	30	54.5	12	21.8	8	14.5	5	9.1	9.3(11.6)	510
환경단체	7	6.4	5	71.4	2	28.6	-	-	-	-	3.3 (2.4)	20
공익민간단체	9	6.4	8	88.9	1	11.1	-	-	-	-	3.1 (1.6)	28
성인취미단체	8	4.6	5	62.5	3	37.5	-	-	-	-	6.3 (6.1)	50
예술문화단체	2	2.9	1	50.0	1	50.0	-	-	-	-	5.5 (4.9)	11
노동조합	4	2.3	3	75.0	1	25.0	-	-	-	-	5.8(10.2)	35
정치조직/정당	2	1.7	2	-	-	-	-	-	-	-	3.0 (0.0)	6
관공서	30	19.7	18	60.0	7	23.3	3	10.0	2	6.7	7.4(11.7)	223
청소년단체	1	1.7	1	100.0	-	-	-	-	-	-	2.0 (0.0)	2
기업 민간재단	2	1.2	1	50.0	1	50.0	-	-	-	-	12.5(16.3)	25
국제기구	2	2.3	1	50.0	1	50.0	-	-	-	-	9.0 (7.1)	18
합 계	203	100	134	62.5	43	22.3	14	2.8	12	3.1		1,469

* 중복응답임

** 각 기관별로 각각 대답한 시간을 더하여 기관별 활동경험 빈도로 나눈 시간임

*** 각 기관별로 각각 대답한 시간을 더한 시간임 (혹은 평균시간*활동경험 빈도)

<그림 II-3-2>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별 평균 활동시간



다. 월간 평균자원봉사시간

- 인구특성별, 종교별, 소득별

인구특성별로 2005년도 자원봉사자의 월간 자원봉사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3-6>. 남성이 8.9시간, 여성이 8.2시간으로 남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그림 II-3-3>) 60세 이상이 14.6시간, 50대가 10.5시간, 40대 6.8시간, 30대 6.9시간, 20대 5.5시간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시간이 많았다. 혼인상태별로는(<그림 II-3-4>) 이혼/사별 11.0시간, 기혼 8.5시간, 미혼 8.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그림 II-3-5>) 중졸 9.8시간, 고졸 8.2시간, 대재이상 8.0시간 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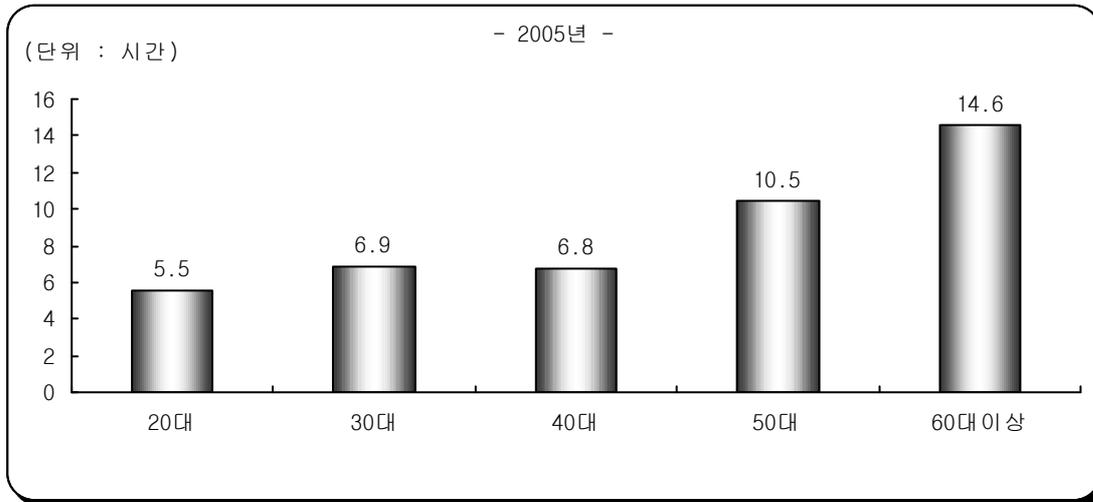
거주 지역별로는(<그림 II-3-6>) 광주 13.8시간, 부산 13.2시간, 경기 12.9시간, 울산 11.9시간, 서울 7.9시간, 충청 7.8시간, 경상 7.0시간, 인천 6.3시간, 강원 5.7시간, 대전 5.0시간, 호남 3.3시간, 대구 2.8시간으로 나타나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비율의 순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3-6> 인구특성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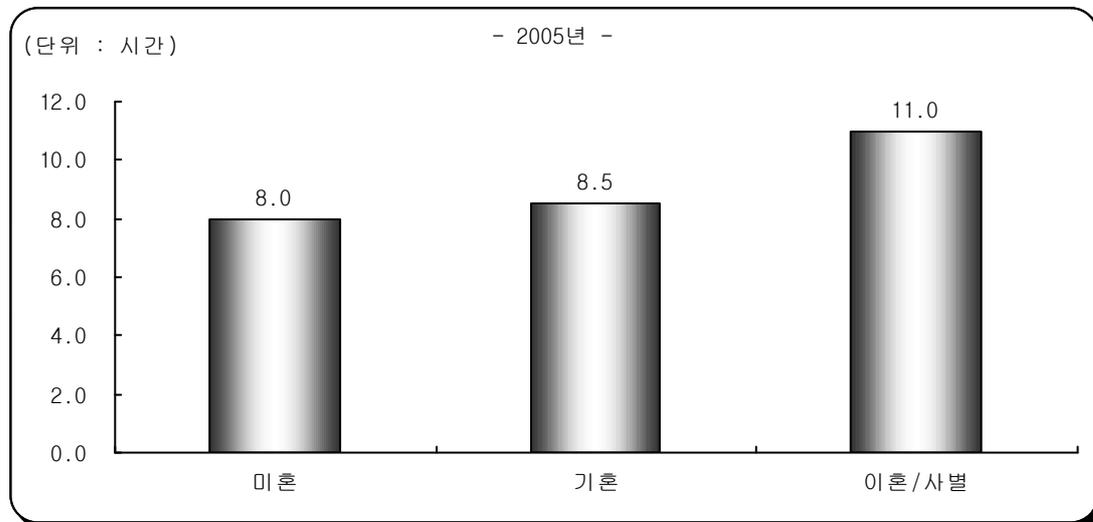
단위 : 시간 (사례수)

구 분	2005년
성별	
남성	8.9
여성	8.2
연령	
20대	5.5
30대	6.9
40대	6.8
50대	10.5
60세 이상	14.6
혼인상태	
미혼	8.0
기혼	8.5
이혼/사별	11.0
학력	
초졸이하	—
중졸	9.8
고졸	8.2
대재이상	8.0
거주지역	
서울	7.9 (53)
부산	13.2 (5)
대구	2.8 (4)
인천	6.3 (9)
광주	13.8 (6)
대전	5.0 (5)
울산	11.9 (7)
경기	12.9 (34)
강원	5.7 (3)
충청	7.8 (12)
호남	3.3 (18)
경상	7.0 (17)
평균 시간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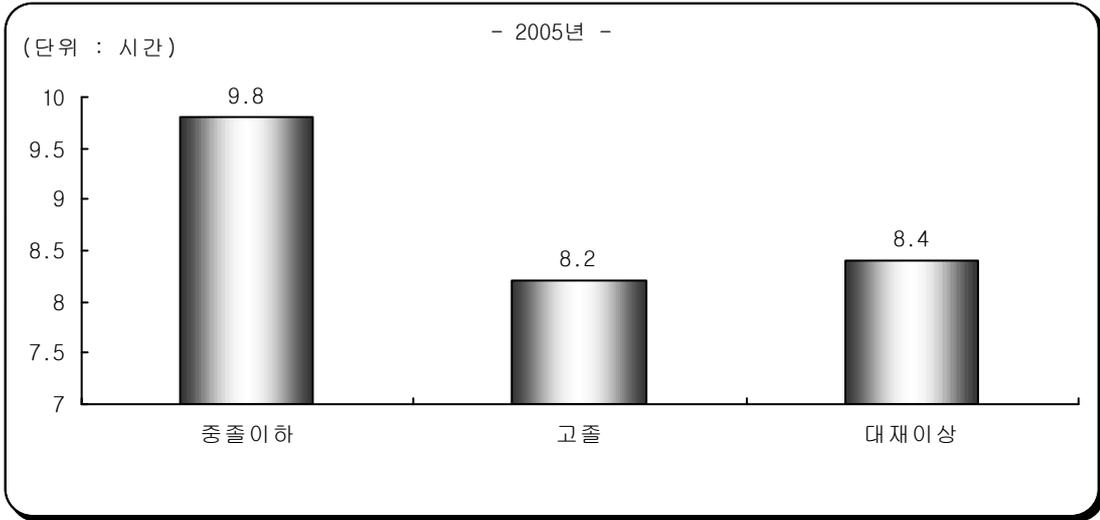
<그림 II-3-3> 연령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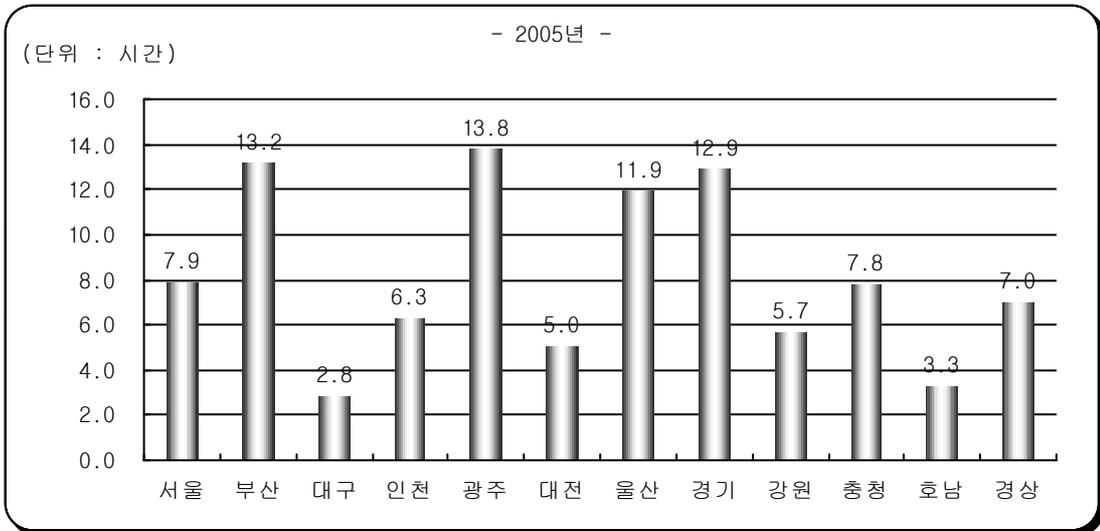
<그림 II-3-4> 혼인상태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그림 II-3-5> 학력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그림 II-3-6> 거주 지역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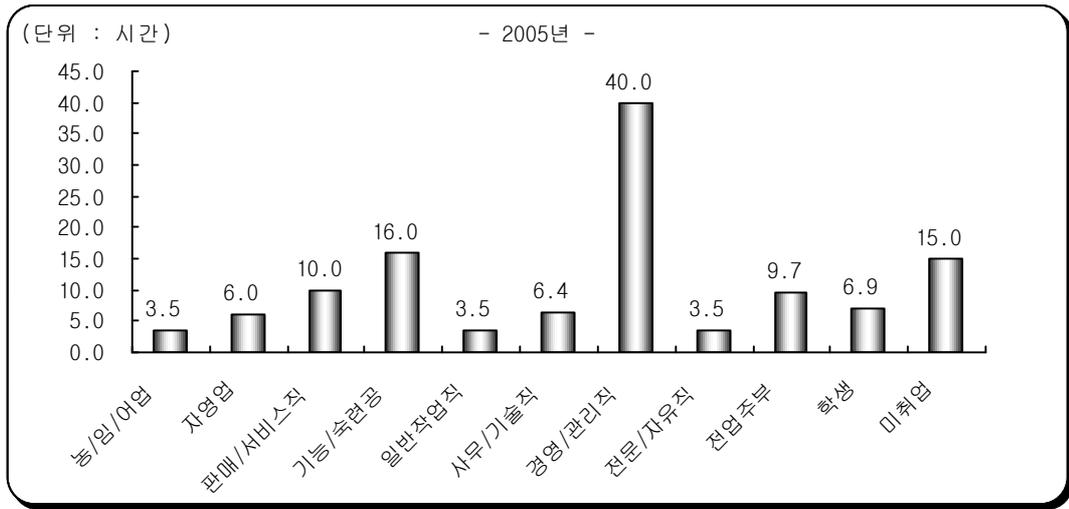
<표 II-3-7> 인구특성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2
단위 : 시간 (사례수: 명)

구 분	2005년
직업종류	
농/임/어업	3.5 (10)
자영업	6.0 (27)
판매·서비스직	10.0 (15)
기능·숙련공	16.0 (5)
일반작업직	3.5 (2)
사무·기술직	6.4 (35)
경영·관리직	40.0 (1)
전문·자유직	3.5 (2)
전업주부	9.7 (56)
학생	6.9 (10)
무직	15.0 (10)
주소득원	
월급	8.6
사업소득	6.2
재산소득	18.1
기타	13
평균 시간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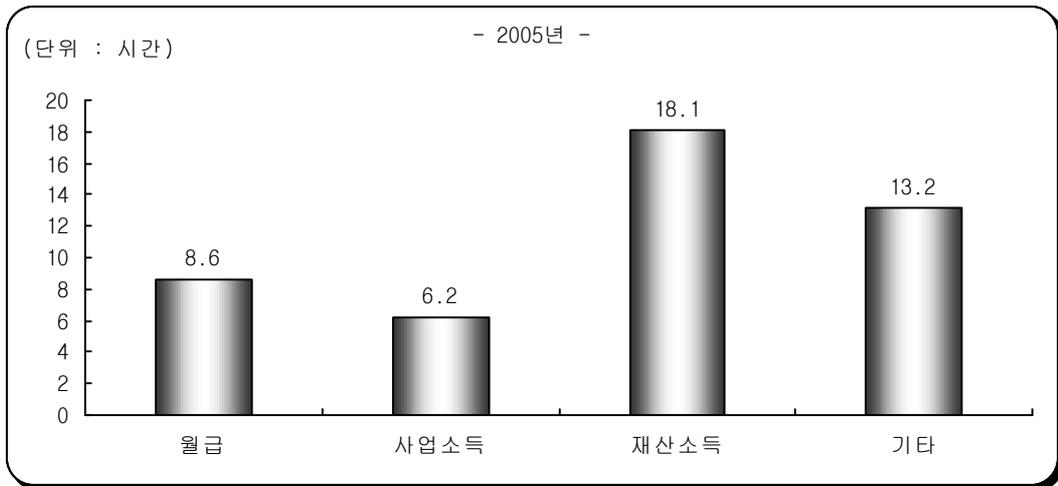
직업별 월간 자원봉사 시간을 살펴보면(<표 II-3-7>, <그림 II-3-7>), 경영·관리직이 40시간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1명의 사례에서 나온 것임을 고려해야 하며, 기능·숙련공 16시간, 무직 15시간, 판매·서비스직 10시간, 전업주부 9.7시간, 학생 6.9시간, 사무·기술직 6.4시간, 자영업 6시간, 농/임/어업, 일반 작업직, 전문·자유직이 동일하게 3.5시간 순으로 나타나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무직, 전업주부들의 활동시간이 많았다.

주 소득원별로는(<표 II-3-7>, <그림 II-3-8>) 재산소득이 18.1시간, 연금, 자녀용돈 등 기타 13시간, 월급 8.6시간, 사업소득 6.2시간 순으로 나타나 소득을 위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재산소득을 통한 수입원을 갖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7> 직업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그림 II-3-8> 주 소득원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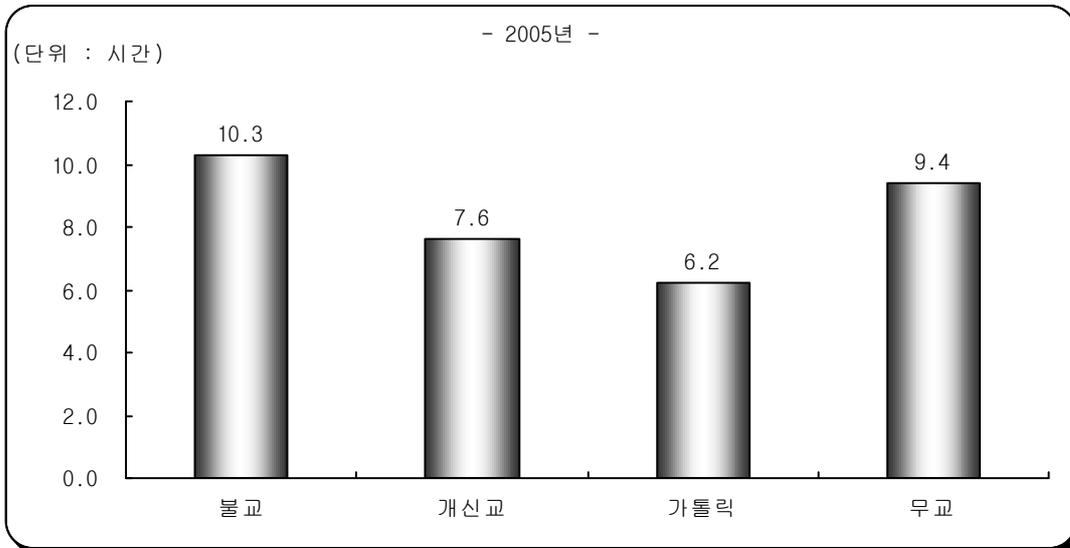
<표 II-3-8> 종교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단위 : 시간

종 교	2005
불 교	10.3
개신교	7.6
가톨릭	6.2
무 교	9.4
평균 시간	8.5

종교특성별 월간 자원봉사활동시간은(<표 II-3-8>, <그림 II-3-9>), 불교 10.3시간, 무교 9.4시간, 개신교 7.6시간, 가톨릭 6.2시간 순으로 나타나 불교가 참여율에서는 낮지만 평균 활동시간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9> 종교별 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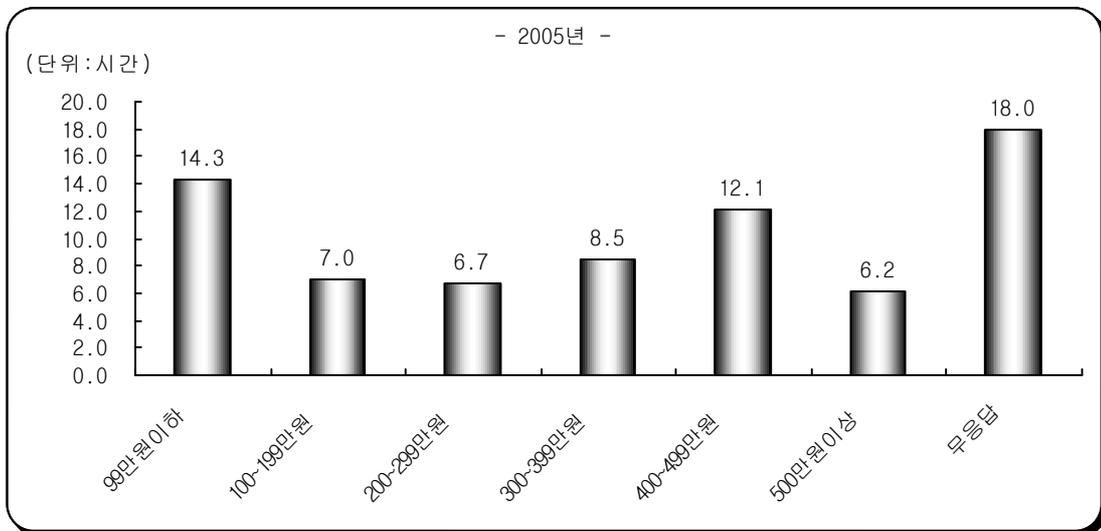
소득별 월간 자원봉사활동시간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는 99만원이하가 14.3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었으며, 400-499만원 12.1시간, 300-399만원 8.5시간, 100-199만원 7.0시간, 200-299만원 6.7시간, 500만원이상 6.2시간 순으로 나타났다<표 II-3-9>, <그림 II-3-10>.

<표 II-3-9> 소득수준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평균 활동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2005년
99만원이하	14.3
100-199만원	7.0
200-299만원	6.7
300-399만원	8.5
400-499만원	12.1
500만원이상	6.2
모름 / 무응답	18.0
합 계	8.5

<그림 II-3-10> 소득 수준별 지난 1개월간 참여 자원봉사자의 평균 활동시간



4.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본 조사결과 20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이 20.5%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 인구수를 추정해보면, 다음 <표 II-4-1>과 같이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 경험자는 728만 7천 388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월간 자원봉사 시간 수는 총 1,469시간으로 집계되어,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들은 주 평균 1.95시간, 월평균 8.47시간동안 자원봉사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자원봉사 시간수를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주 평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1.02시간⁶⁾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연간 총 자원봉사 시간 수는 1.02시간에 7,287,388명(연간 자원봉사자 추정치)을 곱하고 이를 다시 52.14주로 곱하면 약 3억8천7백5십6만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II-4-2>.

<표 II-4-1> 자원봉사자 추정치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1) 자원봉사자 비율	20.5%	16.3%	14.0%
2) 자원봉사자 추정치	7,287,388명	5,519,201명*	4,576,777명**

* 2004년도 20세이상 인구수 추계(35,548,236명)×0.205 출처 : 통계청(2004), 「연령별(전국)추계인구」

** 2001년도 20세이상 추계인구(33,860,126명)×0.163

*** 1999년도 20세이상 추계인구(32,644,629명)×0.1402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해보면, 연간 총 자원봉사 시간에 우리나라 전 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임금(8,182원)을 곱한 결과, 연간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가 3조1천7백1십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2년도에 비해 5천억 가량 줄어든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9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현저히 줄어든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원봉사의 자원봉사는 무임금노동(unpaid)이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6) 공식으로는, $\frac{1\text{개월 자원봉사자 } 1\text{인당 주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 \times 1\text{개월 자원봉사자 비율}}{1\text{년 자원봉사자 비율}}$

을 사용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자원봉사 시간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공식을 사용한 것임.

<표 II-4-2> 연간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1)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 1인의 주간평균자원봉사시간	1.95시간*	3.24시간	3.6시간
2) 조사대상 자원봉사자 1인의 주간 평균 자원봉사시간 수	1.02시간**	1.9시간	2.1시간
3) 총 자원봉사자의 연간총자원봉사시간수	3억8756만3699시간***	5억3237만6609시간	4억9892만시간
4) 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금전적인 가치	3조1710억원****	3조6196억원	2조7141억원

* 1개월 자원봉사자 173명의 월간 총 자원봉사 시간=1,469시간

1개월 자원봉사자 1인당 주간평균 자원봉사 시간=1,469시간÷173명×12개월÷52.14주=1.95시간

** 1년 자원봉사자 1인당 주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1.95시간×10.7%)÷20.5%=1.02(약 1.0시간)

*** 1.02시간×7,287,388명(연간 자원봉사자 추정치)×52.14주(1년)= 387,563,699시간

**** 전 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임금(8,182원) × 387,563,699시간=3,171,046,185,218원

전 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1,651,100원)/201.8시간(월평균 근로시간 수)=8,182원

※ 월 평균임금 출처 : 노동부(2003),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http://laborstat.molab.go.kr/>

이 금전적 가치는 한국은행 통계인 2004년도 GDP(국내총생산, 778.444조원)의 0.41%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1년도 GDP(545.013조원)의 0.66%, 1999년도의 GDP(420.99조원)의 0.64%보다 약간 줄어든 수치이다. 이 수치는 살라몬 교수의 연구 결과인 전세계 22개 국가의 평균 GDP에 미친 효과 1.1%(1999년도 조사)에 비하여 절반이 안 되는 수치이다. (참고; 1999년도 미국 2%, 호주 1.4%, 일본 0.5%). 따라서 민간은 물론 정부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자원봉사 활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한국인의 자원봉사 동기 및 영향요인

1.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가.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본 조사대상자들에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개인적 동기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이다.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를 비교한 결과와 1999년, 2002년, 2005년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1-1>, <표 Ⅲ-1-2>, <표 Ⅲ-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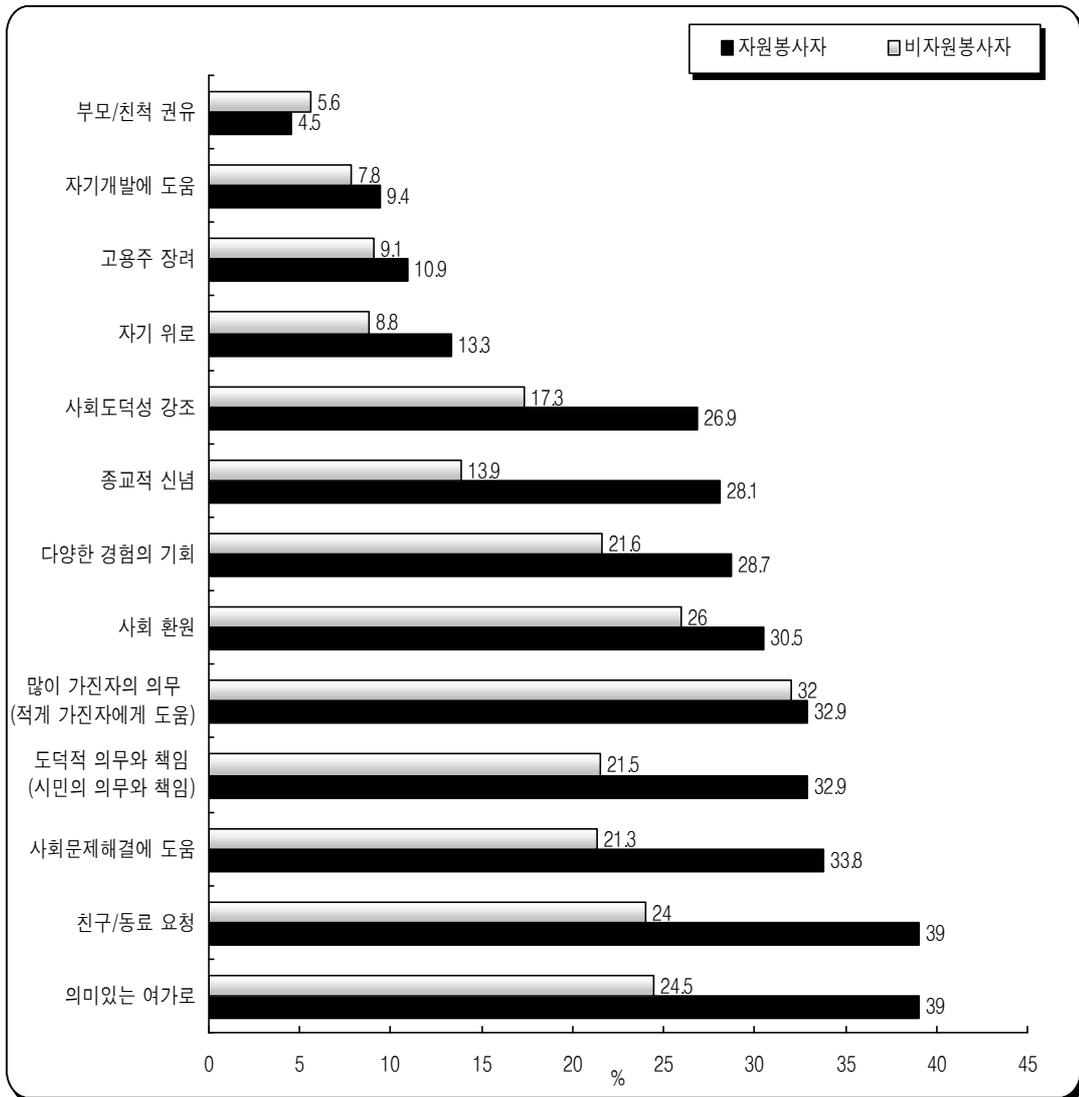
<표 Ⅲ-1-1>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2005년)

구 분	단위 : %					
	중요 동기			동기 안됨		
	전 체	자 원 봉 사 자	비 자원 봉 사 자	전 체	자 원 봉 사 자	비 자원 봉 사 자
친구/동료 요청	27.3	39.0	24.0	16.8	12.4	17.9
사회 환원	26.9	30.5	26.0	21.9	21.1	22.1
고용주 장려	9.2	10.9	9.1	49.0	53.5	47.8
사회도덕성 강조	19.3	26.9	17.3	33.5	30.8	34.1
많이 가진 자의 의무 (적게 가진 자에게 도움)	32.2	32.9	32.0	24.3	25.7	24.0
의미 있는 여가로	27.5	39.0	24.5	25.2	16.6	27.4
다양한 경험의 기회	23.1	28.7	21.6	27.5	20.2	29.4
사회문제해결에 도움	23.9	33.8	21.3	24.9	21.8	25.7
도덕적 의무와 책임 (시민의 의무와 책임)	23.8	32.9	21.5	26.3	22.4	27.3
종교적 신념	16.8	28.1	13.9	44.8	36.0	47.1
자기개발에 도움	8.1	9.4	7.8	53.3	54.4	53.0
자기 위로	9.7	13.3	8.8	49.5	46.5	50.2
부모·친척 권유	5.4	4.5	5.6	53.2	58.0	52.0

2005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동기는 '친구 또는 동료의 요청'과 '의미 있는 여가로'가 동일하게 39.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문제해결의 도움'(33.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친척의 권유'가 58.0%, '자기개발에 도움'(54.4%), '고용주의 장려'(53.5%), '자기 위로'(46.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동기는 '많이 가진 자의 의무'(32.0%), '사회 환원'(26.0%), '의미 있는 여가로'(24.5%), '친구 또는 동료의 요청'(24.0%)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자기 개발에 도움'(53.0%), '부모·친척의 권유'(52.0%), '자기 위로'(50.2%), '고용주의 장려'(47.8%), '종교적 신념'(4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1-1>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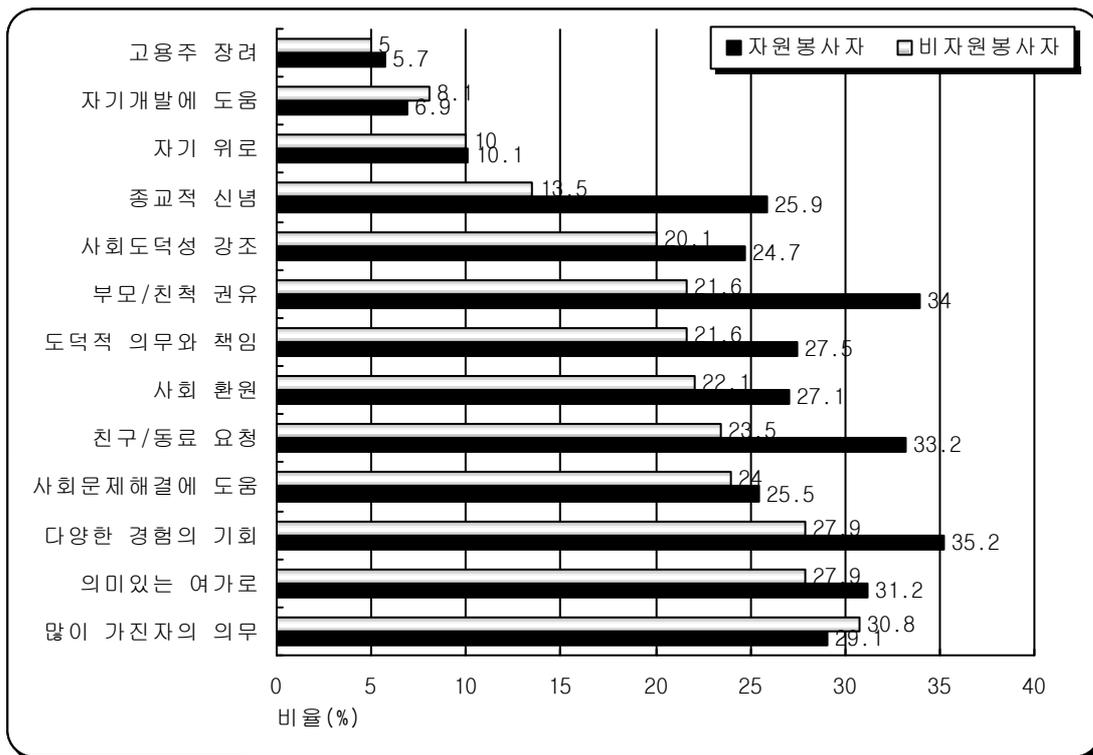


<표 III-1-2>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2002년)

단위 : %

구 분	중요동기			동기안됨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친구/동료 요청	25.1	33.2	23.5	17.1	22.3	16.0
사회 환원	22.9	27.1	22.1	23.7	18.6	24.7
고용주 장려	5.1	5.7	5.0	60.7	64.8	59.9
사회도덕성 강조	20.8	24.7	20.1	29.6	29.6	29.6
많이 가진 자의 의무	30.6	29.1	30.8	23.3	25.1	22.9
의미있는 여가로	28.4	31.2	27.9	19.8	20.6	19.7
다양한 경험의 기회	29.1	35.2	27.9	21.8	19.8	22.1
사회문제해결에 도움	24.3	25.5	24.0	24.3	18.6	25.5
도덕적 의무와 책임	22.6	27.5	21.6	26.0	19.0	27.4
종교적 신념	15.5	25.9	13.5	41.9	36.0	43.1
자기개발에 도움	7.9	6.9	8.1	54.5	58.3	53.8
자기 위로	10.0	10.1	10.0	46.6	44.9	47.0
부모·친척 권유	23.4	34.0	21.6	26.9	26.0	27.1

<그림 III-1-2> 자원봉사 참여의 주요 동기 (2002)



2002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동기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35.2%), '부모 또는 친척의 권유'(34.0%), '친구 또는 동료의 요청'(3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고용주의 장려'(64.8%), '자기개발에 도움'(58.3%), '자기 위로'(4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동기는 '많이 가진 자의 의무'(30.8%), '다양한 경험의 기회'(27.9%), '의미 있는 여가로'(27.9%)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고용주의 장려'(59.9%), '자기 개발에 도움'(53.8%), '자기 위로'(47.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3>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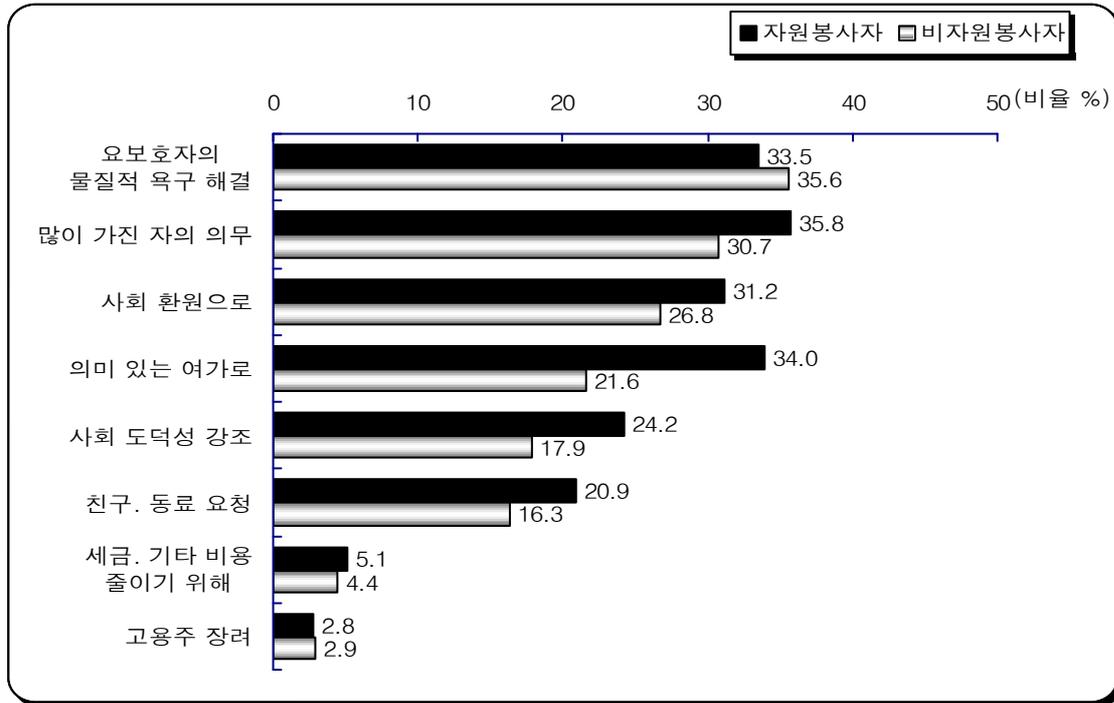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중요 동기			동기 안됨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해결	35.3	33.5	35.6	14.2	14.9	14.1
친구/동료 요청	17.0	20.9	16.3	23.5	24.2	23.4
사회 환원	27.4	31.2	26.8	24.7	24.7	24.7
세금/기타비용 줄이기	4.5	5.1	4.4	62.1	69.3	60.9
고용주 장려	2.9	2.8	2.9	58.8	65.1	57.7
사회도덕성 강조	18.8	24.2	17.9	28.7	28.4	28.8
많이 가진 자의 의무	31.4	35.8	30.7	23.4	22.8	23.5
의미 있는 여가로	23.4	34.0	21.6	26.9	26.0	27.1

1999년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적 동기 중 주요동기로는 '많이 가진 자의 의무감'(35.8%), '의미 있는 여가로'(34.0%), '요보호자의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3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69.3%)와 '고용주의 장려'(65.1%)로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인 인식을 반영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의 미흡과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적 동기 중 주요동기로는 '요보호자의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35.6%), '많이 가진 자의 의무감'(30.7%), '의미 있는 여가로'(34.0%)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60.9%)와 '고용주의 장려'(57.7%)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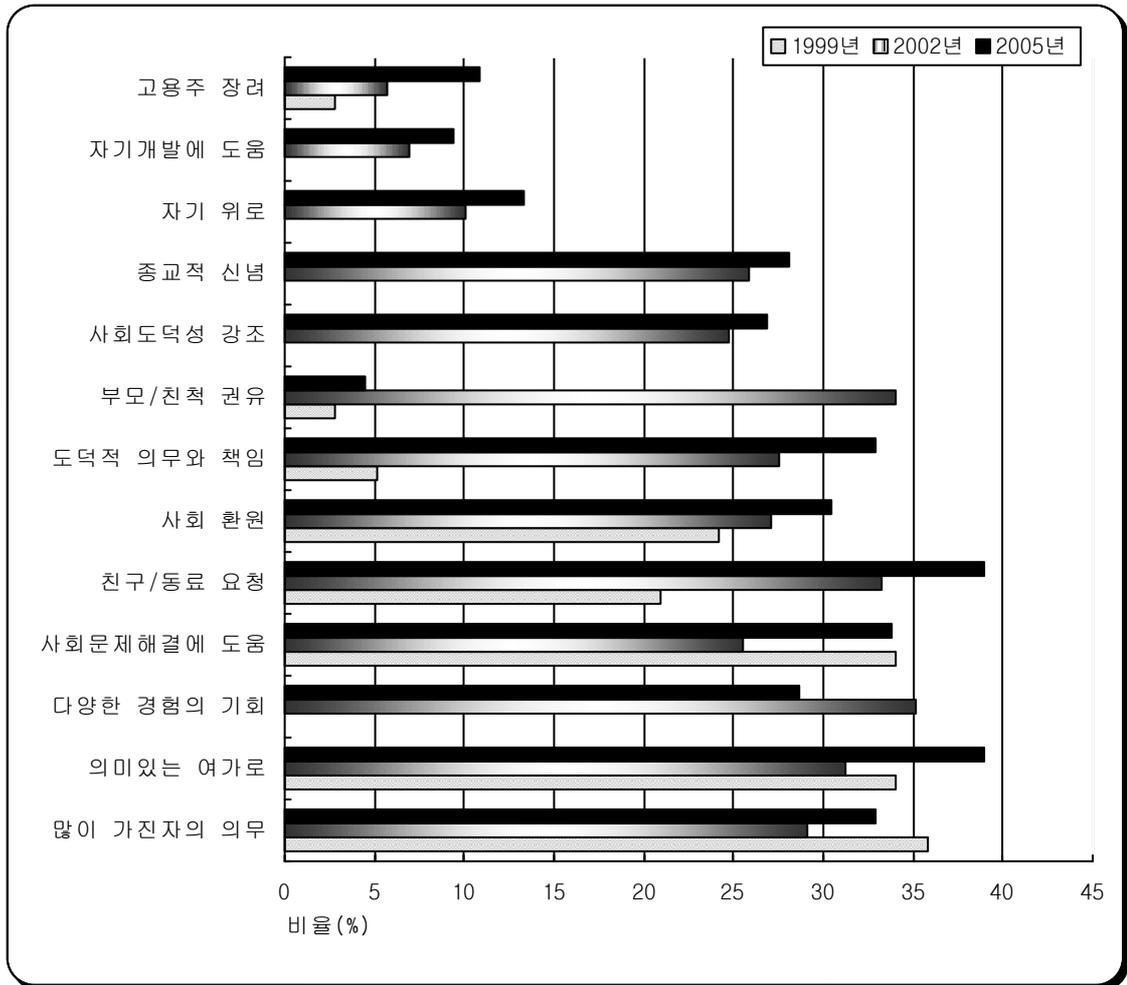
<그림 III-1-3>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1999)



2005년 및 1999년, 2002년의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주요동기를 비교하면, 1999년에는 이타적인 동기와 시민 의무로서의 동기가 주요 동기였던 반면, 2002년에는 이기적인 동기와 주변의 권유로 인한 동기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를 여가활동의 하나로 여겨지는 '볼런테인먼트'(Voluntainment)⁷⁾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개념은 기존의 자원봉사 개념에 재미와 즐거움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가 서로 어울려 즐기는 활동'으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아직 이 운동과 개념이 확산되지 않았으나, 시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쉽고 재미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7) Voluntainment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여가(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볼런티어21]에서 개념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다(볼런티어21, 2004. [볼런테인먼트의 철학과 방향] 1차 세미나 자료집).

<그림 III-1-4>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동기 (1999*, 2002, 2005년 비교)



*1999년 자기개발도움, 자기위로, 종교적 신념, 사회도덕성강조가 설문에 없음

나. 과거의 경험과 자원봉사 참여

본 조사대상자들에게 개인적 경험,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경험, 단체 경험 등 과거의 경험에 대해 2005년도 조사를 1999년 조사 및 2002년 조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III-1-4> 와 같다.

<표 III-1-4>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과거의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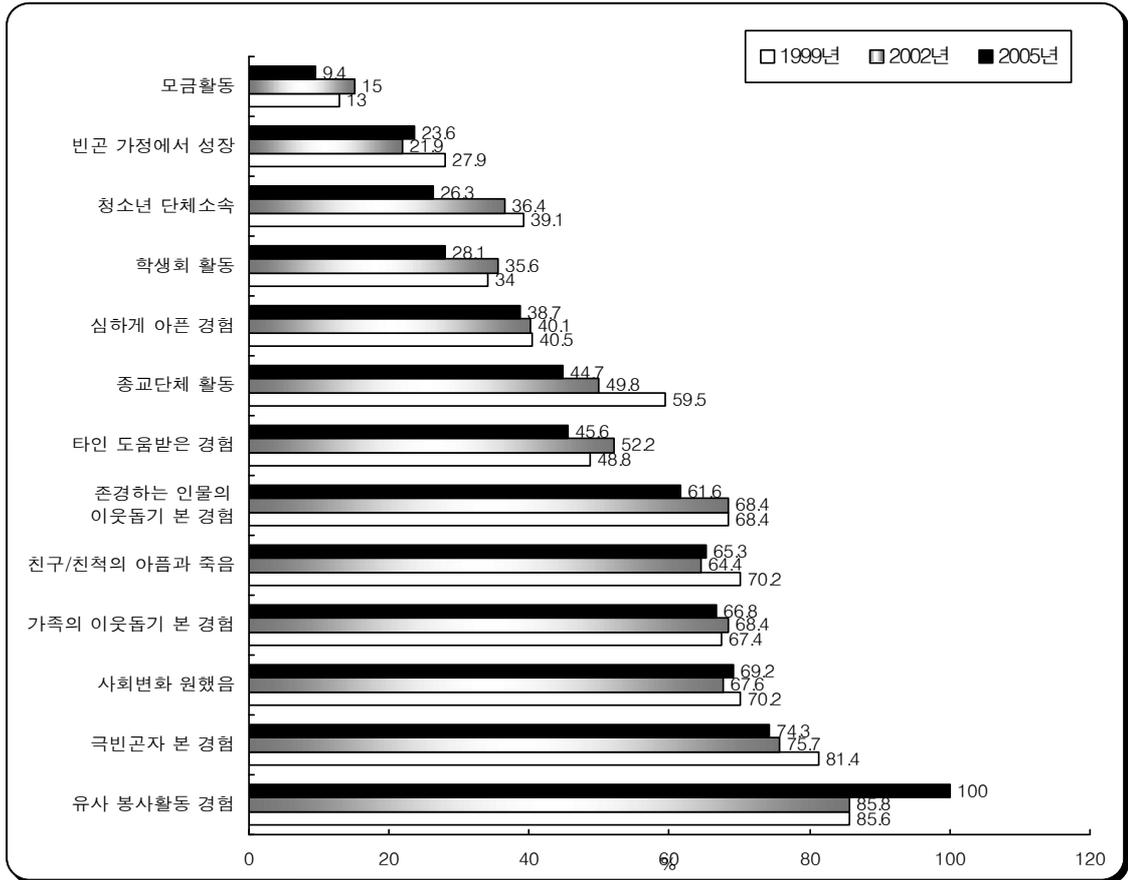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개인경험									
심하게 아픈 경험	39.5	38.7	39.8	39.0	40.1	38.8	42.3	40.5	42.6
유사 봉사활동경험	41.2	100.0	26.0	33.7	85.8	23.5	32.8	85.6	24.2
극빈곤자 본 경험	66.0	74.3	63.8	64.1	75.7	61.8	65.9	81.4	63.4
빈곤 가정에서성장	26.8	23.6	27.7	25.1	21.9	25.8	31.3	27.9	31.9
사회변화 원했음	57.9	69.2	55.0	61.1	67.6	59.8	64.6	70.2	63.7
모금활동	5.5	9.4	4.5	8.7	15.0	7.4	7.0	13.0	6.1
친척/친구 관계 경험									
친구/친척의 아픔과 죽음	62.6	65.3	61.9	59.9	64.4	59.0	65.0	70.2	64.1
타인 도움받은 경험	37.5	45.6	35.4	37.2	52.2	34.2	41.7	48.8	40.5
가족의 이웃돕기 본 경험	50.7	66.8	46.6	53.3	68.4	50.4	53.0	67.4	50.7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 본 경험	43.5	61.6	38.8	46.3	68.4	42.0	46.5	68.4	42.9
단체경험									
학생회 활동	19.8	28.1	17.7	21.8	35.6	19.1	20.9	34.0	18.8
종교단체 활동	27.7	44.7	23.3	25.7	49.8	20.9	23.4	59.5	17.5
청소년 단체소속	17.5	26.3	15.2	19.8	36.4	16.6	18.0	39.1	14.6

2005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개인 경험에서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일을 했었다)'에서 100.0%의 경험과 '극빈자를 본 경험(극도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에서 74.3%의 경험, '사회변화 원했음'(69.2%) 순으로 응답하였다.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6.8%) 및 '친구/친척의 아픔과 죽음'의 경험(65.3%)에서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과거에 유사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했고, 가족이 타인을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나, 개인적으로 가족의 이웃돕기 경험 및 친구 및 친척의 병과 죽음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활동 경험률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자원봉사자의 경우 개인적 경험에서는 '극빈자를 본 경험'이 63.8%,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적 있었음'이 55.0%로 나타났으며, 친척·친구의 경험에서는 '친구·친척의 질병과 죽음'(61.9%)과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46.6%)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비자원

봉사자들 역시 단체경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1-5> 자원봉사자의 과거의 경험



2005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과거 경험을 비교해 보면,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비자원봉사자들에 비해 4배 정도의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며,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과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에서 각각 1.5배 정도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과거의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자 역할모델을 본 경험이 자원봉사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개인 경험에서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에서 85.8%의 경험과 '극빈자를 본 경험'에서 75.7%의 경험을 응답하였다.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8.4%),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8.4%)에서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과거에 유사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했고, 가족이 타인을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단체활동 경험률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자원봉사자의 경우 개인적 경험에서는 '극빈자를 본 경험'이 61.8%,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적 있었음'이 59.8%로 나타났으며, 친척·친구의 경험에서는 '친구·친척의 질병과 죽음'(59.0%)과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50.4%)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비자원봉사자들 역시 단체경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2002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과거 경험을 비교해 보면,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비자원봉사자들에 비해 3배 이상의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며,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과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에서 각각 1.5배 정도의 경험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과거의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자원봉사자 역할모델을 본 경험이 자원봉사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개인 경험에서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에서 85.6%의 경험과 '극빈자를 본 경험'에서 81.4%의 경험을 응답하여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과거에 유사 자원봉사활동을 대부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친구·친척의 질병과 죽음'(70.2%),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8.4%),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7.4%)에서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었다. 즉, 친한 친구나 친척이 심하게 아프거나 죽은 적이 있거나, 사회의 변화를 원했거나, 가족이 타인을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본 경우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았다. 단체 경험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은 '종교단체에서의 활동 경험'(59.5%)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비자원봉사자의 경우 개인적 경험에서는 '사회변화를 원했던 경험'이 63.7%, '극빈자를 본 경험'이 63.4%로 가장 높았으며, 친척·친구의 경험에서는 '친구·친척의 질병과 죽음'(64.1%)과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50.7%)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비자원봉사자들은 단체경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었다.

2005년 조사결과, 2002년 조사결과와 199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자의 경우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 '극빈자를 본 경험',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 등에서 모두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 자원봉사자들의 과거 경험에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비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사회변화를 원했던 경험', '극빈자를 본 경험', '친구·친척의 질병과 죽음',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 등에서 공통적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나, 자원봉사자 집단과 비자원봉사자 집단 간에는 '유사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2005년, 2002년 및 1999년 자원봉사자 집단 간, 그리고 비자원봉사자 집단 간에는 과거 경험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원봉사자의 과거의 경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경험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회적 사교활동과 자원봉사 참여

본 조사대상자들에게 사회적 사교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2005년, 2002년 및 1999년 별로 보면, 다음 <표 III-1-5>와 같다.

2005년도 조사에서 사회적 사교활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님 및 친척과 교제, 친구들과의 교제 등의 사교활동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두 집단 모두 비슷하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집단은 '이웃과 저녁'(85.8%), 봉사/서비스기관의 친구들과 교제(65.3%), 종교기관의 친구들과 교제(55.6%), 그리고 운동·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교제(65.6%)에서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업 외 사회활동에서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도 조사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사교활동은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님, 친척, 친구들과의 교제 등 가족 및 친구와의 사교활동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두 집단 모두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직장이나 사회단체의 친구들과, 소속된 종교기관의 친구들과, 봉사/서비스기관의 친구들과, 혹은 운동·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교제시간을 갖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III-1-5> 자원봉사자 및 비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사교활동¹⁾

단위 :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부모·친척과 저녁	96.7	97.6	96.4	95.9	96.4	95.8	94.2	94.4	94.2
이웃과 저녁	80.3	85.8	78.9	84.3	88.7	83.5	72.5	78.1	71.5
친구들과 저녁	86.3	88.5	85.7	87.2	91.1	86.5	80.2	84.2	79.6
직장/사회단체 친구와 교제	60.7	68.6	58.7	58.4	70.4	56.0	57.0	78.1	53.6
종교기관 친구와 교제	36.8	55.6	3.2	40.7	62.3	36.5	31.2	67.9	25.2
봉사/서비스기관 친구와 교제	20.2	65.3	8.6	23.0	68.4	14.2	17.0	63.3	9.4
운동/취미활동 친구와 교제	49.5	65.6	45.4	48.7	61.9	46.2	41.6	59.5	38.6

¹⁾ 사교활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일주일에 1번 이상, 한달에 한두 번, 일년에 몇 번 등이 모두 포함됨.

특히 자원봉사자 집단은 직장이나 사회단체의 친구들과 교제(91.1%), 봉사/서비스기관의 친구들과 교제(68.4%), 종교기관의 친구들과 교제(62.3%), 그리고 운동·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교제(61.9%)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999년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사교활동에서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를 보면, 모든 활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자 집단은 직장이나 사회단체의 친구들과 교제(78.1%), 봉사/서비스기관의 친구들과 교제(63.3%), 종교기관의 친구들과 교제(67.9%), 그리고 운동·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교제시간을 갖는 경우(59.5%)에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2005년, 2002년 및 199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자 집단과 비자원봉사자 집단 간에는 사회적 사교활동의 경험률의 차이가 보이나, 2002년도 및 1999년도 자원봉사자 집단 간, 그리고 2002년도 및 1999년도 비자원봉사자 집단 간에는 사회적 사교활동의 경험률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에 비해 종교를 가진 자가 적고, 봉사/서비스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 적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개인의 사교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라.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자원봉사 참여

본 조사대상자들에게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질문하여 그 결과는 <표 III-1-6>, <그림 III-1-6>, <그림 III-1-7>과 같다.

<표 III-1-6>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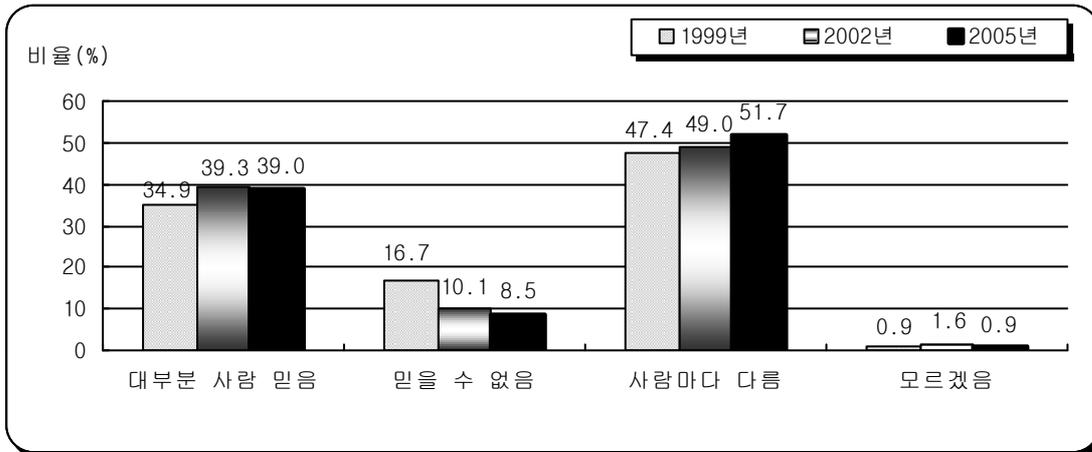
구 분	단위 : %								
	2005년			2002년			1999년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	25.3	39.0	21.7	26.4	39.3	23.9	23.0	34.9	21.1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한다	16.1	8.5	18.0	15.3	10.1	16.4	23.2	16.7	24.3
사람마다 다르다	56.4	51.7	57.7	55.9	49.0	57.2	52.3	47.4	53.0
모르겠다	2.2	0.9	2.6	2.4	1.6	2.5	1.5	.9	1.6

2005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다'가 51.7%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39.0%로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 8.5%로 나타나 타인에 대해 대체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한편, 비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사람마다 다르다'가 57.7%,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 21.7%,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대답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집단에 비해 비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와 타인에 대한 신뢰도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도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다'가 49.0%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39.3%로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 10.1%에 비해 네 배나 높은 비율을 보여 주어 타인에 대해 대체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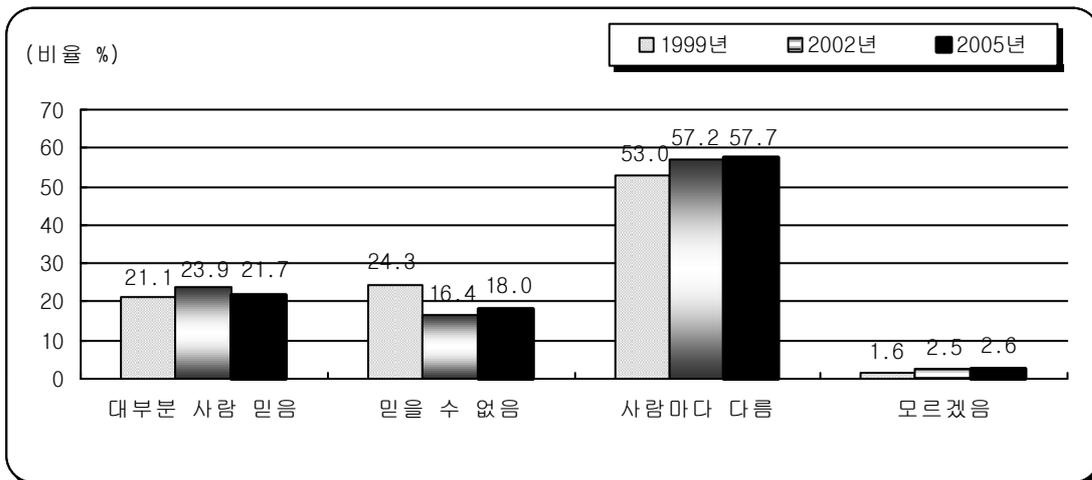
한편, 비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사람마다 다르다'가 57.2%,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 23.9%,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대답이 16.4%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집단에 비해 비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의 응답자의 비율이 낮고,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의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6> 자원봉사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1999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마다 다르다'가 47.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가 34.9%로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 16.7%에 비해 두 배나 높은 비율을 보여 주어 타인에 대해 대체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비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사람마다 다르다'가 53%,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대답이 24.3%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 21.1%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1-7> 비자원봉사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2005년 조사결과와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3개 연도별 사람에 대한 신뢰도의 경향성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자원봉사자 집단보다 자원봉사자 집단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 지난 1년간 이웃돕기활동

지난 1년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금전적, 물질적 또는 시간적으로 도운 경험, 즉 비조직적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이웃돕기활동 경험률

단위 :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부모·친척/친구	87.6	11.9	81.6	51.9	46.0	53.6	55.6	65.1	54.0
노숙자	8.6	13.6	7.3	5.6	4.7	5.9	10.1	22.3	8.1
이웃	37.1	60.4	31.1	22.5	25.8	21.6	43.3	67.0	39.5
그 외 도움 필요 자	32.2	55.9	26.1	19.9	23.5	18.9	43.8	63.7	40.5

* 중복응답임.

200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집단의 이웃돕기 활동은 ‘이웃을 도왔다’가 60.4%가 가장 많았고,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55.9%, ‘노숙자’ 13.6%,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친척,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가 11.9%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원봉사자 들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친척,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가 81.6%, ‘이웃을 도왔다’가 31.1%,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26.1%, ‘노숙자’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결과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비자원봉사자들의 이웃돕기 활동의 경향성은 매우 달라,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1년간 이웃돕기 경험이 많은 반면, 비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친척 돕기활동에 치중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집단의 이웃돕기 활동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친척,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가 46.0%로 가장 많고, ‘이웃을 도왔다’가 25.8%,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23.5%, ‘노숙자’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원봉사자 들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친척,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가 53.6%, ‘이웃을 도왔다’가 21.6%,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8.9%, ‘노숙자’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비자원봉사자들의 이웃돕기 활동의 경향성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1999년도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이웃을 도왔다’의 경험이 가장 많으며(67%),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친척,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가 65.1%,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63.7%, ‘노숙자’ 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자원봉사자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친척, 친구를 도운 적이 있다’가 54%로 가장 경험이 많고,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40.5%, 이웃 39.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숙자를 도왔다는 경우는 8.1%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1999년도 조사에서는 비자원봉사자는 혈연관계 또는 친구 등의 아는 사람을 가장 많이 도운 반면, 자원봉사자는 아는 사람도 많이 도왔으나, 다양한 이웃돕기 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자들은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 뿐 아니라 비조직적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2002년, 1999년 자원봉사자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2005년에는 1999년 및 2002년 조사결과와 달리 자원봉사자들은 뚜렷하게 친척 및 친구들 보다는 다양한 이웃돕기 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자들의 비조직적 자원봉사활동의 활발한 참여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999년 및 2002년 조사결과를 보면, 2002년에는 199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웃돕기 활동의 참여율이 낮아졌고, 특히 자원봉사자 집단에서 이웃 및 껌보호자에 대한 돕기 활동의 참여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에는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있을 시기로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이웃돕기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나, 2002년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됨에 따라 비조직적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5년과 2002년, 1999년 비자원봉사자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3개 연도의 경향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친척 및 친구 돕기에 가장 치중하며, 이웃돕기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1주일 동안 부모, 친척, 친구돕기 활동시간

지난 1주일 동안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나 친척, 친구돕기 활동시간을 질문한 결과, <표 III-1-8>과 같다.

2005년 자원봉사자 조사결과, 3~5시간동안이 가장 많아 27.4%, 1~2시간동안 도운 비율은 21.8%로 나타났다. 비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경향성은 유사해, 3~5시간동안이 22.9%, 1~2시간이 17.7%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집단, 비자원봉사자집단 대부분 주 5시간 이하 정도를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친척, 친구돕기 활동시간의 평균은 자원봉사자 10.75시간, 비자원봉사자 7.89시간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친척 및 친구돕기 활동의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I-1-8> 1주일 동안 부모, 친척, 친구 돕기 활동시간

단위 :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전 체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1-2시간	18.7	21.8	17.7	42.5	39.0	43.4	50.6	46.4	51.4
3-5시간	24.0	27.4	22.9	23.0	23.2	23.0	24.3	21.2	24.9
6-10시간	10.0	9.5	10.2	14.3	17.1	13.6	11.2	17.8	9.8
11-20시간	9.4	9.9	9.0	4.9	6.1	4.5	4.0	4.2	3.9
21-50시간	7.0	8.7	6.4	4.9	8.5	3.9	7.5	7.6	7.5
51시간이상	2.7	4.1	2.2	0.8	-	1.0	2.5	2.5	2.5
모름/무응답	1.2	1.3	1.2	9.7	6.1	10.7	-	-	-

한편, <표 III-1-7>에서 보면, '부모, 친척, 친구 돕기'에서 자원봉사자의 경험률은 11.9%이며, 비자원봉사자들은 81.6%를 나타내, 경험률에서는 비자원봉사자가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거나, 활동시간을 보면 자원봉사자 10.75시간, 비자원봉사자 7.89시간으로 자원봉사자의 부모, 친척, 친구 돕기 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결과, 활동시간의 범위는 최소 1시간에서부터 최대 100시간이상까지 돕는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1~2시간동안 도운 비율이 가장 높아 자원봉사자의 39.0%와 비자원봉사자의 43.5%가 해당되었다. 2순위가 3~5시간동안으로 자원봉사자의 23.2%, 비자원봉사자의 23.0%가 차지해, 자원봉사자 집단, 비자원봉사자집단 대부분 5시간 이하 정도를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친척, 친구돕기 활동시간의 평균은 자원봉사자 12.24시간, 비자원봉사자 15.80시간으로 비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의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1999년 조사에는 1~2시간동안 도운 비율이 가장 높아 자원봉사자의 46.4%와 비자원봉사자의 51.4%가 해당되었고,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대부분 5시간 이하 정도를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시간은 자원봉사자는 평균 7.82시간이고, 비자원봉사자들은 평균 7.65시간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조사결과를 2002년 및 199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2년에 비해 부모나 친척 또는 친구돕기 시간은 줄어들었으나, 1999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3개 연도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일 주일 동안 부모, 친척, 친구돕기 평균시간

구 분	단위 : 명, 시간					
	2005년		2002년		1999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자원봉사자	187	10.75	82	12.24	118	7.82
비자원봉사자	725	7.89	309	15.80	562	7.65
전 체	912	8.61	391	15.05	680	7.68

2.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경로

가. 자원봉사 참여경로

2005년 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경로를 보면, '참가하고 있는 단체(종교단체 포함)나 조직 또는 직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경우가 54.4%로 가장 높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단체 및 조직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로 32.3%이며,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18.1%로 나타났다. 그 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가 10.0%,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를 보았다'는 경우는 0.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으로 도움받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서'는 단지 1.8%로 드러났다.

<표 III-2-1>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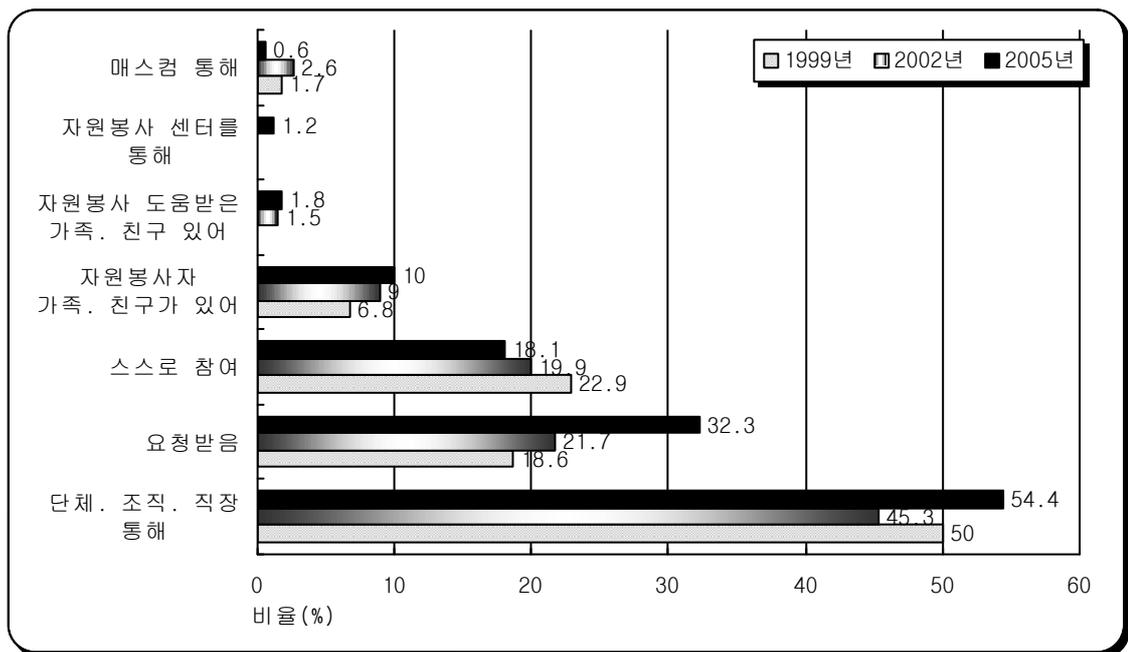
구 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1999년
누군가로부터 요청받음	107 (32.3)	58 (21.7)	44 (18.6)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족/친구가 있어서	33 (10.0)	24 (9.0)	16 (6.8)
자원봉사활동으로 도움 받은 가족/친구가 있어서	6 (1.8)	4 (1.5)	-
단체/조직/직장을 통해서	180 (54.4)	121 (45.3)	118 (50.0)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해	2 (0.6)	7 (2.6)	4 (1.7)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4 (1.2)	-	-
스스로 참여	60 (18.1)	53 (19.9)	54 (22.9)
합 계	392 (100.0)	267 (100)	236 (100)

2002년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경로를 보면, '참가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 또는 직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경우가 45.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로 21.7%이며,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19.9%로 나타났다. 그 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가 9.0%,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해 광고를 보았다'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으로 도움 받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서'는 단지 1.5%로 드러났다.

1999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경로를 보면, '단체나 조직 또는 직장을 통해서'가 50.0%로 가장 높고, 2순위로는 '스스로 참여'는 경우가 22.9%이며,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경우는 18.6%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따라서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 모두에서 단체의 권유 또는 누군가로부터의 권유는 매우 중요한 참여경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 모집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그림 III-2-1>. 즉,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한 대중모집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반면, 인적자원에 의한 '요청(asking)'하는 개별모집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1>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경로



나. 자원봉사활동 권유자

2005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107명

의 자원봉사자에게 누가 요청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III-2-2>와 같다. 자원봉사 권유자로 '친구'가 43.9%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 직원 및 회원'과 '학교'가 동일하게 17.8%로 나타나, 친구나 기관이 자원봉사 참여를 하는 데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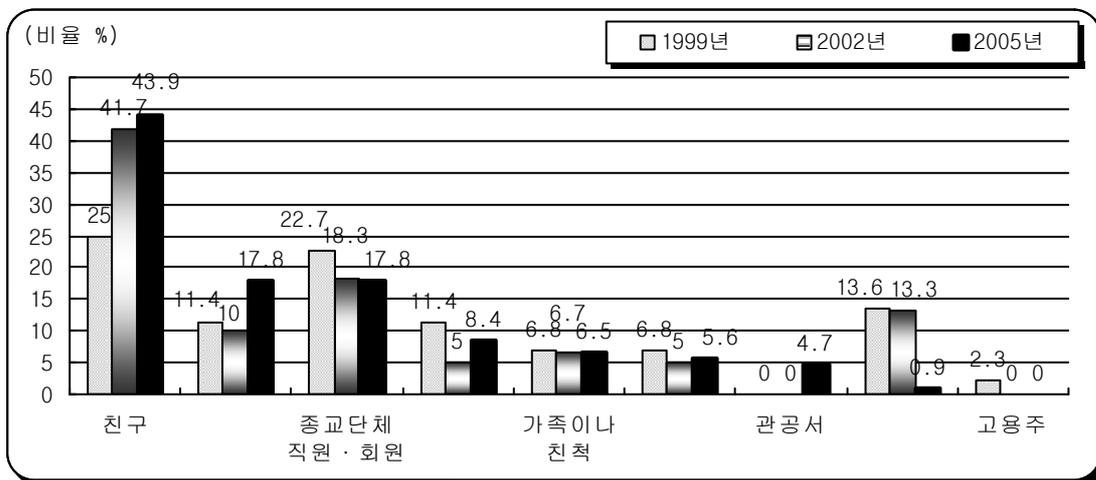
<표 III-2-2> 자원봉사활동 권유자*

권 유 자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1999년
친구	43(43.9)	25 (41.7)	11 (25.0)
가족이나 친척	6(6.5)	4 (6.7)	3 (6.8)
이웃	5(5.6)	3 (5.0)	3 (6.8)
고용주	-	-	1 (2.3)
직장 직원	7(8.4)	3 (5.0)	5 (11.4)
학교	24(17.8)	6 (10.0)	5 (11.4)
종교단체 직원·회원	17(17.8)	11 (18.3)	10 (22.7)
관공서	4(4.7)	-	-
기타	1(0.9)	8 (13.3)	6 (13.6)
합 계	107(100.0)	60 (100.0)	44 (100.0)

* 중복응답임.

2002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58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누가 요청하였는지를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자원봉사 권유자로 친구가 41.7%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18.3%, 학교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 자원봉사활동 권유자



1999년 조사에서도 권유자는 친구가 25%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22.7%, 직장내 직원, 학교가 똑같이 11.4% 순으로 나타나, 친구나 종교단체의 직원 및 회원 등의 자원봉사의 주 권유자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가족이나 친척, 이웃은 6.8%, 고용주 등은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향성을 유사하게 나타냈다<그림 III-2-2>. 즉, 권유는 매우 중요한 참여경로이며, 주 권유자는 친구 및 기관동료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원봉사자 모집은 개별모집과 비공식적 모집이 효과적이며, 함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친구 또는 동료가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자원봉사활동 권유단체

2005년 조사결과 자원봉사 권유단체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권유가 45.0%로 가장 높았고, 사회단체를 통해서가 23.3%, 학교가 20.6%, 직장이 8.9%, 그리고 비공식적 모임이 6.1%로 나타났다<표 III-2-3>, <그림 III-2-3>.

2002년 조사결과 자원봉사 권유단체를 살펴보면, 종교기관의 권유가 42.6%로 가장 높았고, 사회단체를 통해서가 21.0%, 학교가 12.6%, 직장 및 다른 자원봉사기관, 그리고 비공식적 모임이 동일하게 5.6%로 나타났다.

1999년 조사에서 자원봉사 권유단체를 살펴보면, 종교기관이 62.9%로 다른 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종교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1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8.1%, 학교나 기관이 6.5% 등을 차지하였다.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향성을 유사하게 나타냈다<그림 III-2-3>. 3개 연도 모두 종교기관은 가장 중요한 권유자이며, 두 번째로는 사회단체 및 협회가 중요한 권유단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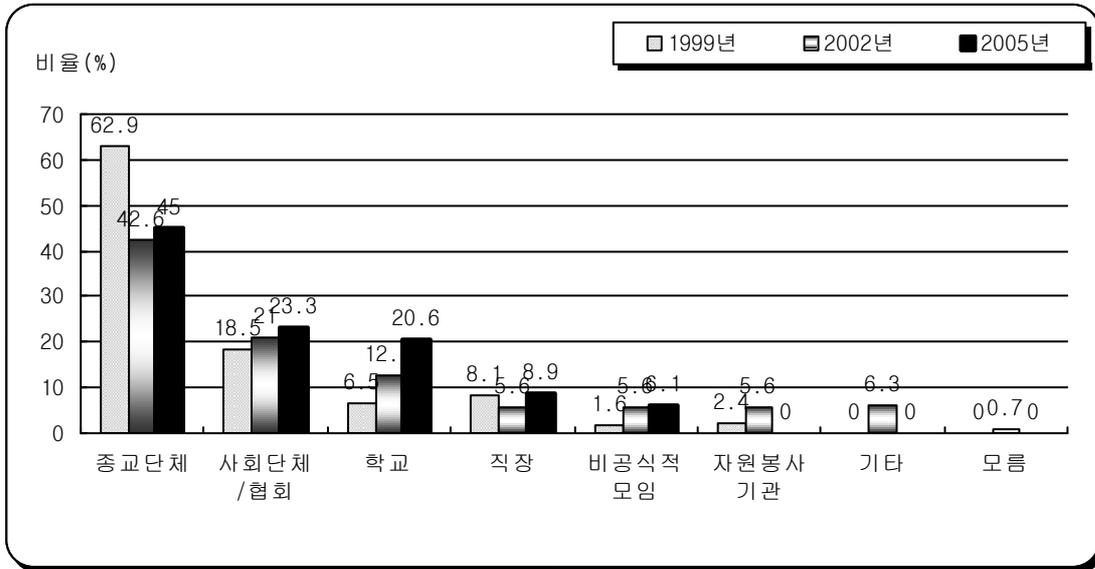
<표 III-2-3> 자원봉사활동 권유단체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종교단체	81 (45.0)	61 (42.6)	78 (62.9)
사회단체/협회	42 (23.3)	30 (21.0)	23 (18.5)
비공식적 모임	11 (6.1)	8 (5.6)	2 (1.6)
직장	16 (8.9)	8 (5.6)	10 (8.1)
학교	37 (20.6)	18 (12.6)	8 (6.5)
자원봉사기관	-	8 (5.6)	3 (2.4)
기타	-	9 (6.3)	-
모름	-	1 (0.7)	-
합 계	180 (100.0)	143 (100.0)	124 (100.0)

* 중복응답임.

<그림 III-2-3> 자원봉사활동 권유단체



3. 자원봉사활동의 지속 이유 및 중단 이유

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 이유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이유에 관해 자원봉사자 및 비자원봉사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를 지적하였고, 비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

이 활동하는 이유라고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2005년 조사결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 93.7%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으로 90.9%, '동정심을 갖고 있어서'가 82.5%, '새로운 사람 만남' 69.5%, '존경하는 인물의 자원봉사'는 66.2%, '개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52.3%로 지적하였다.

비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이유로 '동정심을 가지는 것'(83.0%)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자신의 필요성을 느껴서'(78.7%),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서'(78.2%),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므로'(61.5%), '존경하는 인물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49.9%),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므로'(39.7%)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결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 93.5%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으로 90.3%, '동정심을 갖고 있어서'가 82.2%, '새로운 사람 만남' 70.5%, '존경하는 인물의 자원봉사'는 62.3%, '개인적 문제해결에 도움' 49.4% 순으로 지적하였다.

비자원봉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이유로 '동정심을 가지는 것'(83.1%)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서'(79.7%), '자신의 필요성을 느껴서'(74.2%),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므로'(61.3%), '존경하는 인물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45.6%),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므로'(38.9%)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 91.2%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정심 가짐' 85.6%, '새로운 시각 갖게 됨'이 81.7%, '새로운 사람 만남' 7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자원봉사활동 지속의 중요한 이유

단위 :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 원 봉사자	비자원 봉사자
자신의 필요성느낌	93.7	78.7	93.5	74.2	91.2	81.6
동정심을 가짐	82.5	83.0	82.2	83.1	85.6	83.3
새로운 사람 만남	69.5	61.5	70.5	61.3	76.8	69.8
존경인물의 자원봉사	66.2	49.9	62.3	45.6	57.7	46.0
새로운 시각 갖게 됨	90.9	78.2	90.3	79.7	81.7	80.7
개인적인 문제해결 도움	52.3	39.7	49.4	38.9	56.8	51.8

비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것'(83.3%)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자신의 필요성을 느껴서'(81.6%),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서'(80.7%),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므로'(69.8%), '개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므로'(51.8%),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46.0%)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조사결과 역시 자원봉사자 집단, 비자원봉사자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므로 지속하게 된다고 인식하는 한편, 비자원봉사자들은 동정심을 더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원봉사자집단과 비자원봉사자집단이 인식하는 지속의 이유는 그 경향성을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다<그림 III-2-3>. 실제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와 경험이 없는 비자원봉사자들 간의 인식 및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지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또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등 자기개발을 인식하는 한편, 비자원봉사자들은 동정심을 더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자원봉사활동의 중단 또는 더 많이 하지 않는 이유

<표 III-3-2> 자원봉사의 중단 또는 더 많이 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적으로 바빠서	171	51.7	189	76.5	159	74.0
봉사활동의의를 공감할 수 없어서	2	0.6	7	2.8	10	4.7
건강상/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16	4.8	5	2.0	14	6.5
흥미가 없어서	4	1.2	1	0.4	3	1.4
부업을 하게 되어서	8	-	-	-	-	-
참가방법을 잘 몰라서	6	1.8	4	1.6	2	.9
할 수 있는 만큼은 했기 때문에	9	2.7	12	4.9	5	2.3
나이 때문에	6	1.8	1	0.4	3	1.4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서	-	-	1	0.4	2	.9
교통수단 문제로	1	0.3	1	0.4	-	-
돈을 받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으로	-	-	-	-	2	.9
요청하는 기관/사람이 없어서	1	0.3	3	1.2	5	2.3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지 않아서	4	1.2	4	1.6	8	3.7
시간이 아까워서	-	-	1	0.4	-	-
경제적 이유로	3	0.9	4	1.6	2	.9
가족을 돌봐야 되어서	13	3.9	-	-	-	-
복지기관의 부패를 느끼게 되어서	1	0.3	-	-	-	-
기타	-	-	8	3.2	-	-
모름	-	-	6	2.4	-	-
없다	-	26.0	-	-	-	-
합 계	245	100.0	244	100.0	215	100.0

2005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일년간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더 많이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III-3-2>. '개인적으로 바빠서'가 가장 많아 51.7%이며, 2순위는 '건강상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4.8%, '가족을 돌봐야 되어서'는 3.9%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에서도 '개인적으로 바빠서'가 매우 높아 76.5%이며, 2순위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였기 때문'은 4.9%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개인적으로 바빠서'로 74.0%이며, 2순위가 '건강상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6.5%, 3순위가 '봉사활동의 의의를 공감할 수 없어서'로 4.7%로 나타났다.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3개 연도 모두 '개인적으로 바빠서'가 가

장 큰 중단의 이유이며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원봉사의식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 자원봉사의 비참여 이유

<표 III-3-3>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824	64.4	805	63.6	850	64.7
봉사활동의의를 공감하지 못함	19	1.5	28	2.2	31	2.4
건강상/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87	6.8	80	6.3	77	5.9
흥미가 없어서	73	5.7	65	5.1	67	5.1
부업을 하게 되어서	14	1.1	-	-	-	-
어떻게 참가하는지 몰라서	86	6.7	94	7.4	111	8.5
나이 때문에	7	0.5	8	0.6	23	1.8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서	22	1.7	5	0.4	6	0.5
교통수단이 없어서	2	0.2	1	0.1	1	0.1
돈을 받고 일 해야 한다고 생각	1	0.1	5	0.4	7	0.5
요청하는 기관/사람이 없어서	6	0.5	39	3.1	25	1.9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지 않아서	23	1.8	76	6.0	63	4.8
시간이 아까워서	48	3.8	1	0.1	13	1.0
가족을 돌봐야 되어서	64	5.0	-	-	-	-
경제적 이유	2	0.2	25	2.0	34	2.6
기타	2	0.2	31	2.5	5	.4
모름	-	-	2	0.2	-	-
합 계	1,280	100.0	1,265	100.0	1,313	100.0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는 다음<표 III-3-3>과 같다. 2005년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바빠서'가 1순위로 64.4%이며, '건강상/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6.8%, '어떻게 참가하는지 몰라서' 6.7%, '흥미가 없어서' 5.7%, '가족을 돌봐야 되어서' 5.0%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바빠서'가 1순위로 63.6%이며, '어떻게 참가하는지 몰라서' 7.4%,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지 않아' 6.0%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개인적으로 바빠서'로 64.7%이며, '어떻게 참가하는지 몰라서'가 8.5%, '건강상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5.9%,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지 않아'

가 6.0% 순으로 나타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홍보 및 권유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2005년, 2002년, 199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비자원봉사자 집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경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것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중단한 이유와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매년 동일하게 나타난 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홍보, 권유 및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기구가 여전히 더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공감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는 1.5%로 아주 미미해 우리나라 성인 비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현재 비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3년 전과 비교한 자원봉사 시간

3년 전과 비교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시간의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2005년 조사 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시간은 '그대로다'가 40.8%, '늘어났다'가 25.4%, '줄어들었다'가 2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3년 전과 비교한 자원봉사 시간

구 분	단위 : %		
	2005년	2002년	1999년
늘어났다	25.4	29.6	35.8
줄어들었다	24.5	25.9	29.3
그대로다	40.8	34.0	31.6
모르겠다	1.8	4.5	3.3
무응답	7.6	6.1	-
합 계	100.0	100.0	100.0

2002년 조사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시간은 '그대로다'가 34.0%, '늘어났다'가 29.6%, '줄어들었다'가 2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9년 조사에서는 '늘어났다'가 35.8%로 가장 많았고, '그대로다'는 31.6%, '줄어들었다'가 29.3%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결과를 2002년과 199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시간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습관적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줄어든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4. 가족의 영향과 자원봉사활동

가.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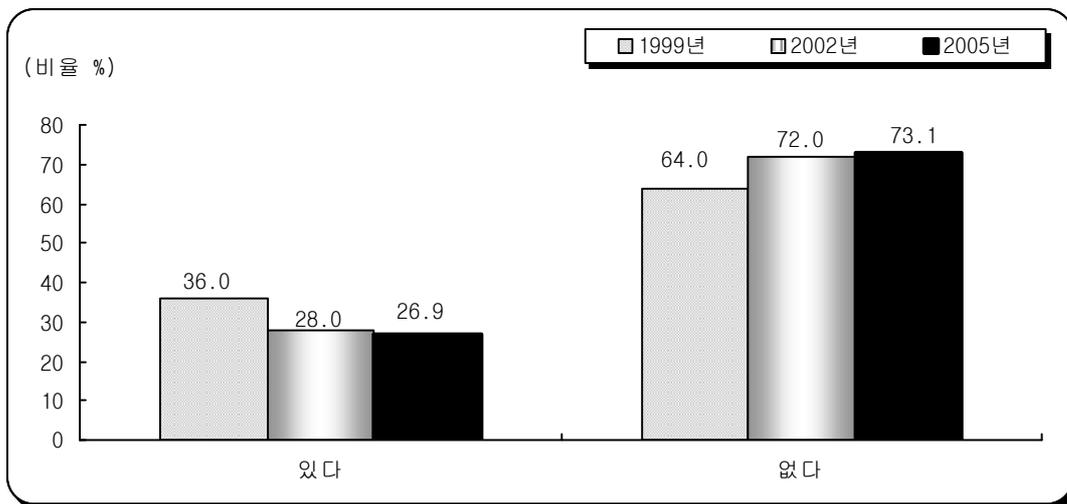
현재 가족 중 다른 성원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였다. 2005년 조사 결과 자원봉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9%, 없음이 73.2%로 나타났다. 2002년도 조사결과 자원봉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9%, 없음이 72.1%로 보고하였고, 1999년도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 경험을 한 경우가 35.8%, 없는 경우가 64.2%로 보고하였다<그림 III-4-1>.

<표 III-4-1>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단위 : %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전체	봉사자	비봉사자	전체	봉사자	비봉사자	전체	봉사자	비봉사자
참여									
두 분 모두	8.3	12.7	7.1	5.5	11.7	6.7	6.4	16.3	4.8
어머니만	9.2	12.1	8.4	8.5	13.0	7.6	8.5	14.4	7.5
아버지만	3.3	6.9	2.3	2.6	6.1	2.0	2.7	3.7	2.5
비참여									
모두 비참여	61.8	53.2	64.0	62.3	51.8	64.3	64.7	53.0	66.6
모름	17.5	15.1	18.1	19.0	17.4	19.4	17.7	12.6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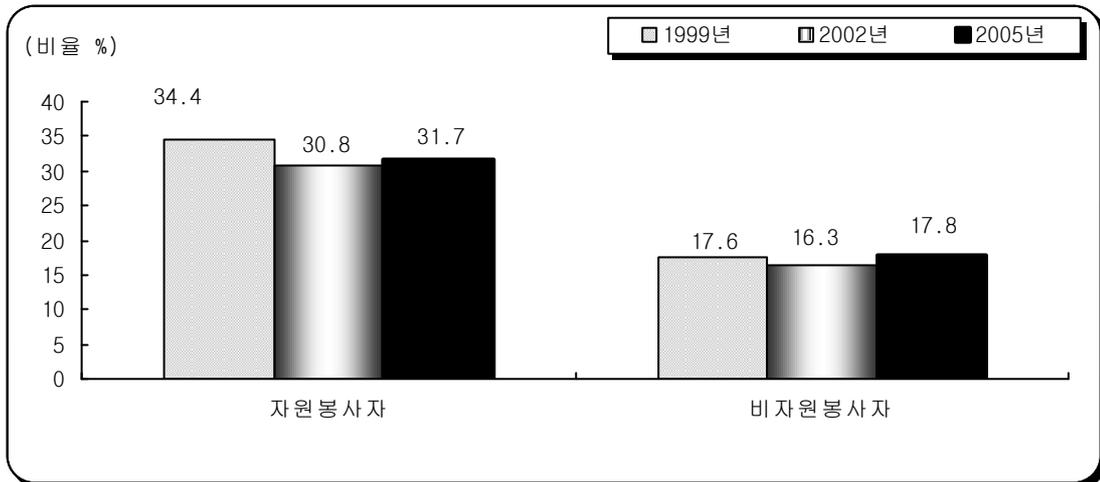
<그림 III-4-1>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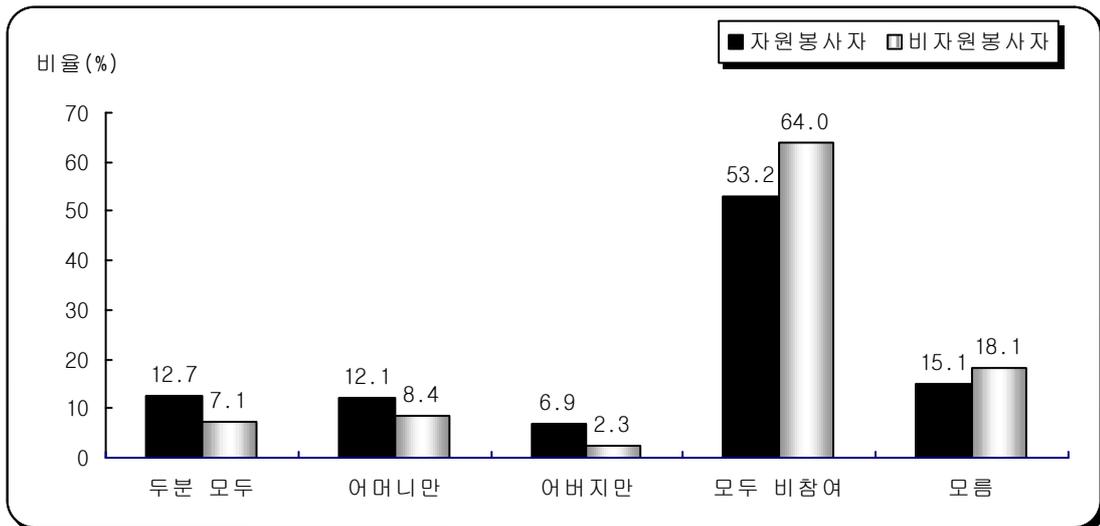
나.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조사대상자들에게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을 질문하였다. 2005년 조사에서는 비자원봉사자 집단에서 부모의 경험률이 17.8%이며, 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31.7%가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림 III-4-2>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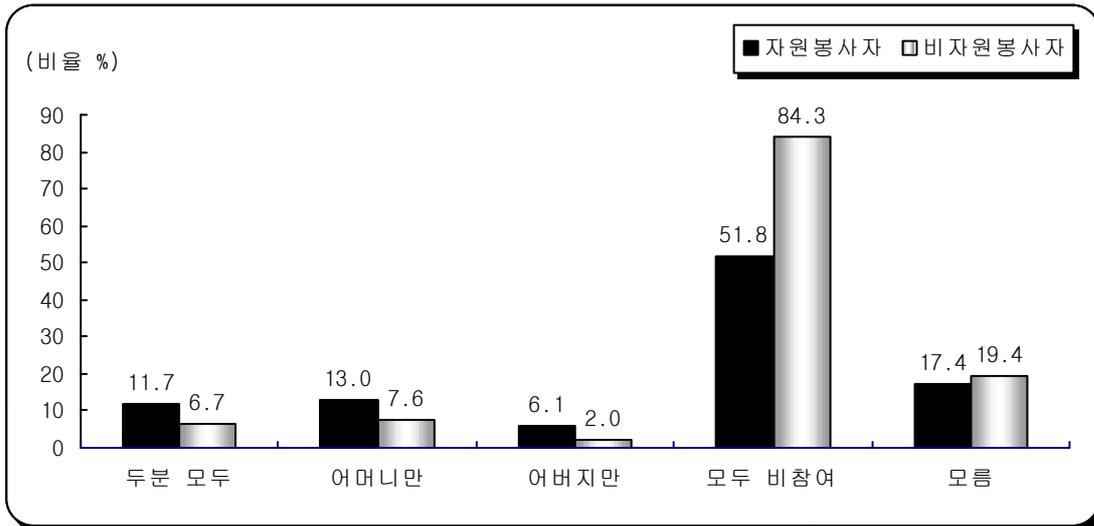
<그림 III-4-3>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2 (2005)



2005년, 2002년, 1999년 전반적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여, 비자원봉사자 집단보다는 자원봉사자 집단에서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률이 월등히 높아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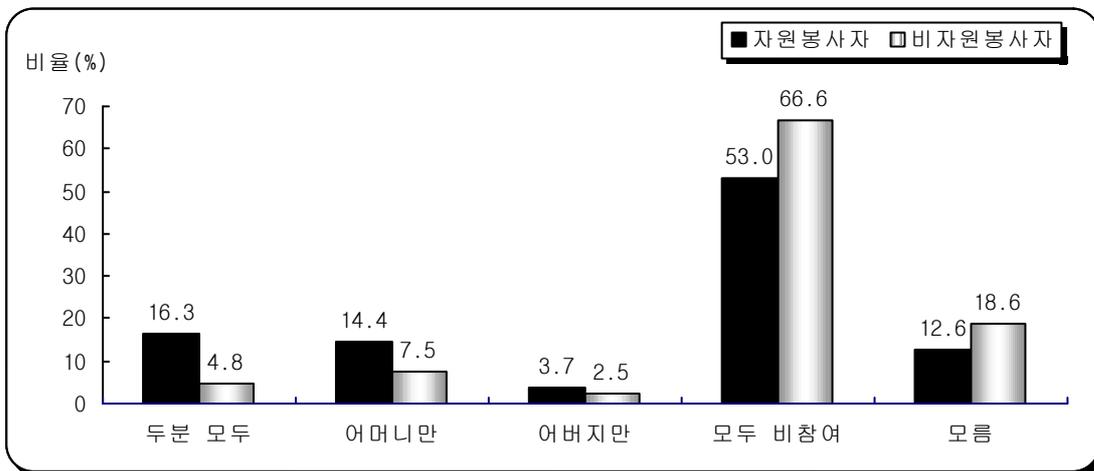
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4-4>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2 (2002)



2002년도 조사에서는 비자원봉사자집단에서 부모의 경험률이 16.3%이며, 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30.8%가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을 보고하였다. 한편, 1999년 조사에서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을 질문한 결과, 비자원봉사자 집단에서 부모의 경험률이 14.8%에 비해 자원봉사자 집단에서는 34.4%가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을 보고하고 있어 부모의 자원봉사의 경험과 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은 자녀의 자원봉사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5>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2 (1999)



5.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다음의 <표 III-5-1>은 2005년, 2002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2005년 조사결과, '매우 만족'이 33.5%, '약간 만족'이 51.4%, '조금 불만족'이 14.8%, '매우 불만족'이 0.3%로 대부분인 84.9%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35.6%, '약간 만족'이 53.8%, '조금 불만족'이 10.1%, '매우 불만족'이 0.4%로 대부분인 89.4%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5-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구 분	2005년		2002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111	33.5	88	35.6
조금 만족	170	51.4	133	53.8
조금 불만족	49	14.8	25	10.1
매우 불만족	1	0.3	1	0.4
합 계	331	100.0	247	100.0

단위 : 명 (%)

나.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2005년 조사에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50명에게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이유를 물어보았다. 불만족 이유로는 '생각했던 것과는 상이해서'(52.0%),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24.0%), '활동기관과의 기본적인 의견의 차이로'(1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자원봉사활동의 불만족 이유 (2005)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	12	24.0	3	9.1
생각했던 것과 상이(시간부족, 업무과다 등)	26	52.0	11	33.3
구체적 설명 부재(기초교육, 재교육 등)	4	8.0	3	9.1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마찰	4	8.0	3	9.1
활동기관(단체)과의 기본적인 의견 차이	9	18.0	4	12.1
지원하는 담당자 부재/도움을 주지 않음	1	2.0	5	15.2
직원과의 마찰(불화)때문에	0	0	-	-
원했던 자원봉사활동에 배치가 되지 않아	1	2.0	-	-
정부의 지원 부족	-	-	1	3.0
능력 부족	-	-	1	3.0
형식적인 면	-	-	2	6.0
합 계	50	100.0	33	100.0

2002년 조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26명에게 불만족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생각했던 것과는 상이해서'(33.3%), '지원하는 담당자의 부재'(15.2%), '활동기관과의 기본적인 의견의 차이로'(12.1%),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9.1%)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2002년 조사 모두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유는 모두 자원봉사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것으로 이는 자원봉사관리자의 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배치의 부적절함 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어, 학교 및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6.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

가. 일반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사

2005년, 2002년 조사에서 비자원봉사자에게 앞으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III-6-1>, <표 III-6-2>와 같다.

2005년 조사결과, '모르겠다'가 40.2%, '1년이내에 할 생각이다'가 22.2%, '전혀 없다'가 20.6%, '1개월이내에 할 생각이다'가 13.5%, '3개월 이내에 할 생각이다'가 3.5%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아직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지만, 할 의향이 있는 경우(1년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도 56.3%로 나타나 반수 정도가 자원봉사활

동 참여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자원봉사 참여의사 (2005)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없다	332	20.6
1개월 이내에 할 생각이다	217	13.5
3개월 이내에 할 생각이다	56	3.5
1년 이내에 할 생각이다	358	22.2
모르겠다	648	40.2
합 계	1,611	100.0

2002년 조사결과, ‘많이 있다’가 10.8%, ‘어느 정도 있다’가 62.5%, ‘별로 없다’가 15.2%, ‘전혀 없다’가 4.8%로 과반수이상인 73.3%가 자원봉사활동 참여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I-6-2> 비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의사 (2002)

구 분	빈 도	비 율
전혀 없다	61	4.8
별로 없다	192	15.2
어느 정도 있다	790	62.5
많이 있다	137	10.8
모르겠다	85	6.7
합 계	1,265	100.0

나. 공명선거 자원봉사 참여 의사

2005년 조사에서 공명선거 자원봉사 참여의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8.4%(자원봉사자 중 12.4%, 비자원봉사자 중 7.4%)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비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참여 의사를 보임을 알 수 있다<표 III-6-3>.

<표 III-6-3>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전 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전 체
있 다	41(12.4)	95(7.4)	136(8.4)	78(31.6)	228(18.0)	306(20.2)
없 다	290(87.6)	1185(92.6)	1475(91.6)	169(68.4)	1037(82.0)	1206(79.8)
합 계	331(100.0)	1,280(100.0)	1,611(100.0)	247(100.0)	1,265(100.0)	1,611(100.0)

2002년 조사에서 공명선거 자원봉사 참여의사에 대해 전체 20.2%(자원봉사자 중 31.6%, 비자원봉사자 중 18.0%)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2005년 및 2002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2002년에 비해 2005년 참여의사 비율이 훨씬 낮아지고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는지 질문한 결과<표 III-6-4>, 2005년에는 자원봉사자는 '정치적 중립인 곳에서 활동'이 31.2%,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활동' 29.2%,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활동'이 22.9%로 나타났고, 비자원봉사자는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활동'이 35.0%, '정치적 중립인 곳에서 활동'이 32.5%,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활동'과 '요청하는 곳에서 활동'이 동일하게 16.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들은 선거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어야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6-4>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 참여 내용

구 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자원봉사	비자원봉사	자원봉사	비자원봉사
정치적 중립적인 곳에서 활동함	15(31.2)	38(32.5)	50(48.5)	136(48.9)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활동함	14(29.2)	41(35.0)	23(22.3)	55(19.8)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활동함	11(22.9)	19(16.2)	16(15.5)	37(13.3)
선호와 상관없이 요청하는 곳에서 활동	8(16.7)	19(16.2)	14(13.6)	49(17.6)
기 타	-	-	-	1
합 계	48(100.0)	117(100.0)	103(100.0)	28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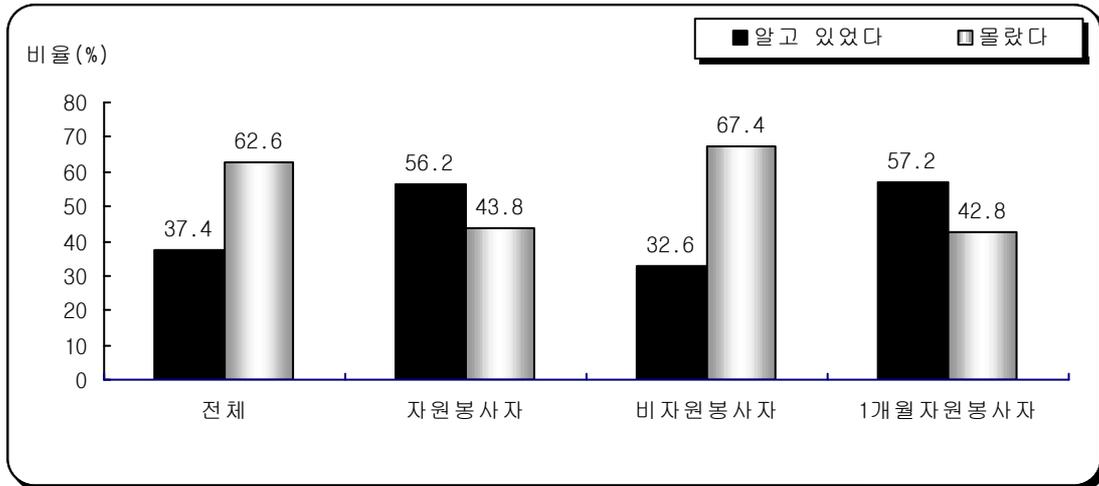
7.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연락처 인지 여부,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와 봉사처를 중계(연계)해주는 곳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4%(자원봉사자 56.2%, 비자원봉사자 32.6%)만이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표 III-7-1>, <그림 III-7-1>.

<표 III-7-1>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인지 여부

구 분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단위 : %
				1개월 자원봉사자
알고 있었다	37.4	56.2	32.6	57.2
모르고 있었다	62.6	43.8	67.4	42.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III-7-1> 자원봉사센터 역할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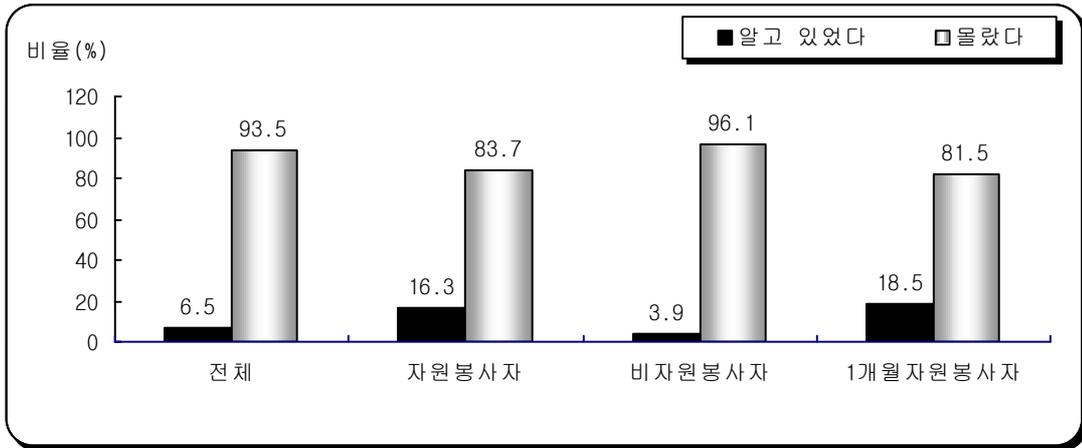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는 법은 전체의 6.5%(자원봉사자의 16.3%, 비자원봉사자의 3.9%)만이 알고 있었다. 더욱이 비자원봉사자는 3.9%만이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손쉽게 연락하는 방법(국번없이 1365)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접근시스템이 있지만,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III-7-2>, <그림 III-7-2>.

<표 III-7-2> 자원봉사센터 연락처 인지 여부

구분	단위 : %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1개월 자원봉사자
알고 있었다	6.5	16.3	3.9	18.5
모르고 있었다	93.5	83.7	96.1	8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III-7-2> 자원봉사센터 연락처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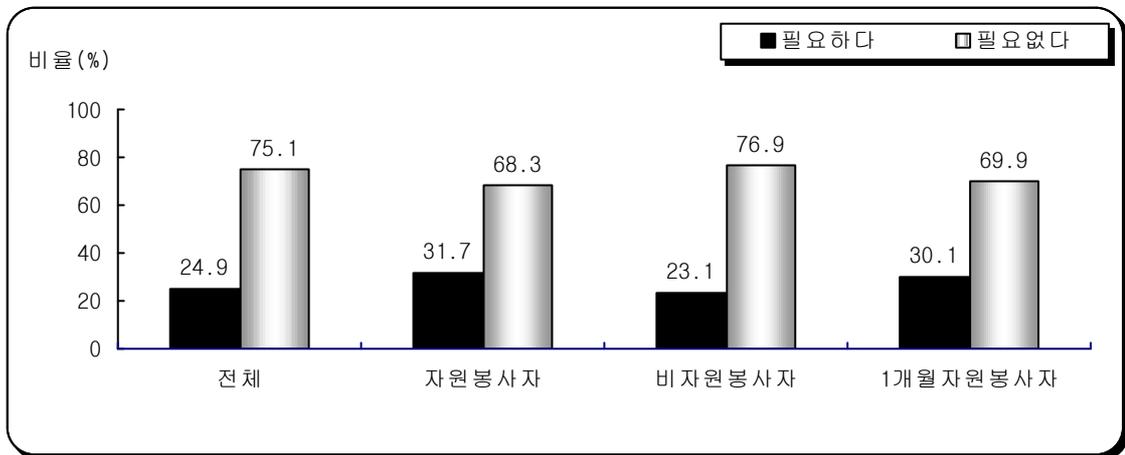
경력에 반영하거나 봉사시간 수 적립을 위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하였는데, 자원봉사자의 31.7%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여, 확인서 발급이 인정의 한 방향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수(68.3%)의 필요치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일률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비용효과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표 III-7-3>, <그림 III-7-3>.

<표 III-7-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 여부

단위 : %

구분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1개월 자원봉사자
필요하다	24.9	31.7	23.1	30.1
필요없다	75.1	68.3	76.9	6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III-7-3> 봉사활동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



IV. 한국인의 기부특성 및 현황⁸⁾

1. 기부 참여 실태

가. 지난 1년간 기부참여 실태

본 연구에서 기부는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내는 돈이나 물품 중 주일헌금, 성전건축헌금, 감사헌금 등 종교단체 자체를 위한 헌금은 기부에서 제외하였고, 종교단체에 내는 것이되 수재민 돕기 헌금, 불우이웃돕기헌금, 북한동포돕기헌금 등 타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단체에 낸 경우에는 기부로 간주하였다.

2005년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표 IV-1-1> 및 <그림 IV-1-1>과 같이 응답자 1,611명 중 50.6% 815명이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 지난 1년간 적어도 한 번 이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IV-1-1> 지난 1년간 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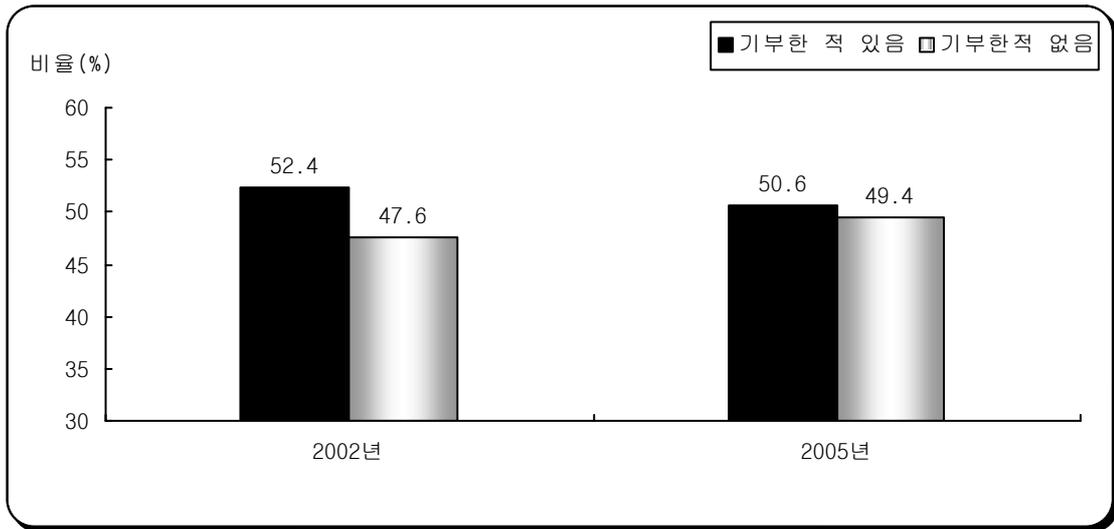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2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기부자	815	50.6	793	52.4
비기부자	796	49.4	719	47.6
합 계	1,611	100.0	1,512	100.0

한편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64.3%가 자선적 기부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아름다운재단”의 2004년 6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볼런티어21”의 2002년 조사결과 52.4%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나빠진 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 기부현황조사는 2002년도부터 실시함.

<그림 IV-1-1> 지난 1년간 기부 참여율



2. 기부자의 특성

가.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부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2-1>, <표 IV-2-2>와 같다. 이를 통하여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사람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거주 지역 등에 따른 전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다.

<표 IV-2-1>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구 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성별		
남자	386(47.4)	401(50.6)
여자	429(52.6)	392(49.4)
연령		
20대	158(19.4)	158(19.9)
30대	214(26.3)	251(31.7)
40대	208(25.5)	215(27.1)
50대	116(14.2)	119(15.0)
60세 이상	119(14.6)	50(6.3)
혼인상태		
미혼	169(20.7)	147(18.5)
기혼	624(76.6)	627(79.1)
이혼/사별	22(2.7)	19(2.4)
학력		
초졸 이하	-	63(7.9)
중졸	113(13.9)	77(9.7)
고졸	376(46.1)	361(45.5)
대재이상	326(40.0)	292(36.8)
거주지역		
서울	183(22.5)	180(22.7)
부산	57(7.0)	65(8.2)
대구	56(6.9)	49(6.2)
인천	40(4.9)	47(5.9)
광주	24(2.9)	17(2.1)
대전	30(3.7)	22(2.8)
울산	14(1.7)	16(2.0)
경기	154(18.9)	137(17.3)
강원	17(2.1)	22(2.8)
충청	71(8.7)	69(8.7)
호남	74(9.1)	61(7.7)
경상	95(11.7)	108(13.6)
합 계	815	793

<표 IV-2-2> 전체응답자 중 기부자의 비율 1

단위 : 명 (%)

구 분	전체응답자		2005	2002*
	빈도(비율)	빈 도 (비율)	전체응답자 중 비율	전체응답자 중 비율
성별				
남자	794(49.3)	386(47.4)	48.6	53.0
여자	817(50.7)	429(52.6)	52.5	52.0
연령				
20대	356(22.1)	158(19.4)	44.4	46.5
30대	405(25.1)	214(26.3)	52.8	51.9
40대	366(22.7)	208(25.5)	56.8	58.8
50대*	212(13.2)	116(14.2)	54.7	52.5
60세 이상	272(16.9)	119(14.6)	43.8	—
혼인상태				
미혼	377(23.4)	169(20.7)	44.8	44.4
기혼	1178(73.1)	624(76.6)	53.0	55.1
이혼/사별	56(3.5)	22(2.7)	39.3	45.2
학력				
초졸이하	—	—	—	47.0
중졸	281(17.4)	113(13.9)	40.2	54.6
고졸	711(44.1)	376(46.1)	52.9	52.1
대재이상	619(38.4)	326(40)	52.7	53.7
거주지역				
서울	368(22.8)	183(22.5)	49.7	51.7
부산	127(7.9)	57(7)	44.9	56.5
대구	82(5.1)	56(6.9)	68.3	63.6
인천	84(5.2)	40(4.9)	47.6	56.6
광주	45(2.8)	24(2.9)	53.3	41.5
대전	47(2.9)	30(3.7)	63.8	52.4
울산	34(2.1)	14(1.7)	41.2	51.6
경기	328(20.4)	154(18.9)	47	46.1
강원	52(3.2)	17(2.1)	32.7	42.3
충청	115(7.1)	71(8.7)	61.7	63.3
호남	135(8.4)	74(9.1)	54.8	46.6
경상	194(12.0)	95(11.7)	49	58.1
합 계	1,611(100)	815(1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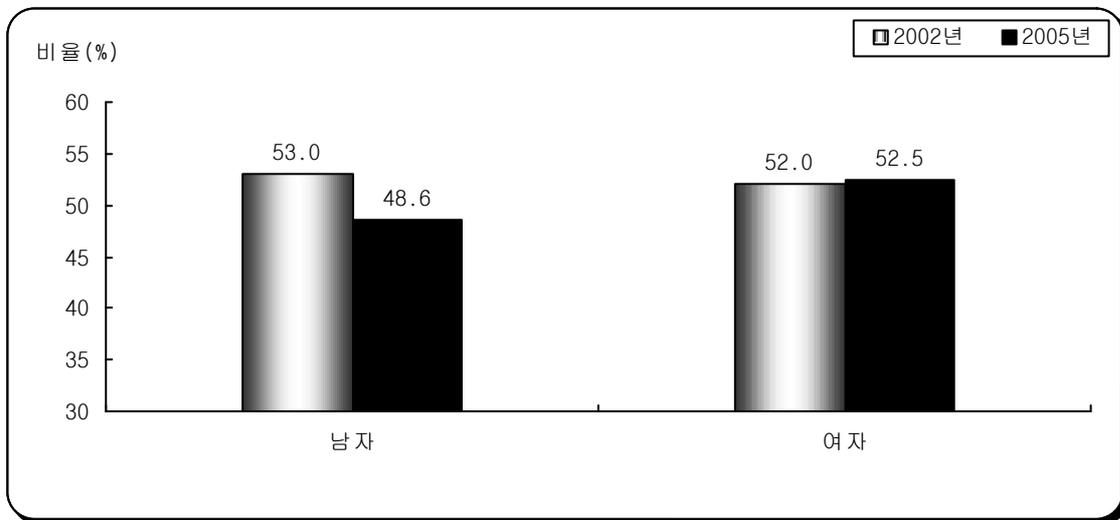
* 2002년도에는 50대 이상임.

조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 미혼보다는 기혼의 기부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연령은 40대가, 학력은 고졸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실시한 2004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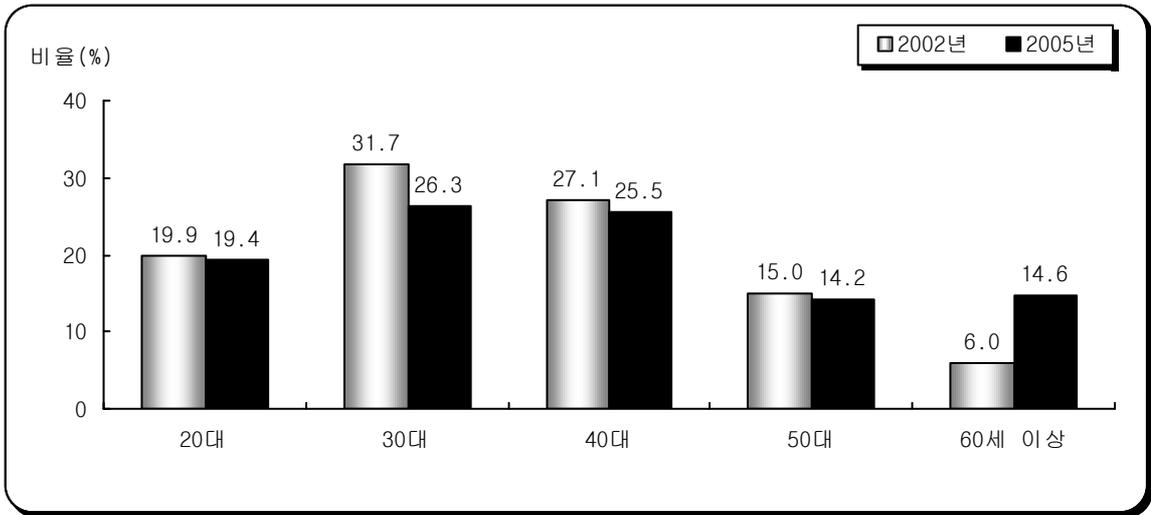
먼저 전체 응답자 중 기부참여 경험자의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48.6%, 여성 52.5%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3.9% 높게 나타났다<표 IV-2-2><그림 IV-2-1>. 한편 기부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도의 경우 남자가 50.6%인데 비하여 2005년에는 47.4%로 다소 감소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편 여자의 경우, 2002년도의 49.4%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52.6%로 나타나 다소 증가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표 IV-2-1>.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된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V-2-1> 성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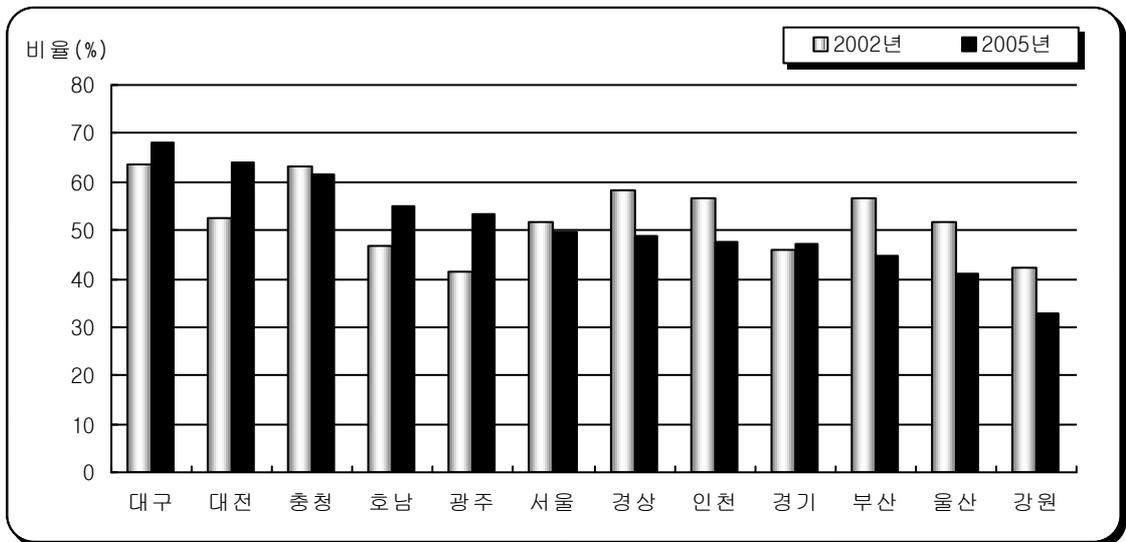


한편 기부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26.3%(21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25.5%(208명), 20대 19.4%(158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200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해 보면 대체로 유사한 맥락을 보여 주고 있으나 다만 30대의 경우 31.7%에서 26.3%로 감소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60대 이상의 경우는 2002년도 6.3%에서 2005년도 14.6%로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연령별 응답자 대비 기부참여의 비율을 보면 40대(56.8%), 50대(54.7%), 30대(5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2><그림 IV-2-2>.

<그림 IV-2-2> 연령별 기부자 비율



<그림 IV-2-3> 지역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 비율



한편 기부행위 경험자의 혼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상태가 가장 76.6%로 미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 4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대졸이상인 4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기부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그림 IV-2-3>과 같이 서울, 경기 지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도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다른 조사결과들과도 대체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이

인구가 밀집수준이 높다는 점, 지역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 기부의 요구가 더 많았거나 기부문화가 더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지역별 응답자 대비 기부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대구가 82명 중 56명(68.3%), 대전 47명 중 30명(63.8%), 충청 115명 중 71명(61.7%)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V-2-3>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구 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업종류				
농/임/어업	37	4.5	60	7.6
자영업	123	15.1	172	21.7
판매/서비스직	98	12.0	72	9.1
기능/숙련공	46	5.6	27	3.4
일반작업직	26	3.2	23	2.9
사무/기술직	181	22.2	121	15.3
경영/관리직	5	0.6	4	0.5
전문/자유직	6	0.7	6	0.8
전업주부	203	24.9	221	27.9
학생	48	5.9	58	7.3
무직	42	5.2	29	3.7
가장여부				
가장	339	41.6	342	43.1
비가장	476	58.4	451	56.9
주소득원				
월급	514	63.1	419	52.8
사업소득	248	30.4	344	43.4
재산소득	28	3.4	16	2.0
기타	25	3.1	11	1.4
모름/무응답	-	-	3	0.4
주거형태				
자가	609	74.7	552	69.6
전세	166	20.4	196	24.7
월세	37	4.5	31	3.9
사택/무상거주	3	0.4	12	1.5
무응답	-	-	2	0.3
합 계	815	100.0	7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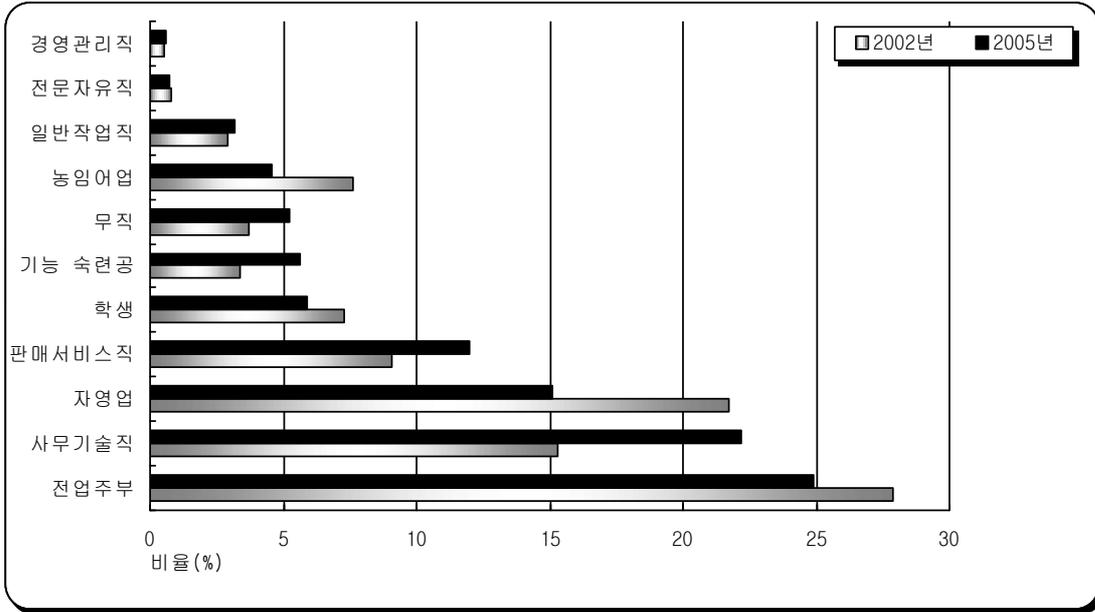
<표 IV-2-4> 전체응답자 중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 2

단위 : 명 (%)

구 분	전체응답자		기 부 자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중 비율	
직업종류				
농/임/어업	76(4.7)	37(4.5)	48.7	
자영업	222(13.8)	123(15.1)	55.4	
판매/서비스	201(12.5)	98(12.0)	48.8	
기능/숙련공	91(5.6)	46(5.6)	50.5	
일반작업직	66(4.1)	26(3.2)	39.4	
사무/기술직	329(20.4)	181(22.2)	55.0	
경영/관리직	6(0.4)	5(0.6)	83.3	
전문/자유직	7(0.4)	6(0.7)	85.7	
전업주부	396(24.6)	203(24.9)	51.3	
학생	128(7.9)	48(5.9)	37.5	
무직	89(5.5)	42(5.2)	47.2	
가장여부				
가장	644(40.0)	339(41.6)	52.6	
비가장	967(60.0)	476(58.4)	49.2	
주소득원				
월급	1042(64.7)	514(63.1)	49.3	
사업소득	474(29.4)	248(30.4)	52.3	
재산소득	51(3.2)	28(3.4)	54.9	
기타	44(2.7)	25(3.1)	56.8	
모름/무응답	-	-	-	
주거형태				
자가	1175(72.9)	609(74.7)	51.8	
전세	353(21.9)	166(20.4)	47.0	
월세	74(4.6)	37(4.5)	50.0	
사택/무상거주	9(0.6)	3(0.4)	33.3	
무응답	-	-	-	
합 계	1611(100)	8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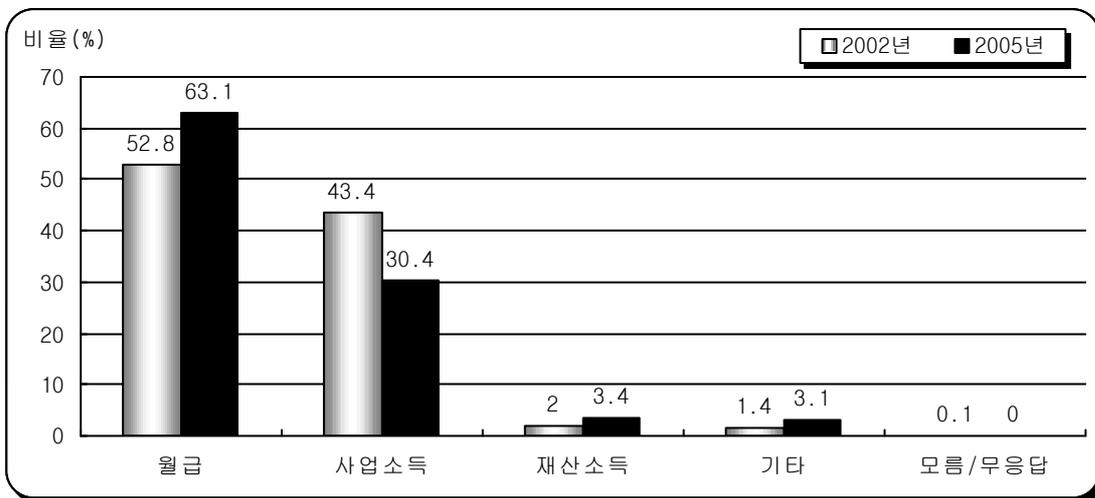
<표 IV-2-3>에서 기부경험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사무/기술직 22.2%, 자영업 1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02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27.9%에서 24.9%로 감소되었 고, 사무/기술직의 경우는 15.3%에서 22.2%로 증가되었으며, 자영업의 경우는 21.7%에서 15.1%로 감소된 결과를 보여 준다<그림 IV-2-4>.

<그림 IV-2-4> 직업별 기부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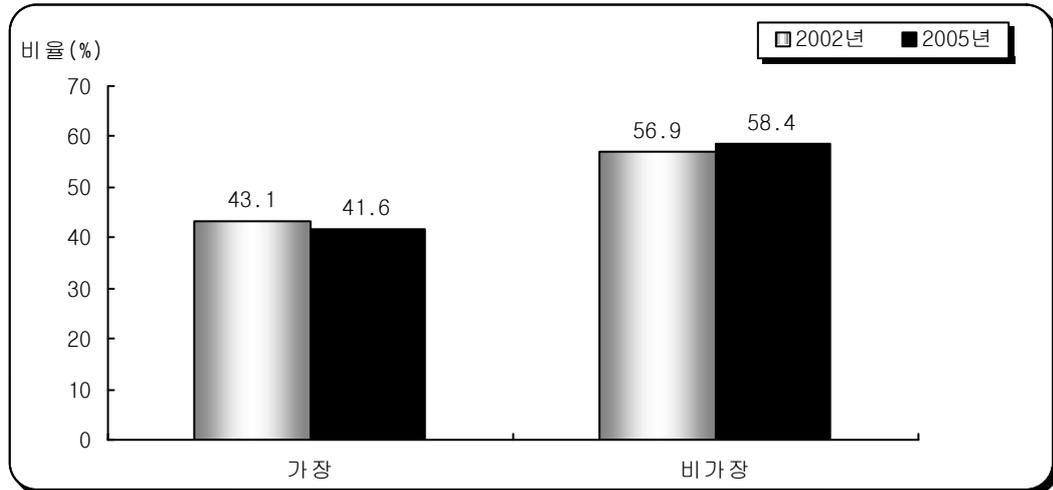
한편 주 소득원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급의 경우가 6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업소득은 3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02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월급의 경우 52.8%에서 63.1%로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의 경우 43.4%에서 30.4%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2-5>. 이러한 현상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특히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감소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2-5> 주 소득원별 기부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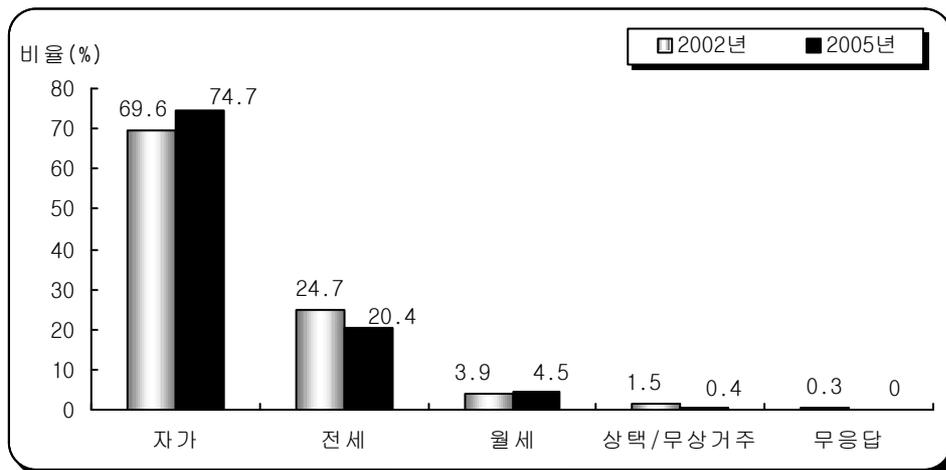


기부행위 경험자 중 비가장인 경우가 58.4%로 가장인 경우 41.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02년 비가장인 경우 56.9%, 가장인 경우 43.1%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그림 IV-2-6>. 한편 주거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인 경우는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 2-7>.

<그림 IV-2-6> 가장여부별 기부자 비율



<그림 IV 2-7> 주거형태별 기부자비율



한편 기부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보면 200~299만원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199만원이 23.3%, 300~399만원이 2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은 16.1%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 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다가 300만원대부터 다시 낮아지는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5> 소득수준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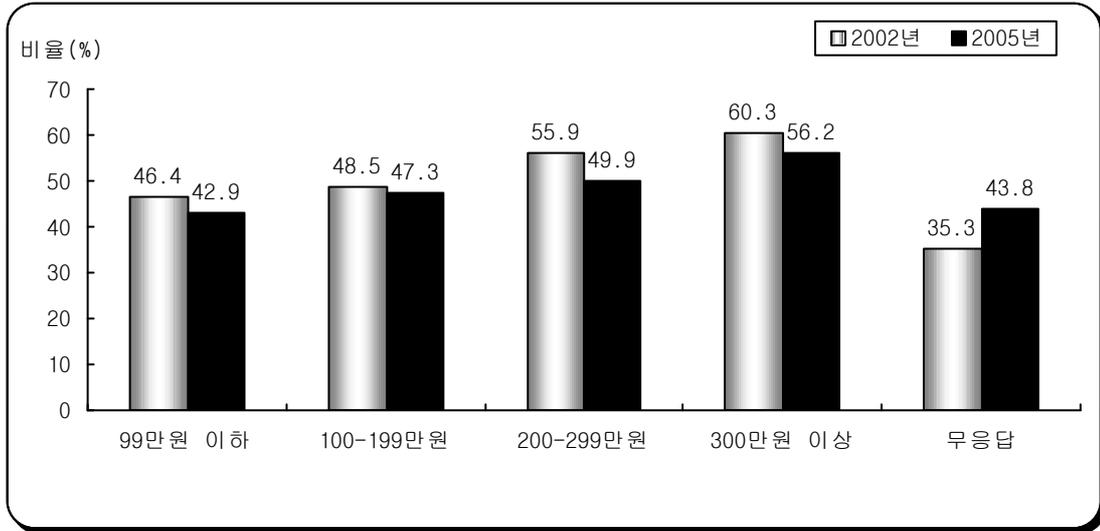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2년	
	전체응답자	기부자	전체응답자	기부자
99만원 이하	163	70(42.9)	179	83(46.4)
100-199만원	402	190(47.3)	544	264(48.5)
200-299만원	493	246(49.9)	478	267(55.9)
300만원 이상*	537	302(56.2)	277	167(60.3)
무 응 답	16	7(43.8)	34	12(35.3)
합 계	1,611	815(100.0)	1,478	781(100.0)

<표 IV-2-6> 소득수준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 세분화) (2005)

단위 : 명(%)

구 분	2005년	
	전체응답자	기부자
99만원 이하	163	70(42.9)
100-199만원	402	190(47.3)
200-299만원	493	246(49.9)
300만원 이상*	348	170(48.9)
400-499만원	128	82(64.1)
500이상	61	50(82.0)
무 응 답	16	7(43.8)
합 계	1,611	815

<그림 IV-2-8> 소득수준별 전체 응답자 중 기부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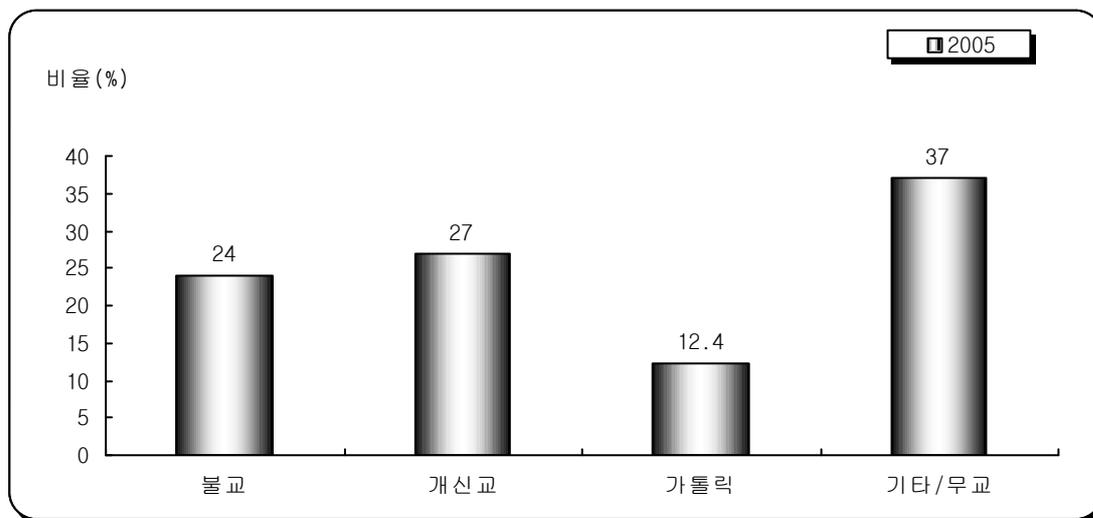
또한 기부자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기타 및 무교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신교 26.5%, 불교 24.0%, 가톨릭 12.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부에 있어서 개신교인들의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7> 기부자의 종교현황 (2005)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빈 도	비 율
불 교	196	24.0
개 신 교	216	26.5
가 톨 릭	101	12.4
기 타 / 무 교	302	37.1
합 계	815	100

<그림 IV-2-9> 기부자의 종교현황



3. 기부 영역과 내용

가. 지난 1년간 기부처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기부처는 신문 방송 등 언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간접적인 기부경로라 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 기부처 중 가장 높은 곳은 종교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가 지난 1년간 기부를 어디에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V-3-1> 및 <그림 IV-3-1>과 같다.

<표 IV-3-1> 지난 1년간 기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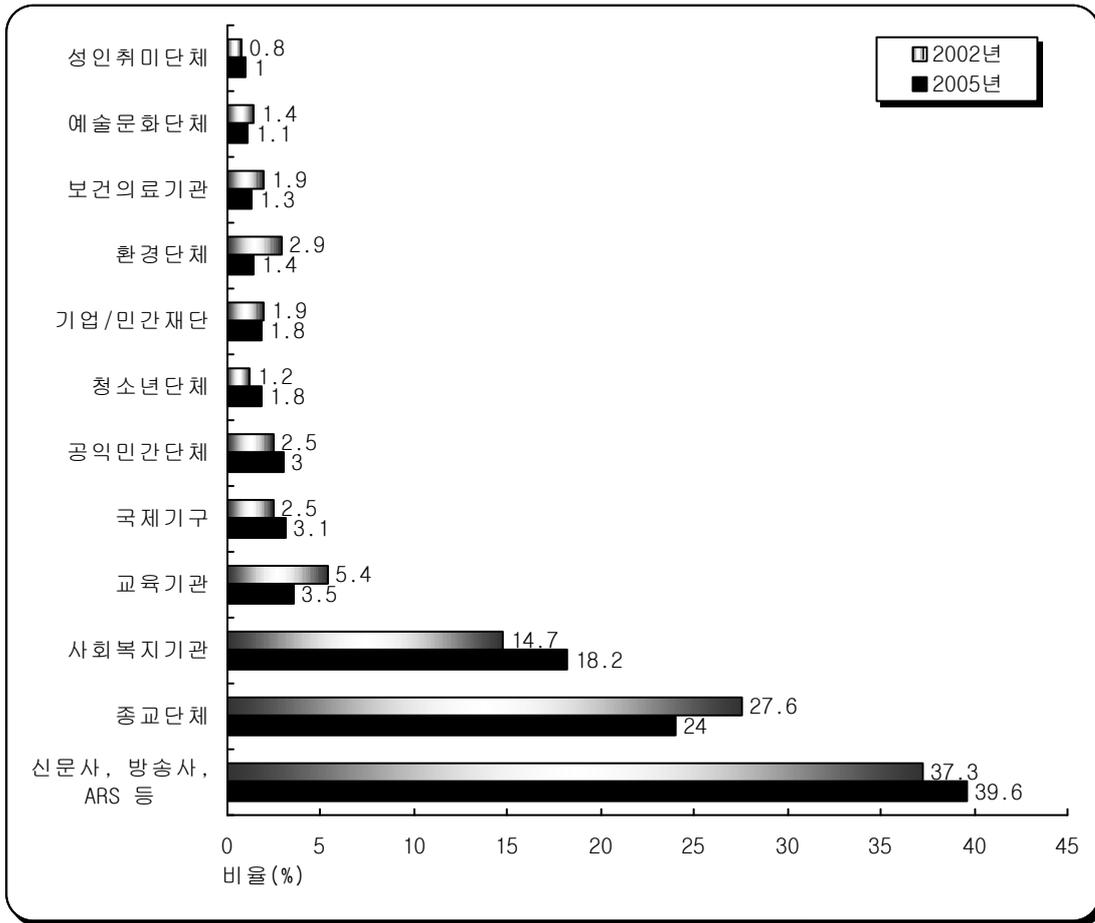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2005년		200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건의료기관	16	1.3	24	1.9
교육기관	44	3.5	68	5.4
종교단체	301	24.0	348	27.6
사회복지기관	229	18.3	185	14.7
환경단체	18	1.4	36	2.9
공익민간단체	37	2.9	32	2.5
성인취미단체	12	1.0	10	0.8
예술문화단체	14	1.1	18	1.4
청소년단체	23	1.8	15	1.2
기업/민간재단	23	1.8	24	1.9
국제기구	40	3.2	11	2.5
신문사, 방송사, ARS 등	498	39.7	470	37.3
계	1,255	100.0	1,261	100.0

이를 살펴보면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부를 했다는 응답이 2002년도의 37.3%보다 약간 증가한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금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등이 생기고 ARS를 통한 간편한 기부 방식이 도입된 영향으로 추측된다. 그 다음 직접적 기부처로서는 종교단체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 자체를 위한 주일헌금 등과 같은 기부와는 구별하여 조사된 것이다.

종교단체 다음으로 비종교적 목적의 기부처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곳은 사회복지기관으로 18.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다른 기부처들은 매우 낮은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 공익민간단체, 예술문화단체 등의 경우 모두 3%미만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처는 언론기관이나 종교단체이지만 직접적 및 비종교적 목적의 기부는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3-1> 지난 1년간 기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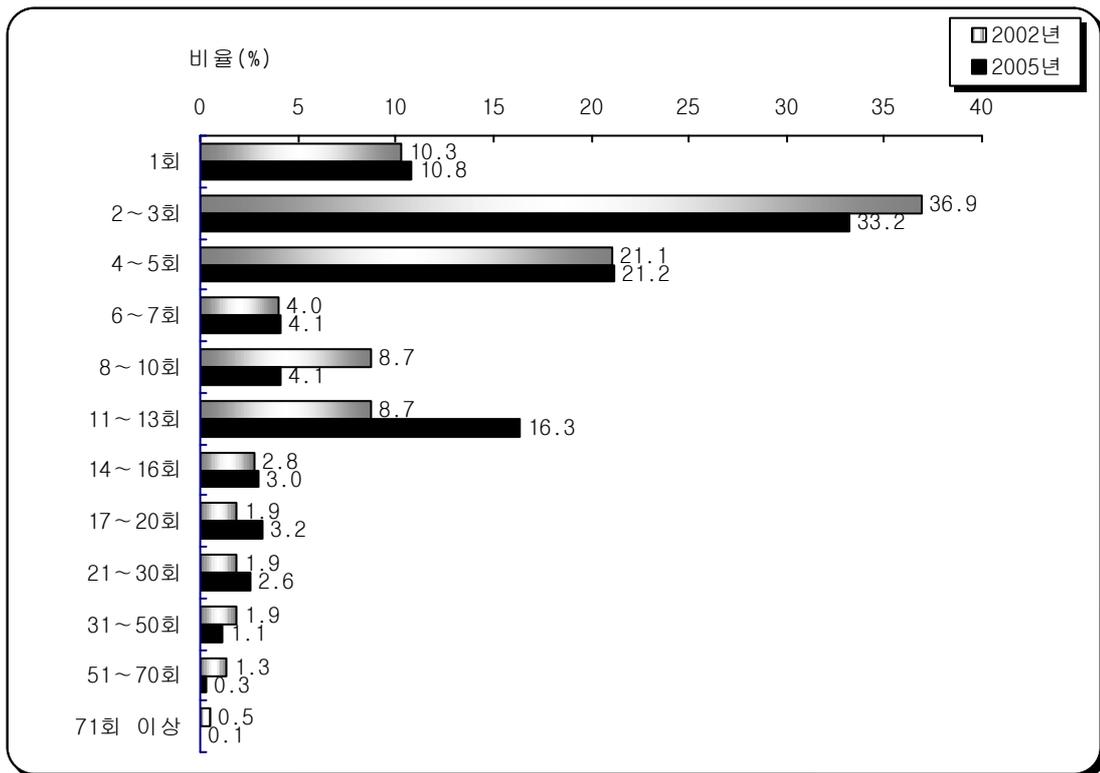
나. 지난 1년간 총 기부횟수

우리나라 기부경험자들이 지난 1년간 기부한 회수는 다음 <표 IV-3-2> 및 <그림 IV-3-2>와 같다. 즉 지난 1년 동안 2~3번 기부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2년도에는 전체 기부자의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도에도 또한 약간의 감소는 있었지만 33.3%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 또한 4~5번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73명(21.2%)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번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8명(10.8%)으로 나타났다. 한편 7회 이상 기부한 사람도 0.4%나 있음을 살펴 볼 수가 있다.

<표 IV-3-2> 지난 1년간 총 기부횟수

구 분	2005년		200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회	88	10.8	82	10.3
2-3회	271	33.3	293	36.9
4-5회	173	21.2	167	21.1
6-7회	34	4.2	32	4.0
8-10회	89	10.9	69	8.7
11-13회	83	10.2	69	8.7
14-16회	24	2.9	22	2.8
17-20회	26	3.2	15	1.9
21-30회	11	1.3	15	1.9
31-50회	10	1.2	15	1.9
51-70회	3	0.4	10	1.3
71회 이상	3	0.4	4	0.5
계	815	100.0	793	100.0

<그림 IV-3-2> 지난 1년간 총 기부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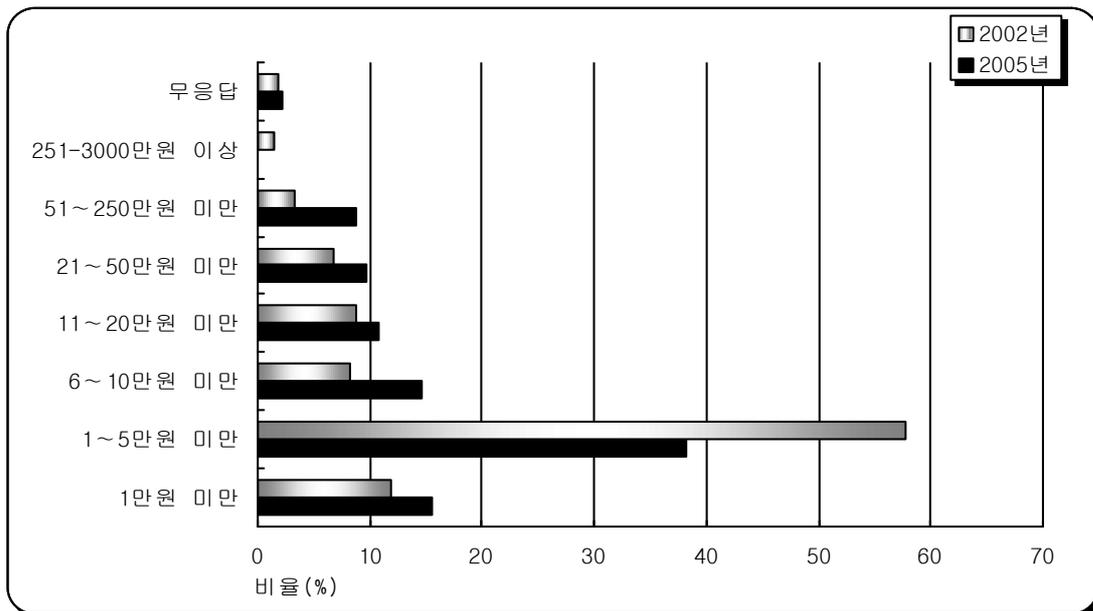
다. 지난 1년간 기부규모

지난 1년간 기부한 돈이나 물품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총 얼마를 기부했는지 기부금의 규모를 질문하여 다음 <표 IV-3-3> 및 <그림 IV-3-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기부경험자가 지난 1년간 기부한 규모를 살펴보면 1-5만원이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만원 미만이 15.5%로 5만원 미만의 소액기부자가 53.7%를 차지하였다.

<표 IV-3-3> 기부의 규모

구분	단위 : 명 (%)			
	2005년		200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만원 미만	126	15.5	94	11.8
1-5만원	311	38.2	458	57.8
6-10만원	120	14.7	66	8.3
11-20만원	88	10.8	70	8.8
21-50만원	78	9.6	54	6.8
51-250만원	72	8.8	25	3.2
251-3000만원 이상	2	0.2	12	1.5
무응답	18	2.2	14	1.8
계	815	100.0	793	100.0

<그림 IV-3-3> 기부의 규모



이는 2002년도의 5만원 미만의 기부자 69.6%보다는 낮아진 수치이나 아직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5만원 미만의 소액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10만원 14.7%, 11-20만원 10.8%로 2005년도 기부자의 80%는 20만원 미만의 기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만원 이상의 기부자의 경우 2005년도 11.4%로 나타나 2002년도 6.5%에 비하여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라. 지난 1년간 평균기부금액

- 인구특성별, 종교별, 소득수준별, 기부처

<표 IV-3-4> 인구특성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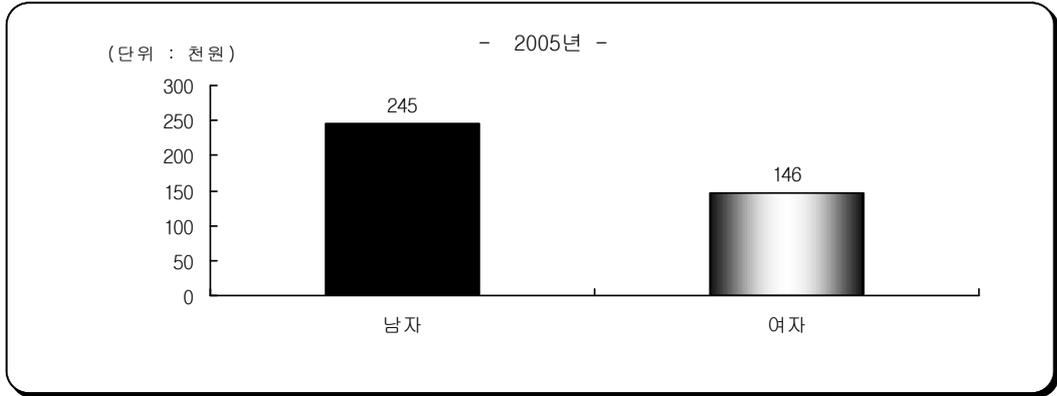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성별	
남성	245.3
여성	146.1
연령	
20대	89.4
30대	174.5
40대	263.6
50대	274.6
60세 이상	162.3
혼인상태	
미혼	117.6
기혼	217.0
이혼/사별	106.9
학력	
초졸이하	-
중졸	95.6
고졸	189.2
대재이상	2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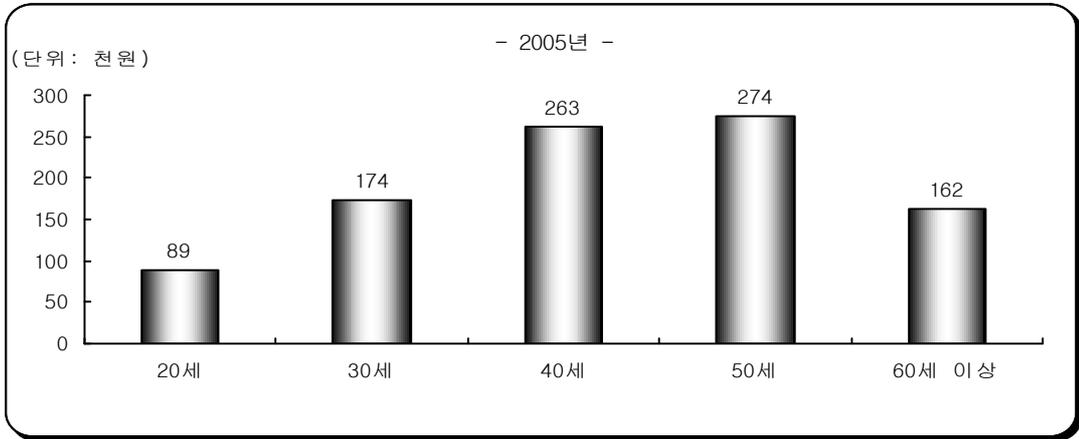
거주지역	
서울	208.4
부산	239.0
대구	138.8
인천	113.1
광주	183.3
대전	189.2
울산	96.6
경기	178.4
강원	230.0
충청	175.2
호남	290.1
경상	180.0
평균	193.4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을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4.5만원, 여성이 14.6만원을 하였고<그림IV-3-4>, 연령별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층인 50대가 27.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으며<그림IV-3-5>, 40대가 26.4만원, 30대가 17.5만원, 60세 이상이 16.2만원, 20대가 8.9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그림IV-3-6>.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사별이 576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례수(22명)가 기혼(624명)이나 미혼(169명)에 비하여 월등히 작은 것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학력별로는 대재이상이 258.6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고, 고졸이 18.9만원, 중졸이 9.6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IV-3-6>. 거주 지역별로는 호남이 29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이 23.9만원, 강원이 23만원, 서울이 20.8만원, 대전이 18.9만원, 광주가 18.3만원, 경상 18만원, 경기 17.8만원, 충청 17.5만원, 대구 13.9만원, 울산 9.6만원 순으로 나타나 기부참여 비율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그림IV-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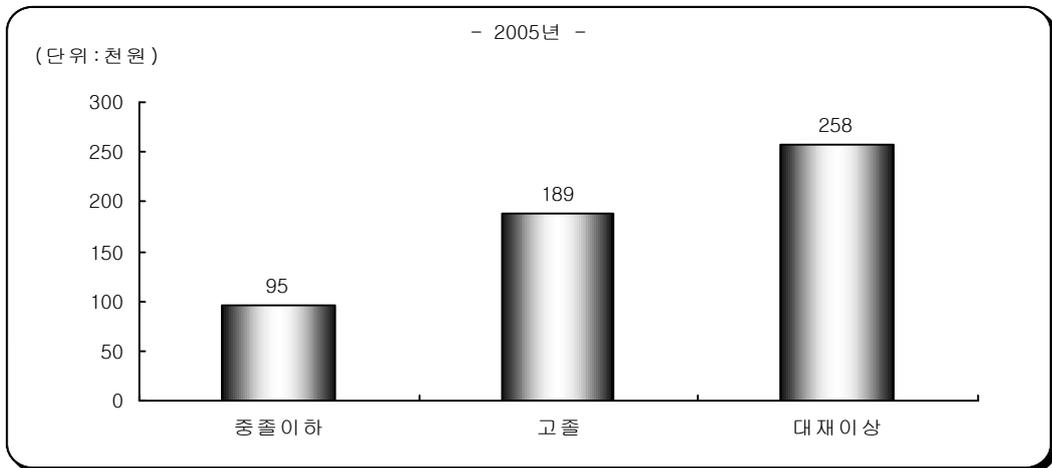
<그림IV-3-4> 지난 1년간 성별 평균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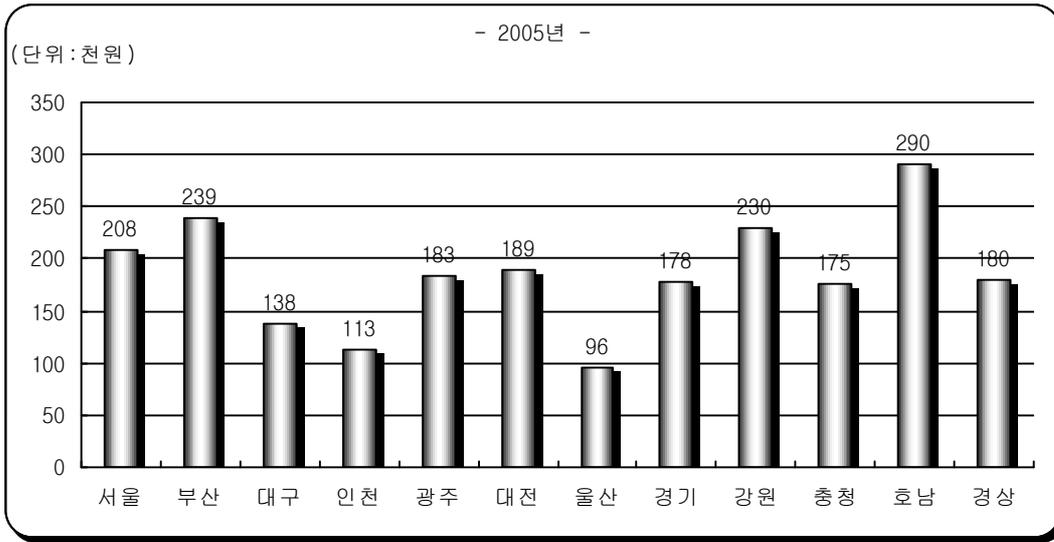
<그림IV-3-5> 지난 1년간 연령별 평균 기부금액



<그림IV-3-6> 지난 1년간 학력별 평균 기부금액



<그림 IV-3-7> 지난 1년간 거주 지역별 평균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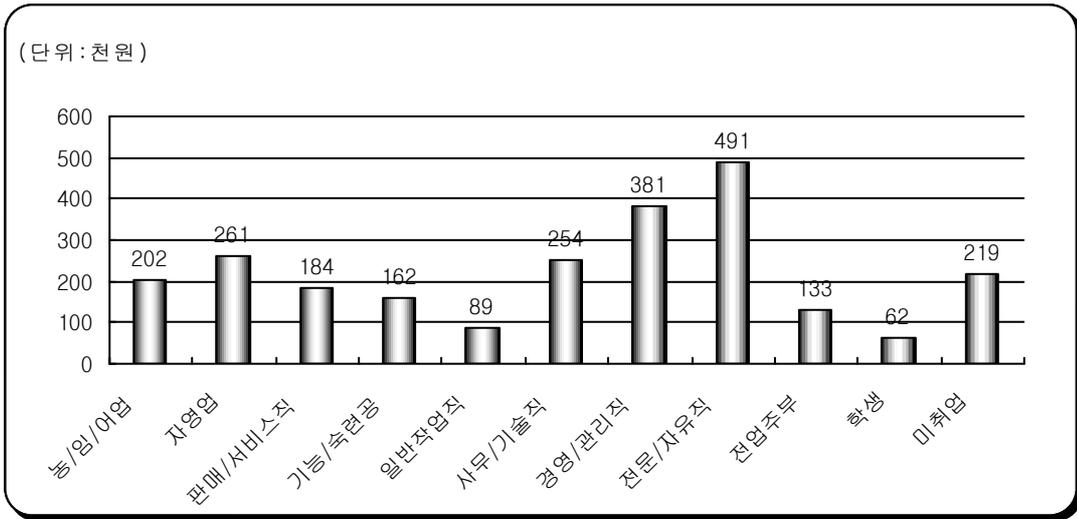


<표 IV-3-5> 인구특성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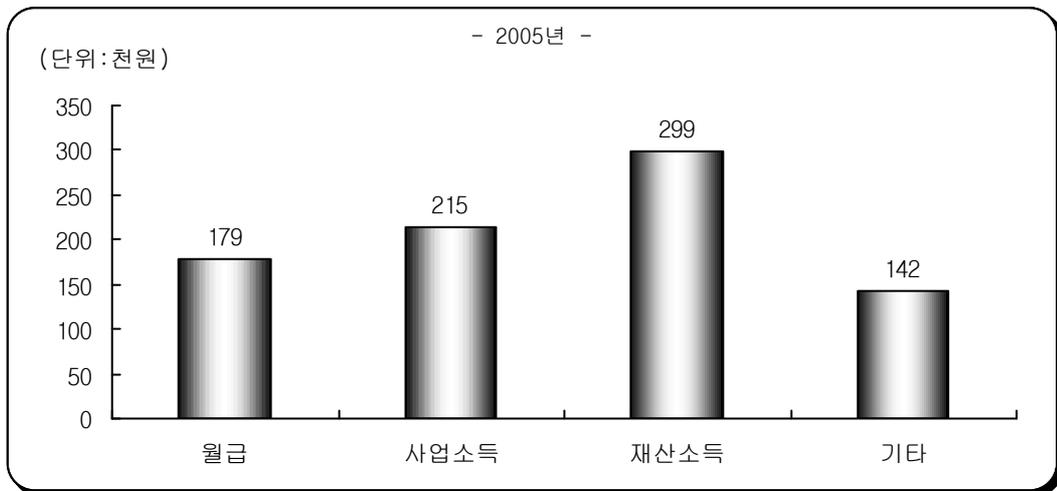
단위: 천원

구 분	2005년
직업종류	
농/임/어업	202.3
자영업	261.7
판매·서비스직	184.4
기능·숙련공	162.2
일반작업직	89.2
사무·기술직	254.6
경영·관리직	381.0
전문·자유직	491.7
전업주부	133.7
학생	62.2
무직	219.5
주소득원	
월급	179.8
사업소득	215.1
재산소득	299.0
기타	142
평균	193.4

<그림 IV-3-8> 지난 1년간 직업종류별 평균 기부금액



<그림 IV-3-9> 지난 1년간 주소득원별 평균 기부금액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이 49.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관리직38.1만원, 자영업 26.2만원, 사무·기술직이 25.5만원, 무직 22만원, 농/임/어업 20.2만원, 판매·서비스직 18.4만원, 기능·숙련공 16.2만원, 전업주부 13.4만원, 일반직업직 8.92만원 학생 6.2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로는 재산소득이 2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 21.5만원, 월급17.9만원, 연금 등 기타소득이 14.2만원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기부액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V-3-5><그림IV-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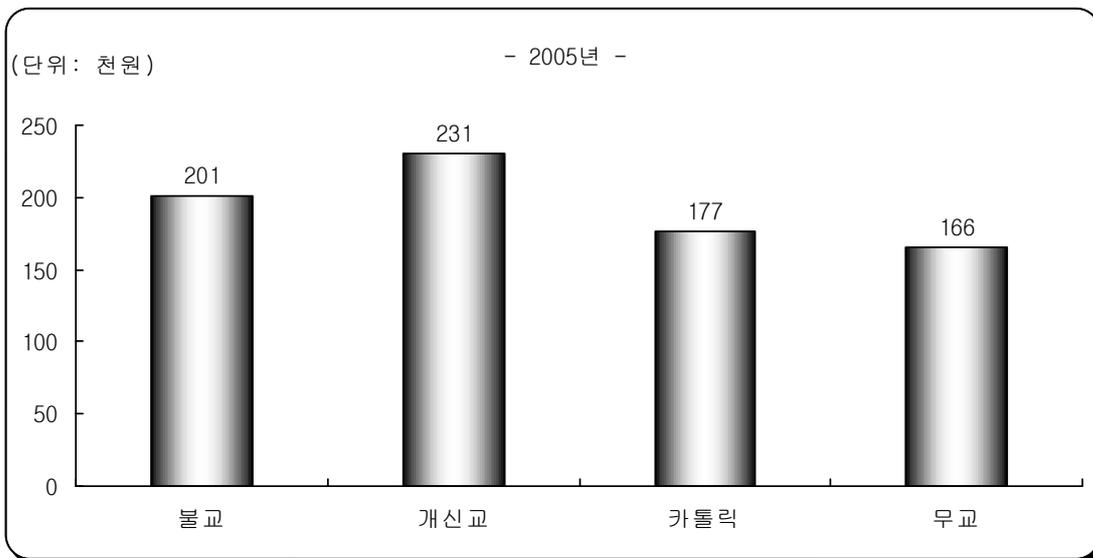
<표 IV-3-6> 종교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

단위 : 천원

종 교	2005
불 교	201.4
개신교	231.6
가톨릭	177.6
무 교	166.0
평 균	193.4

종교특성별로는 개신교가 23.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교가 20.1만원, 가톨릭 17.8만원, 무교 16.6만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표 IV-3-6><그림IV-3-10>.

<그림IV-3-10> 지난 1년간 종교특성별 평균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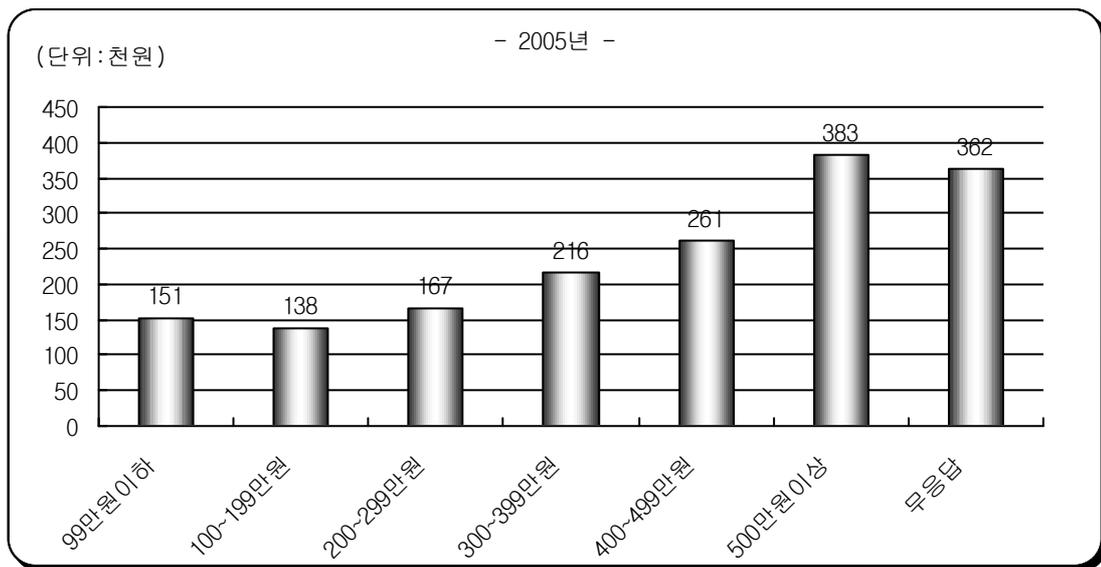
<표 IV-3-7> 소득수준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99만원 이하	151.9
100-199만원	138.8
200-299만원	167.2
300-399만원	216.6
400-499만원	261.3
500만원이상	383.2
모름·무응답	362.7
평 균	193.4

소득수준별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는 500만원이상이 38.3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하였고, 400-499만원이 26.1만원, 300-399만원이 21.7만원, 200-299만원이 16.7만원, 99만원 이하가 15.2만원, 100-199만원이 13.9만원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금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7><그림IV-3-11>.

<그림IV-3-11> 지난 1년간 소득수준별 평균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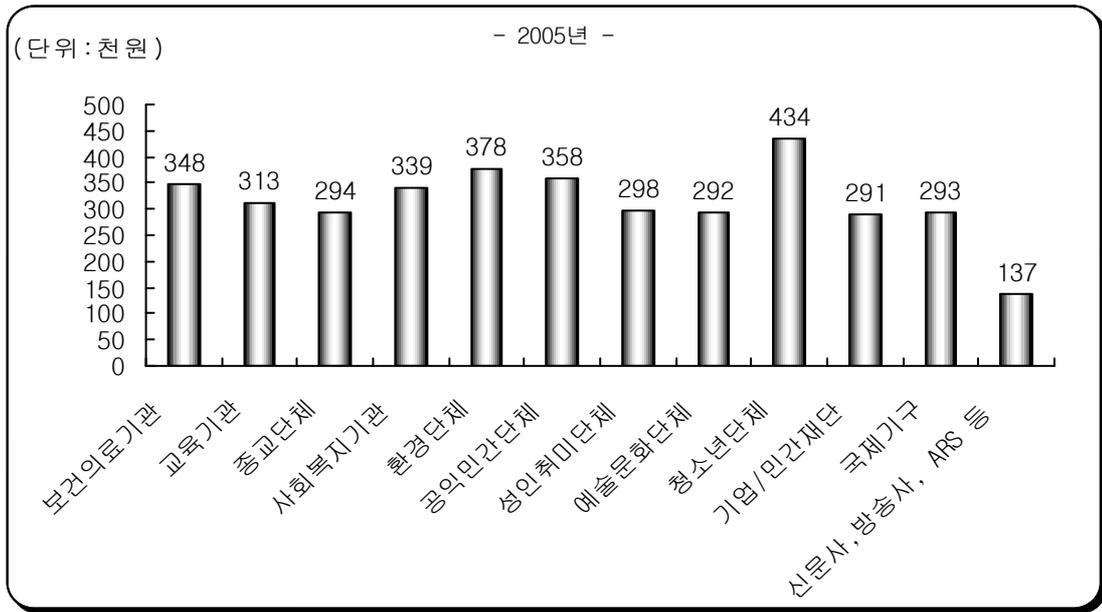
<표 IV-3-8> 기부처별 지난 1년간 평균 기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빈도	평균 기부금액
보건의료기관	16	348.6
교육기관	44	313.9
종교단체	301	294.3
사회복지기관	229	339.7
환경단체	18	378.8
공익민간단체	37	358.9
성인취미단체	12	298.2
예술문화단체	14	292.1
청소년단체	23	434.7
기업/민간재단	23	291.9
국제기구	40	293.4
신문사, 방송사, ARS 등	498	137.9
평 균		193.4

지난 1년간 기부처별 평균 기부금액을 보면 <표 IV-3-8>와 같이 청소년단체 43만 4천원, 환경단체 35만 9천원, 보건의료기관 34만 9천원의 순서로 많이 기부했고, 신문방송사, ARS등을 통해서는 가장 적은 액수인 13만 8천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IV-3-12> .

<그림 IV-3-12> 지난 1년간 기부처별 평균 기부금액



마. 기부의 정기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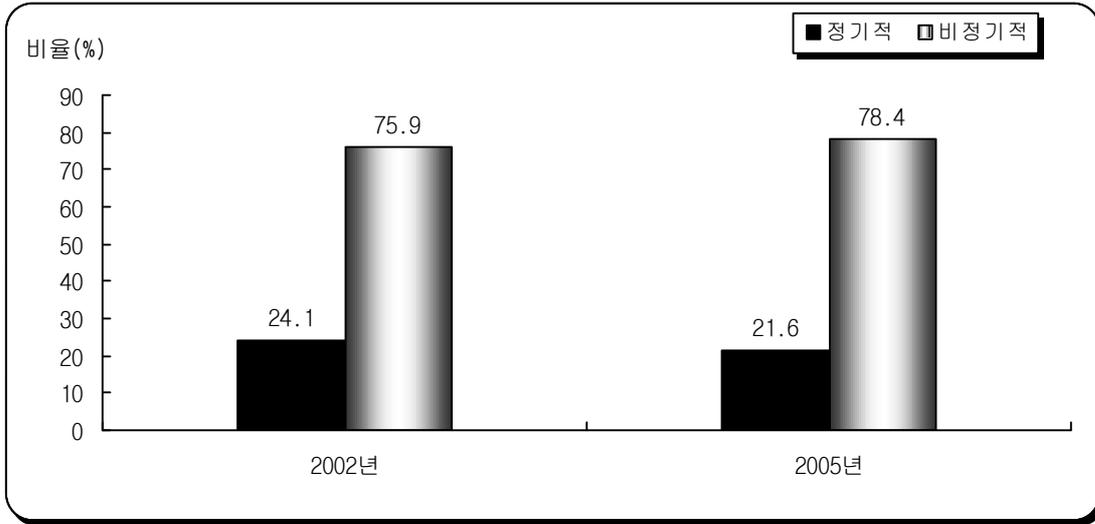
지난 1년간 기부한 사람들이 매일,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등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는지, 기회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3-4> 및 <그림 IV-3-4>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3-9> 기부의 정기성 여부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기적 기부	176	21.6	191	24.1
비정기적 기부	639	78.4	602	75.9
합 계	815	100.0	793	100.0

<그림 IV-3-13> 기부의 정기성 여부



한마디로 한국인의 기부행위는 대단히 비정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은 2002년 조사에서는 기부자의 24.1%, 비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은 75.9%로 나타났으며 한편 2005년에는 기부자의 21.6%가 정기적으로, 78.4%가 비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기적 기부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금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은 사회복지단체 등이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정기적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4. 기부 참여 요인

가. 기부 참여의 개인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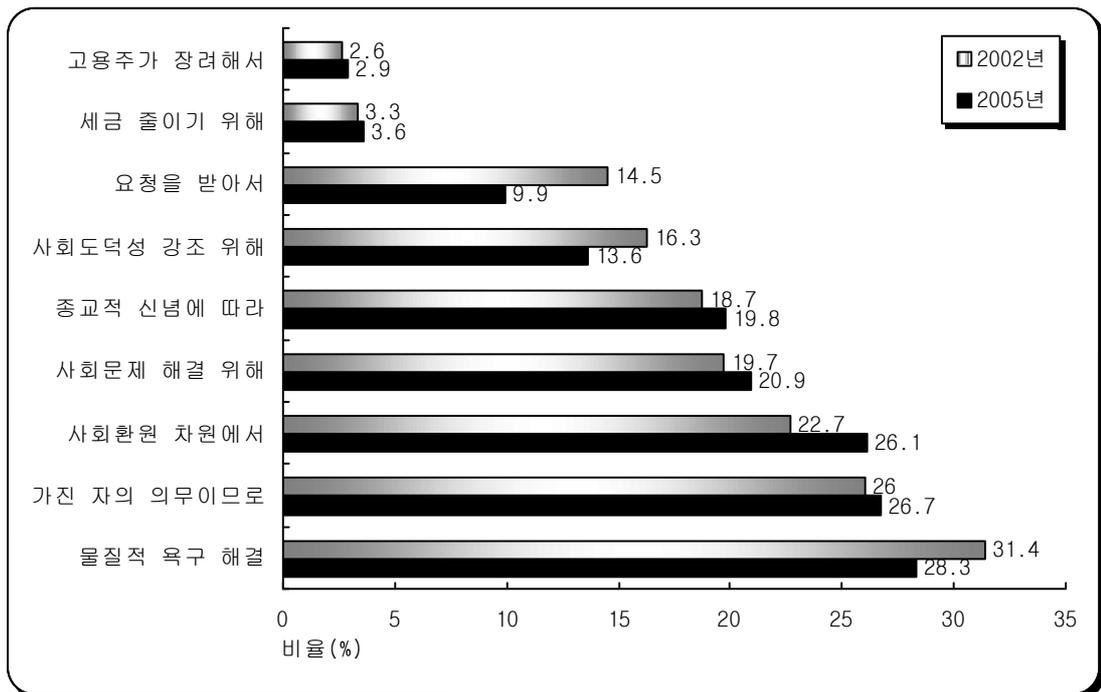
기부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하는 동기”에 대해 질문하여 다음 <표 IV-4-1> 및 <그림 IV-4-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기부참여자들의 중요한 동기는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해결” 28.3%, “많이 가진 자의 의무” 26.7%, “사회 환원의 차원” 26.1%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한편 기부 비참여자들은 중요한 동기로 “많이 가진 자의 의무” 29.8%,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해결” 25.4%, “사회 환원의 차원” 21.5%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요보호자의 욕구충족 등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성의 발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IV-4-1> 기부 참여의 개인적 동기 (2005년)

구 분	단위 : %								
	중요동기			부수적동기			동기안됨		
	전 체	기부자	비기부자	전 체	기부자	비기부자	전 체	기부자	비기부자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 해결 위해	26.9	28.3	25.4	53.2	53.5	52.9	18.7	17.3	20.1
친구/동료의 요청을 받아서	11.5	9.9	13.1	53.7	55.5	51.9	32.9	33.4	32.4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23.8	26.1	21.5	48.0	44.8	51.3	26.3	27.4	25.1
세금/기타비용을 줄이기 위해	4.7	3.6	5.8	24.6	21.7	27.6	67.6	72.3	62.8
고용주가 장려했기 때문에	4.2	2.9	5.4	27.7	24.4	31.0	63.9	69.0	58.8
사회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14.0	13.6	14.4	47.9	46.4	49.4	36.1	38.4	33.7
많이 가진 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28.2	26.7	29.8	46.6	46.7	46.5	23.5	24.9	22.1
종교적 신념에 따라	15.8	19.8	11.7	38.1	35.1	41.4	43.1	42.1	44.1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9.1	20.9	17.3	55.8	58.0	53.5	23.0	19.9	26.3

*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

<그림 IV-4-1> 기부 참여의 주요 동기



<표 IV-4-2> 기부 참여의 개인적 동기 (2002년)

단위 : %

구 분	중요동기			부수적동기			동기안됨		
	전 체	기부자	비기부자	전 체	기부자	비기부자	전 체	기부자	비기부자
요보호자의 물질적 욕구 해결 위해	28.5	31.4	25.3	49.1	45.9	52.6	19.4	20.8	17.9
친구/동료의 요청을 받아서	12.2	14.5	9.7	44.2	44.5	43.9	31.1	29.5	32.8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20.1	22.7	17.2	44.2	44.5	43.9	31.1	29.5	32.8
세금/기타비용을 줄이기 위해	3.7	3.3	4.2	21.7	21.4	22.0	68.4	71.1	65.4
고용주가 장려했기 때문에	2.9	2.6	3.2	21.8	20.2	23.5	67.9	71.4	64.1
사회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15.1	16.3	13.8	45.8	47.4	43.9	33.7	32.2	35.3
많이 가진 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25.6	26.0	25.2	45.0	43.4	46.7	25.9	28.2	23.4
종교적 신념에 따라	15.7	18.7	12.5	38.1	39.0	37.1	39.6	38.1	41.3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8.2	19.7	16.6	52.4	53.5	51.3	24.6	23.7	25.6

* '모르겠다'는 응답은 제외

나.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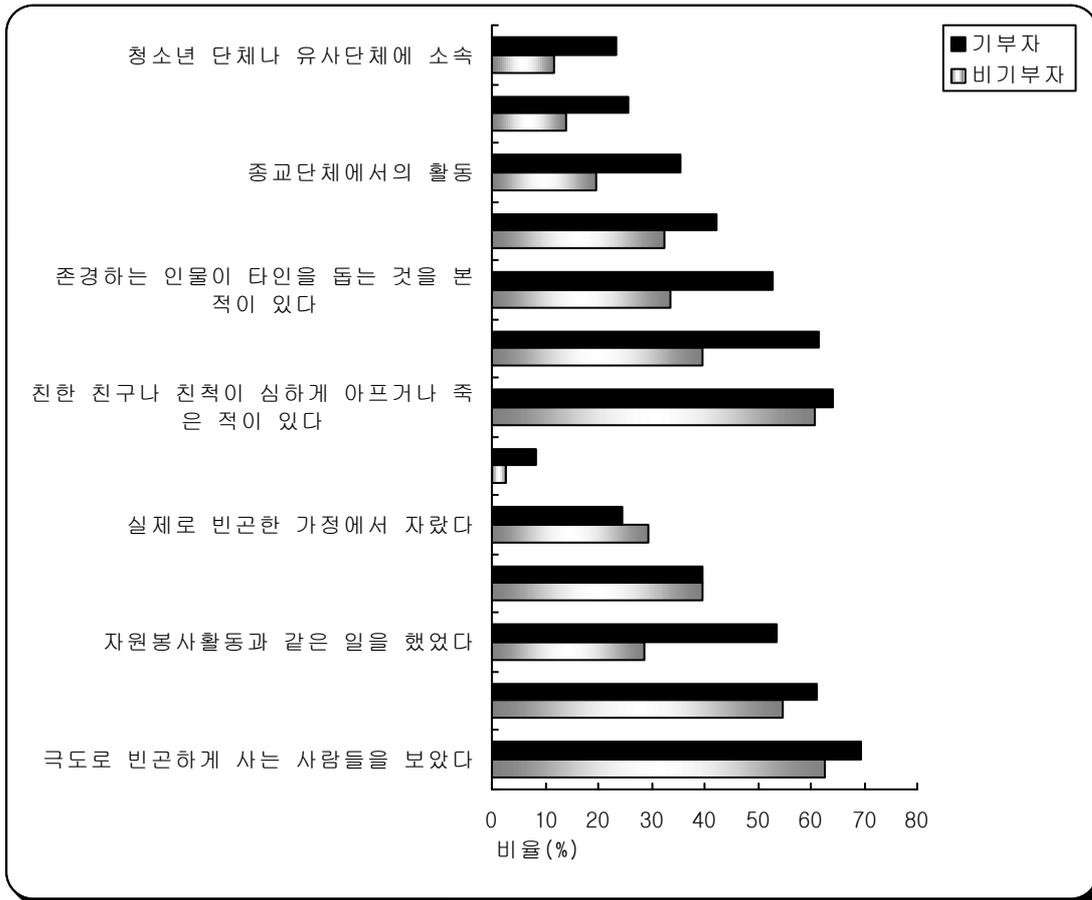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 과거에 겪었던 특정 경험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는 <표 IV-4-3><그림 IV-4-2>와 같이 나타났다. 과거의 경험을 크게 개인 차원의 직접적 경험, 친척이나 친구관계에서의 간접적 경험, 단체차원의 집단적 경험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개인차원의 직접적 경험에서는 각 항목별로 참여유무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만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기부참여자의 경우 53.6%, 기부 비참여자의 경우 28.5%로서 자원봉사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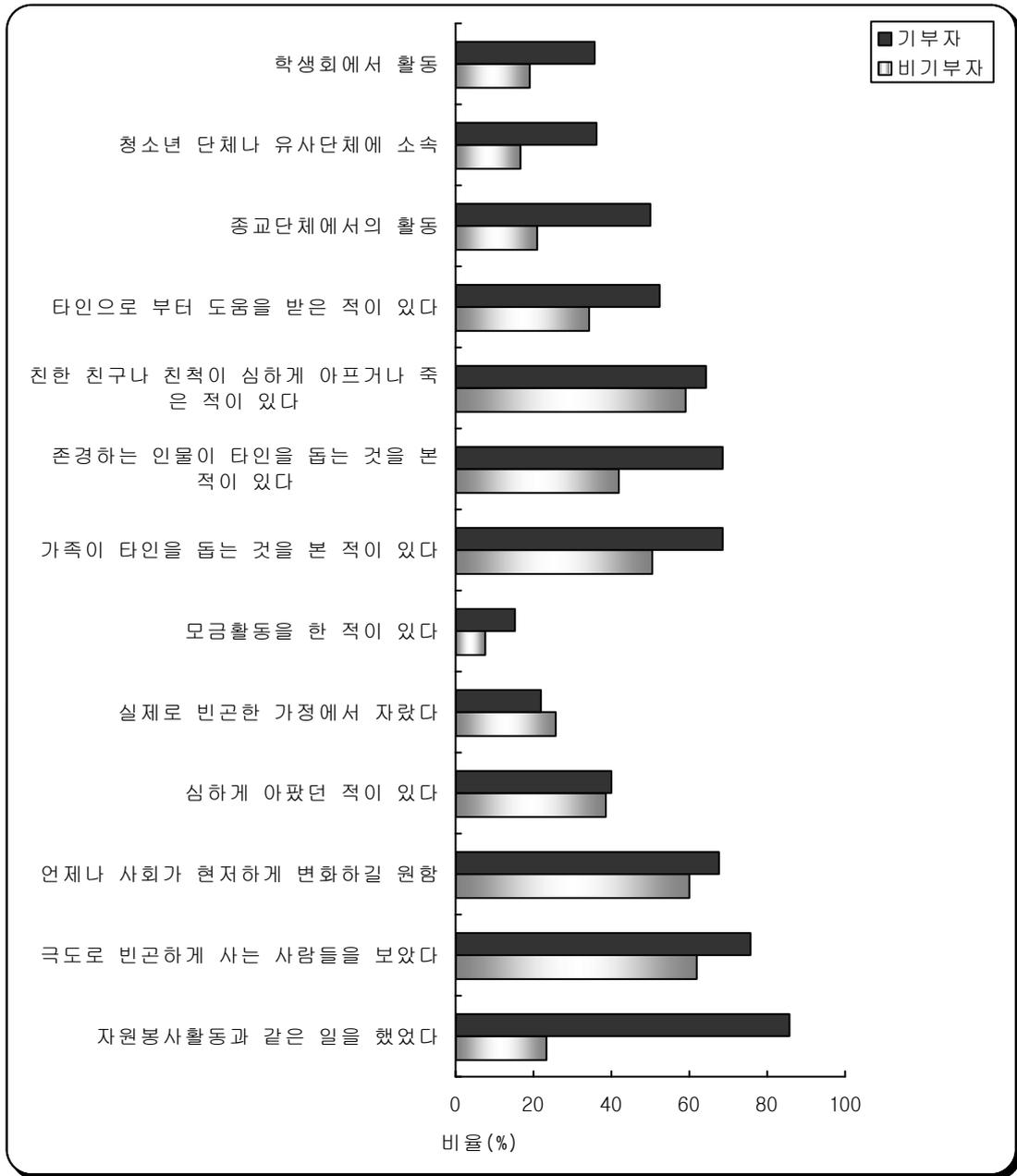
구 분	단위 : %			
	있다		없다	
	기부자	비기부자	기부자	비기부자
개인적 경험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다	39.5	39.6	59.5	58.9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일을 했었다	53.6	28.5	45.0	70.6
극도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	69.3	62.6	28.2	32.9
실제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다	24.4	29.3	70.8	63.1
언제나 사회가 현저하게 변화하길 원함	61.0	54.8	30.2	35.2
모금활동을 한 적이 있다	8.2	2.8	90.4	95.9
친척/친구 관계 경험				
친한 친구/친척이 심하게 아프거나 죽음	64.3	60.8	34.2	37.9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42.3	32.5	54.8	64.8
가족이 타인을 돕는 것을 본 적이 있다	61.5	39.7	33.9	53.4
존경하는 인물이 타인을 돕는 것을 봄	53.0	33.7	42.1	60.3
단체 경험				
학생회에서 활동	25.5	13.9	73.6	84.7
종교단체에서 활동	35.6	19.6	63.2	78.8
청소년 단체나 유사단체에 소속	23.3	11.6	75.8	87.2

한편 친척이나 친구관계에서의 경험에서는 "친한 친구나 친척이 심하게 아프거나 죽은 적이 있다"거나 "타인으로부터 도움 받은 적이 있다"는 경험은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이 타인을 돕는 것을 본 경험"과 "존경하는 사람이 타자를 돕는 것을 본 경험"은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4-2>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 (2005년)



<그림 IV-4-3>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 (2002년)



<표 IV-4-4>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의 경험 유무 (2002년)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기부자	비기부자	기부자	비기부자
개인 경험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다	40.1	38.8	58.3	59.4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일을 했었다	85.8	23.5	12.6	73.6
극도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	75.7	61.8	21.1	35.0
실제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다	21.9	25.8	68.8	66.4
언제나 사회가 현저하게 변화하길 원함	67.6	59.8	21.5	28.5
모금활동을 한 적이 있다	15.0	7.4	81.4	90.2
친척/친구 관계 경험				
친한 친구나 친척이 심하게 아프거나 죽음	64.4	59.0	32.4	38.4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52.2	34.2	44.5	60.9
가족이 타인을 돕는 것을 본 적이 있다	68.4	50.4	25.1	41.9
존경하는 인물이 타인을 돕는 것을 본적 있음	68.4	42.0	26.3	49.3
단체 경험				
학생회에서 활동	35.6	19.1	61.5	78.2
종교단체에서 활동	49.8	20.9	48.6	76.5
청소년 단체나 유사단체에 소속	36.4	16.6	60.3	81.3

즉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참여가능성의 정도는 사회 환경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이성록, 2001), 기부행위 역시 역할모델의 존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기부참여자들의 경우 단체차원에서 집단 활동의 경험이 비참여자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과거에 직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과, 가족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타인을 돕는 것을 본 간접적 경험, 그리고 단체차원에서의 집단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 참여

<표 IV-4-5>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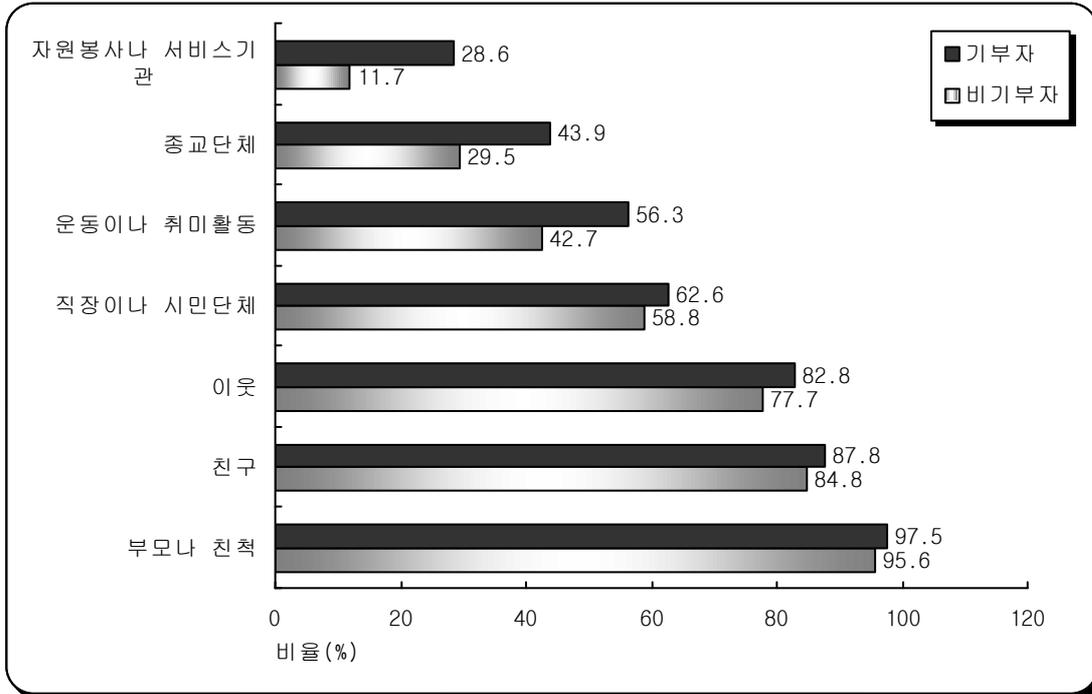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2005년			2002년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96.5	97.5	95.6	90.6	96.9	94.9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80.3	82.8	77.7	84.3	86.7	81.6
근처에 살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86.3	87.8	84.8	87.2	88.2	86.2
직장이나 시민단체의 친구들과 함께 교체시간을 갖는다.	60.7	62.6	58.8	58.4	61.9	54.5
소속된 종교단체의 친구들과 함께 교체시간을 갖는다.	36.8	43.9	29.5	40.7	47.9	32.9
자원봉사나 서비스기관의 친구들과 함께 교체시간을 갖는다.	20.2	28.6	11.7	23.0	29.8	15.6
운동, 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교체시간을 갖는다.	49.5	56.3	42.7	48.7	52.2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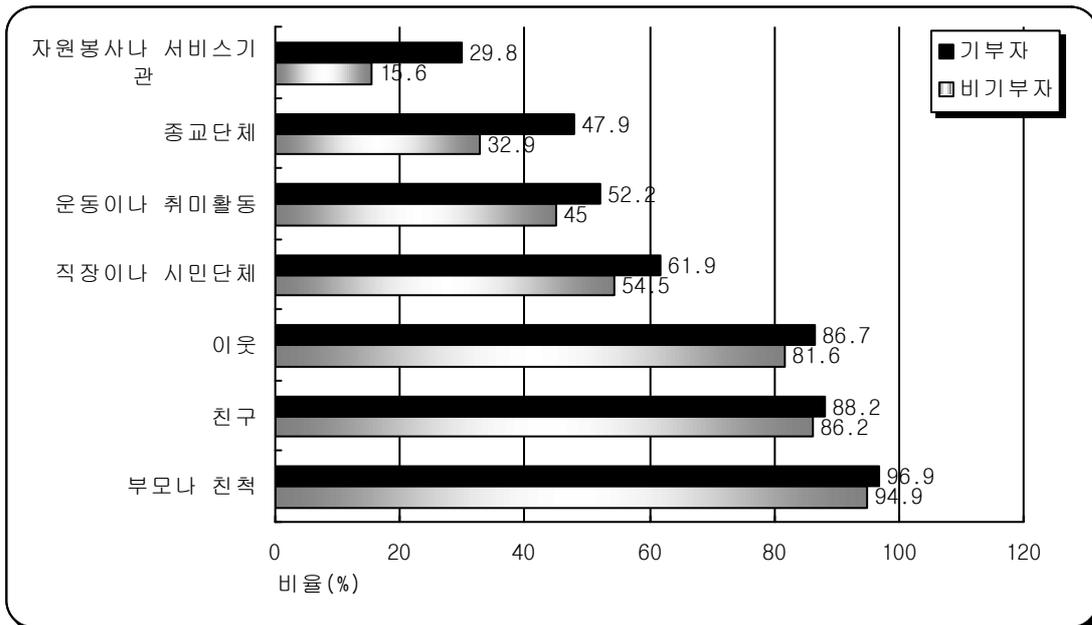
* 중복응답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사교활동에 있어서 기부자와 비기부자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4-5> 및 <그림 IV-4-4><그림 IV 4-5>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나 친척,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교활동에 있어서는 기부자와 비기부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장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나 서비스기관,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같이 비교적 확대된 사교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부자의 사교활동이 비기부자보다 비교적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4>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참여 (2005년)



<그림 IV-4-5> 사회적 사교활동과 기부참여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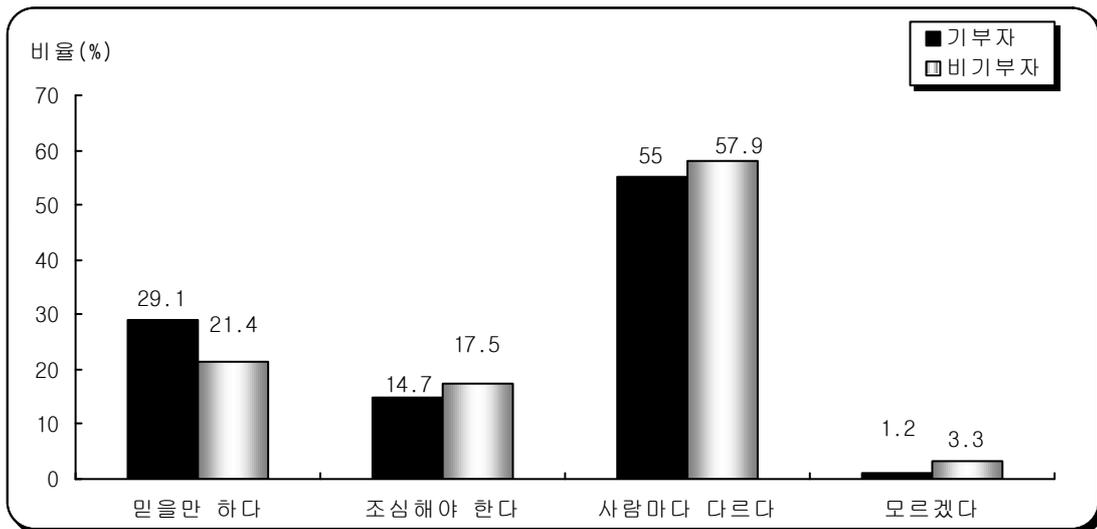
라.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기부 참여

기부자와 비기부자간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4-6>와 같다. 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부자의 경우 29.1%, 비기부자의 경우 21.4%가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기부자가 비기부자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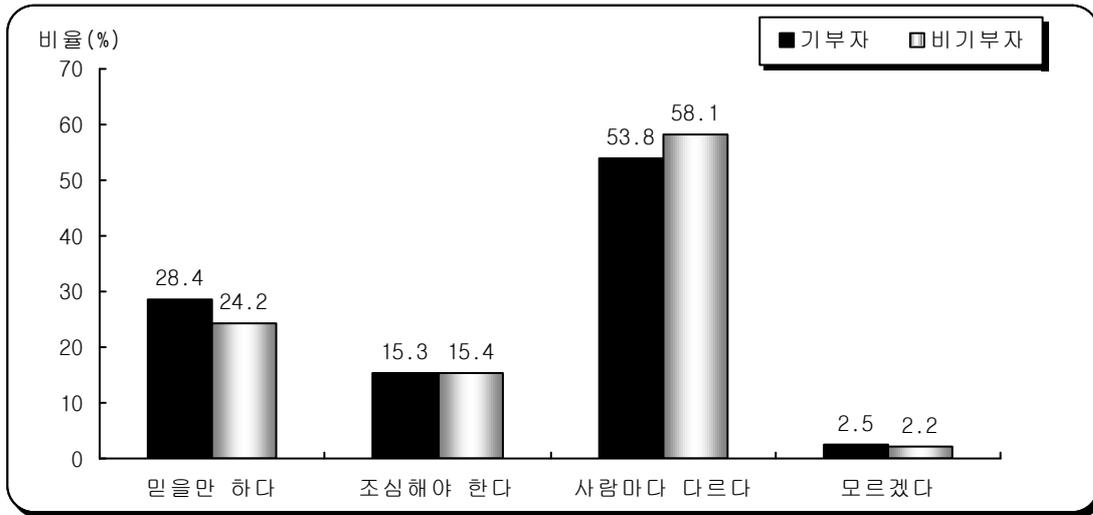
<표 IV-4-6> 기부자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

구 분	단위 : %					
	2005년			2002년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만하다	25.3	29.1	21.4	26.4	28.4	24.2
믿을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한다	16.1	14.7	17.5	15.3	15.3	15.4
사람마다 다르다	56.4	55.0	57.9	55.9	53.8	58.1
모르겠다	2.2	1.2	3.3	2.4	2.5	2.2

<그림 IV-4-6> 타인에 대한 신뢰도 비교 (2005년)



<그림 IV-4-7> 타인에 대한 신뢰도 비교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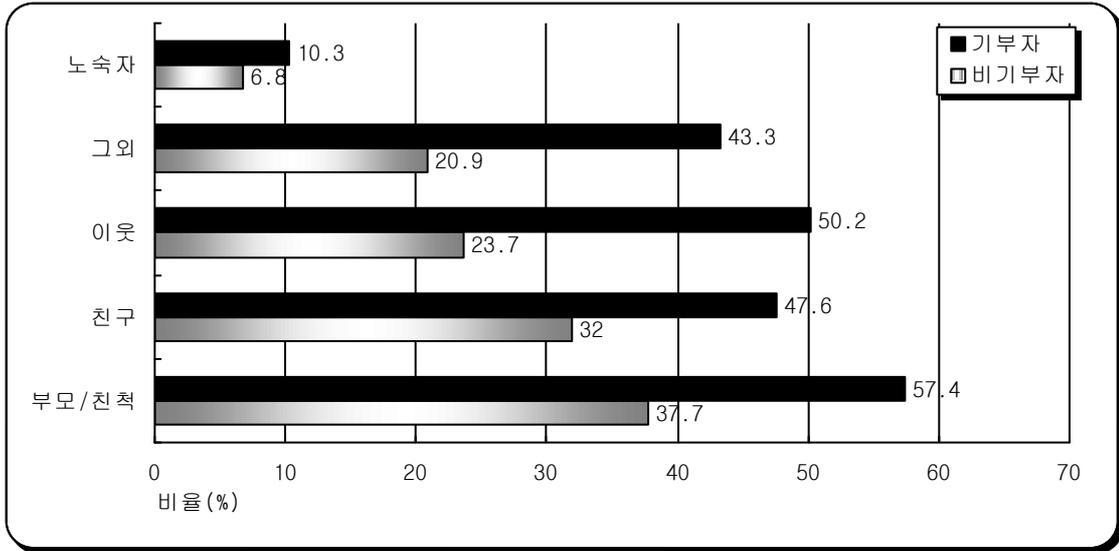
마. 타인 돕기 활동 경험과 기부 참여

지난 1년간 이웃돕기 활동에 있어서 기부자와 비기부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4-7> 및 <그림 IV-4-8><그림 IV-4-9> 과 같다. 이를 보면 기부자는 부모나 친척, 친구, 노숙자, 이웃, 그 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대상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타인을 돕는 데 있어서 비기부자에 비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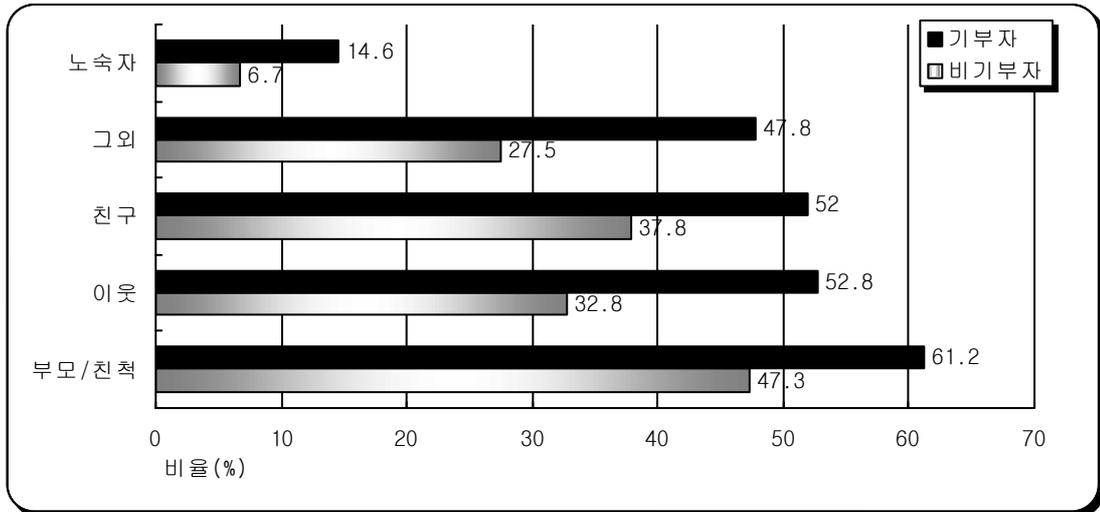
<표 IV-4-7> 기부자의 지난 1년간 타인돕기활동 경험률

구 분	단위 : %					
	2005년			2002년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부모/친척	47.7	57.4	37.7	54.6	61.2	47.3
친구	39.9	47.6	32.0	45.2	52.0	37.8
노숙자	8.6	10.3	6.8	10.8	14.6	6.7
이웃	37.1	50.2	23.7	43.3	52.8	32.8
그 외 도움이 필요한 사람	32.2	43.3	20.9	38.2	47.8	27.5

<그림 IV-4-8> 지난 1년간 타인돕기활동 경험률 (2005년)



<그림 IV-4-9> 지난 1년간 타인돕기활동 경험률 (2002년)



5. 기부 참여 경로

가. 기부 참여 경로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 기부참여 경로를 질문하여 다음 <표 IV-5-1> 및 <그림 IV-5-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기부 참여 경로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라디오나 TV, 기타 인쇄매체의 광고'가 37.6%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광고 효과가 기부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지난 1년간의 기부처에서 방송사 등 언론매체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연관시켜 볼 때 TV 등 대중매체에서 방송을 통해 이끌어내는 기부가 상당함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참가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 또는 직장'라는 응답이 23.4%로 높게 나타났는데,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직장 및 단체가 기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직장 및 단체가 기부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기부 동참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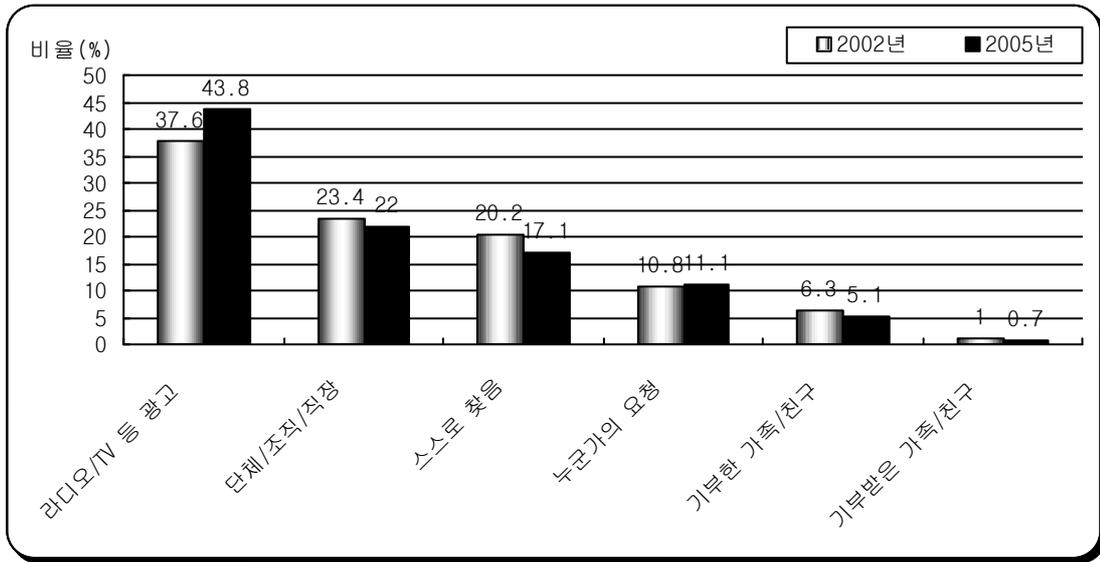
또한, '스스로 찾았다'라는 응답도 20.2%로 높게 나타났는데 자발적으로 기부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부할 곳이나 방법을 찾아서 기부하는 능동적인 기부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부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에 의한 참여는 10.8%에 불과하여 아직은 기부를 요청하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2005년에는 2002년보다 기부 참여 경로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IV-5-1> 기부 참여 경로 *

구 분	단위 : 명(%)			
	2005년		200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누군가로부터 요청 받음	114	11.2	108	10.8
기부에 참여한 가족/친구 있음	52	5.1	63	6.3
기부로 도움 받은 가족/친구 있음	7	0.7	10	1.0
단체/조직/직장을 통해 알게 됨	224	22.0	233	23.4
라디오/TV 등 광고를 통해 봄	446	43.8	374	37.6
스스로 찾음	175	17.1	201	20.2
기타	-	-	6	0.6
모름/무응답	-	-	1	0.1
합 계	1,018	100.0	996	100.0

* 중복 응답임

<그림 IV-5-1> 기부 참여 경로



나.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여 <표 IV-5-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5년도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가 21.0%, '앞으로 소득에 확신이 없어서'가 18.7% 등으로 나타나, 최근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전망도 좋지 않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단체가 없어서'와 '기부의 올바른 쓰임에 확신이 없어서'도 각각 17.3%와 15.6%로 나타났으며, 2002년도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다음으로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어서'가 24.6%, '기부의 올바른 쓰임에 확신이 없어서'가 23.2%로 높게 나타나,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다. 앞선 기부 참여 이유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아 기부하였다'라는 응답이 적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부를 요청하는 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를 하지 않은 주요 이유인 '기부의 올바른 쓰임에 확신이 없어서'라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여러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은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조금 그렇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항목 중 '기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가 39.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기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방법들도 고안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로 제시된 <그림 IV-5-2>는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항목에 대해 '정말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 항목을 합쳐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살펴보면 '기부 요청이 없어서'가 '경제적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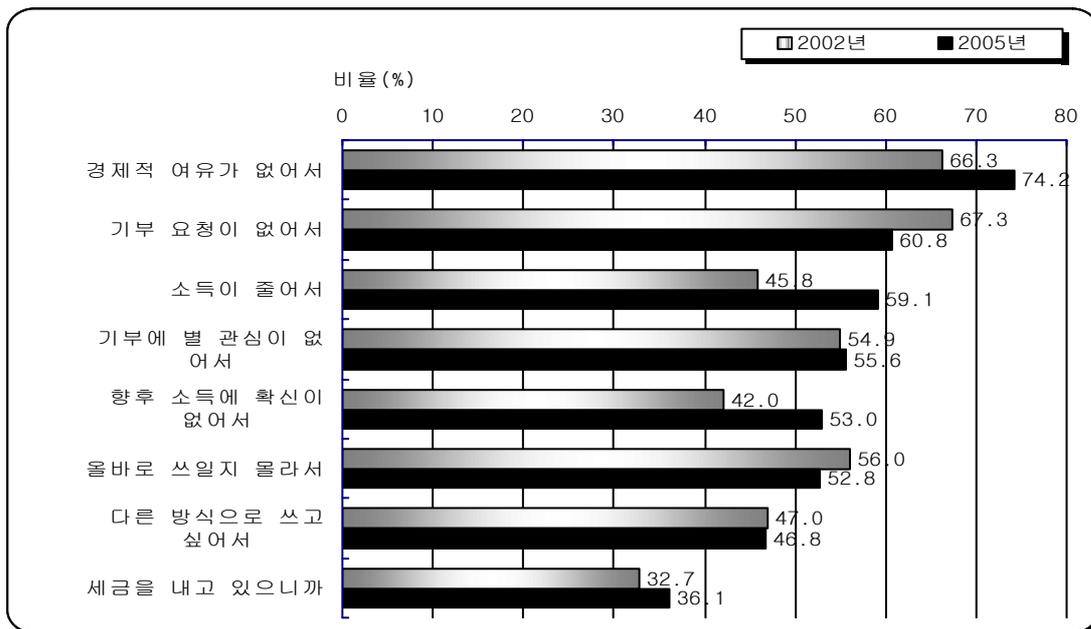
가 없어서보다도 높게 나타나 적극적 모금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IV-5-2>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2005년					2002년				
	정말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해당없음	정말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해당없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2.7	41.5	22.4	2.8	0.8	28.2	38.1	27.3	4.5	1.9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21.0	38.1	31.7	5.4	3.9	18.5	27.3	38.0	10.2	6.1
앞으로의 소득에 확신이 없어서	18.7	34.3	34.9	9.4	2.6	14.9	27.1	39.2	11.8	7.0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11.1	35.7	39.4	7.5	6.3	13.8	33.2	33.4	9.0	10.6
기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12.8	42.8	31.0	9.7	3.6	15.7	39.2	30.5	10.6	4.0
기부 요청하는 사람/단체가 없어서	17.3	43.5	27.5	9.0	2.6	24.6	42.7	19.7	6.7	6.3
기부의 올바른 쓰임에 확신 없어서	15.6	37.2	33.4	9.7	4.1	23.2	32.8	29.2	8.9	5.8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7.8	28.3	45.7	13.9	4.3	8.9	23.8	43.3	16.0	8.1

<그림 IV-5-2>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6. 향후 기부 참여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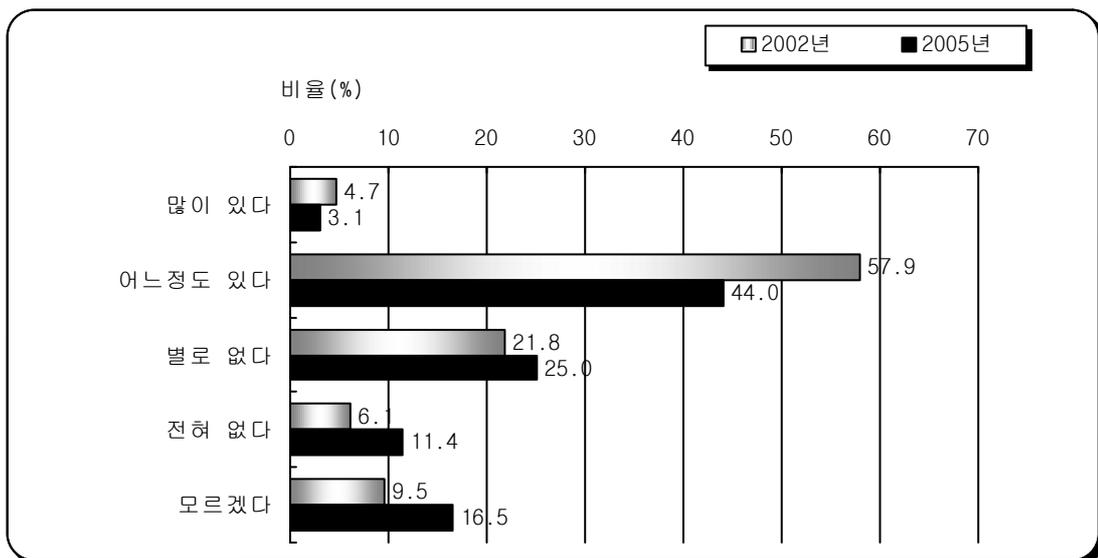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향후 기부의 기회가 있을 경우 참여의사를 질문한 결과 다음 <표 IV-6-1> 및 <그림 IV-6-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도에는 “기부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 57.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는 “기부 의사가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1.8%인 것에 비해 “기부 의사가 많이 있다”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6-1> 향후 기부 참여 의사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많이 있다	25	3.1	34	4.7
어느 정도 있다	350	44.0	416	57.9
별로 없다	199	25.0	157	21.8
전혀 없다	91	11.4	44	6.1
모르겠다	131	16.5	68	9.5
합 계	796	100.0	719	100.0

<그림 IV-6-1> 향후 기부 참여 의사



한편 2005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3년 전에 비하여 “기부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가 350명(44.0%)로 2002년에 비하여 감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특히 “모르겠다”가 3년 전에 비하여 131명(16.5%)로 응답률이 증가됨은 사람들에게 기부 참여에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7. 자원봉사와 기부

가.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활동 참여

2002년도 이어 2005년도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를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여부에 따라,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한 경우와 자원봉사에만 참여한 경우, 기부에만 참여한 경우, 그리고 둘 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네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표 IV-7-1><표 IV-6-3><그림 IV-6-2>과 같이 나타났다. 2005년도 조사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 참여한 경우는 72.5%, 자원봉사만 참여한 경우는 27.5%, 기부만 참여한 경우는 45%였으며 55%는 자원봉사 및 기부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의 결과는 자원봉사자의 72.5%가 기부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2002년도 70%에 비하여 자원봉사자의 기부 참여 비율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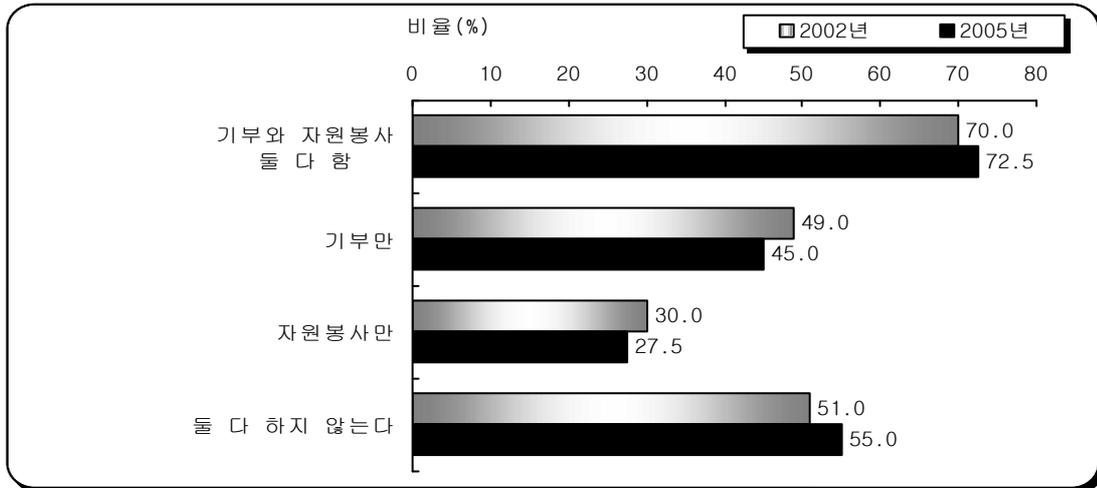
<표 IV-7-1>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활동 참여 (2005년)

구 분	단위 : 명 (%)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부자	240	72.5	575	45.0	815	50.6
비기부자	91	27.5	705	55.0	796	49.4
합 계	331	100	1,280	100	1,611	100.0

<표 IV-7-2>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활동 참여 (2002년)

구 분	단위 : 명 (%)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부자	172	70.0	621	49.0	793	55.0
비기부자	75	30.0	644	51.0	644	45.0
합 계	247	100.0	1,265	100.0	1,437	100.0

<그림 IV-7-1>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활동 참여



나.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의 횟수 및 규모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평균 기부횟수와 평균 기부규모를 구하여 비교하여 <표 IV-6-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를 200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는 1년간 평균 9.45회 기부를 하였고, 비자원봉사자는 평균 6.87회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기부도 더 자주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평균 기부 회수와 기부 규모 비교

구 분	2005년		2002년	
	평균 기부횟수	평균 기부규모	평균 기부횟수	평균 기부규모
자원봉사자	연간 8.43회	연간32만원	연간 9.45회	연간28만원
비자원봉사자	연간 6.51회	연간14만원	연간 6.87회	연간20만원
전체 평균	연간 7.08회	연간19만원	연간 7.43회	연간22만원

한편 2005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는 1년간 평균 8.43회, 연평균 32만원을 기부 하였고, 비자원봉사자는 평균 6.51회, 연평균 14만원을 기부하여 회수 및 규모 모두에서 자원봉사 참여자가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자의 기부 회수와 규모는 3년 전에 비하여 증가추세이나 비자원봉사참여자의 기부 회수 및 규모는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V. 한국인의 공공 및 민간기관에 대한 인식

1.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인식

가. 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표 V-1-1> 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자원봉사자	2.26	331	2.71	247	2.29	215
비자원봉사자	2.14	1,280	2.81	1,265	2.35	1,318
전체 평균	2.16	1,611	2.80	1,512	2.34	1,533

* 4점 척도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어느 정도 신뢰한다, 4. 매우 신뢰한다. ** p<0.05

본 조사대상자들이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V-1-1>과 같다. 전체 평균이 2.1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2년도 및 1999년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내려간 수치이다. 그리고 이를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자의 신뢰도는 평균 2.26, 비자원봉사자들의 신뢰도는 평균 2.1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도(p value)가 0.004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간에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V-1-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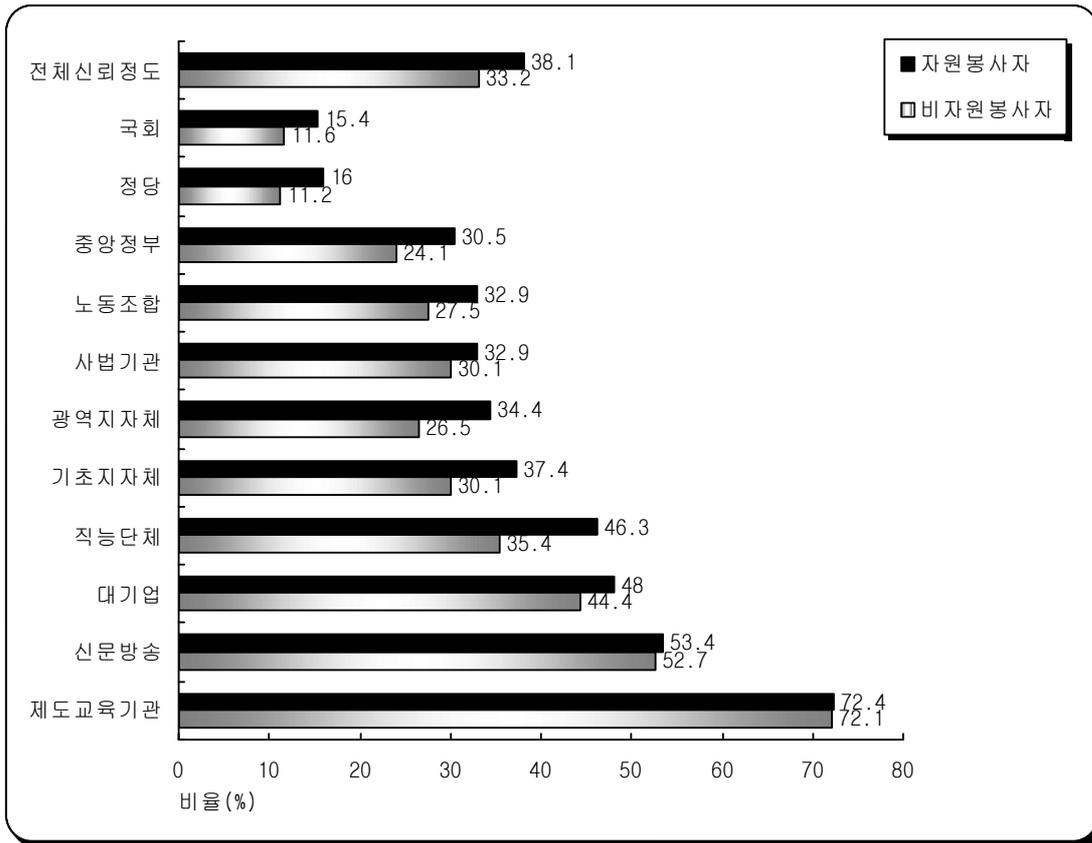
**<표 V-1-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년)**

단위 : %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국공립학교										
제도교육기관	13.1	59.3	23.2	4.0	0.4	15.2	56.9	23.7	2.6	1.5
정부 조직										
중앙정부	2.4	28.1	43.8	22.7	3.0	1.8	22.3	46.8	26.1	3.0
광역지자체	1.5	32.9	45.3	16.6	3.6	1.5	25.0	46.6	23.0	3.8
기초지자체	2.7	34.7	43.5	15.4	3.6	2.0	28.1	44.5	21.3	4.0
국회	0.6	14.8	45.3	37.2	2.1	0.6	11.0	45.3	40.7	2.3
법원	2.4	30.5	39.0	24.8	3.3	2.1	28.0	41.4	26.6	1.8
정당										
정당	0.9	15.1	47.7	33.8	2.4	0.6	10.6	45.2	40.1	3.4
언론										
신문방송	6.3	47.1	36.3	9.4	0.9	5.4	47.3	33.4	12.0	2.0
기업										
대기업	3.6	44.4	36.0	13.9	2.1	3.8	40.6	39.4	13.6	2.6
직장(업) 단체										
직능단체	5.8	40.5	39.9	8.1	5.8	5.7	29.7	46.7	12.9	7.5
노동조합	3.6	29.3	45.9	16.3	4.8	2.0	25.5	45.5	22.1	4.9
전체 신뢰도	3.9	34.2	40.5	18.3	2.9	3.7	29.5	41.6	21.9	3.3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모두 동일하게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제도교육기관(72.4%, 72.1%)으로 나타났으며, 신문방송(53.4%, 52.7%), 대기업(48.0%, 44.4%), 직능단체(46.3%, 35.4%)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은 국회(15.4%), 정당(16%), 중앙정부(30.5%) 순으로 선택하여, 2005년도에도 2002년도(<표 V-1-3>) 및 1999년도(<표 V-1-4>)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국회와 정당, 정부조직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2005년도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비자원봉사자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1>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년)



**<표 V-1-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2년)**

단위 : %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국공립학교										
공립 초/중/고	10.9	64.0	23.1	0.4	1.6	10.8	62.9	21.3	1.8	3.1
국공립대학교	15.8	59.1	20.2	0.8	4.0	10.4	60.5	22.1	2.7	4.4
정부 조직										
중앙정부	3.2	35.2	44.9	13.0	3.6	3.1	29.7	42.6	19.6	5.0
광역지자체	2.0	36.8	48.2	9.3	3.6	2.0	28.2	46.4	17.7	5.7
기초지자체	2.0	38.1	46.6	10.5	2.8	1.7	29.2	46.7	16.7	5.6
검찰/경찰	3.2	34.4	37.7	23.1	1.6	4.6	27.7	42.8	22.6	2.2
군대	19.8	40.9	28.7	8.5	2.0	14.5	42.7	30.0	9.9	2.8
국회	0.8	12.6	37.2	44.5	4.9	1.4	11.4	38.7	45.2	3.3
법원	7.7	45.7	34.4	8.9	3.2	5.8	46.1	32.8	11.0	4.3
정당										
정당	1.2	13.8	37.2	43.3	4.5	0.7	10.0	38.7	46.3	4.3
언론										
신문방송	7.3	42.9	37.7	8.9	3.2	7.0	47.4	32.6	11.1	2.0
기업										
대기업	3.6	36.4	46.6	9.7	3.6	4.3	38.3	38.6	14.5	4.3
중소기업/자영업	4.5	42.9	41.3	7.3	4.0	2.5	40.2	41.9	8.5	6.9
직장(업) 단체										
직능단체	3.6	29.6	46.2	15.4	5.3	3.2	26.2	47.2	12.9	10.6
노동조합	3.6	41.3	39.3	13.0	2.8	3.9	30.5	44.7	15.4	5.5
경제인단체	2.4	43.7	40.1	10.5	3.2	2.8	34.1	42.8	12.5	7.8
전체 신뢰도	5.7	33.6	38.1	14.2	3.5	4.9	35.3	38.1	16.8	4.9

**<표 V-1-4>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1999년)**

단위 : %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국공립학교										
공립 초/중/고	12.1	65.6	20.5	-	1.9	12.3	67.1	16.5	1.3	2.8
국공립대학교	10.7	67.0	19.5	.9	1.9	13.1	65.0	16.9	1.5	3.4
정부 조직										
중앙정부	3.3	28.8	44.7	20.9	2.3	3.3	33.2	44.6	14.8	4.2
광역지자체	3.3	27.0	43.3	20.5	6.0	2.4	31.9	47.2	13.2	5.3
기초지자체	3.3	27.4	43.7	19.1	6.5	2.1	31.1	48.9	13.1	4.8
국회	.9	9.8	33.5	51.2	4.7	.8	11.3	36.8	47.6	3.4
군대	8.8	44.7	30.7	12.6	3.3	11.7	44.2	30.1	9.6	4.4
정당										
정당	.9	8.8	39.1	47.4	3.7	.6	10.4	39.1	46.1	3.8
언론										
신문방송	7.0	48.4	35.3	8.4	.9	6.8	56.6	29.2	5.5	1.9
기업										
대기업	3.3	27.0	45.6	21.4	2.8	1.4	30.4	49.2	15.1	3.9
중소기업/자영업	5.6	49.3	35.3	3.3	6.5	5.2	47.2	36.3	4.9	6.3
직장(업) 단체										
직장관련단체	3.3	47.0	34.9	7.0	7.9	2.3	47.6	34.2	5.2	10.6
노동조합	4.2	39.5	37.2	15.3	3.7	3.5	39.5	40.5	10.2	6.4
이익단체	1.9	25.6	42.8	23.3	6.5	2.2	26.4	49.8	15.5	6.1
전체 신뢰정도	4.9	36.8	36.1	17.9	58.6	4.8	38.7	37.1	14.5	4.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는 38.1%로서 2002년도의 39.3%, 1999년도의 41.7%보다 약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비자원봉사자의 경우는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33.2%로서 자원봉사자보다 낮았으며, 2002년도의 40.2%보다 7% 가량, 1999년도의 42.5%보다 9% 가량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모두 동일하게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제도교육기관, 신문방송, 대기업, 직능단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은 국회(15.4%), 정당(16%), 중앙정부(30.5%), 법원(32.9%), 노동조합(32.9%), 법원(32.9%) 순으로 나타났고, 비자원봉사자들은 정당(11.2%), 국회(11.6%), 중앙정부(24.1%), 광역지자체(26.5%) 순으로 불신감을 나타내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 모두 정당 및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감

을 나타냈다.

두 집단의 차이를 보면, 전체 신뢰도에서 1999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낮은 신뢰감을 드러냈고, 2002년도 및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보다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을 약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별 신뢰도에서는 두 집단이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나. 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본 조사대상자들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기부자와 비기부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V-1-5>), 기부자의 신뢰도는 평균 2.16, 비기부자의 신뢰도는 평균 2.18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value: 0.52)

<표 V-1-5>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평균신뢰도*

구 분	2005년		2002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기부자	2.16	815	2.77	793
비기부자	2.18	796	2.82	719
전 체	2.13	1,611	2.80	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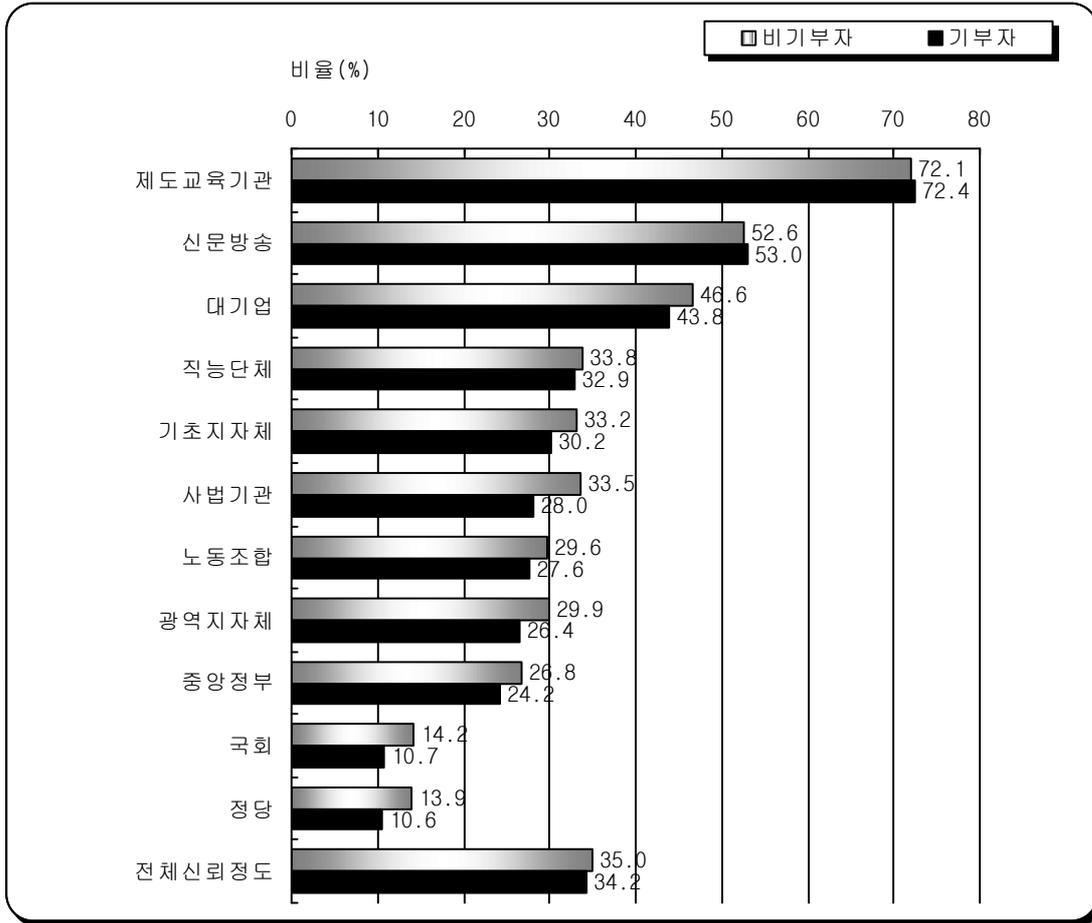
* 4점 척도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어느 정도 신뢰한다, 4. 매우 신뢰한다.<1999년도에는 기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음>

** p>0.05

기부 참여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V-1-6>와 같으며, 전체적인 신뢰도는 기부자의 경우 34.2%, 비기부자의 경우 35%로 나타났다.

기부자, 비기부자 모두 동일하게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제도교육기관(72.4%, 72.1%)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으로는 정당(10.6%, 13.9%), 국회(10.7%, 14.2%), 로 나타났다. 불신 기관으로는 이외에도 중앙정부(24.2%, 26.8%), 광역지방자치단체(26.4%, 29.9%), 노동조합(27.6%, 29.6%), 사법기관(28.0%, 33.5%)의 순위로 되어있어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부자, 비기부자의 상당수가(국민의 상당수가) 정당과 입법, 행정, 노동조합 및 사법 조직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봉사자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림 V-1-2>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



<표 V-1-6>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

단위 : %

구 분	기부자					비기부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국공립학교										
제도교육기관	31.1	59.3	23.2	4.0	0.4	15.2	56.9	23.7	2.6	1.5
정부 조직										
중앙정부	2.1	22.1	49.0	23.9	2.9	1.8	25.0	43.3	26.9	3.0
광역지자체	1.2	25.2	49.6	20.4	3.7	1.8	28.1	43.1	23.1	3.9
기초지자체	2.1	28.1	46.6	19.1	4.0	2.3	30.9	42.0	21.1	3.8
국회	0.5	10.2	46.6	40.6	2.1	0.8	13.4	44.0	39.3	2.5
사법기관	2.2	25.8	42.8	27.1	2.1	2.1	31.4	38.9	25.4	2.1
정당										
정당	0.9	9.7	48.1	37.9	3.4	0.5	13.4	43.3	39.7	3.0
언론										
신문방송	4.9	48.1	34.0	11.0	2.0	6.3	46.4	33.9	11.9	1.5
기업										
대기업	3.9	39.9	40.4	13.1	2.7	3.6	43.0	36.9	14.2	2.3
직장(업) 단체										
직능단체	3.4	29.4	46.7	12.9	7.5	3.1	30.2	48.6	12.4	5.7
노동조합	2.5	25.2	46.5	21.2	4.7	2.1	27.5	44.6	20.6	5.2
전체 신뢰도	4.9	29.3	43.0	21.0	3.2	3.6	31.4	40.2	21.5	3.1

두 집단의 차이를 보면, 전체 신뢰도에서는 기부자와 비기부자간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 두 집단이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었다. 이를 또 2002년도와 비교해보면(<표 V-1-7>) 전반적인 신뢰도는 2002년도(41.9%, 39.8%)에 비해 각각 7.7%, 4.8% 떨어졌으며, 특히 노동조합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도가 11.4%나 감소하여 비기부자의 3.2% 감소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인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및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점, 제도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점들은 2002년도와 2005년도가 비슷하여, 아직도 정당 및 정부기관, 입법,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7>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2)

단위 : %

구 분	기부자					비기부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국공립학교										
공립 초/중/고	12.7	63.8	20.1	1.5	196	8.8	62.3	23.4	1.7	3.9
국공립대학교	12.7	61.2	20.9	1.8	3.4	9.6	59.2	22.7	3.1	5.4
정부 조직										
중앙정부	2.8	29.5	44.4	18.8	4.5	3.5	31.8	41.4	18.2	5.0
광역지자체	1.9	30.6	47.3	15.5	4.7	2.1	28.5	46.0	17.2	6.1
기초지자체	1.6	32.3	46.5	15.3	4.3	1.9	28.9	46.9	16.1	6.1
검찰/경찰	4.5	28.4	41.7	23.5	1.9	4.2	29.3	42.3	21.8	2.4
군대	17.5	41.9	28.8	9.6	2.3	13.1	43.0	31.0	9.7	3.2
국회	1.0	11.5	36.3	48.2	3.0	1.7	11.7	40.8	41.7	4.2
법원	7.1	45.4	33.7	10.3	3.5	5.1	46.7	32.4	11.0	4.7
정당										
정당	0.5	11.7	36.6	47.3	3.9	5.1	9.5	40.5	44.2	4.7
언론										
신문방송	6.3	48.2	32.4	11.3	1.8	7.9	44.9	34.5	10.0	2.6
기업										
대기업	4.0	38.8	40.5	13.0	3.7	4.3	37.1	39.2	14.6	4.7
중소기업/자영업	3.7	42.0	39.6	9.0	5.8	1.8	39.2	44.2	7.6	7.1
직장(업) 단체										
직능단체	3.0	27.1	45.1	15.3	9.5	3.5	26.3	49.1	11.1	10.0
노동조합	4.3	34.8	41.7	14.9	4.3	3.3	29.5	46.2	15.2	5.8
경제인단체	3.2	36.1	43.3	11.3	6.2	2.4	35.2	41.3	13.1	8.1
전체 신뢰도	5.4	36.5	37.4	16.7	4.0	4.6	35.2	38.9	16.0	5.3

2.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인식

가. 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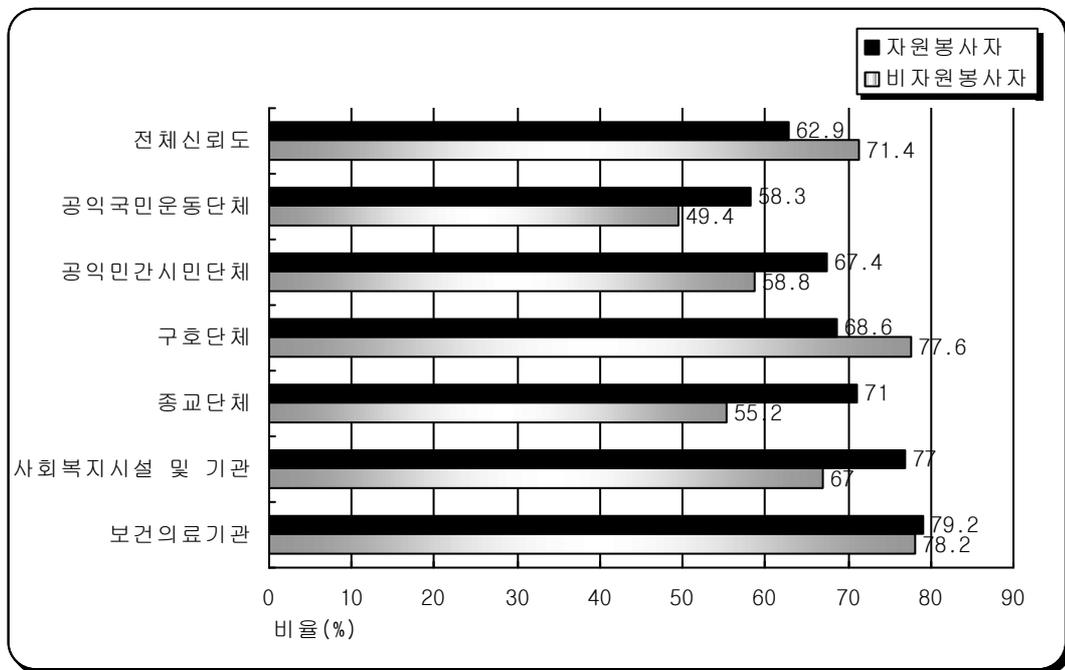
2005년도 한국인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표 V-2-1>)는 평균 2.73으로 2002년도에 비해 0.37 정도 상승했으며, 어느 정도 신뢰하는 3에 가깝게 나타났다. 1999년에 비해서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를 비교하면, 자원봉사자가 갖는 신뢰도는 평균 2.88이고 비자원봉사자들이 갖는 신뢰도는 평균 2.69로 2002년도와는 달리 자원봉사자가 조금 더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value : 0.000).

<표 V-2-1>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구 분	2005년		2002년		1999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자원봉사자	2.88	331	2.24	247	2.67	215
비자원봉사자	2.69	1,280	2.39	1,265	2.65	1,318
전체 평균	2.73	1,611	2.36	1,512	2.65	1,533

* 4점 척도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어느 정도 신뢰한다, 4. 매우 신뢰한다. ** p<0.05

<그림 V-2-1>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년)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V-2-2>와 같다.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두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71.4%이며, 기관별로는 보건의료기관 79.2%,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77%, 종교단체 71%, 구호기관 68.6%, 공익민간단체 67.4% 순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며, 공익국민운동단체는 가장 낮은 신뢰감(58.3%)을 나타내었다.

<표 V-2-2>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년)

단위 : %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의료기관										
보건의료 기관	16.5	62.5	18.7	1.2	0.9	14.1	64.1	18.5	2.0	1.3
종교단체										
종교단체	28.7	42.3	21.8	5.4	1.8	12.7	42.6	33.4	9.2	2.2
복지기관										
사회복지 기관	20.2	56.8	20.5	1.8	0.6	10.5	56.5	27.3	3.9	1.9
시민단체										
공익국민 운동단체	10.9	47.4	30.8	7.9	3.0	6.7	42.7	37.0	8.7	5.0
공익 민간단체	12.7	54.7	27.5	2.7	2.4	8.4	50.4	31.4	5.2	4.6
구호단체										
구호단체	18.7	58.9	19.6	0.9	1.8	11.7	56.9	24.5	4.9	2.0
전체 신뢰도	17.6	53.8	23.1	3.3	1.7	10.7	52.2	28.7	5.6	2.8

한편, 비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는 62.9%이며, 기관별로는 보건의료기관 78.2%, 구호단체 68.6%, 사회복지기관 67%, 공익민간단체 58.8%, 종교단체 55.3% 순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신정도에 있어서는 비자원봉사자들도 공익국민 운동단체(49.4%)에 대해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집단의 차이를 보면, 전체 신뢰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비자원봉사자들보다 8.5% 정도 높은 신뢰감을 드러냈고, 기관별 신뢰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공익국민 운동단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신뢰감을 나타냈다.

**<표 V-2-3>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2년)**

단위 : %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사립 학교										
초/중/고	9.7	57.9	28.3	2.0	2.0	8.4	55.7	29.4	2.8	3.7
대학교	9.3	49.4	30.8	6.9	3.6	8.1	46.7	36.4	3.9	4.8
의료 기관										
보건의료 기관	11.7	59.9	24.7	2.0	1.6	12.6	64.0	19.6	2.0	1.9
종교 단체										
종교단체	24.7	41.7	27.9	2.8	2.8	13.1	41.3	33.3	8.9	3.4
복지 기관										
사회복지 기관	16.2	55.5	26.3	0.4	1.6	14.3	55.8	25.1	2.5	2.3
시민 단체										
환경단체	21.9	55.9	17.0	2.8	2.4	16.4	52.2	23.6	2.8	5.0
공익국민	9.7	49.4	32.8	5.3	2.8	9.5	45.1	33.8	7.0	4.7
운동단체	19.8	58.7	15.4	2.4	3.6	14.9	53.5	22.9	3.1	5.6
공익 민간단체	19.4	62.8	14.2	1.2	2.4	12.7	57.3	22.4	3.1	4.5
예술문화 단체										
예술/문화/스포츠	8.1	49.0	34.4	2.4	6.1	6.6	45.1	33.6	5.2	9.5
기업 재단										
기업/민간재단	9.3	41.7	36.8	6.1	6.1	5.5	42.4	37.2	7.0	7.9
국제기구										
국제기구	33.6	46.2	13.0	2.0	5.3	20.9	52.3	16.8	1.2	8.9
구호 단체										
구호/지원단체	20.6	57.1	16.6	3.6	2.0	12.9	56.1	22.9	5.1	3.0
전체 신뢰도	16.5	52.7	24.5	3.1	3.3	12.0	50.6	27.5	4.2	5.0

<표 V-2-4>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1999년)

단위 : %

구 분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사립 학교										
초/중/고	7.9	50.7	34.4	3.7	3.3	5.6	57.7	27.8	3.2	5.6
대학교	6.0	43.7	39.5	5.1	5.6	4.8	51.0	32.9	5.0	6.3
의료 기관										
보건의료 기관	10.2	60.9	21.9	4.7	2.3	8.0	66.3	22.5	1.5	1.7
종교 단체										
종교단체	16.3	49.8	26.0	5.6	2.3	8.9	41.0	35.6	11.5	3.0
복지 기관										
사회복지 기관	7.0	58.1	29.8	2.8	2.3	7.3	52.8	30.9	4.2	4.8
시민 단체										
환경단체	6.5	53.0	30.7	5.1	4.7	7.6	53.4	29.0	4.2	5.8
공익시민단체	11.6	55.8	22.3	6.0	4.2	9.7	55.8	23.4	3.4	7.6
청소년단체	4.2	58.1	26.0	3.3	8.4	5.2	50.3	30.1	3.5	10.9
취미활동 단체										
취미활동 단체	7.4	54.4	26.0	2.8	9.3	6.4	50.9	30.1	3.0	9.6
예술문화 단체										
예술/문화/문학	6.0	55.3	25.1	4.7	8.8	5.0	49.6	31.6	2.6	11.2
기업 재단										
기업/민간재단	2.3	35.3	37.2	14.9	10.2	1.6	34.9	42.0	9.6	11.9
국제기구										
국제기구	8.8	56.7	22.3	2.3	9.8	8.3	52.4	23.1	3.2	13.1
전체 신뢰정도	7.9	52.7	28.4	5.1	5.9	6.5	51.4	29.9	4.6	7.6

나. 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기부자와 비기부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V-2-5>과 같다. 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평균 2.76이며 비기부자들이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2.70으로 비기부자의 신뢰도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value : 0.030).

<표 V-2-5>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

구 분	2005년		2002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기부자	2.76	815	2.34	793
비기부자	2.70	796	2.40	719
전 체	2.73	1,611	2.36	1,512

* 4점 척도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 어느 정도 신뢰한다, 4. 매우 신뢰한다.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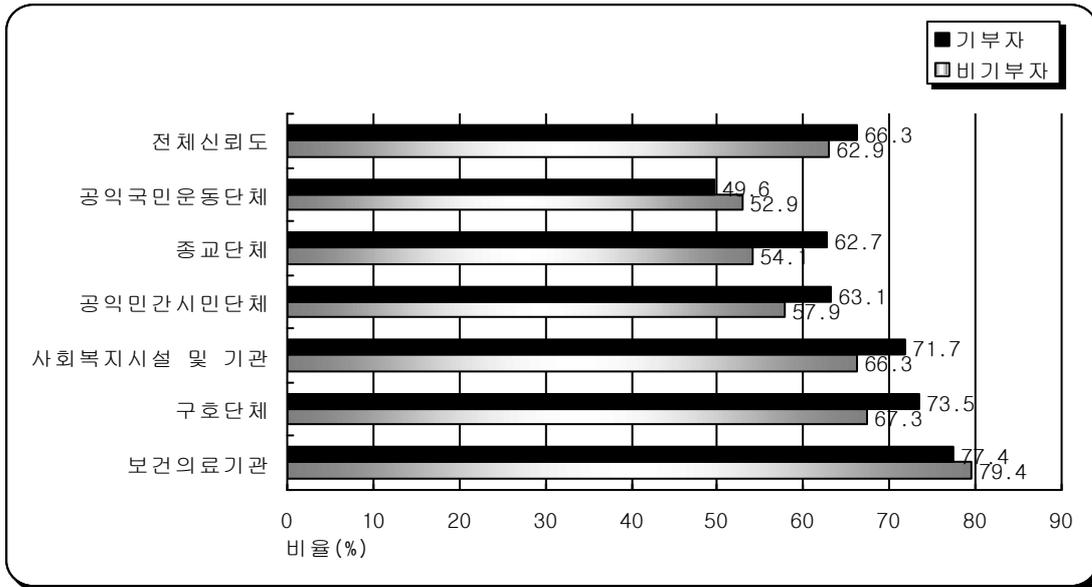
기부 참여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V-2-6>와 같다.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기부자와 비기부자 모두 보건의료기관(77.4%, 79.4%)과 구호단체(73.5%, 67.3%)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는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경우와 같이 기부자와 비기부자 모두 공익국민운동단체(49.6%, 52.9%)를 꼽았다.

<표 V-2-6>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

단위 : %

구 분	기부자					비기부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의료기관	14.0	63.4	19.6	1.7	1.2	15.3	64.1	17.5	1.9	1.3
보건의료 기관										
종교단체	19.0	43.7	27.2	8.1	2.0	12.8	41.3	34.8	8.8	2.3
종교단체										
복지기관	14.1	57.5	24.5	2.7	1.1	10.8	55.5	27.3	4.3	2.1
사회복지 기관										
시민단체	7.5	42.1	35.3	10.6	4.5	7.7	45.2	36.1	6.4	4.6
공익국민 운동단체	9.6	53.5	28.6	4.8	3.6	8.9	49.0	32.7	4.6	4.8
구호단체										
구호단체	16.1	57.4	21.3	3.7	1.5	10.2	57.2	25.8	4.5	2.4
전체 신뢰도	13.3	52.9	26.0	5.3	2.3	10.9	52.0	29.0	5.0	2.9

<그림 V-2-2>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5년)



<표 V-2-7>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 신뢰도 비교 (2002)

단위 : %

구 분	기부자					비기부자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매우 신뢰	어느 정도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모름
사립 학교										
초/중/고	0.2	55.7	29.1	2.8	2.1	6.8	56.3	29.3	2.6	4.9
대학교	9.3	47.9	34.8	4.4	3.5	7.2	46.3	36.3	4.3	5.8
의료 기관										
보건의료 기관	12.2	62.5	21.6	2.3	1.4	12.7	64.1	19.2	1.7	2.4
종교 단체										
종교단체	17.0	42.0	31.3	7.2	2.5	12.8	40.6	33.7	8.8	4.2
복지 기관										
사회복지 기관	15.4	55.2	25.3	2.5	1.5	13.8	56.3	25.2	1.8	2.9
시민 단체										
환경단체	17.7	54.0	21.9	2.5	3.9	17.0	51.5	23.1	3.2	5.3
공익국민 운동단체	9.3	45.9	34.6	6.6	3.7	9.7	45.6	32.7	6.8	5.1
공익 민간단체	16.5	54.4	20.9	3.2	5.0	14.7	54.4	22.5	2.8	5.6
청소년단체	14.6	58.0	21.4	2.3	3.7	12.9	58.4	20.6	3.3	4.7
예술문화 단체										
예술/문화/스포츠	7.1	45.4	35.2	4.0	8.3	6.7	46.0	32.1	5.6	9.6
기업 재단										
기업/민간재단	6.7	41.0	38.5	6.7	7.2	5.6	43.7	35.6	7.1	8.1
국제기구										
국제기구	24.0	50.7	16.0	1.4	7.9	22.0	51.9	16.3	1.3	8.6
구호 단체										
구호/지원단체	14.9	57.9	20.9	4.3	2.0	13.4	54.5	22.9	5.4	3.8
전체 신뢰도	13.5	50.8	27.0	3.9	4.1	11.9	51.5	26.9	4.2	5.5

3. 공공 및 비자선기관과 민간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비교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한국인들은 자원봉사나 기부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자원봉사자 기부자 모두 동일하게 평균 2.73)을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자원봉사자 평균 2.16, 기부자 평균 2.13)보다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와는 역전된 숫자이지만 1999년도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 둘째,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과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양상을 비교해보면,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크게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 셋째, 자원봉사나 기부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공공기관 및 비자선기관에서는 제도교육기관을 가장 신뢰하고 정당과 국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넷째, 민간기관 및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참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교단체, 구호기관, 공익민간단체 순으로 높이 신뢰하고, 비자원봉사자들도 비슷하지만 보건의료기관, 구호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공익민간단체 순으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봉사나 기부 참여에 상관없이 국민운동단체는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 론

- ▷ 2005년 우리나라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5%로 조사대상자 1,611명 중 331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의 16.3%보다 4.2%, 1999년도 14%보다 6.5% 늘어났다. 그런데, 현재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바빠서', '건강상/신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참가하는지 몰라서' 순으로 2002년,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비자원봉사자 집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경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중단한 이유와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홍보, 권유 및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기구가 여전히 더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를 공감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는 1.5%로 아주 미미해 우리나라 성인 비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현재 비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05년도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비슷하게 기혼이며 중류층으로 종교를 갖고 있으며, 직업은 자영업과 가정주부, 사무·기술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령과 성별에 있어서는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9년도 및 2002년도와 비교해볼 때 자원봉사자 중에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소득수준도 높아졌다. 또한 사무/기술직의 참여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 기업 사회공헌이 기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학생들의 참여가 2002년도 보다 직업 비율에서 약간 줄었지만 빈도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봉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민간단체의 소속에서는 자원봉사자가 평균 2.8개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의 3.1개, 99년도의 2.8개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계나 동창회 등 친목단체 소속(각각 67.7%, 58%)과 종교적 가입단체(36.3%), 스포츠/취미단체(28.7%)의 소속이 높은 반면, 그 외 단체의 소속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특기할 것은 소모임 및 민간단체에 소속한 사람들 가운데 지역시민단체(72.3%), 국민운동단체(69.6%), 봉사단체(66.1%), 전국시민단체(58.6%) 등은 자원봉사참여율이 높은 반면, 계 모임(22.7%), 동창회(24.6%), 직장관련단체(27.1%) 등은 낮은 것으로 보아 풀뿌리 조직과 같은 지역시민 단체육성이 자원봉사활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자원봉사 활동영역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1인 평균 1.3개의 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기관 31.4%, 종교단체가 19.2%, 관공서 10.9%, 공익민간단체 6.4% 순으로 나타나, 1999년 및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수요처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 본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 인구수를 추정해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경험자는 728만 7천 388명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시간은 계산해보면, 자원봉사자들은 주 평균 1.02시간 (2002년도 1.9시간, 1999년도 2.1시간) 활동하였으며, 연간 총 자원봉사 시간 수는 약 3억 8천 7백 5십 6만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2002년도의 5억3천2백3십7만 시간의 72.8%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 비해 시간 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 ▷ 자원봉사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3조 1천 7백 1십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2년도에 비해 5천억 가량 줄어든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자원봉사자 1인의 주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85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현저히 줄어든 데서 찾을 수 있다.
- ▷ 이 금전적 가치는 한국은행 통계인 2004년도 GDP(국내총생산, 778.444조원)의 0.41%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1년도 GDP(545.013조원)의 0.66%, 1999년도의 GDP(420.99조원)의 0.64%보다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다. 이 수치는 살라몬 교수의 연구 결과인 전세계 22개 국가의 평균 GDP에 미친 효과 1.1%(1999년도 조사)에 비하여 절반이 안 되는 수치이다. (참고; 1999년도 미국 2%, 호주 1.4%, 일본 0.5%). 따라서 민간은 물론 정부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혜택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 자원봉사자들의 3년 전과 비교한 활동시간의 변화에서는 '그대로다'가 40.8%, '늘어났다'가 25.4%, '줄어들었다'가 24.5%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1인당 주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도 1.02시간으로 1999년 및 2002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올라갔으나, 개인별 활동시간에 있어서는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시간이 대폭 감소한 이유로는 전통적으로 장시간,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던 계층의 감소로 가정해볼 수 있으나, 보다 상세한 이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서 대부분인 84.9%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의 이유로는 2005년, 2002년 조사 모두에서 모두 자원봉사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자원봉사관리자의 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 배치의 부적절함 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어, 학교 및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

시하는 것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 ▷ 자원봉사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줄어든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장기봉사자를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기업자원봉사단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처에 소속되기 보다는 자사 또는 자기 센터에 소속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봉사자들이 자연히 단기성 봉사에 치중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기업자원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자원봉사단 운영을 과감히 버리고 모든 봉사자가 활동처에 소속하며 그 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 2005년 조사에서 공명선거 자원봉사 참여의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8.4%(자원봉사자 중 12.4%, 비자원봉사자 중 7.4%)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들은 선거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명선거 자원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어야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와 봉사처를 중계(연계)해주는 곳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37.4%(자원봉사자 56.2%, 비자원봉사자 32.6%)만이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는 법은 전체의 6.5%(자원봉사자의 16.3%)만이 알고 있었다. 더욱이 비자원봉사자는 3.9%만이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손쉽게 연락하는 방법 (전화 국번없이 1365)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접근시스템이 있지만,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 많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경력에 반영하거나 봉사시간 수 적립을 위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행의 필요성에 자원봉사자의 31.7%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확인서 발급이 인정의 한 방안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수(68.3%)의 필요치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일률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비용효과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 2005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기부현황에서는 50.6%가 지난 1년간 기부경험이 있고, 기부횟수는 2~5회가 36.9%, 4~5회가 21.2%로 과반수 이상이 5회 이하의 기부를 하였다. 기부금액은 2002년도의 5만원 미만의 기부자 69.6%보다는 내려간 수치이나 아직도 절반이 넘는 53.7%의 사람들이 5만원 미만의 소액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부경험은 과반수 이상에 이르나 기부횟수나 금액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 ▷ 평균 기부액수는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직업으로는 전문자유직, 경영관리직, 자영업순으로,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기부처별 평균기부금액은 청소년단체, 환경단체, 공익민간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순으로 높았으나 기부총액은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신문방송사, 교육기관의 순으로 많으며, 정기적 기부보다는 비정기적 기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직장인들의 정기적 기부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 자원봉사 참여와 기부와의 관계를 보면, 2005년 조사결과에서 자원봉사자는 지난 1년간 평균 8.43회, 연평균 32만원을 기부 하였고, 비자원봉사자는 평균 6.51회, 연평균 14만원을 기부하여 회수 및 규모 모두에서 자원봉사 참여자가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자의 기부 회수와 규모는 3년 전에 비하여 증가추세이나 비자원봉사참여자의 기부 회수 및 규모는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 한편 기부경로를 보면 신문방송 등 언론사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부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다양한 기부경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 기부자와 비기부자 간의 기부에 대한 동기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기부를 촉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 마련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기부자의 78.4%가 비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외부 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들의 구조를 감안할 때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 기부자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VII. 정 책 제 언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성인 참여율이 2002년 16.3%에서 2005년 20.5%로 증가하였으나 활동시간은 주 평균 1.85시간에서 1.04 시간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선진국 수준(참여율 30%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활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주당 평균 3시간)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약속(Commitment)을 점점 더 기피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상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한다.

1. 자원봉사 가치 수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가장 좋은(열성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에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Dwight W. Mihalicz, Swee C. Goh,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Motivations and Behavior in Non-profit Organizations", J. Vol. Admin. XV(1), 19-27, 1996)

자원봉사의 가치를 믿어야 활동에 나서기도 쉽고 오래할 수도 있다. 이 가치가 지켜지고 실천되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려면 먼저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너무 바빠서' 자원봉사를 못한다는 사람(전체 조사자의 51.1%)의 가치관에서 자원봉사가 우선순위에서 상위가 될 때 이들은 자원봉사대열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자원봉사 가치를 수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실천 기회의 홍보 및 접근 용이성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과 평생교육, 가정교육, 직장교육, 종교교육 등 모든 교육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 정신이 가르쳐지고 활동기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TV 공익광고와 인터넷에 자원봉사 정신과 활동들이 보도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자원봉사 전문가와 TV 프로그램 전문가가 함께 제작한 것이어야 효과적일 수 있겠다.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가족, 부모 이외에도 존경인물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사회지도층의 참여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알리는 정책도 중요하다.

2. 자원봉사 단체 및 센터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강원, 부산, 경상 지역처럼 참여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높아야 한다. 현재처럼 일률적인 지원이나 오히려 잘하고 있는 구 센터에 더 많은 지원금(포상금)에 제공되는 경우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활동중단 이유 가운데 ‘가족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 상당수 있는 바, 돌보아야 할 가족이 어린이라면 선진국처럼 탁아서비스가 자원봉사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모임 활동이 지역의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보다는 주로 친목단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은 바로 이 분야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소모임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가운데 지역시민단체가 자원봉사참여(72.3%)가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풀뿌리단체 인큐베이팅과 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3.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와 중도탈락 방지(지속 활동 유지), 활동시간 증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본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 요인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어 보이며(예: 활동중단 이유와 지속성, 활동을 안 하는 이유, 불만족 이유 등), 모두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유능한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이 핵심 관건이며, 양성기관의 설립 운영 정책이 마련되고, 그러한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자원봉사자는 23.1%, 1개월 및 3개월 이내에 하겠다는 사람은 4%에 달하며 이들은 주로 20대 연령 계층이 많다. 그러므로 연령계층을 차별화 하여,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한 기회제공이 참여율 확대 전략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미 있는 여가’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부각된 만큼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의미는 물론 재미도 가미된 ‘신나는 자원봉사(Voluntainment)’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이 좀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교활동과 스포츠, 취미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바 이들이 자원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이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활동 지속의 중요한 이유가 ‘자신의 필요성 느낌’과 ‘새로운 시각’인 만큼 자원봉사활동이 의미 있고 자원봉사자가 도전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도록 단체와 센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빠서'임을 고려하여 바쁜 사람들이 짬을 내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확대되고 있는 직장인과 같은 바쁜 사람들이 짬을 내어 활동하도록 돕는 'Hands on Network'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도시부터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활동(Virtual Volunteering)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늘어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년 전과 대비하여 50대와 60대의 참여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점점 좋아지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더 많은 노인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재정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사회복지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확인서(인증서)의 필요성은 봉사자 가운데도 30%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확인서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불필요하다. 특히 자원봉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현행 '자원봉사 인증 시스템'은 자원봉사의 원칙인 무상성에도 어긋나고 개별 단체에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시행의 높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원봉사 인프라 강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의 역할과 접근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역할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37.4%)이나 어떻게 접근 또는 연락할 수 있는지는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자원봉사 참여경로에서 센터를 통한 참여는 불과 1.2%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센터에 접근 가능한 전화번호인 1365(1년 365일을 상징함)만 돌리면, 그 지역의 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아는 사람(자원봉사자 16.3%, 비자원봉사자 3.9%)이 적어서 소기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공익광고와 모든 관보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한편, 본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역 센터 설치가 오래된 곳은 이미 10년이 되었고 대부분의 센터가 5년 이상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보인다. 이는 아직 자원봉사 표준관리체계와 표준서비스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점과 이러한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센터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표준 관리 및 표준서비스 체계의 확립과 보급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센터의 직원 특히 소장과 간부직원의 선임은 퇴직 공무원 또는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노후 보장처로서 또는 자치단체장의 선거유공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검증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가 확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센터가 아무리 자원봉사 인프라의 핵심 조직일지라도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차원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하여 센터를 설립했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설립하고 보니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센터의 능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센터의 사명에 충실한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정기적으로 있어야 한다.

끝으로 중앙으로 집중되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 및 호주와 같은 자원봉사 선진국에서처럼 센터를 통하여 활동의 매개가 자유롭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활동처에서 자원봉사관리(시간관리 포함)가 쉽게 될 수 있는 보다 나은 전산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되려면 선진국에서 하였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자원봉사관리 전문가, 현장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

5. 기부문화의 확산

최근 기부규모의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금 액수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비록 세계공동모금회 차원의 기부수준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기아아동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아동기금(UNICEF) 기여도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기업기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결과 국민 1인당 기부액에서도 37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개인기부가 20%(세계 평균 69.5%)에도 못미칠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기업들의 기부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개인 참여를 확산시켜 기업의 지나친 의존성을 낮추어야 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 운동의 방향도 약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는 소극적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애용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6. 제도적 장치 구축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이 기꺼이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기업, 개인 월급 생활자 등 후원의 주체가 되는 각 계층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득공제 혜택 등은 기부를 생활화하는데 촉매가 될 것이다. 동시에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 강화하는 반면 “가짜 영수증” 남발로 기부자들의 선의를 무색하게 하는 부도덕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처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7. 다양한 기부 참여방안 모색

모금단체들은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문화에 대한 기부자들의 높아진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모금실적은 미미하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나다. 인터넷 기부의 경우 기부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기부한 프로젝트의 경과나 사후 보고를 Web페이지나 전자메일로 알려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결제수단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다면 인터넷 기부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김성경(1999), 「여성자원활동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노동부(2001),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 노동부(2003),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 불런티어21(2004), [불런테인먼트의 철학과 방향] 1차 세미나 자료집.
- Margariet-Marie Govaart의 엮음, 불런티어21(2002), 이강현 책임 번역 [세계의 자원봉사활동], 아르케
- 이강현, 김성경, 박윤애(1999), [’99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 현황], 불런티어21.
- 이강현, 김성경, 박윤애, 김문정(2002), [2002 한국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 현황 조사연구], 불런티어21.
- 이성록,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실과 과제”, 시민사회, 제16호, 2005 겨울호.
- 아름다운재단, 2004 기빙인덱스.
- 통계청(2001),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 _____(2002),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 _____(2004), [연령별 전국 추계인구]
-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2001), [한국자원봉사단체 현황 연구조사].
- Connors, R. D.(ed.)(1995), *The Volunteer Management Handbook*, John Wiley & Sons, Inc.
- Gann N.(1996), *Managing Change in Voluntary Organizations: A Guide to Practice*, Buckingham:Open Univ. Press
- Gillespie, D.F. & King, A.(1985), "Demographic Understanding of Volunteerism,"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2, pp.798~816.

- Hall, M., McKeown, L. & Roberts, K.(2001).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 Highlights from the 2000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Ottawa : Statistics Canada.
- Independent Sector(1996), *Giving and Volunteering 1996*.
- _____(1999), *Giving and Volunteering 1999*.
- _____(2001),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01*.
- Lammers, J.C.(1991), "Attitudes, Motives, and Demographic Predictors of Volunteer Commitment and Service Dura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4(3/4), pp.125~140.
- Mihalicz, Dwight W., Goh, Swee C.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Motivations and Behavior in Non-profit Organizations", J. Vol. Admin. XV(1), 19-27, 1996)
- National Volunteer Center & United Way of America(1990), *Volunteer Center Survey*.
- Points of Light Foundation(1993), *Volunteer Center Start-Up Kit*, Washington
- Salamon, L.M. et. al.(eds.)(1999), *Global Civil Society :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 Smith, J. D. & C. Rochester(eds.)(1995), *An Introduction to the Voluntary Sector*, Rodney Hedley.
- Smith, J. D.(1998), *The 1997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London : The National Centre of Volunteering.
- Time, Jan. 17, 2005, Special Edition, "The Science of Happiness"
- Active Communities: Headline Findings from the 2003 Home Office Citizenship survey <http://crimereducation.gov.uk/activecommunities68.htm>
- 2004 National Volunteerism Survey singapore
<http://www.nvpc.org.sg/resources/Survey2002/highlights.htm>
-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2004 <http://www.bls.gov/cps/>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Voluntary work, Australia
<http://www.abs.gov.au/Ausstats>
- <http://www.avso.org.hk/pub/index.ph>
http://www.worldvolunteerweb.org/dynamic/cfapps/doc_lib/doc_lib_nat_resch.cfm?StartRow=1
- <http://Volunteer21.org>(볼런티어21)
- <http://www.bokji.net>(한국사회복지협의회)
- <http://www.youthnet.re.kr>(한국청소년개발원)
- <http://www.kncsw.or.kr>(한국사회복지협의회)
- <http://www.kavc.or.kr>(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 <http://www.laborstat.molab.go.kr>(노동부)
- <http://ecos.bok.or.kr>(한국은행)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통계청)
- <http://user.chollian.net/~kcvo>(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 http://ns.kcue.or.kr/daeshayubhome/daeshayub_default.html(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http://www.Volunteerforum.org>(한국자원봉스포럼)
- <http://www.independentsector.org>(Independent Sector)
- <http://www.Volunteering.org.uk>(영국 전국자원봉사센터)
- <http://www.euro-Volunteer.org>
- <http://www.iave.org>(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부 록

1. 부 표

2. 면 접 지

부 표

<부표 I-1> 조사지역

		단위: 명(%)
구 분	빈 도	비 율
지역크기	대도시	787
	중·소도시	675
	읍/면	149
합 계	1,611	100.0

<부표 II-1> 조사대상자,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1개월자원봉사자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중 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성별					
남성	794(49.3)	140(42.3)	17.6	654(51.1)	69(39.9)
여성	817(50.7)	191(57.7)	23.4	626(48.9)	104(60.1)
연령					
20대	356(22.1)	71(21.5)	19.9	285(22.3)	22(12.7)
30대	405(25.1)	72(21.8)	17.8	333(26.0)	41(23.7)
40대	366(22.7)	92(27.8)	25.1	274(21.4)	53(30.6)
50대	212(13.2)	51(15.4)	24.1	161(12.6)	30(17.3)
60세이상	272(16.9)	45(13.6)	16.5	227(17.7)	27(15.6)
혼인상태					
미혼	377(23.4)	74(22.4)	19.6	303(23.7)	25(14.5)
기혼	1178(73.1)	248(74.9)	21.1	930(72.7)	143(82.7)
이혼/사별	56(3.5)	9(2.7)	16.1	47(3.7)	5(2.9)
학력					
중졸이하	281(17.4)	39(11.8)	13.9	242(18.9)	23(13.3)
고졸	711(44.1)	155(46.8)	21.8	556(43.4)	87(50.3)
대재이상	619(38.4)	137(41.4)	22.1	482(37.7)	63(36.4)
거주지역					
서울	368(22.8)	91(27.5)	24.7	277(21.6)	53(30.6)
부산	127(7.9)	13(3.9)	10.2	114(8.9)	5(2.9)
대구	82(5.1)	17(5.1)	20.7	65(5.1)	4(2.3)
인천	84(5.2)	18(5.4)	21.4	66(5.2)	9(5.2)
광주	45(2.8)	8(2.4)	17.8	37(2.9)	6(3.5)
대전	47(2.9)	8(2.4)	17.0	39(3.0)	5(2.9)
울산	34(2.1)	10(3.0)	29.4	24(1.9)	7(4.0)
경기	328(20.4)	70(21.1)	21.3	258(20.2)	34(19.7)
강원	52(3.2)	5(1.5)	9.6	47(3.7)	3(1.7)
충청	115(7.1)	26(7.9)	22.6	89(7.0)	12(6.9)
호남	135(8.4)	35(10.6)	25.9	100(7.8)	18(10.4)
경상	194(12.0)	36(9.1)	15.5	164(12.8)	17(9.8)
합 계	1611(100.0)	331(100.0)	100.0	1280(100.0)	173(100.0)

<부표 II-2>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직업

단위: 명 (%)

구 분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1개월자원봉사자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중 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직업					
농업/임업/어업	76(4.7)	16(4.8)	21.1	60(4.7)	10(5.8)
자영업	222(13.8)	48(14.5)	21.6	174(13.6)	27(15.6)
판매서비스직	201(12.5)	27(8.2)	13.4	174(13.6)	15(8.7)
기능·숙련공	91(5.6)	13(3.9)	14.3	78(6.1)	5(2.9)
일반작업직	66(4.1)	4(1.2)	6.1	62(4.8)	2(1.2)
사무기술직	329(20.4)	69(20.8)	21.0	260(20.3)	35(20.2)
경영·관리직	6(0.4)	1(0.3)	16.7	5(0.4)	1(0.6)
전문·자유직	7(0.4)	3(0.9)	42.9	4(0.3)	2(1.2)
가정주부	396(24.6)	95(28.7)	24.0	301(23.5)	56(32.4)
학생	128(7.9)	36(10.9)	28.1	92(7.2)	10(5.8)
무직	89(5.5)	19(5.7)	21.3	70(5.5)	10(5.8)
합 계	1611(100.0)	331(100.0)	100.0	1280(100.0)	173(100.0)

<부표 II-3>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한달총수입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1개월자원봉사자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중 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99만원 이하	163(10.1)	24(7.3)	14.7	139(10.9)	14(8.1)
100~149만원	182(11.3)	35(10.6)	19.2	147(11.5)	21(12.1)
150~199만원	220(13.7)	42(12.7)	19.1	178(13.9)	23(13.3)
200~249만원	300(18.6)	53(16.0)	17.7	247(19.3)	26(15.0)
250~299만원	193(12.0)	41(12.4)	21.2	152(11.9)	18(10.4)
300만원 이상	537(33.3)	133(40.2)	24.8	404(31.6)	69(39.9)
무응답			18.8	13(1.0)	2(1.2)
합 계	1611(100.0)	331(100.0)	100.0	1280(100.0)	173(100.0)

<부표 II-4>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종교단체 소속실태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중 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종교						
불교	402(25.0)	67(20.2)	16.7	336(26.2)	32(18.5)	
개신교	364(22.6)	106(32.0)	29.1	259(20.2)	51(29.5)	
가톨릭	171(10.6)	52(15.7)	30.4	119(9.3)	28(16.2)	
기타	2(0.1)	2(16.7)	16.7	2(0.2)	2(1.2)	
무교	662(41.1)	104(15.7)	15.7	564(44.1)	60(34.7)	
출석 정도						
거의 매주	366(38.6)	128(56.4)	38.6	423(33.0)	106(61.1)	
한달에 한두 번	170(17.9)	40(17.6)	17.9	230(18.0)	26(15.0)	
1년에 몇 번만	330(34.8)	51(22.5)	34.8	494(38.6)	35(20.4)	
전혀 안 간다	83(8.7)	8(3.5)	8.7	133(10.4)	6(3.5)	
합 계	1611(100.0)	227(100.0)	23.9	1280(100.0)	173(100.0)	

<부표 II-5>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

단위 : 명 (%)

단체유형	전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빈도(비율)	빈도(비율)	전체응답자 중 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봉사단체	56(3.5)	37(11.2)	66.0	5(1.5)	20(15.0)	
계모임	1017(63.1)	220(67.7)	21.6	205(62.0)	128(74.0)	
동창회	780(48.4)	191(58.0)	24.4	152(45.9)	102(59.5)	
지역 시민단체	46(2.9)	34(10.3)	73.9	3(1.0)	18(10.3)	
학교모임·학부모회	170(10.6)	68(20.2)	40.0	26(8.0)	43(24.9)	
직장관련단체	306(19.0)	83(25.1)	27.0	57(17.4)	49(28.9)	
전국 시민단체	29(1.8)	17(5.1)	58.6	3(0.9)	12(6.9)	
종교적가입단체	304(18.9)	120(36.3)	39.4	5(14.4)	6(36.4)	
정치조직·정당	18(1.1)	8(2.4)	44.4	3(0.8)	8(4.6)	
재향군인회	61(3.8)	18(5.4)	29.5	11(3.4)	8(4.6)	
노동조합	29(1.8)	10(3.0)	34.5	5(1.5)	3(1.7)	
스포츠·취미단체	332(20.6)	95(28.7)	28.6	61(18.5)	48(27.7)	
국민운동단체	47(2.9)	30(9.7)	63.8	4(1.1)	22(12.7)	
합 계	3195(100.0)	931(100.0)	42.4	504(100.0)	467(100.0)	

* 중복응답임.

<부표 II-6> 1년 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참가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소 속*	2005 참가정도							
		거의매주		한달 한두번		일년 몇번		참석않음	
		빈도(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봉사단체	37(11.2)	8	21.6	18	48.6	9	24.3	2	5.4
계모임	224(67.7)	19	8.5	154	68.8	48	21.4	3	1.3
동창회	192(58.0)	5	2.6	45	23.4	122	63.5	20	10.4
지역 시민단체	34(10.3)	4	11.8	19	55.9	11	32.4	-	-
학교모임·학부모회	67(20.2)	2	3.0	40	59.7	23	34.3	2	3.0
직장관련단체	83(25.1)	11	13.3	52	62.7	20	24.1	-	-
전국 시민단체	17(5.1)	2	11.8	10	58.8	4	23.5	1	5.9
종교적가입단체	120(36.3)	55	45.8	48	40.0	16	13.3	1	0.8
정치조직·정당	8(2.4)	3	37.5	1	12.5	3	37.5	1	12.5
재향군인회	17(5.4)	-	-	7	38.9	10	61.1	-	-
노동조합	10(3.0)	1	10.0	4	40.0	4	40.0	1	10.0
스포츠취미단체	95(28.7)	29	30.5	50	52.6	16	6.8	-	-
국민운동단체	32(9.7)	4	12.5	20	62.5	7	21.9	1	3.1
계	936	143	16.0	448	43.2	293	31.0	2.4	4.0

* 중복응답임. ** 1년간 자원봉사자 331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II-7>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참가정도

단위 : 명 (%)

구 분	소 속*	2005 참가정도							
		거의매주		한달 한두번		일년 몇번		참석않음	
		빈도(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봉사단체	26(15.0)	8	30.8	14	53.8	2	7.7	2	7.7
계모임	128(74.0)	15	11.7	84	65.6	26	20.3	3	2.3
동창회	100(58.0)	3	2.9	27	27.2	57	57.3	13	12.6
지역 시민단체	23(13.3)	4	17.4	14	60.9	5	21.7	-	-
학교모임·학부모회	43(24.9)	9	2.3	26	60.5	15	34.9	9	2.3
직장관련단체	50(28.9)	7	14.0	36	72.0	7	14.0	-	-
전국 시민단체	12(6.9)	1	8.3	8	66.7	13	25.0	-	-
종교적가입단체	63(36.4)	32	50.8	23	36.5	8	12.7	-	-
정치조직·정당	8(4.6)	29	37.5	10	12.5	30	37.5	10	12.5
재향군인회	8(4.6)	-	-	40	50.0	39	50.0	-	-
노동조합	3(1.7)	-	-	1	33.3	2	66.7	-	-
스포츠취미단체	48(27.7)	17	35.4	22	45.8	9	18.8	-	-
국민운동단체	22(12.7)	4	18.2	14	63.6	4	18.2	-	-
계	534	9.9	17.6	24.5	49.8	15.9	29.6	2.8	2.8

* 중복응답임. ** 1개월 자원봉사자 173명에 대한 비율임

<부표 Ⅱ-8>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과거 경험별
월간 평균 자원봉사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2005년		
	전 체	자원봉사자	비자원봉사자
개인경험			
심하게 아픈 경험	8.2	8.8	7.8
유사 봉사활동경험	8.5	8.5	*
극빈곤자 본 경험	8.5	9.3	5.8
빈곤 가정에서성장	8.7	11.1	7.8
사회변화 원했음	8.8	9.7	6.2
모금활동	8.5	16.7	7.6
친척/친구 관계 경험			
친구/친척의 아픔과 죽음	8.5	8.8	7.9
타인 도움받은 경험	8.4	9.0	7.8
가족의 이웃돕기 본경험	8.5	9.2	6.8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 본 경험	8.6	8.2	9.6
단체경험			
학생회 활동	8.5	13.4	7.0
종교단체 활동	8.2	8.1	8.3
청소년 단체소속	8.5	11.2	7.5

<부표 II-9> 지난 1개월간 자원봉사 활동영역

활동영역	활동내용 및 활동기관
보건의료기관	정신보건, 정신지체, 발달장애를 위한 일반의료기관 및 재활의료기관; 약물 오남용 치료·방지기관; 질병연구 및 공공교육기관; 병의원, 요양원, 호스피스, 위기상담, 전화상담서비스 등
교육기관	공·사립 초·중·고등교육기관; 도서관; 교육기관에서의 연구; 성인교육; 비공식교육
종교기관	종교관련기관, 영성훈련기관
사회복지기관 (대인서비스)	노인·장애인·종합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쉼터; 주거환경개선; 수양아이의 양육(양부모 역할); 가족상담; 소비자보호; 법률상담; 범죄 및 비행예방; 노숙자 돕기; 실직자 취업상담; 먹거리나누기; 공공안전; 위기대처 및 구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체육; 적십자활동, 공동모금회, 성공회 나눔의 집, 카톨릭사회복지회, 불교사회복지재단, 기독교사회복지재단 등
환경단체	생태계보호; 녹색가게; 쓰레기문제해결; 도시환경미화; 우리밀살리기운동; 야생동물보호; 유기농산물 생협운동 등
공익민간단체	사회개혁, 언론개혁, 지방자치, YMCA, YWCA, 여성운동, 인권보호, 시민권리 찾기운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대변활동(장애인, 여성, 아동, 어르신,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 주거권, 지역사회 생산자공동체, 자선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성인취미단체	요리, 꽃꽂이, 종이접기, 스포츠동호회 등 클럽회원활동
예술/문화/스포츠단체	건축, 디자인, 행위예술; 역사유적지 보호회; 박물관; 미술 전시; 오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진전, 극장; 공공TV와 라디오, 코치, 감독, 레크리에이션 등
노동조합,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농민단체, 신용조합, 변호사, 의사, 약사, 기술자 등 전문직종협회 등.
정치조직·정당	정당활동, 비당파적 정치 혹은 지역단체, 다른 정치적 목적의 단체들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보건소 등
청소년단체	YMCA 청소년사업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 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상담소, 지역청년회 등.
기업재단 및 민간재단	기업재단 및 기업 사회공헌팀 활동 등
국제기구	국제구호활동, 유네스코, KOIKA(국제협력단), UNDP, 교환학생 봉사프로그램,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등

<부표 Ⅲ-1> 자원봉사 참여동기(전체)

단위 : 명 (%)

구 분	중요동기		부수적동기		동기안됨		모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친구/동료 요청	440	27.3	873	54.2	270	16.8	28	1.7
사회 환원	434	26.9	779	48.4	353	21.9	45	2.8
고용주 장려	149	9.2	581	36.1	789	49.0	92	5.7
사회도덕성 강조	311	19.3	723	44.9	539	33.5	38	2.4
많이 가진 자의 의무	518	32.2	673	41.8	392	24.3	28	1.7
의미있는 여가로	443	27.5	736	45.7	406	25.2	26	1.6
다양한 경험의 기회	372	23.1	770	47.8	443	27.5	26	1.6
사회문제해결에 도움	385	23.9	792	49.2	401	24.9	33	2.0
도덕적 의무와 책임	384	23.8	775	48.1	424	26.3	28	1.7
종교적 신념	271	16.8	533	33.1	722	44.8	85	5.3
자기개발에 도움	131	8.1	550	34.1	859	53.3	71	4.4
자기 위로	156	9.7	597	37.1	797	49.5	61	3.8
부모·친척 권유	87	5.4	605	37.6	857	53.2	62	3.8

<부표 Ⅲ-2> 자원봉사의 참여동기(자원봉사자)

단위 : 명 (%)

구 분	중요동기		부수적동기		동기안됨		모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친구/동료 요청	129	39.0	160	48.3	41	12.4	1	0.3
사회 환원	101	30.5	153	46.2	70	21.1	7	2.1
고용주 장려	33	10.0	100	31.4	177	53.5	1	5.1
사회도덕성 강조	89	26.9	134	40.5	102	30.8	6	1.8
많이 가진 자의 의무	109	32.9	127	38.4	85	25.7	10	3.0
의미있는 여가로	129	39.0	145	43.8	55	16.6	2	0.6
다양한 경험의 기회	95	28.7	166	50.2	67	20.2	3	0.9
사회문제해결에 도움	112	33.8	139	42.0	72	21.8	8	2.4
도덕적 의무와 책임	109	32.9	145	43.8	74	22.4	3	0.9
종교적 신념	93	28.1	107	32.3	119	36.0	12	3.6
자기개발에 도움	31	9.4	106	32.3	180	54.4	129	3.9
자기 위로	44	13.3	120	36.3	153	46.5	12	3.6
부모·친척 권유	15	4.5	112	33.8	192	58.0	12	3.6

<부표 III-3> 자원봉사의 참여동기(비자원봉사자)

단위 : 명 (%)

구 분	중요동기		부수적동기		동기안됨		모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친구/동료 요청	311	24.3	713	55.7	229	17.9	27	2.1
사회 환원	333	26.0	626	48.9	283	22.1	38	3.0
고용주 장려	116	9.1	477	37.3	612	47.8	75	5.9
사회도덕성 강조	222	17.3	589	46.0	437	34.1	32	2.5
많이 가진 자의 의무	409	32.0	546	42.7	307	24.0	18	1.4
의미있는 여가로	314	24.5	591	46.2	351	27.4	24	1.9
다양한 경험의 기회	277	21.6	604	47.2	376	29.4	23	1.8
사회문제해결에 도움	272	21.3	653	51.0	329	25.7	26	2.0
도덕적 의무와 책임	275	21.5	630	49.2	349	27.3	26	2.0
종교적 신념	178	13.9	426	33.3	603	47.1	73	5.7
자기개발에 도움	100	7.8	443	34.6	679	53.0	58	4.5
자기 위로	113	8.8	476	37.2	642	50.2	49	3.8
부모·친척 권유	72	5.6	493	38.5	665	52.0	50	3.9

<부표 III-4> 사회적 사교활동

단위 : %

구 분	전 체				자원봉사자			
	시간 보냄	보내지 않음	모름	해당 없음	시간 보냄	보내지 않음	모름	해당 없음
부모·친척과 시간 보냄	96.5	2.2	0.2	0.9	97.6	1.5	0.2	1.0
이웃과 시간 보냄	80.3	17.8	0.7	1.2	85.8	11.8	0.9	1.5
친구들과 시간 보냄	86.3	12.8	0.8	0.4	88.5	10.0	1.2	0.3
직장/시민단체 친구와 교체	60.7	28.8	1.0	9.5	68.6	23.3	1.2	16.9
종교기관의 친구와 교체	36.8	45.2	0.5	17.5	55.6	31.1	0.3	13.0
사교시간(봉사/서비스기관)	20.3	63.5	1.5	14.8	65.3	26.0	3.0	5.7
운동/취미활동 친구와 교체	49.6	43.3	0.7	6.5	65.6	29.0	0.6	4.8
전체 경험	71.6	35.6	0.9	0.5	52.7	22.1	1.2	7.2

*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는 매주 혹은 거의 매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일 년에 몇 번이 모두 포함한 것임.

<부표 IV-1> 조사대상자, 기부자, 비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빈도 (비율)	기부자 중 빈도 (비율)	전체 응답자 중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794(49.3)	386(47.4)	48.6	408(51.3)
여자	817(50.7)	429(52.6)	52.5	388(48.7)
연령				
20대	356(22.1)	158(19.4)	44.4	198(24.9)
30대	405(25.1)	214(26.3)	52.8	191(24.0)
40대	366(22.7)	208(25.5)	56.8	158(19.8)
50대	212(13.2)	116(14.2)	54.7	96(12.1)
60세이상	272(16.9)	119(14.6)	43.8	153(19.2)
혼인상태				
미혼	377(23.4)	169(20.7)	44.8	208(26.1)
기혼	1178(73.1)	624(76.6)	53.0	554(69.6)
이혼/사별	56(3.5)	22(2.7)	39.3	34(4.3)
학력				
중졸이하	281(17.4)	113(13.9)	40.2	168(21.1)
고졸	711(44.1)	376(46.1)	52.9	335(42.1)
대재이상	619(38.4)	326(40.0)	52.7	293(36.8)
거주지역				
서울	368(22.8)	183(22.5)	49.7	185(23.2)
부산	127(7.9)	57(7.0)	44.9	70(8.8)
대구	82(5.1)	56(6.9)	68.3	26(3.3)
인천	84(5.2)	40(4.9)	47.6	44(5.5)
광주	45(2.8)	24(2.9)	53.3	21(2.6)
대전	47(2.9)	30(3.7)	63.8	17(2.1)
울산	34(2.1)	14(1.7)	41.2	20(2.5)
경기	328(20.4)	154(18.9)	47.0	174(21.9)
강원	52(3.2)	17(2.1)	32.7	35(4.4)
충청	115(7.1)	71(8.7)	61.7	44(5.5)
호남	135(8.4)	74(9.1)	54.8	61(7.7)
경상	194(12.0)	95(11.7)	49.0	99(12.4)
합 계	1611(100.)	815(100.)		796(100.)

<부표 IV-2>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의 직업

단위: 명 (%)

구 분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빈도 (비율)	기부자 중 빈도 (비율)	전체 응답자 중 비율	빈도 (비율)
직업				
농업/임업/어업	76(4.7)	37(4.5)	48.7	39(4.9)
자영업	222(13.8)	123(15.1)	55.4	99(12.4)
판매/서비스직	201(12.5)	98(12.0)	48.8	103(12.9)
기능/숙련공	91(5.6)	46(5.6)	50.5	45(5.7)
일반작업직	66(4.1)	26(3.2)	39.4	40(5.0)
사무/기술직	329(20.4)	181(22.2)	55.0	148(18.6)
경영/관리직	6(10.4)	5(0.6)	83.3	1(0.1)
전문/자유직	7(0.4)	6 0.7)	85.7	1(0.1)
가정주부	396(24.6)	203(24.9)	51.3	193(24.2)
학생	128(7.9)	48(5.9)	37.5	80(10.1)
무직	89(5.5)	42(5.2)	47.2	47(5.9)
합 계	1611 (100.0)	815 (100.0)	54.8	796 (100.0)

<부표 IV-3>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한달 총 수입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빈도 (비율)	기부자 중 빈도 (비율)	전체 응답자 중 비율	빈도 (비율)
99만원 이하	163(10.1)	70(8.6)	20.2	93(11.7)
100~149만원	182(11.3)	78(9.6)	42.8	104(13.1)
150~199만원	220(13.7)	112(13.7)	50.9	108(13.6)
200~249만원	300(18.6)	146(17.9)	48.6	154(19.3)
250~299만원	193(12.0)	100(12.3)	51.8	93(11.7)
300만원 이상	537(33.3)	302(37.1)	56.2	235(29.5)
합 계	1611 (100.0)	815 (100.0)	45.1	787 (100.0)

<부표 IV-4>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의 종교단체 소속실태

단위 : 명 (%)

구 분	전체	기부자		비기부자
	빈도 (비율)	기부자 중 빈도 (비율)	전체 응답자 중 비율	빈도 (비율)
종교				
불교	402(25.0)	196(24.0)	48.7	206(25.9)
개신교	364(22.6)	216(26.5)	59.3	148(18.6)
가톨릭	171(10.6)	101(12.4)	59.0	70 (8.8)
기타/무교	674(41.8)	302(37.1)	44.8	372(46.8)
합 계	1611 (100.0)	815 (100.0)	52.9	796 (100.0)
출석정도				
거의 매주	36 (38.6)	237 45.8)	64.7	238(29.9)
한달에 한두번	170(17.9)	88 (17.0)	51.7	151(19.0)
1년에 몇번만	330(34.8)	160(30.9)	48.4	314(39.4)
전혀 안간다	83 (8.7)	33 (6.4)	39.7	92 11.6)
합 계	1611 (100.0)	518 (100.0)	51.1	796 (100.0)

<부표 IV-5> 기부자와 비기부자의 과거 경험별 기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전 체	기부자	비기부자
개인경험			
심하게 아픈 경험	192.2	184.0	197.5
유사 봉사활동경험	194.5	253.5	124.2
극빈곤자 본 경험	196.3	212.3	156.3
빈곤 가정에서성장	196.3	229.0	185.0
사회변화 원했음	199.7	231.2	134.7
모금활동	192.9	292.4	184.1
친척/친구 관계 경험			
친구/친척의 아픔과 죽음	194.7	199.6	186.0
타인 도움받은 경험	192.6	185.0	198.5
가족의 이웃돕기 본경험	197.1	236.4	125.5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 본 경험	194.8	247.8	128.0
단체경험			
학생회 활동	190.2	232.0	176.0
종교단체 활동	191.7	240.6	164.3
청소년 단체소속	194.5	295.3	163.3

■ 도움주신 분들 ■

- 자문위원 광신숙 (자원봉사 애원 사무총장)
 김운호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선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편집 김환용 (월간 황해문화 편집장)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